

日韓聖公會宣敎協働20周年大會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20주년대회

歷史資料集      역사 자료집

1984年~2004年

日本聖公會 日韓聖公會宣敎協働20周年大會實行委員會  
일본성공회 일한성공회선교협동20주년대회실현위원회

## 目 次

あいさつ・・・	(日本聖公会首座主教 宇野徹)	・・・	1
・・・	(大韓聖公会管区長主教 丁哲範 ちょん・ちよるぼむ)	・・・	2
・・・	(20周年大会実行委員長 東京教区主教 植田仁太郎)	・・・	3
日韓聖公会公式協働20年を顧みて	(菊池邦杏)	・・・	4
日韓聖公会交流20周年をめぐって	(司祭 野村潔)	・・・	7
日本聖公会と在日韓国・朝鮮人	(司祭 宮嶋眞)	・・・	12
張準相牧師〔聖ガブリエル教会〕逮捕	〔司祭 宮嶋眞〕	・・・	24
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歩み	(呉光現 お・くあんひょん)	・・・	28
日・韓のはざまに立ちて	(今村秀子)	・・・	34
日韓交流感想文	・・・	43	
韓国と日本の距離・涙の連続	諸橋 佳 (川越基督教会信徒)		
韓国 信頼と祈りの旅	藤田 幸恵 (岡谷聖バルナバ教会信徒)		
飛鳥 日韓交流の故郷	森島 和子 (横浜聖アンデレ教会信徒)		
闇から光へ ―マツシロ地下壕の歴史を歩く― に参加して	高本 愛子 (尼崎聖ステパノ教会信徒)		
ハルモニの話しを自分の耳と心で聞きたい	呉屋淳子 (沖縄教区)		
第1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共同声明	・・・	49	
第1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名簿			
第2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	52	
第2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名簿			
第3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	55	
第3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名簿			
第4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	58	
第4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名簿			
第5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	61	
第5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名簿			
合同評価会報告書(1995年)	・・・	65	
合同協議会報告書(2000年)	・・・	66	
東京―ソウル青年交流最終報告書(日本側・1986年)	・・・	67	
東京―ソウル青年交流最終報告書(韓国側・1986年)	・・・	70	
(外国人登録法問題)決議文(日韓NCC協議会)	・・・	72	
日本のキリスト教会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問題」への取り組み(李清一)	・・・	73	
第10回外国人登録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共同宣言	・・・	84	
日韓聖公会20周年大会歴史年表	・・・	87	

목 차

인사말 -----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우노 토루 -----	1
----- 대한성공회 관구장주교 정 철범 -----	2
----- 대회 실행위원장 동경교구 주교 우에다 진타로 -----	3
일한성공회 공식협동 20년을 돌아보며(키쿠치 쿠니히로) -----	4
일한성공회 교류20주년을 둘러싸고(노무라 키요시 신부) -----	7
일본성공회와 재일한국·조선인 (미야지마 마코토 신부) -----	12
장준상목사 [성가브리엘교회] 체포 (미야지마 마코토 신부) -----	24
성공회 이쿠노센타의 발자취 (오광현) -----	28
일·한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마무라 히데코) -----	34
일한교류 감상문 -----	43
한국과 일본의 거리, 눈물의 연속 모로하시 케이(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신뢰와 기도의 여행 후지타 사치에(오카야성바르나바교회)	
아스카, 일한 교류의 고향 모리시마 카즈코(요코하마성안드레교회)	
어둠에서 빛으로 -마츠시로 지하호 역사 탐방- 에 참가하고	
타카키 아이코(오사카성스테반교회)	
할머니이 이야기를 내 귀와 마음으로 듣고싶다	
쿠레야 준코(오키나와교구)	
제 1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공동성명 -----	49
제 1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 명부	
제 2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	52
제 2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명부	
제 3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	55
제 3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명부	
제 4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	58
제 4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명부	
제 5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	61
제 5 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명부	
합동평가회보고서(1995년) -----	65
합동협의회보고서(2000년) -----	66
동경-서울교구 청년교류 최종보고서(일본측·1986년) -----	67
동경-서울교구 청년교류 최종보고서(한국측·1986년) -----	70
외국인등록법 문제 결의문(일한NCC협의회) -----	72
일본기독교의 재일한국·조선인 [문제] 실천(이청일) -----	73
제10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 공동선언 -----	84
일한성공회 선교협동 20주년 역사 년표 -----	87

## 「日韓聖公会宣教協働20周年大会開催にあたって」

日本聖公会首座主教 宇野 徹

1984年10月にソウルで「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開催され、日韓両聖公会が公式に交流するようになって、はや20年を経過致しました。この間、最初の10年間に5回のセミナーが開催され、過去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日韓の歴史を学ぶ中で日本と日本の教会が犯してきた罪や過ち、問題について気付かされると共に私達の教会に与えられた使命を明確されて来ました。特に、日本は過去における植民地支配だけでなく、現在においても依然として韓国・北朝鮮に対する差別、蔑視が行われていると共に在日の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蔑視もなされているという現状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事実に対して日本の教会が自分達に課せられた問題として積極的に、充分に取り組んで来なかったと言えます。私達はこの問題を今後、真摯に取り組んで行き、民族の違いを違いとして尊重し合いながら、共に生きる社会、世界を創造していきたいものであります。

また、1995年から今日に至るまでの10年間は、これからの日韓の教会を担う青年たちの交流がなされてまいりました。青年達の交流を通して更に日韓両国の理解が増し加わってきておりますし、個々の教区におきましても、聖職の留学や韓国聖公会聖職者の派遣等の具体的な交流がなされて来ました。日韓合同主教会も今回で4年間に3回開催されることとなり、両聖公会がますます交流と理解、学びを深め、福音宣教のために協力し合っていきたいものであります。今回の日韓聖公会宣教協働20周年大会において多くの良き実を結び、成功裡に終わ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この20周年大会を準備して下さった方々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한일 성공회 선교 협동 20주년 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일본성공회 관구장 주교 우노 토루

1984년 10월에 서울에서 「한일성공회 선교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일 성공회가 공식으로 교류하게 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처음 10년동안은 5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일의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과 일본의 교회가 저지른 죄와 잘못, 문제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에 있어서의 식민지 지배뿐만이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한국·북한에 대해 차별, 멸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 멸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본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충분히 임해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여, 민족의 차이를 차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10년간은, 앞으로의 한일교회를 담당할 청년들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있고, 각 교구에 있어서도 성직의 유학이나 대한성공회 성직자의 파견 등의 구체적인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한일 합동 주교회도 이번 모임으로 4년동안 3회 개최된 것이고, 양 성공회가 교류와 이해, 배움을 더욱 더 깊이 하여 복음 선교를 위해 서로 협력해 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일 성공회 선교 협동 20주년 대회를 통해 많은 좋은 결실이 맺혀지고, 또 성공리에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0주년 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あいさつ

大韓聖公会管区長 丁哲範 主教

まず韓日聖公会交流 20 周年を見守っ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しつつ、今日に至るまでお祈りとお力添えによって交流を守り続けてきたすべての方々の労苦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同時に交流 20 周年の歩みを振り返って発刊されるこの「韓日宣教協力 20 周年歴史資料集」のために関わったすべての方々の努力にも敬意を表します。

今回私たちが記念する大韓聖公会と日本聖公会との交流 20 周年は、1984 年 10 月 6 日から 10 日までソウルで開催された第 1 回韓日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基点とする歴史を指し示すものです。このとき、「相互理解」を主題としてお互いの歴史的眞実と宣教への理解とを通じて本格的な宣教協力の時代が開かれたのです。個人的に私もその時「両国人事交流の活性化」という最初の発題を通して、多様な形の韓日聖公会交流を提唱いたしました。

しかし、韓日聖公会交流の歴史の始まりは、それより 20 年前、即ち大韓聖公会の初代韓国人主教李天煥師が着任した 1965 年頃にさかのぼります。1960 年代初期までの韓日教会協議会(NCC)のメンバーとしての交流を経て、李天煥主教が日本聖公会訪問団を組織し訪日したことから正式交流が始まったのです。以降、大田教区の裴斗煥主教は日本聖公会九州教区と姉妹関係を結んで交流し、釜山教区の創立に伴い崔哲照主教は「釜山-東京プロジェクト」(Busan-Tokyo Project)を通じて東京教区の聖職たちが釜山教区へ来て直接牧会に参加するという発展をなしとげました。その結果、これらの交流の積み重ねを基にして、教区間の親善交流を越え本格的な宣教協力の時代を開いた 1984 年の第 1 回韓日宣教セミナーに至るといふ実りを与えられたと思います。

その間歳月は流れ、激変する新しい千年代、新しい 21 世紀の初頭である 2004 年に両国交流 20 周年を記念する行事を開くことになりました。相互理解を目指して始まった韓日聖公会の交流は、両国間の痛恨の歴史的桎梏と傷を越えて、キリストの愛のもとでより成熟した関係を探索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親善訪問と聖職の牧会交流、神学教育交流、青年交流、各種文化交流などさまざまな形で、人間的な理解を越えてキリストのもとでの宣教協力のパートナーになりました。

韓日聖公会両国は福音と神学の土台とを確かなものとして宣教協力を成し遂げて行かねばなりませんし、さらに東アジア聖公会の宣教協力と未来へのビジョンをうち立てて行くことにも共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あうパートナーにならね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このために大がかりなイベント的行事よりは、専門分野において少人数による深い交流協力が求められます。

韓日聖公会の交流 20 年を神様のみ助けとみ恵みによって過ごしてきたように、今回の記念大会を基点に、より忠実なキリストのパートナー関係が結ば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あらためて交流 20 周年行事に参加する方々と両国聖公会のすべての信者の上に神様の限りない祝福がありますよう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

2004 年 10 月 3 日

## 인사말

### 대한성공회 관구장 정철범 주교

무엇보다 먼저 한일성공회 교류 20주년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협력으로 지켜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류 20주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발간하는 이 역사 자료집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념하는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 교류 20주년은 1984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성공회 세미나를 기점으로 부터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상호이해>를 주제로 서로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선교이해를 통해 본격적인 선교협력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때 <양국간 신사교류의 활성화>라는 첫 발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한일성공회 교류를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성공회 교류의 역사는 그보다 20년쯤 거슬러 대한성공회 초대 한인주교이신 이천환 주교가 승좌한 1965년 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되던 한일교회협의회(NCC)의 교류를 넘어 이천환 주교께서 일본성공회 공식 방문단을 조직하여 정식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님은 일본 큐슈교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했고, 부산교구의 창립과 함께 최철희 주교님은 <부산-토쿄 프로젝트>

(Busan-Tokyo Project)를 통해 동경교구 사제들이 부산교구에 와서 사목에 직접 참여하는 발전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류의 밑거름이 교구간의 친선과 교류를 넘어서 본격적인 선교 협력의 시대를 여는 1984년 제1차 한일선교세미나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홀짝 세월은 흘러 급변하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21세기의 벽두인 2004년에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호이해의 차원에서 시작된 한일성공회의 교류는 이제 뼈아픈 양국간의 역사적인 질곡과 상처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친선 방문과 성직자의 목회교류, 신학교의 교류, 청년교류, 각종 문화교류 등의 형태를 통해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 주님 안에서 선교협력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한일성공회 양국은 복음과 신학적인 토대를 공고히 하여 선교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성공회의 선교협력과 미래적인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행사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소그룹 형태의 심화된 교류 협력이 요구됩니다.

한일성공회 교류 20년을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온 것처럼, 이번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더욱 보람된 그리스도의 동반자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교류 2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과 양국 성공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위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4년 10월 3일

## 日韓聖公会交流・協働二十周年に寄せて

日韓聖公会宣教協働20周年大会実行委員長  
東京教区主教 植田仁太郎

2004年10月、日韓両国の聖公会が、交流・協働の20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神様に感謝致します。

この資料集は、この20周年の記念プログラムを準備して下さった方々の一大労作です。また韓国語に翻訳して下さった方々の大変な努力の結晶でもあります。

当初は、この資料はもっと簡略なもの——記念プログラムの参加者が最低限知っておくべき両国の交流と協働の歴史の概要——として企図されました。しかし、日本聖公会側で資料を掘り起こし、また新たに執筆して下さった方々の熱意は、そのような簡略さを狙った意図を、はるかに越えるものでした。

日韓両国の聖公会の交流・協働の歴史をふり返る資料のつもりですが、量的には、在日コリアンの人々の抱えてきた（そして日本社会が与えてきた）問題と、どう取り組んできたかという部分が、多くなりました。しかしこの分野こそ、日本聖公会が、大韓聖公会との交流をとおして、歴史認識の深い反省を迫られ、その反省を具体的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教えられた分野だと思えます。

今から20年後に、このような資料集が出されるとしたら、そこにはどんな新たな出来事と分野が書き加えられる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また、この資料集がカバーしている20年を、大韓聖公会の方々が評価・反省したら、どのようなことが明らかになるのでしょうか。

この資料集のためにエネルギーを注いで下さっ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します。これを素材として、大韓聖公会との交流・協働によって与えられたものが、今、両国でどのように活かされているか、あるいは残念ながら活かされていないか——四日間の討議の中での検証に委ねたいと思います。



## 한일 성공회 교류·협동 20주년을 맞이하며

한일 성공회 선교 협동 20주년 대회 실행 위원장  
동경 교구 주교 우에다 진타로

2004년 10월, 한일 양국의 성공회가 교류·협동의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20주년의 기념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력의 성과입니다. 또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분들의 큰 노력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자료는 좀 더 간략한 것-기념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양국의 교류와 협동의 역사의 개요-으로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성공회 측에서 자료를 찾고, 또 새롭게 집필해 주신 분들의 열의는 기획의 의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성공회의 교류·협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료이지만, 양적으로는, 제일 한국인들이 안아 온 (그리고 일본 사회가 끼쳐 온) 문제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야말로, 일본 성공회가 대한성공회와의 교류를 통해 역사 인식의 깊은 반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졌고 그 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깨닫게 한 분야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이러한 자료집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사건과 분야가 추가될까요? 또 이 자료집이 담고 있는 20년을 대한성공회의 분들이 평가·반성한다면 어떠한 것이 밝혀질까요?

이 자료집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재로서 대한 성공회와의 교류·협동에 의해 주어진 것이 지금 양국에서 어떻게 살려지고 있는지. 또는 유감스럽게도 살려지지 못하는지-나홀간의 토의를 통한 검증에 맡기고 싶습니다.

## 日韓聖公会公式協働20年を顧みて

菊池邦杏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歴史は深く長い。けれども、近代の1910年から1945年までの36年間は、一方的な日本の強要により、朝鮮半島を植民地化した状態であった。日本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太平洋戦争は第二次世界大戦に拡がり、膨大な犠牲の上で、ようやく日本の敗戦によって終結した。その後朝鮮半島は日本から解放され独立したが、日本による植民地政策の影響を強く受け、南北朝鮮戦争を経て、南北に分断されたまま戦後を長く引きずってきた。第二次世界大戦後も20年以上経過して、ようやく日本政府と韓国政府の国交が公式に始まり、聖公会も同様に地域単位の交流が始まった。地道な下支えの中で日韓両国の聖公会の協働が芽生え、さまざまな経過を辿りつつ、1984年に公式な日韓聖公会の交流が始まった。

戦後、20年以上も聖公会において公式交流がなされなかったのはなぜだろうか。日本政府が朝鮮半島の南の部分である大韓民国とのみ日韓条約を締結した歪みが、そのまま日本国民の間に浸透し、日本聖公会の内部もその矛盾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言えないだろうか。不平等で、正当ではないとの批判をよそに1965年に日韓条約が締結された。その後、聖公会は個人的にも、また東京教区を始めいくつかの教区で日韓交流のプロジェクトが開始されていった。しかし、日本国内では1923年（大正12年）の関東大震災において6000人以上ともいわれる在日韓国朝鮮

人が虐殺された事件に代表されるように、韓国朝鮮人への偏見、差別、虐待、人権無視は甚だしいものがあつた。1980年代でも在日韓国朝鮮人約80万人の多くは本名を名乗れず、国籍を隠し、入学、就職、結婚にも不利な立場で思うに任せず、拒否されたり、アパートなどの住居を求めても「外人不可」、融資も韓国・朝鮮人には不可、国民年金は支給されず、税金だけは確実に徴収され、選挙権も無い、こうした状態が続いていた。特に、韓国・朝鮮人であることを明確に判別するために外国人登録法で指紋押捺を義務付け、差別と偏見を助長させる法律を執行して、日本政府は世界の中でも著しい人権無視の政策を取り続けた。

そうした世相の中で、日本聖公会は公式な日韓聖公会の宣教協働を目指し、1983年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準備委員会を発足させ、翌84年に韓国での公式な宣教セミナーを実現するに至った。そして、日本国民が韓国朝鮮と日本の歴史認識が不十分なように、同じく日本聖公会も歴史認識が不十分なまま、日韓聖公会の公式交流へと進めるのは相手国に失礼ではないか、日本側の日韓の歴史的総括無しでは、交流はありえない、という批判を受けることとなった。急遽、準備委員会は「在日韓国朝鮮人問題研修会」を大阪において実施することにして、84年6月に生野区の在日韓国朝鮮人多住地区を見て廻り、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の講演や証言を聞いて、少な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역사는 깊고 길다. 그러나, 근대의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6년간은 일방적인 일본의 강요에 의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상태였다. 일본에 의해 일어난 태평양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 방대한 희생끝에 간신히 일본의 패전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식민지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한국전쟁을 거쳐, 남북으로 분단 된 채로 전쟁후 오래도록 질질 끌려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20년 이상 경과해, 간신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국교가 공식으로 시작되어, 성공회도 또한 지역 단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착실한 뒷받침으로 한일 양국의 성공회의 협동이 싹트고, 여러 가지 경과를 거치면서, 1984년에 공식적인 한일 성공회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전쟁 후, 20년 이상이나 성공회의 공식 교류가 없었던 것은 왜일까. 일본 정부가 한반도의 남쪽인 대한민국과만 한일 조약을 체결 한 모순이, 그대로 일본국민들 사이에 침투하여, 일본 성공회의 내부에도 그 모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불평등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뒷전으로 1965년에 한일 조약이 체결 되었다. 그 후, 성공회는 개인적으로도, 또 도쿄 교구를 처음으로 몇몇의 교구에서 한일 교류의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1923년의 관동대지진에 있어 6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재일 한국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으로 대표되듯, 한국 조선인에 대한 편견, 차별, 학대, 인권 무시는 매우 심하였다. 1980년대에도 재일 한국 조선인은 약 80만명의 상당수는 본명을 대지 못하고, 국적을 숨겨, 입학, 취직, 결혼에 있어서도 불리

한 입장에서 생각할지 않게, 거부되거나 아파트 등의 주거에 있어서도 「외국인 불가」, 용자도 조선인에게서는 불가, 국민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세금만은 확실히 징수되어 선거권도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조선인인 것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법으로 지문 날인을 의무 부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 시키는 법률을 집행해, 일본 정부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현저한 인권 무시의 정책을 계속 취했다.

그러한 세태 중에서, 일본 성공회는 공식적인 한일 성공회의 교류를 목표로 해, 1983년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 준비위원회를 발족 시켜, 다음해 84년에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선교 세미나를 실현하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국민이 한국 조선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불충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성공회도 역사 인식이 불충분한 채로, 한일 성공회의 공식 교류로 진행하는 것은 상대국에 실례는 아닌가, 일본측의 일한의 역사적 총괄 없이는, 교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급히, 준비위원회는 「재일 한국 조선인 문제 연수회」를 오사카에서 실시하기로 하여, 84년 6월에 이쿠노구의 재일 한국 조선인이 많이 사는 지역를 둘러보고, 재일 한국 조선인의 강연이나 증언을 들으면서, 부족하나마 한일의 역사에 접하는 기회를 가져, 한일성공회 선교 세미나에의 배움을 준비하였다. 임시변통적인 배움으로 한일의 긴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는것이지만, 일단 한일양국의 공식교류인 「일한 성공회 선교 세미나」가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다.

그 개회 인사에서, 일본 성공회측의 세미나 준비위원장인 키가와다 이치로 주교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ながらも日韓の歴史に触れる時を持ち、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への学びの備えとした。付け焼刃的な学びで、日韓の長い歴史を理解するには程遠いものであったが、とりあえず日韓両国の公式な交流である「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10月にソウルで開かれた。

その開会挨拶の中で、日本聖公会側のセミナー準備委員長であった木川田一郎主教は「私たちは、これまでの韓国と日本の歴史を深く反省し、このセミナーは日本人が韓国の人々に対して犯した罪の赦しを願う懺悔の巡礼である」と位置づけられた。大韓聖公会側の代表者である金成洙主教は開会説教の中で「私たちが皆、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信仰によって神の御民になると、我ら皆、一つの兄弟姉妹であり、もっと進んで一つのからだの肢体である」と感謝しながら、「お互いに隣りあっている我らの教会が今まで公式的な協力関係を結ばないでいたのは、主の前では容赦できないこと」と悲しみを表明した。

ある在日韓国朝鮮人の方からの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始まったことについての感想が印象に残っている。「車のハンドルは、止まっているときにはうまく切れないものだが、車が動き出せば右にも左にもハンドルは切りやすくなる。日韓の問題も動き出さなければにっちもさっちも行かないでしょう。」

こうして、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は始まり、10年間で5回（ソウル2回、釜山1回、大阪1回、東京1回）のセミナーが実施された。

日本聖公会の各教区から代表者を送り、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重ねられた。植

民地支配を知らない若者から、戦争に従事した高齢者まで多くの信徒聖職が参加し研鑽を続けた。初めて出会う日韓の歴史に学ぶことが多く、懺悔の気持ちで一杯になるという感想がもたらされる中で、在日韓国朝鮮人問題は各教会には存在しない、実感が無いという声が出始めた。自分は差別はしていない、日韓の歴史や在日問題は社会問題であり、教会は社会問題に関与すべきではない、などの声が教会や個人の間でささやかれ始めた。だが実際には、聖公会関係学校での在日韓国朝鮮人学生の入学拒否があり、各教会に本名で韓国朝鮮人が在籍することは無かったが、通名（日本人名）でおられる方は沢山いた。しかも聖公会神学院のカリキュラムの中で臨床牧会訓練

(PCT)中に起きた在日韓国朝鮮人学生への差別発言は大きな問題となり、関係機関の猛省と新たな取り組みが課題となった。

これらの諸問題の象徴的なものとして、戦前から大阪生野地区に存在した、韓国朝鮮人会衆の聖ガブリエル教会の復興が日本聖公会の活動的な課題となった。第2回のセミナーでは早々と大韓聖公会から多額の献金が寄せられた。大阪教区から忘れ去られたように復興から疎外されていた聖ガブリエル教会と地域宣教の拠点としての生野センター、乳児保育園の建設は、日本聖公会の全教会の注目を集めた。管区をあげて祈り、献金が捧げられ、ついに1992年、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こひつじ乳児保育園は竣工の運びとなった。

大阪という在日韓国朝鮮人の多住地区での宣教活動が聖公会生野センターを中心に12年を迎え、隔ての壁が取り除かれると思われた昨今、衝撃的な悲しい事件がおき

역사를 깊게 반성하며, 이 세미나는 일본인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범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순례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대한 성공회측의 대표자인 김성수 주교는 개회 설교에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예수를 통한 신앙으로 하느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자매이며 한결을 나아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도, 「서로 이웃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슬픔을 표명했다.

어느 재일 한국인의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의 시작에 대한 감상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차의 핸들은, 멈추고 있을 때는 잘 꺾이지 않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핸들은 꺾기 쉬워집니다. 한일의 문제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요.」

이렇게,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는 시작되어, 10년동안 5회(서울 2회, 부산 1회, 오사카 1회, 도쿄 1회)의 세미나가 실시되었다.

일본 성공회의 각 교구로부터 대표자를 보내,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는 거듭되었다. 식민지 지배를 모르는 젊은이로부터, 전쟁에 종사한 고령자까지 많은 신자와 성직자가 참가해 연구를 계속했다. 처음으로 접하는 한일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참회의 기분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소감 가운데, 재일 한국 조선인 문제는 각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감할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은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일의 역사나 재일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등의 의견이 교회나 개인 사이에 은근히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회 관계 학교에 재일 한국 조선인 학생의 입학 거부

가 있고, 각 교회에 본명으로 한국 조선인이 재적하는 분은 없었지만, 일본인 이름으로 계시는 분은 많이 있었다. 게다가 성공회 신학교의 커리큘럼 중에서 임상목회 훈련중에 일어난 재일 한국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발언은 큰 문제가 되어, 관계 기관의 깊은 반성과 새로운 대처가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여러 문제를 통해, 전쟁 전부터 오사카 이쿠노 지역에 존재했던, 한국 조선인 신자교회인 성가브리엘 교회의 부흥이 일본 성공회의 활동적인 과제가 되었다. 제2회의 세미나에서는 일찌감치 대한 성공회로부터 고액의 헌금이 전해졌다. 오사카 교구로부터 잊혀진 듯이 부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성가브리엘 교회와 지역 선교의 거점으로서의 이쿠노 센터, 유아 보육원의 건설은 일본 성공회의 전교회의 주목을 끌었다. 관구를 통해 기도를 하며, 헌금이 바쳐져 마침내 1992년, 성가브리엘 교회, 성공회 이쿠노 센터, 어린양 유아 보육원은 준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사카라고 하는 재일 한국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이 성공회 이쿠노 센터를 중심으로 12년을 맞이하여, 막힌 담이 헐리었다고 생각하던 요즘, 충격적인 슬픈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납치사건을 계기로, 재일 한국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특히 지역주민이라 생각되는 이로부터 성공회 이쿠노 센터에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빨리빨리 돌아가라」라는 배외적인 말과 재일 한국 조선인 선교에 관련된 「후원회비는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분별없는 투서가 난데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교구별로 한일교류가 왕성하게 되어, 1994년부터 한일 성공회 청년의 교류는 10년을 맞이하며 서로 유학생도 증가하

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拉致事件をきっかけに、在日韓国朝鮮人への迫害があちこちで頻発しているが、特に地元民と思われる方から、聖公会生野センターへ匿名投書があった。それは「韓国へでも北朝鮮へでも、さっさと帰って」という排外的な言葉と在日韓国朝鮮人宣教に繋がる「後援会費なんて払いたくありません」という心無い内容であった。

教区別に日韓の交流が盛んになり、1995年から日韓聖公会青年の交流は10年を迎え、相互に留学生も増加し、あるいは姉妹教区としての日韓の協働は盛んになってきた。日韓聖公会の公式な協働が始まって20年が経ち、着実な相互理解と和解の上に交流が広がってきたが、しかし、日本社会は、日韓の歴史をまだ十分に理解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日本聖公会に属する人といえども、日本社会の一員であり、歴史認識の不十分さは否めない。過去の歴史的不幸の中で、悲しみ、苦難に喘いでいる韓国人や在日韓国朝鮮人が存在する限り、まだまだ、日韓両聖公会は協働しながら、相互理解に努め、学びの時は継続し、悲しむ方々と共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고, 혹은 자매 교구로서의 한일 협동은 빈번하게 되었다. 한일 성공회의 공식적인 협동이 시작된지 20년이 지나, 착실히 상호 이해와 화해를 통해 교류는 확대되었지만, 그러나, 일본 사회가 한일의 역사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성공회에 속하는 사람도 일본 사회의 일원이고, 역사 인식의 불충분함은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적 불행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재일 한국 조선인이 존재하는 한, 아직도 한일양성공회는 협동하면서, 서로 이해를 위해 힘쓰고, 배움은 계속하되,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 「日韓聖公会交流20周年」をめぐって

司祭 野村 潔

### I、はじめに

1984年に「第1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以下『日韓宣教セミナー』と略)がソウルにて開催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その内容と決定のプロセスに疑問をもった日本聖公会の信徒・教役者有志が『日韓セミナー』を考える会(以下『考える会』と略)を結成し、「大問題です!『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の危険性」(以下『大問題です!』と略)と題する問題提起を行なった。以来、私自身は日韓聖公会の「公式」交流プログラムにはほとんど関与してこなかったが、この『考える会』に名を連ね、当時、日韓宣教セミナーの開催に疑義を唱えた者の一人として、『考える会』が提起した課題を思い起しながら、日本と韓国の交流を振り返ってみたい。

しかし、20年前のことでもあり、記憶もすでに遠退いていることも多いので、多少、誤解している面もあるかも知れないので、反論、訂正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ある。

### II、『考える会』による『日韓宣教セミナー』への問題提起

『考える会』は、『日韓宣教セミナー』の開催について、『大問題です!』において、下記のように主に三つの課題を指摘している。

(1)「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侵略の歴史」に関して

1910年、日本が朝鮮半島を植民地化し、以来、36年間にわたる過酷な占領政策によって、多くの朝鮮人の生命、財産、人権、信仰等を奪ったことについては説明するまでもないが、問題は大多数の日本国民や他のキリスト教会同様、日本聖公会もこの侵略戦争に反対するどころか、多くの点で戦争協力を行ない、しかも聖戦として正当化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更に、戦後も、この歴史的な事実に向き合うことをせず、多大な犠牲と被害を与えたアジアの国々、とりわけ隣国である韓国・朝鮮に対して公式に反省も謝罪も表明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戦前・戦中の日本は天皇制絶対主義という国家体制の下で、アジアの国々を軍事侵略し、植民地支配を拡大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が、にもかかわらず、日本聖公会は、戦後も祈祷書の中に、そのような天皇・皇室を賛美する内容をもつ「天皇・皇室のための祈り」を掲げ続けてい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或いは日本聖公会が朝鮮に対して行なった犯罪行為に、直接間接に加担協力していながら、そして、そのことについて真摯な反省もないまま、いったいどのような交流をしようというのだろうか、というのが、『考える会』の率直な疑問であった。

(2)「日本社会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の被差別被抑圧状況」に関して

36年間にわたる日本の朝鮮半島支配に



I. 시작하며

1984년에 「제1회 한일 성공회 선교세미나」(이하「한일 선교 세미나」로 생략)가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었지만, 그 내용과 결정과정에 의문을 느낀 일본 성공회의 신자와 교역자들이 「『한일 선교 세미나』를 생각하는 모임」(이하「생각하는 모임」으로 생략)을 결성하여, 「큰 문제입니다!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의 위협성」(이하「큰 문제입니다!」로 생략)을 제기하였다. 이후, 나 자신은 한일 성공회의 「공식」교류 프로그램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 「생각하는 모임」에 함께 하며, 당시 한일 선교 세미나의 개최에 의의를 주창한 한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모임」이 제기했던 과제를 상기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돌아보고 싶다.

그러나, 20년전의 일이기도 하고, 기억속에서도 멀어진 것도 많고 해서, 다소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반론, 정정해주면 좋겠다.

II. 「생각하는 모임」에 의한 「한일 선교 세미나」에의 문제 제기

「생각하는 모임」은 「한일 선교 세미나」의 개최에 대해서, 「큰 문제입니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역사」에 관해서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이후, 36년간에 걸쳐 과혹한 점령정책으로 인해 많은 조선인이 생명, 재산, 인권, 신앙들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일본국민이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성공회도 이 침략전쟁을 반대하기는커녕 많

은 점들에 있어 전쟁에 협력하였고, 게다가 성전(거룩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했다고 하는 점이다. 게다가 전쟁 후에도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준 아시아의 나라들, 특히 이웃나라인 한국·조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성도 사죄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전·전시중의 일본은 천황제 절대 주의라고 하는 국가 체제아래에서, 아시아의 나라들을 군사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확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성공회는, 전쟁 후에도 기도서에 그러한 천황·황실을 찬미하는 내용인 「천황·황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혹은 일본 성공회가 조선에 대해서 행한 범죄 행위에, 직접 간접에 가담 협력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는 채로, 도대체 어떠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생각하는 모임」의 솔직한 의문이었다.

(2)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피차별 피억압 상황」에 관해서

36년에 걸친 일본의 한반도지배에 있어, 특히 15년 전쟁 때에는 일본국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 연행하여 각지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보냈다. 패전 때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의 수는 200만 명이라고 전해진다. 현재, 재일 한국·조선인은 약 60만명 또는 7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연행된 사람들과 그 자손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상당수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들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

において、ことに15年戦争下では、日本国内での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多くの朝鮮人を強制連行して、各地の鉱山や工場などに送り込んだ。敗戦時に、日本にいた朝鮮人の数は二百数十万人と言われている。現在、在日韓国・朝鮮人は、約60万人とも70万人とも言われているが、その多くは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人々とその子孫である。

在日韓国・朝鮮人の多くは、このような経緯で日本に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しかも彼らの多くが日本で生まれ育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様々な差別抑圧的な状況に置かれてきた。たとえば彼らには「外国人登録法」によって外国人登録証に指紋押捺（現在は撤廃されている）や常時携帯などが義務づけられており、実行しないと刑事罰を課され、場合によっては強制退去などに課せられてきたのである。更には、年金や保険など社会保障制度への加入の問題、就職、結婚、アパートの入居などをめぐっても、様々な差別が生じている。

1970年代から、こうした在日外国人、とりわけ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や偏見を取り除こうとする市民運動が盛んになってきており、この運動には多くの市民とともに聖公会の信徒・教役者も参加してきたが、しかし、今回の『日韓宣教セミナー』の開催に際して、主催者側には、残念ながらこうした運動を担っている人々と協力、連携をしようとする動きはなかった。

### (3)「戦後から現在に至る日韓及び日朝の関係の歪み」に関して

1945年、日本の敗戦によって朝鮮半

島は解放されるはずが、結果的に米ソ2大国によって朝鮮半島は南北に分断されてしまう。1950年から始まった朝鮮戦争は、まさに東西の利害を代表した形で、親子、兄弟が南北に別れて血を流し合うという悲劇を生み出した。この戦争は、今尚、多くの韓国・朝鮮人に対して深い悲しみと耐え難い傷を与えている。朝鮮戦争は1953年に停戦となるが、東西冷戦構造の中で、この南北分断は固定化され、現在もその状態が続いている。

日本の植民地支配の結果として、南北分断が生じたのであるから、日本は、どこよりも朝鮮半島の平和統一について積極的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はず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1965年、日本は韓国との間に「日韓基本条約」を結び、戦後初めて国交回復をした。この単独講和に関しては、アメリカの強い意志が働いていた。当時、アメリカはベトナム戦争で消耗しており、日米韓の同盟関係を強化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及び共産圏の脅威に対抗しようとした。しかし、分断され、敵対する二つの国の一方と国交を結ぶということは、更に分断を固定化するだけで、むしろ平和統一の道を妨げることに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った。しかも、今日に至るまで日本は北朝鮮に対しては戦後賠償を放棄しており、在日朝鮮人の在留資格など法的地位に関しても、明らかに不安定な状況に置いてきたと言える（在留資格は1991年に特別永住に一本化）。こうした日本の姿勢が南北の統一をより困難なものにしているのであり、今日、取り沙汰されている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も結びついているのである。

별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지문 날인(현재는 철폐되었다)의 강요, 상시 휴대 등이 의무화되어, 실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되어 강제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연금이나 보험등 사회보장제도에의 가입, 취직, 결혼, 아파트 입주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차별이 생기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재일 외국인, 특히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려고 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많은 시민과 함께 성공회의 신도·성직자도 참가해 왔지만, 이번 「한일 선교 세미나」의 개최에 있어서 주최자 측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 제휴하려 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 (3) 「전쟁 후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및 북일의 관계의 문제점」에 관해서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는 해방되었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버렸다.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 전쟁은, 확연히 동서의 이해를 대표했던 형태이며 부모와 자식, 형제가 남북으로 헤어져 피를 서로 흘리는 비극을 낳았다. 이 전쟁은 지금도 많은 한국·조선인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참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되지만, 동서 냉전 구조 속에서 이 남북 분단은 고정화되어 현재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남북 분단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한일 기본 조약」을 맺고, 전쟁 후 처음으로 국교 회복을 했다. 이 단독 담화에 관해서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

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이어서 한·미·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및 공산권의 위협에 대항 하고자 했다. 그러나, 분단되어 적대관계인 두 나라 중 한 쪽과 국교를 맺는다는 것은 더욱 분단을 고정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 통일의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것은 분명했다. 게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후 배상을 포기 한 채여서, 재일 조선인의 재류 자격 등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분명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재류 자격은 1991년에 특별 영주로 일원화). 이러한 일본의 자세가 남북의 통일을 보다 곤란한 것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과도 관련된 것이다.

그 반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한일 양국의 NCC를 비롯한 기독교인 사이에 시작되고 있어, 80년대에는 WCC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선교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시의 일본 성공회는, 어떻게 관계 맺으며 한일의 교류를 진행시키려 했었던 것일까.

이상, 「큰 문제입니다!」가 지적하는 세계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생각하는 회」에서는, 일본 성공회가,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거의 대처하지 않았었음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인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대의 나라의 사람들이 걸어온 역사나,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과제에 대해 인식과 관심이 없이 어떤 「선교 협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적어도, 당초, 「한일 선교 세미나」를 계획한 일본 성공회 측에는, 이러한 역사 인식과 선교적 과제에 대한 충실한 대처가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양국성공회의 교류의 재개에 있

その一方で、朝鮮半島の平和統一という課題については、すでに1970年代から日韓両国のNCCをはじめキリスト者有志の間で始められており、80年代にはWCCが朝鮮半島の統一問題を宣教課題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このような動きに、当時の日本聖公会は、どのように関わりながら日韓の交流を進めようとしていたのだろうか。

以上、『大問題です！』が指摘している三つの課題を概観したが、『考える会』では、日本聖公会が、こうした課題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組んでこなかったことを指摘した上で、公式な交わりを開始しようとしている相手の国の人々が歩んできた歴史や、今まさに直面している社会的な課題に対する認識と関わりないところで、どのような「宣教協働」をしようとするのかという問いかけを行なったのである。

少なくとも、当初、『日韓宣教セミナー』を計画した日本聖公会側には、こうした歴史認識と宣教的課題に対する地道な取り組みが欠けていたことは否めない。と同時に、両国聖公会の交わりの再開に際しては、それまでの歴史的な経緯からも、少なくとも戦争責任に関する姿勢を日本聖公会として明確にしておく必要があったはずである。手続き的にも、最低限、日本聖公会の総会を経て全教区的な理解を得ながら計画を推進することが、殊に歴史的に信頼を損ねてきた韓国に対する礼儀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しかし、そのようなプロセスを省いたため、結果的に『日韓宣教セミナー』には全教区からの参加者も得られず、参加者も必ずしも教区を代表していたわけでもなく、

日本聖公会側は「管区」としての実態を伴っていなかった。

『第1回日韓宣教セミナー』では、最終日に「共同声明」を発表し、日本聖公会はこれまでの「罪を懺悔し、深く陳謝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が、『考える会』が指摘したことは、実態として日本聖公会を代表していない人々がいくら懺悔し、陳謝しても日本聖公会としての態度表明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と、結果的に「共同声明」がその場限りのもので、具体的内容を伴わない美文に終わ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惧であった。

しかし、この時の『日韓宣教セミナー』の報告書を読むかぎり、かなりの部分で『考える会』の指摘を積極的に受けとめつつある様子が散見され、また、共同声明の中でも、『考える会』が指摘した三つの課題についてすべて触れられていた。その意味では、『考える会』が問題提起したことも無駄ではなかったのかも知れない。

他方、この『日韓宣教セミナー』を皮切りに日韓の交流を始めようとした1980年代というのは、韓国の民衆による民主化運動が盛んに行なわれた時代でもある。報告書には、あまりその点が触れられていないので、簡単に触れておきたい。

### Ⅲ、韓国の民主化運動と日韓協働

1961年の軍事クーデターによって実権を得た朴正熙政権は、急激に軍事独裁化を強め、反共イデオロギーによる国家管理体制を整えていった。それを支えたのはKCIA（韓国中央情報部）である。朴正熙大統領はKCIAを使って過酷な恐怖政治を行なった。政府や軍部を批判すれば、国

어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경위에 있어서도 적어도 전쟁책임에 관한 자세를 일본성공회로써 명확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순서적으로도 최소한 일본성공회의 총회를 거쳐 전 교구의 이해를 얻으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특히 역사적인 신뢰를 잃은 한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일 선교 세미나」에는 전 교구로부터의 참가자도 얻을 수 없었고, 참가자도 반드시 교구를 대표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일본 성공회 측은 「관구(일본성공회 전교구)」로서의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제1회 한일 선교 세미나」에서는, 마지막 날에 「공동성명」을 발표해, 일본 성공회는 지금까지의 「죄를 참회하고 깊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하는 회」가 지적했던 것은, 실제로 일본 성공회를 대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참회하고, 사죄해도 일본 성공회로서의 태도 표명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공동성명」이 그때뿐만의 것으로, 구체적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미화된 문서로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였다.

그러나, 이 때의 「한일 선교 세미나」의 보고서를 읽는 한, 상당한 부분에서 「생각하는 모임」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공동성명에서도, 「생각하는 모임」이 지적한 세계의 과제도 모두 다루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하는 모임」이 문제 제기한 것도 쓸데없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이 「한일 선교 세미나」를 처음으로 한일의 교류를 시작하려 했던 1980년대는 한국의 민중에 의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보고서에는, 별로 다루어져 있지 않기에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 Ⅲ,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한일 협동

19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실권을 얻은 박정희 정권은, 급격하게 군사 독재화를 강화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가관리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을 지지했던 것은 KCIA(한국중앙정보부)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KCIA를 이용해 지나치게 가혹한 공포정치를 행했다. 정부나 군부를 비판하면, 국가 반역죄 용의나 공산주의자의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보통 다반사였다.

1970년대에는, 노동 운동도 활발해져 학생이나 교회에 의한 반정부 운동도 활발해지지만, 한편 많은 민중이 탄압되었다. 제일 한국·조선인의 유학생들이, 차례로 스파이 용의로, 즉 정치범으로서 체포되었던 것도 이 시대이다.

일본의 NCC에 관련된 교회 지도자나 대학 관계자, 그리고 학생 운동의 리더들은, 이 시기에 정치범으로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구원 활동을 열심히 행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979년에, 박대통령은 암살되지만, 뒤를 이은 것은 전두환 정권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1980년 5월에는, 이른바 광주 사건이 일어난다. 광주 시내에서 파견된 군대에 저항했던 학생, 노동자, 시민 등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대는, 전두환 정권에 의한 정치 활동의 금지 등, 대단히 억압적인 상황이었지만, 한편, 민주화 운동도 상당히 고조되었던 시대이다.

그리고 성공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도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그래서 1987년에, 한 학생의 고문에 의한 죽음을 계기로 전국적인 항의가 일어나, 6월 10일부터 20일 사이, 성공회의 서울대성당을 중심으로 데모대가 도로를 채웠다. 이것이

家反逆罪の容疑や共産主義者の嫌疑によって逮捕され、拷問されたりすることは日常茶飯事だった。

1970年代には、労働運動も盛んになり、学生や教会による反政府運動も盛んになるが、しかし、その一方で多くの民衆が弾圧された。在日韓国・朝鮮人の留学生たちが、次々にスパイ容疑で、つまり政治犯として逮捕されたのもこの時代である。

日本のNCCに連なる教会指導者や大学関係者、そして学生運動のリーダーたちは、この間熱心に、政治犯として逮捕され、拘禁されている人々の救援活動を行なった。しかし、そのため、多くの人々が韓国への入国ビザを受けられなくなった。

1979年に、朴大統領は暗殺されるが、後を継いだのは全斗煥政権である。1980年代に入ると民主化運動が、更に盛んになり、1980年5月には、いわゆる光州事件が起こる。光州市内にて派遣された軍隊に抵抗した学生、労働者、市民など数千人が殺されるという事件が起こった。1980年代は、全斗煥政権による政治活動の禁止など、きわめて抑圧的な状況があったが、他方、民主化運動も非常に盛り上がった時代である。

そして聖公会を含む多くの教会もまた民主化運動を支援した。そして1987年に、一人の学生の拷問死をきっかけに全国的な抗議が起こり、6月10日から20日迄の間、聖公会のソウル大聖堂を中心にデモ隊が道路を埋めつくした。これが6月民主化大抗争と呼ばれる運動であり、この運動がきっかけとなり全斗煥政権は崩壊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日韓宣教セミナー』が始

まった20年前は、韓国はまさに激動の時代であった。問題は、日本政府はこうした朴正熙から全斗煥に続く軍事独裁政権を一貫して支えてきたことである。韓国において、多くの学生、労働者、市民が軍事独裁政権と激しい闘いをしているとき、日本聖公会は、韓国の民主化運動に対してど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のだろうか。そして日本聖公会は、その闘いにどのように具体的に連帯しようとしていたのだろうか。

#### IV、今後に向けて

様々な批判にさらされながら始まった『日韓宣教セミナー』であったが、20年間にわたる両国聖公会の交流によって、確かに少しずつお互いの理解が深まってき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ことである。1995年に日本聖公会各教区からの代表やアジアの国々からの参加者も得て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が開催され、戦争責任にも触れた「宣言」を採択したが、この協議会には、『考える会』のメンバーや『日韓宣教セミナー』の参加者も多数参加し、「宣言」の作成に貢献した。ずいぶんと遅きに失した感はあるが、こうした動きが、翌年1996年に開催された日本聖公会第49（定期）総会における「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の決議に結びついたことは確かである。

しかしながら、『考える会』の指摘にもあったように、日本と韓国との関係は歴史的、政治的、経済的に非常に深く、そして、決して切り離せない特別な間柄にある。日韓聖公会の公式の交流が20周年を迎えるのだが、二度と戦前、戦中と同じ誤り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基本的には未来永劫、

6월 민주화대항쟁으로 불리는 운동이고, 이 운동이 계기가 되어 전두환 정권은 붕괴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선교 세미나」가 시작된 20년 전은, 한국은 격동의 시대였다. 문제는,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박정희로부터 전두환에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권을 일관 해 지지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 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일본 성공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일본 성공회는, 그 투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대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 IV, 이후

여러 비판 속에서 시작된 「한일 선교 세미나」였지만, 20년동안의 양국 성공회의 교류에 의해, 확실히 조금씩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1995년에 일본 성공회 각 교구로부터의 대표나 아시아의 나라들의 참가자도 함께 한 일본 성공회 선교 협의회가 개최되어 전쟁 책임도 다루어진 「선언」 채택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생각하는 모임」의 멤버나 「한일 선교 세미나」의 참가자도 다수 참가하여, 「선언」의 작성에 공헌했다. 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1996년에 개최된 일본 성공회 제 49(정기) 총회에서 「전쟁 책임에 관한 선언」의 결의에 결부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모임」의 지적에 서처럼,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깊고,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한일 성공회의 공식 교류가 20주년을 맞이하지만, 두 번 다시 전쟁전, 전시중과 같은 잘못을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장차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지금과 같은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 교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 성공회가 행하고 있는 선교 활동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일본 성공회는 아직도 배울 필요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빈민활동인 「나눔의 집」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살림의 집」 등 독특한 활동에서 배울 점은 많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나눔이나 협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의 「한국」안에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분단 상황을 낳은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전쟁 책임의 나아가야 할 바는 한반도의 모습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일의 교류의 최대의 선교 과제는, 남북의 평화 통일에의 공헌이지 아닐까? 앞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향해, 한일 성공회의 구체적인 협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教会が続くかぎり、今のような関係が続け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国際交流は、お互いに影響を与えあうということが大切だと思う。今、大韓聖公会が行なっている宣教活動の多様な働きについて、日本聖公会はまだ学ぶ必要が多いと思う。

とりわけ、ホームレスの支援活動である「分かちあいの家」や移住労働者を支援する「シャロームハウス」などユニークな働きから学ぶ点は多い。今後、こうした具体的な働きに関する分かちあいや協働が、各地で起こってくることを期待したい。

そして更に大切なことは、「日韓」の「韓」の中に朝鮮半島全体を含むような視点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なぜなら、現在の分断状況を生み出したのは日本の植民地支配の結果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人の戦争責任の行き着く先は朝鮮半島の姿を日本の植民地支配以前の状態に戻すことではないかと思う。日韓の交流の最大の宣教課題は、南北の平和統一への貢献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今後は朝鮮半島の平和統一に向けて、日韓聖公会の具体的な協働プログラムにす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う。





## 「日本聖公会と在日韓国朝鮮人」

司祭 宮嶋眞

### (1) 前史

#### ■目白聖公会と在京朝鮮人伝道

第2次大戦前、下関、大阪、東京などで、日本聖公会の教会の働きとして、朝鮮人のための礼拝、集会が行われていました。記録が十分には残されていません（そのこと自体ひとつの問題であるとも言えます）が、その一つに、東京目白聖公会での働きがあります。同教会「目白教報」によれば、1930年奉仕的事業として、在京朝鮮聖公会信徒の司牧援助のため、朝鮮聖公会から、趙(チョウ)ヨンホ副補祭を受け入れ、5月8日、初の朝鮮語礼拝が行われました。朝鮮聖公会トロロップ主教の要請を、目白聖公会佐々木鎮次長老(司祭)が個人の責任で引き受けて実現したものです。この働きは一年継続し、趙師の帰国によって終了しました。

次に、唯一、在日韓国朝鮮人の教会として戦前戦後を生き抜いてきた現大阪教区聖ガブリエル教会の歩みを証言や資料からたどりながら、日本聖公会と在日韓国朝鮮人との関わりを見ることにします。

#### ■張準相師の献身

朝鮮人、張準相(チャン・ジュンサン)幼名、張萬石(マンソク)、また張仁植(インシク)は1900年11月4日に、韓国忠清南道(チュンチョンナムド)、公州(コンジュ)郡公州面(ミョン)、草鳳里(チョボンリ)で生まれました。1916年ソウル中央高

等普通学校を卒業後、経済学を学んで祖国の発展に貢献しようと来日、奈良県郡山中学入学。のち、東京の立教中学、同大学予科へ進学しました。

1919年、日本の植民地支配に抵抗して韓国全土に起こった三・一独立運動へ参加するために韓国へ帰国し、そこで官憲に約6ヶ月のあいだ拘留されました。結局無罪となって放免され、その後日本へ戻りました。

1923年張師は、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事件に遭遇しました。このとき、奈良基督教会の吉村大次郎長老によって生命の危機を救われました。このような朝鮮人同胞の苦難の現状を自らも体験した張師は、同胞の靈魂の救いを求めて働くことを決意しました。彼はすぐさま、福岡にあった聖三一神学校に入学します。1925年同神学校を卒業し、大阪の堺聖テモテ教会に伝道師として勤務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 ■柳原吉兵衛氏の働き

この堺聖テモテ教会には、柳原吉兵衛氏がいました。大和川染工所の経営者として、また熱心な聖公会の信徒として彼は、事業のうえでも、宣教の上でも大きな足跡を残しました。特に、自分の工場も含め、大阪南部堺市における朝鮮人女工受け入れや、彼女たちに対する教育活動(夜学)、伝道活動を積極的に行いました。当時の大阪教区報「恩寵」には、堺聖テモテ教会の消息欄に柳原吉兵衛氏の活動が多数報告されてい

## 「일본 성공회와 제일 한국 조선인」

사제 미야지마 마코토

### (1) 머릿글

#### ■메지로 성공회와 동경에 사는 조선인 전도

제2차대전 전, 시모노세키, 오사카, 도쿄 등에서, 일본성공회 교회의 사역으로서 조선인을 위한 예배, 집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충분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인 동경 메지로 성공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메지로 교보」에 의하면, 1930년 봉사적 사업으로서 동경에 사는 조선성공회 신자의 목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성공회로부터 조용호 부제를 받아들여 5월 8일, 최초의 한국어예배가 행해졌습니다. 조선성공회 트로롭프주교의 요청을, 메지로 성공회 사사키신지 사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받아들여 실현된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일년동안 계속되었고, 조부제님의 귀국에 의해 이 계획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일한 제일 한국 조선인 교회로 전쟁 전후를 살아남아 지킨 현재의 오사카 교구 성가브리엘 교회의 발자취를, 증언과 자료들을 더듬어 보면서, 일본성공회와 제일 한국 조선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 장준상씨의 헌신

조선인, 장준상(아명, 장만석) 그리고 장인식은 1900년 11월 4일에, 한국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초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16년 서울 중앙고 보통학교를 졸업 후, 경제학을 배워 조국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일본에 와서, 나라현 코오리야마 중학에 입학 후에, 도쿄의 릿교 중학, 릿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91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한국 전역에 일어난 3·1 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하여, 거기서 관현에 약 6개월간 구류되었습니다. 결국 무죄로 방면되어 그 후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1923년 장선생님은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때, 나라 기독교회의 요시무라 다이지로 우 장로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인 동포의 고난의 현상을 스스로도 체험한 장선생님은 동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일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는 곧 바로, 후쿠오카에 있던 성삼일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25년 신학교를 졸업해, 오사카의 사카이 성디모데 교회에 전도사로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야나기하라 요시효에 씨의 사역

사카이 성 디모데 교회에는 야나기하라 요시효에 씨가 있었습니다. 야마토가와세공소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열심인 성공회의 신자로서 그는 사업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자신의 공장을 포함하여 오사카 남부 사카이시에 있는 조선인 여공을 받아들인 것이나, 그녀들에 대한 교육 활동(야학),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당시의 오사카 교구보 「은총」에는, 사카이 성디모데 교회의 소식란에 야나기하라 요시효에 씨의 활동이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1927년에 개설된 사카이 야간 학교는 그가 가장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15년전쟁으로 일본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식민지 지배를 강화해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본인과 거기에 저항하는 조선

ます。1927年に開設された堺夜学校は、彼が最も力をいれたものでした。

十五年戦争が日本にとって厳しい状況になればなるほど、植民地支配を強化し、朝鮮人の持てるものすべてを奪おうとする日本人と、それに抵抗する朝鮮人の軋轢(あつれき)は激しくなっています。そうした中で「親朝鮮」を自認する柳原吉兵衛氏は、日本人と朝鮮人の協和(心を合わせて、仲よくすること)融和(うちとけて仲がよいこと。とけあって一つになること。)を名目とする「内鮮協和会」(註)の活動にひかれ、没頭していきます。

彼にとっては、キリスト教精神に基づく「善意」の行為であり、文字どおりの「日本と朝鮮の協和・融和」でしたが、植民地支配の下にあった朝鮮人から見ると、明らかに自分たちの祖国が植民地から解放され独立する願いを抑えつけ、一人の人間として生きる権利を奪う日本政府の動きの側に立つものでした。

(註)内(日本)鮮(朝鮮)の協和をめざして1924年に結成された。宿泊所設備、職業紹介、診療所・夜学校の開設などの活動を行なったが、圧倒的に増加する朝鮮人とその自主的な権利を守る運動の前には、色あせたものとなっていき、政府が進める、朝鮮人の日本人化(皇民化)政策と、戦時態勢協力のための御用機関となり、治安維持対策の機関としても働いた。

## (2) 聖ガブリエル教会の歴史

### ■聖ガブリエル教会の誕生

一方、張師は、伝道師として認可を受け、

1925年11月、大阪市天王寺区細工谷の聖ヨハネ学園(現聖バルナバ病院)敷地内に、朝鮮人会衆の集会を開設、朝鮮人伝道を熱心に展開し始めました。張師の伝道への熱意と、朝鮮人の多く居住する生野・東成地域に隣接する地の利も得て、伝道活動は大きく進展していきました。その後、この働きをさらに展開するために、1932年に生野区桃谷の地に土地を取得し、1933年講義所を開設しました。大阪教区も、「朝鮮ミッション(伝道)」と名付けて、募金活動を展開しました。1934年「恩寵(382号)」紙上に載せられた名出保太郎監督(主教)のメッセージによると、「……大阪市には10万人の朝鮮人が在住している。……多くは壮青年男女である。……10万人同胞は、全く宗教として奉ずる者なく、唯僅かに葬祭の場合に内地の僧侶を臨時に聘して其の仏事を営むにすぎず、人生最大の要求たる魂の安息所を持たず。同情に堪(た)へざる境遇である。……これら同胞の為に天の父を知らせ、キリストの救いに導き、故郷を離れ言語に慣れざるも皆天父の子にして兄弟なる信仰に依(より)て日々の務を為さしめ人生の意義を悟らしめる事は眞に大なる我等の義務である……」とあります。

朝鮮ミッションに献金をささげることは大切なことですが、日本の植民地政策のために、日本に来ざるを得なかった朝鮮人の気持ちをどう受けとめていたのでしょうか。「宗教として奉ずる者なく」と、どうして言い切れたのでしょうか。貧しいために、儒教の教えに基づくいわゆる法事すら行えなかったのが実状でした。歴史、社会、政治の動きの背後で、苦しむ人々の思いを見通すことのできない姿勢(それが結局戦後

인의 알력이 점점 격렬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 중에 「친 조선」을 스스로 인정하는 야나기하라 요시효에씨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협화(마음을 합쳐, 사이 좋게 하는 것) 융화(터놓아 사이가 좋은 것.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를 명목으로 하는 「내선협화회」(주)의 활동에 이끌려 몰두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는 「선의」의 행위이고, 문자 그대로의 「일본과 조선의 협화·융화」였지만,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인으로부터 보면, 분명하게 자신들의 조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독립하고자 하는 소원을 억제하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생의 권리를 빼앗는 일본 정부의 편에 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 내(일본) 선(조선)의 협화를 목표로 해 1924년에 결성되었다. 숙박소 설비, 직업 소개, 진료소·야간 학교의 개설 등의 활동을 했지만,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조선인과 그 자주적인 권리를 지키는 운동 앞에서는 퇴색한 것이 되었고, 정부가 진행하는, 조선인의 일본인화(황민화)정책과 전쟁시 태세 협력을 위한 기관이 되어, 치안 유지 대책의 기관으로도 활동했다.

## (2) 성가브리엘 교회의 역사

### ■성가브리엘 교회의 탄생

한편, 장선생님은 전도사로 허가를 받아, 1925년 11월, 오사카시 텐노우지구 사이쿠다니의 성요한 학원(현 성바르나바 병원)부지안에 조선인 신자의 집회를 개설, 조선인 전도를 열심히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전도사님의 전도에 열의와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쿠노·히가시나리 지역에 인접하는 지역의 이점도 있어서, 전도 활동은 크게 활발해졌습니다. 그 후, 이 사역을 한층 더 전개하기 위해

서 1932년에 이쿠노구 모모다니에 토지를 취득해, 1933년 강의소를 개설했습니다. 오사카 교구도 「조선 미션」이라고 이름 붙여,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34년 「은총(382호)」에 실린 이름 나이데야스타로우 주교의 메시지에 의하면, 「……오사카시에는 10만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 ……대개는 청장년남녀이다. …… 10만명 동포는 거의 종교로서 받드는 사람이 없이, 다만 장례식을 치를 때는 집안의 승려를 임시로 초빙하여 불교의식을 치를 뿐, 인생의 최대의 요구인 영혼의 안식처는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동포를 위하여 하느님을 알리고, 기독교의 구원에 인도하여, 고향을 떠나 언어에 적응되지 않은 모두가 하느님이 자녀로 형제된 신앙으로 인해 매일 매일의 의무를 행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큰 의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미션에 헌금을 바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일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기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단지「종교로서 받드는 사람이 없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궁핍하기 때문에,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이른바 제사조차 지낼 수 없었던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역사, 사회, 정치의 움직임의 배후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할 수 없는 자세(그것이 결국 전쟁 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은총」지에 발표된 모금자의 상당수는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교회 건설 등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 그 자금의 대부분을 외국인 선교사, 선교 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일 조선인 강의소 개설에 대해서 교구의 충분한 이해와 지원이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の私たちにも受け継がれています)が見られます。「恩寵」紙上に発表された募金者の多くは外国人宣教師でした。当時、教会建設など多額の資金が必要な計画について、その資金の多くを外国人宣教師、宣教団体からの支援に頼っていたという事情があったにせよ、在日朝鮮人の講義所の開設について、教区の十分な理解と支援があったとはいえません。

### ■張師の苦難と抵抗

1939年2月11日、「長期建設、精神作興大阪教区特別祈願式」が大阪聖ヨハネ教会にて行われました。日の丸を先頭にしたプロセッション(入堂行進)の中に、十字架を掲げて進む張師の姿があったことは象徴的でした。植民地支配のシンボルだった日の丸に続いて十字架を担う張師は、朝鮮人として日本の故に苦しんだだけでなく、クリスチャンとして教会の中においても、安らぎがなか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同じ年の8月、所用で朝鮮に帰った張師は、出身地の役所に届けを出し「日本名、張本栄(はりもと・さかえ)」と登録しました。「創氏改名」です。けれども、この名前は、朝鮮式に「張 本栄(チャン・ボニョン)」とも読めました。実際、同師は、この読み方も使っていました。そこに朝鮮人としての誇りを捨てない張師の無言の抵抗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1941年12月8日、日本軍の真珠湾攻撃によって日米開戦の火蓋(ひぶた)が切られました。その日、桃谷の教会にいた張師は、早朝、特高警察によって東成警察署に逮捕されました。それは面会謝絶のまま4ヶ月にわたった拘留の始まりでした。当

時の日本人の誰が、開戦の日から拘束され、拷問を受けたのでしょうか。釈放後も1942年には特高より集会の禁止を言い渡され、礼拝堂の閉鎖命令を受けるなど、聖ガブリエル教会の解散に向かって官憲の圧力は日増しに強まっていきました。

ついに、1943年教会は、閉鎖のやむなきにいたりました。このとき、大阪教区の大部分の教会は、自己の教会を守ることに必死で、同じ教区の在日朝鮮人の教会が弾圧を受けていることを、自らの問題と捉えられませんでした。

### ■戦後

朝鮮やアジアの人々にとって、1945年8月15日は、大日本帝国の崩壊、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という歴史的な喜びの日、「光復節(光が復活した時という意味で現在も韓国の祝日)」でした。1997年に開催された大阪教区宣教協議会の資料集においては「第二の受難期」と定義されています。日本からの解放の日がきて、在日韓国朝鮮人が救われたのでしょうか。むしろ戦後も長い間、苦難の中に放置されてきたといえます。希望に燃えた解放の日の後、張師はすぐに大阪鶴橋に民族学校を設立し、在日韓国朝鮮人の子どもたちに戦前から戦中にかけて禁じられていた母国語「朝鮮語」での教育、「朝鮮文化」の教育を志しました。いわゆる戦後のどさくさ、日々のパンに事欠き、生活苦の日々であったと想像されますが、自由になったときに何よりもまず自らの民族の教育問題、民族性の回復に取り組んだことは、張師も含め、多くの在日韓国朝鮮人が、それまでの弾圧がいかによ

## ■ 장부제님(1938년부제서품)의 고난과 저항

1939년 2월 11일, 「장기 건설, 정신 작흥 오사카 교구 특별 기원식」이 오사카 성요한 교회에서 행해졌습니다. 일장기를 선두로 한 입당 행진 중에,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장부제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심벌이었던 일장기에 이어 십자가를 들고 입장했던 장부제님은 조선인으로서 일본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은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해 8월, 불일이 있어 조선에 돌아간 장부제님은 출신지의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본명, 「張本榮(하리모토 사카에)」라고 등록했습니다. 「창씨개명」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조선 식으로 「張本榮(장본영)」이라고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장부제님은 장본영이라는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버리지 않는 장부제님의 무언의 저항을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에 의해 일·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모모타니의 교회에 있던 장부제님은, 아침 일찍, 특수고등경찰에 의해 히가시나리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면회 불가능 채 4개월에 걸친 구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인 그 누가 전쟁 시작 일부터 구속되어 고문을 받았습니까. 석방 후에도 1942년에는 특별 고등경찰로부터 집회의 금지를 선고받아 예배당의 폐쇄 명령을 받는 등, 성가브리엘 교회에 대한 관헌의 해산압력은 나날이 강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1943년 교회는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오사카 교구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같은 교구의 재일 조선인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 ■ 전쟁후

조선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제국의 붕괴,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쁨의 날, 「광복절」이었습니다. 1997년에 개최된 오사카 교구 선교 협의회의 자료집에, 전쟁 후의 성가브리엘 교회의 발자취에 대해 「제2의 수난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재일 한국 조선인이 구원받았을까요. 오히려 전쟁 후에도 오랫동안 고난 중에 방치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에 불타오른 해방의 날 뒤, 장부제님은 곧바로 오사카 쓰루바시에 민족학교를 설립해, 재일 한국 조선인 아이들에게 전쟁전부터 전시 중에 걸쳐 금지되었던 모국어 「조선어」로 받는 교육 「조선 문화」의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이른바 전쟁 후의 혼잡, 먹을 양식에 어려움을 느껴 날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상상됩니다만, 자유를 얻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 민족의 교육 문제, 민족성의 회복에 임했던 것은, 장부제님을 포함해 많은 재일 한국 조선인이 지금까지의 탄압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었어도, 민족의 명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부제님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의 명예나 소원은, 일본의 전쟁 후 정책에서도 크게 굴절되어 갔습니다. 민족 교육을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교육으로 연결된다며, 부정당하고 탄압 받았습니다. (1984년 한신 교육 투쟁)

전쟁 후, 진주군에 대표되는 미국 문화의 영향 중에서, 기독교는 구미의 교회로부터의 풍부한 선교 자금을 제공받아 일종의 봄(번창기)을 맞이합니다. 일본 성공회는 스스로의 부흥에 임하는 것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이때에도 재일 한국 조선인의 교회·신도의 상황은 외면했습니다.

まじいものであったにしても、民族の誇りを決して捨てないでいたことを表しています。しかし、こうした張師をはじめ、多くの朝鮮人の誇りや願いは、日本の戦後政策の中でも大きく歪められていきます。民族教育を行うことは、共産主義教育につながるとして、否定され、弾圧されていきました。(1948年阪神教育闘争)

戦後、進駐軍に代表されるアメリカ文化の影響の中で、キリスト教は欧米の教会からの豊かな宣教資金の提供を受け、一種のブームを迎えます。日本聖公会は、自らの復興に取り組むことに目を奪われて、ここでも在日韓国朝鮮人の教会・信徒の姿を見失っていました。

#### ■聖ガブリエル教会の再出発

1954年張師は私宅を開放して、聖ガブリエル教会として教会活動の再出発を開始しました。

1956年12月21日、柳原貞次郎主教司式、松岡安立司祭推薦で、張執事の司祭按手式が川口基督教会にて行われました。執事按手(1938年)から18年、神学校卒業(1925年)から実に31年が経過していました。實際上牧師としての働きをしながら、このように長い期間を経て司祭に按手された人がいるのでしょうか。彼が、もし日本人の伝道者であったらこのように長く放置されなかったでしょう。少なくとも張師の働きは、日本人宣教者からは、「忘れられた存在」だった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1966年張牧師は、66才で召天。司祭としての働きは、わずか10年間でした。

#### ■入学差別

1965年、新聞紙上にプール学院において入学差別が行われたとの報道がなされました。聖公会関係学校であるプール学院が、在日韓国朝鮮人入学志願者の願書を受理したものの、受験票を返し、受験を拒否したのです。全ての人に神の福音を伝えることを使命としたミッションスクールでありながら、在日韓国朝鮮人志願者を受け入れないという悲しむべきできごとでした。6年後の1971年になって、当時の理事長が、今後「外国人入学を制限しない」と宣言して、事件は決着し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発表は聖公会新聞に載せられました。

当時、聖ガブリエル教会の信徒は、差別された側(被害者側)の在日韓国朝鮮人であったのに、差別した側(加害者側)である聖公会に属していたために、逆に他の在日韓国朝鮮人から非難されるという苦しみを体験しました。

このような苦しみを学校や教会はどう受けとめたのでしょうか。今日、プール学院では、在日韓国朝鮮人が日本人とともに学び、韓国語の授業が開講されています。それでも、この事件を、福音を伝え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としての重大な課題としてとらえ、事実の確認をし、自らのあり様を徹底的に直視することが、充分だったといえるのでしょうか。

#### ■聖ガブリエル教会礼拝堂の再建

1966年の張牧師の死後、聖ガブリエル教会は河蓮實(ハ・ヨンシル)夫人や親族を中心に、私宅で礼拝を守ってきましたが、1978年、伝道の積極的な展開をはかるために、大阪市浪速区のナンバプラザビルに礼拝所を移して教会活動を行うことにな



### ■성가브리엘 교회의 재출발

1954년 장부제님은 사택을 개방해, 성가브리엘 교회로서 교회 활동의 재출발을 개시했습니다.

1956년 12월 21일, 야나기하라쥬우지로 우 주교 집전, 마츠오카 야스다치 사제 추천으로, 장 부제의 사제 안수식이 카와구치 기독교회에서 행해졌습니다. 부제서품(1938년)으로부터 18년, 신학교 졸업(1925년)으로부터 실로 31년이 경과했습니다. 실상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이 긴 기간이 지나서야 사제에 서품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만약 일본인이었다면 이와 같이 길게 방치되지는 않았겠지요. 적어도 장 신부님의 사역은 일본인 선교자로부터는, 「잇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6년 장 신부님은 66세로 소천. 사제로서의 사역은 불과 10년간이었습니다.

### ■입학 차별

1965년, 신문지상에 풀 학원이 입학 차별을 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성공회 관계 학교인 풀 학원이 재일 한국 조선인 입학 지원자의 원서를 받기는 했지만, 수험표를 돌려주어, 수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미션 스쿨이면서, 재일 한국 조선인 지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슬퍼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6년 후의 1971년이 되어, 당시의 이사장이 향후 「외국인 입학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사건은 어느 정도 결말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발표는 성공회 신문에 실렸습니다.

당시, 성가브리엘 교회의 신도들은 차별 받는 쪽(피해자측)인 재일 한국 조선인이었지만, 차별한 쪽(가해자측)인 성공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재일 한국 조선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괴로움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학교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현재 풀 학원에서는, 재일 한국 조선인이 일본인과 함께 배우고, 한국어 수업도 개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미션 스쿨로서의 중대한 과제로 취급해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충분히 철저히 직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성가브리엘 교회 예배당의 재건

1966년의 장 신부님의 사후, 성가브리엘 교회는 부인인 하연실 사모와 친족을 중심으로, 사택에서의 예배를 지켜 왔습니다만, 1978년, 전도의 적극적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사카시 나니와구의 남바 플라자 빌딩에 예배소를 옮겨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내서 개시한 예배였지만, 남바 지역은 상업지역인 관계로 거주자가 적고, 물론 재일 한국 조선인의 거주자도 적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쿠노의 장 신부님의 사택에서는 대재절 극기헌금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은 어린이회 활동이, 오사카 교구 청년의 지원 하에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가브리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통의 엽서가 1984년 1월 15일, 교토의 윌리엄스 신학관으로부터 성가브리엘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간단한 편지였지만, 남바 플라자 빌딩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선교에 곤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성가브리엘 교회의 신도들에 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져 온 격려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엽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일 한국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쿠노」에 돌아가자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신도 총회에서 결의, 그리고 오사카 교구 교구회의 결의를 거쳐, 관구에 있어서 그 필요가 의식되어 왔습니다.

りました。勇んで開始した礼拝でしたが、ナンバ地域は商業地域で居住者が少なく、もちろん在日韓国朝鮮人の居住者も少なかったため、思ったような成果があげられませんでした。そのころ、生野の張師私宅では、大斎克己献金からの援助を受けた子供会活動が、大阪教区青年の支援のもとで、活発に行われていました。

「毎朝の祈りのなかで、聖ガブリエル教会のことをおぼえて祈りました。」という一通のはがきが、1984年1月15日、京都のウィリアムス神学館から聖ガブリエル教会に届きました。簡単な手紙でしたが、ナンバプラザビルでの礼拝では、在日への宣教に困難があると考えていた聖ガブリエル教会の信徒たちにとっては、神さまから送られてきた励ましのように思えるはがきでした。そして、やはり在日が多く住んでいる「生野」に戻ろうという意見が多数をしめました。教会の信徒総会での決議、そして大阪教区教区会の決議をへて、管区においてもそのことが意識されていきます。

同年12月、生野に隣接した、天王寺区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の好意で、同所を5年の期限で借用し、礼拝、教会活動を行いながら宣教拠点を生野区の中に探すことになりました。

### ■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

同じ1984年に、韓国ソウル市で「第一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開かれました。このとき、聖ガブリエル教会の信徒、大川千萬氏は、韓国側代表のひとりとして、発題を行いました。日韓双方に、在日韓国人は、韓国側との意識が強かったのでしょうか。そして翌年、第2回日韓セミナーが

大阪で開かれました。この2回のセミナーを通して、日本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宣教の課題が、両国聖公会の中に深く意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両国聖公会が真の和解をなしとげるために、両国の歴史を理解することと共に、「聖ガブリエル教会の再建」がその目に見えるしるしとなることが語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第2回セミナーの際に韓国側から聖ガブリエル教会再建のためにと、200万円の献金が贈られました。この出来事は、日本側にとっては、韓国側がそれほどまでに在日同胞のことを強く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驚きであり、日本側の取り組みへの大きな促しとなりました。以後、日本側でも「聖ガブリエル教会の再建」をより積極的に受けとめようという姿勢が明確になり、管区総会での、聖ガブリエル教会支援の決議へとつながっていきます。「相互理解」というテーマのもとに行われた第一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共同宣言の、第2番目以下の項目をもう一度よく読んで見たいものです。

2. 日韓両国聖公会は、公式に開催された最初のこのセミナーで開会聖餐式を共同執行し、その中で、日本聖公会は36年間の植民地支配及び今日に至るまで、なすべきことをなさず、なすべからざることをなしてきた罪を懺悔し、深く陳謝した。また両国聖公会は唯一にして聖なる公会と主にありて一つの肢体であることを実感し、地上に神の国を実現するため、両国の不幸な過去を再確認すると共に、日本による歴史の歪曲と経済的支配、そして文化的偏見と差別を信仰によって拒否することを決意した。

그해 12월, 이쿠노에게 인접한, 텐노지구 오사카쥬 미나미 크리스트교회의 호의로, 같은 장소를 5년 기한으로 빌려, 예배, 교회 활동을 하면서 선교 거점을 이쿠노구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

같은 1984년에, 한국 서울에서 「제1회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성가브리엘 교회의 신도, 오오카와 텐반씨는, 한국측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발제를 했습니다. 한일 양쪽에서, 재일 한국인은 한국 측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해, 제2회 한일 세미나가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이 2회의 세미나를 통해 일본에 있어서의 재일 한국 조선인 선교의 과제가, 양국 성공회 안에 깊게 의식되게 되었습니다. 양국 성공회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성가브리엘 교회의 재건」이 눈에 보이는 지표로 이야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회 세미나 때에 한국 측으로부터 성가브리엘 교회 재건을 위해서 200만 엔을 현금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일본 측에 있어서는 한국 측이 그만큼까지 재일 동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놀라움이었고, 일본측의 대응에의 큰 촉매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측에서도 「성가브리엘 교회의 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명확해져, 관구 총회에서, 성가브리엘 교회의 지원 결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상호 이해」라고 하는 테마를 바탕으로 행해진 제1회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 공동 선언의, 제2번째 이하의 항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2. 한일 양국 성공회는, 공식으로 개최된 최초의 이 세미나에서 개최 성찬식을 공동 집전해, 그 안에서, 일본 성공회는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및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야만 할 것을 하지 않았고, 해서 는 않될것들을 해왔던 죄를 참회하고, 깊게 사죄했다. 그리고 양국 성공회는 하나이고 거룩한 공회와 주님께 있어서 하나의 지체(가지)인 것을 실감해,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의 불행한 과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 의한 역사의 왜곡과 경제적 지배, 그리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신앙에 의해 거부할 것을 결의했다.

4. ……일본 성공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일 한민족(주)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일본 성공회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한일 역사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일본 성공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생략 필자)

(주) 당시, 남북 대립이 현재보다 심각했기에, 대한성공회를 두고,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제1회 한일 세미나에 있어서 일본 성공회는, 전쟁 후 처음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으로 참회와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결성된 「한일 세미나를 생각하는 회」는, 과거의 침략의 역사, 현재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 현실, 1965년의 「한일 조약」, 1973의 김대중 납치사건에 보여지는 한일 양국 정부의 부정한 관계에 대해서 일본 성공회는, 아무런 대처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도문에 있어서의 「천황을 위한 기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문제나 재일 한국 조선인의 인권을 확립하는 투쟁을 방치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4. ……日本聖公会の最も身近にある在日韓民族（註）への差別問題を日本聖公会が取り組むべき、緊急かつ重要な課題であると認識し、これを推進することを決意した。また、韓国からの日韓の歴史理解を受けとめることによって、日本聖公会がキリストの教会として、正しく生きるための自己認識を得られることに気づかされた。とあります。（……省略筆者）

（註）当時、南北対立が現在より深刻で、大韓聖公会において、朝鮮という言葉を使用することに、抵抗があったため、韓民族という言葉が使用された。

第1回日韓セミナーにおいて日本聖公会は、戦後初めて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公式の懺悔と謝罪を行いました。しかし、同じ年に結成された「日韓セミナーを考える会」は、過去の侵略の歴史、現在の韓国人への差別の現実、1965年の「日韓条約」、1973の金大中拉致事件にみられる日韓両国政府の不正な関係について日本聖公会は、何らの取り組みもしていないばかりか、祈祷書における「天皇のための祈り」を存続させている問題や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を確立する闘いを放置する中で、セミナーが行わ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厳しい批判を行いました。

（この「考える会」を中心にした問いかけをきっかけとして、日本聖公会は、紆余曲折をへながら、戦争責任、戦後責任の問題を自らの課題とするようになり、1995宣教協議会の開催、翌年の総会での「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の決議を行いました。）

この批判に応える形で、1985年の第

2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では「わたしは主にあつて罪を犯しました。一両国聖公会の歴史をかえりみてー」というテーマのもと、両国聖公会は民衆にとって何であったか、在日韓国朝鮮人の悩みは誰の罪かという発題がなされ、自らの歴史の中での過ちに気づくことから、宣教の使命を覚醒することをめざしました。この会議の総括は、合同報告書という形でまとめられました。その中に、聖ガブリエル教会に対する熱い祈りと献金をささげること、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回復のために、外国人登録法の指紋押捺制度撤廃運動に取り組むこと、両国の歴史を正しく学ぶために、日本聖公会は家庭教育をはじめ、あらゆる機会をとらえて、学習の機会を持つべきであること、また、サハリン在住韓国人問題の解決、韓国人被爆者への関わりを持つことなどが課題として列記されています。

日韓の管区レベルでこのように日本聖公会と在日韓国朝鮮人、大韓聖公会との関わりが画期的に深まったことは、1980年代の大きな転換でした。このとき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で確認されていたことを、日本聖公会が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実践していったならば、後述する臨床牧会訓練の結末も違ったものになっていたでしょう。ともあれ、この1980年代は、聖ガブリエル教会にとっても、教区、管区にとっても、記憶すべき新たな出発の時でした。

#### ■聖ガブリエル教会礼拝堂再建完成

1989年聖ガブリエル教会は、生野区小路東に土地を取得、プレハブ建築の集会所で念願の新たな教会活動が始められました。1942年の教会閉鎖以来、47年目

(이 「생각하는 회」를 중심으로 나온 질문을 계기로 일본 성공회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의 문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삼게 되어, 1995 선교 협의회의 개최, 다음 해의 총회에서 「전쟁 책임에 관한 선언」의 결의를 했습니다. )

이 비판에 응하는 형태로, 1985년의 제 2회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에서는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양국 성공회의 역사를 돌아보며-」라는 테마 아래, 양국 성공회는 민중에 있어 무엇이었는지, 재일 한국 조선인의 고민은 누구의 죄인가라는 발제가 거행되어, 스스로의 역사 안에서의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각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회의의 총괄은, 합동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가브리엘 교회에 대한 뜨거운 기도와 헌금을 바치는 것, 재일 한국 조선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외국인등록법의 지문 날인 제도 철폐 운동에 임하는 것, 양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일본 성공회는 가정 교육을 비롯한, 모든 기회를 두고,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사할린 거주 한국인 문제의 해결, 한국인 피폭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 등이 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일의 관구 차원에서 이와 같이 일본 성공회와 재일 한국 조선인, 대한 성공회와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깊어졌던 것은, 1980년대의 큰 전환이었습니다. 이 때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에서 확인된 것을, 일본 성공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천했다면, 후에 말할 임상 목회 훈련의 결말도 바뀌었겠지요. 여하튼, 이 1980년대는, 성가브리엘 교회에 있어서도, 교구, 관구에 있어서도, 기억해야 할 새로운 출발의 시기였습니다.

#### ■성가브리엘 교회 예배당 재건

1989년 성가브리엘 교회는, 이쿠노구

쇼지히가시에 토지를 취득,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진 집회소에서 염원의 새로운 교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의 교회 폐쇄 이래, 47년, 교회 예배당 재건을 향한 첫 일보였습니다.

새로운 성가브리엘 교회의 구상을 조절하면서, 재일 한국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오사카 이쿠노라는 특성을 살려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지역 활동 센터와 유아 보육원을 동시에 설립해, 삼자가 협동해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 갔습니다.

1991년 신예배당의 건설에 착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배는 한국 YMCA 회관을 빌려 행해졌습니다.

1992년 3월말, 신예배당 완성. 일본 성공회 오사카 교구 성가브리엘 교회, 성공회 이쿠노 센터, 사회 복지 법인 박애사 「어린양 유아 보육원」의 삼자 협동의 사역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성공회 이쿠노 센터 설립과 지원의 대처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사역에 협동하기 위해, 관구에서는 총회에서 지원 결의를 하고, 3·1 독립운동 봉기의 날에 가까운 주일에 「성공회 이쿠노 센터」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바치는 봉헌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구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선교 협동 위원회, 성가브리엘 교회 선교 거점 설치 특별위원회가, 성가브리엘 교회와 성공회 이쿠노 센터 설립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거행해 왔습니다. 또, 간토삼교구이쿠노위원회, 북관동교구협동위원회, 동경교구 재일 프로젝트, 성공회이쿠노센터 요코하마교구 친구회, 오사카교구 이쿠노센터 후원회 (1998년, 교토 교구에서도 후원 활동이 개시되었다) 등의 사역으로 성가브리엘 교회, 성공회 이쿠노 센터 지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교구 재일 한국·조선인

の教会礼拝堂再建へ向けての第一歩でした。

新しい聖ガブリエル教会の構想を練る中で、在日韓国朝鮮人の多数居住する大阪生野の地であるからこそ、地域と共に生きる活動を重視しようということが決定され、地域活動センターと乳児保育園を同時に設立し、三者が協働して地域に仕える働きを担っていくことが決定されていきました。

1991年新礼拝堂の建設に着工しました。この間礼拝は、韓国YMCA会館を借りて行われました。

1992年三月末、新礼拝堂完成。日本聖公会大阪教区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社会福祉法人博愛社「こひつじ乳児保育園」の三者協働の歩みが開始され、現在にいたっています。

#### ■聖公会生野センター設立と、支援の取り組み

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歩みに協働するため、管区では総会において支援決議をし、三・一独立運動記念の日（3月1日）に近い主日に「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ために祈り、信施をささげる奉獻活動を続けています。大阪教区では、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聖ガブリエル教会宣教拠点設置特別委員会が、聖ガブリエル教会と聖公会生野センター設立に向けての様々な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また、関東三教区生野委員会、北関東教区協働委員会、東京教区在日プロジェクト、聖公会生野センター横浜教区友の会、大阪教区生野センター後援会（1998年、京都教区においても後援活動が開始された）などが相まって働き、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支援の道を開いてきました。

特に、大阪教区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

委員会は、研修会の開催、ブックレットの発行、日韓歴史研修旅行の実施など多くの取り組みをし、聖公会生野センターと共に、在日の問題は日本人の問題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きました。また特に、これらの会では、在日の様々な問題、日韓の歴史の問題を取り上げながら学習会や講演会を多数開催し、日韓の歴史認識や、在日韓国朝鮮人を理解する活動を積極的に行って、草の根からの交流を促しました。

また、教派を越えた協力と交わりの場として外キ協（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があり、聖公会も各地の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様々なキリスト者の組織の一員として、外登法の抜本的改正の問題や、指紋押捺拒否者支援の運動に連なってきました。特に、大阪生野地域には、「生野地域活動協議会（通称、地活協）」があり、そこに参加するカトリック教会、日本キリスト教団、在日大韓基督教会など各派との交わりのうちに強められ、在日韓国基督教会館（KCC）、聖和社会館など生野にある先輩格の地域センターからのアドバイスを受け、とりわけ地活協から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設立にあたって、大きな人的協力をも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在日韓国朝鮮人と関わるのがこのように豊かな交わりの実を生んできました。

また、特に外登法への取り組みのエキュメニカル（教会・教派の違いを越え、一致して行う）運動の成果として、1998年には「外国人住民基本法（案）」が作られ、法律制定のための運動を展開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背景を踏まえつつも、より広範囲な、在日、滞日外国人に対して、日本での豊かな協働生活が

선교 협동 위원회는 연수회의 개최, 소책자의 발행, 일한 역사 연수 여행의 실시 등 많은 활동을 해, 성공회 이쿠노 센터와 함께, 재일 한국인·조선인 문제는 일본인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또 특히, 이러한 회에서는, 재일의 여러 가지 문제, 한일간의 역사의 문제를 채택하여 학습회나 강연회를 다수 개최해, 한일의 역사 인식이나, 재일 한국 조선인을 이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거행, 민초로부터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교파를 넘는 협력과 교류의 장로서는 외기협(외국인등록법 문제에 임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이 있고, 성공회도 각지의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임하는 여러 기독교인의 일원으로서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의 문제나, 지문 날인 거부자 지원운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사카 이쿠노 지역에는, 「이쿠노 지역 활동 협의회(통칭, 지활협)」가 있어, 그곳에 참가하는 카톨릭교회, 일본 기독교단, 재일 대한기독교교회 등 각파와의 교류 중에 힘을 얻어, 재일 한국 기독교 회관(KCC), 성화 사회관 등 이쿠노에 있는 선배격의 지역 센터로부터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특히 지활협으로부터는 성공회 이쿠노 센터 설립에 있어, 큰 인적 협력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일 한국 조선인과 연계하는 것이 이와 같이 풍부한 교류의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 특히 외국인등록법에 대해 대처하는 에큐메니칼(교회·교파의 차이를 넘은 일치) 운동의 성과로서 1998년에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안)」이 만들어져 법률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한국 조선인의 역사 배경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재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풍부한 협동 생활이 가능하기를 바란 결과입니다.

## ■임상 목회 훈련(PCT) 문제와 일본 성공회

1988년 9월, 성공회신학원 주최의 제30회 성루가 국제병원 임상목회 훈련 중에 일어난 차별 발언 사건을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무릇 「임상목회훈련(Pastoral/ Clinical/ Training, 약칭 PCT)」이란, 목사를 지향하는 신학생이, 입원중의 환자 분을 방문해, 그 생각이나 기쁨 그리고 아픔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신학생이, 환자분과 자신의 대답을 리포트에 정리해 보고해, 참가하고 있는 다른 신학생이나 수퍼바이저(이후 SV)로 불리는 조인 지도자가, 그 신학생의 대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부터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화 세미나」라고 부릅니다.) 또, 기간 중에, 각각의 신학생은 교대로 예배의 설교를 담당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도 서로 서로 이야기하는 「설교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의 참가자 중에, 일본 기독교단 농촌(이거 「농촌」인가요? 아니면 그 학교의 고유명사로 따로 읽는 법이 있나요?) 전도 신학교 재학중의 재일 한국인 학생, 김영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루가복음서를 텍스트로 해 「본심으로 되돌아오는 탕자」이라고 하는 테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부친에게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에 비교하여, 하느님께, 이웃에게, 그리고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자기정체성의 회복)의 중요함, 그러나, 재일 한국인으로서 본명을 자신 있게 말하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말했습니다. 이 다음날의 설교 세미나의 석상에서, 이하라 야스오 SV(PCT 훈련 위원장)로부터, 「당신의 설교는 회중에 의해 복음으로 들렸을까요」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달리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

出来ることを願ってのもです。

### ■臨床牧会訓練（PCT）問題と日本聖公会

1988年9月、聖公会神学院主催の、第30回聖ルカ国際病院臨床牧会訓練中に起こった差別発言事件をご存知の方も多いでしょう。そもそも「臨床牧会訓練（Pastoral/Clinical/Training, 略称PCT）」とは、牧師を志す神学生が、入院中の患者さんを訪問し、その思いや考え、喜びや痛みを受けとめる訓練をするものです。患者さんの話を聞いた神学生が、患者さんと自分の受け答えをレポートにまとめて報告し、参加している他の神学生やスーパーヴァイザー（以後SV）と呼ばれる助言指導者が、その神学生の受け答えについて、様々な角度から検討を加えます。（これを「会話セミナー」と呼びます。）また、期間中に、それぞれの神学生は交代で礼拝の説教を担当し、その説教についても相互に批判し合う「説教セミナー」が行われていました。

この年の参加者の中に、日本基督教団農村伝道神学校在学中の在日韓国人学生、金永泰（キム・ヨンテ）氏がいました。彼は、主日にルカによる福音書をテキストにし「本心に立ち返る放蕩息子」というテーマで説教を行いました。その中で、父親のもとに帰る放蕩息子の姿になぞらえて、神に、隣人に、そして在日韓国人としての本当の自分自身に帰るこ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回復）の大切さ、しかし、在日韓国人として本名を名乗って日本社会に生きる困難さを語りました。これを受けた翌日の説教セミナーの席上で、井原泰男SV（PCT訓練委員長）から、「あなたの説教は会衆に

よって福音として聞かれたらどうか」との疑問が呈せられました。それは、「苦しんでいるのはあなただけではない、他にいくらでもいる」との彼の考えから発せられたといわれます。少なくとも目の前で、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る苦しみを述べている金氏に対して、その人の苦しみの地平に立つことなく、高みからの発言でした。さらにこのブックレットの前章までの記述でも明らかのように、歴史的にも、社会構造的にも、在日韓国朝鮮人に苦しみを与えてきた日本人の側にあるSVが、自らが加害者の側に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ない発言でした。

その後、会話セミナーの中で、別のSVから「金さん、あなたも日本人よ」という発言がありました。これは、金さんを慰めようとして語った善意の言葉であるとの弁明が後でなされます。しかし、金さんが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ることで悩んでいるさなかに、「あなたも日本人」という言葉は、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ようとする金さんを、日本人にしてしまい、日本人にならないと慰めがないとする「同化」の論理です。この発言に対して「あなたは、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また「日本人との関係で、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いつも消えて行く。いつのまにか消えて行く。少しも踏ま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ごこれまでどれほど味わわされてきたか、わかりますか」という金さんの指摘がありました。

かつて、柳原吉兵衛氏が、善意をもって協和会活動を行い、朝鮮人に対して熱心な教育活動を行ったときに、まさに「よき日本人でありなさい」という強制（皇民化）が行われていたのと同じ善意の論理が、ここに見ら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은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눈앞에서, 재일 한국인으로서 사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김영태씨에 대해서, 김영태씨의 괴로움의 지평(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한층 더한 것은 이 소책자의 전장까지에서도 분명히 기술된 것 같이, 역사적으로도, 사회구조적으로도, 재일 한국 조선인에 고통을 주어진 일본인의 측에 있는 SV가, 스스로가 가해자의 측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 후, 회화 세미나 중에, 다른 SV로부터 「김태영씨, 당신도 일본인입니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태영씨를 위로하려고 한 선의의 말이다라는 변명이 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김씨가 재일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기 한창일 때에, 「당신도 일본인」이라고 하는 말은, 재일 한국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김씨를, 일본인이라고 해 버려,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위로가 없다고 하는 「동화」의 논리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일본인과의 관계로,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새 사라져 가는. 그래서 조금도 근거가 없어져버린 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맞보아 왔는지, 압니까」라고 하는 김씨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야나기하라 요시호에 씨가, 선의를 가지고 협화회 활동을 해, 조선인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 활동을 했을 때에, 확실히 「좋은 일본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강요(황민화)」를 하고 있던 것과 같은 선의의 논리가,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 SV와 김씨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에 있어, SV로부터 「복음 앞에는 유태인도 이방인도 없다」(갈라디야 3:28)라고 하는 성서의 말이 인용되어 말해졌습니다. 일본인도 재일 한국인도 없다,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할 존재일 뿐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씨한테서는 「복음의 추상화, 일반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구를 인용해, 「재일 한국 조선인이나 일본인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은 본명을 자신 있게 말하고 나서, 재일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사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의 본명 선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 성구는, 한사람의 인간이 해방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김씨의 지적을 봉하기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크게 가리고, 중요한 물음을 묻지 않게 하고자 한 인용이었습니다.

차별을 한 쪽이, 그 차별의 문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채, 성서에 의한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차별 받은 쪽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인용의 방법은, 성서의 말씀을 스스로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훈련 지도의 입장에 있는 SV가, 일본인이 일찍이 무엇을 해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무지, 몰이해 안에서, 스스로가 행한 발언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 재일 한국인 학생에게 문제 발언을 반복하게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대응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SV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그 발언을 봉해 버렸습니다.

#### ■PCT 문제로부터 거론되는 것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차별 발언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련 그 자체의, 혹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훈련에 대한 가치관이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의 문제성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 20년에 걸쳐, 30회의 훈련을 실시해, 수강생을 배출해 온 성공회 신학원, 또 그 교육을 지탱해 온 일본 성공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1984년의 제1회

これら一連の問題発言について、SVと金さんが話し合っている場において、SVから「福音の前にはユダヤ人もギリシャ人もない」（ガラテヤ3:28）という聖書のことばが引用され語られました。日本人も在日韓国人もない、共に、神の赦しを受ける存在なのだとの弁明でした。金氏からは「福音の抽象化、一般化だ」との指摘がありました。

この聖句を引用して、「在日韓国朝鮮人も日本人もない。だから、自分は本名を名乗って、在日として堂々と生きるのだ」と自らの本名宣言をした青年がいました。そのとき、この聖句は、一人の人間が解放される力となりました。しかし今回は、金氏の指摘を封じ込めるために用いられました。問題の本質をおおいかくし、大切な問いを問わないようにする引用でした。

差別をした側が、その差別の問題性を認めないまま、聖書による神の前での平等を主張することは、差別された側の意見を押しさえ込むこととなります。このような引用の仕方は、聖書の言葉を自らの正当化のために利用する結果となりました。

訓練の指導の立場にあるSVが、日本人がかつて何をなしてきたか、今何をなしているのかに対する無知、無理解の中で、自らが行った発言の差別性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在日韓国人学生に問題発言を繰り返し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その後の対応においても、柔軟に自分たちの落ち度を認めることができず、逆にSVとしての権威を振りかざし、その発言を封じてしまいました。

#### ■ PCT問題から問われること

この事件は、たまたま起きた差別発言事件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の訓練そのものの、あるいはそれを支えている訓練に対する考え方が問われねばならないのです。この訓練の問題性が明らかになるということは、過去20年にわたり、30回の訓練を実施し、受講生を送り出してきた聖公会神学院、またその教育を支えてきた日本聖公会全体の問題です。1984年の第1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において、力強く宣言したはずの日本聖公会の在日韓国朝鮮人への責任は全くの空文だったのでしょうか。訓練の主催者の聖公会神学院と、その後組織された「第30回聖路加国際病院臨床牧会訓練での差別発言に取り組む会」が精力的に事件の解明に取り組みましたが、残念ながら、日本聖公会として、この事件をどうとらえ、総括し、今後の取り組みにつなげていくのか、まだ腰が定まっていないのが実状です。

1998年、聖公会神学院は、この10年間に様々な関係者、機関が出した、PCT差別発言に関する資料を整理し、「神学の声」〔第35巻66号〕特集号をまとめました。それを受けてPCT問題連絡会が新たに結成され、今後の対応を検討しています。また、同年、日本聖公会主教会でも、この問題を「主教会の課題」として取り上げていく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ここでは、PCT訓練の持ってきた、さまざまな訓練の構造に関する問題というよりは、この問題の背後に見える日本聖公会の課題にふれてみます。

「先生は、運が悪かったのですね。」  
「ちょっとした発言が、引っかかってしまったのですね」。事件の後、問題発言をし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에서, 강력하게 선언했음이 분명한 일본 성공회의 재일 한국 조선인에 대한 책임은 완전한 껍데기 문서였던 것일까요. 훈련의 주최자인 성공회 신학원과 그 후 조직된 「제30회 성루가 국제병원 임상 목회 훈련에서의 차별 발언에 임하는 회」가 적극적으로 사건의 해명에 임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성공회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 총괄해, 향후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1998년, 성공회 신학원은, 이 10년간에 여러 관계자, 기관이 낸, PCT 차별 발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신학의 소리」〔제35권 66호〕특집호를 냈습니다. 그것을 받아 PCT 문제 연락회가 새롭게 결성되어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일본 성공회 주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교회의 과제」로써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PCT 훈련이 가져온, 다양한 훈련의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배후로 보이는 일본 성공회의 과제에 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운이 나빴군요.」 「약간의 발언이, 그런 일에 걸려 버렸네요.」. 사건의 뒤, 문제 발언을 한 SV를 위로한 몇 사람의 말입니다. 이 발언은, 당사자인 SV의 측에 서서, SV의 심정을 생각해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로 자체는 선의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만, 반대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이 등에 업고 있는 일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의 본질로부터 눈을 떼는 결과가 됩니다. 차별을 한 측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수,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차별 받은 측에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자신이 차별 받은 측에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 받

는 측에 서서, 그 차별의 실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발언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좁은, 안쪽에 서서밖에, 사물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김씨가 반복해 물은 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지적해야만 하는 것은, 차별을 인정하는데, 이중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으로는 차별을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공회는 연대의식이 강해 좋은 의미로는 가족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몇 년이나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철없는 행위이고, 용서가 없다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한 선언이나 사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말」을 가지고 중요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큰 문제입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거짓말」에 민감한 사춘기의 청년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 더 지적해야만 할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공회는, 성직의 권위를 소중히 해 왔습니다. 그것이 차별 발언을 해, 지적받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에서는, 차별 발언을 한 PCT 훈련 조연 지도자로서의 SV가 재일한국인 조선인 참가자로부터 지적을 받아도, 스스로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SV로서 또 성서를 해석하는 자로써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생기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공회의 사제

たSVを慰めようとして、何人かによって語られた言葉です。この発言は、当事者である一方のSVの側に立って、SVの心情を思いやって慰めようとするものです。慰め自体は善意から起こっていますが、他方、在日が背負っている日本社会の中での生きる苦しさを理解しようとせず、ことの本質から目をそらせる結果となります。差別をした側にとっては、ちょっとしたミス、小さなあやまちと思えることが、差別された側にとっては、生きるか死ぬかの大変な問題であることが理解されません。この違いがピンと来ないのは、なぜでしょうか。自分が差別された側に立っていないからです。差別されている側に立って、その差別の実態を理解しようとしていくなら、このような発言は生ま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聖公会という狭い、身内の側に立ってしか、モノを見ていない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あなたは、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金氏が繰り返し問いかけた言葉を心に留めねばなりません。

次に指摘せねばならないのは、差別を認めるのに、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の基準）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公式には差別を認めているのに、実際には、その深刻な反省をすることから遠く離れ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聖公会は身内意識が強く、良い意味で家庭的とも言えるのですが、それだけに、身内の罪に対して、深刻に向き合って、問いなおすことをしません。そんなことを何年も追求しているというのは、大人気ないこと、赦しのないこととして、嫌う傾向があります。それでは、対外的に公式に行った宣言や謝罪は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のでしょうか。実行されないという

意味で、「うそ」をついていることになりはしないのでしょうか。「ことば」をもって大切な信仰を表現しているクリスチャンとして、大きな問題です。飛躍しすぎている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うそ」に敏感な思春期の青年が、教会に集まらない理由のひとつはそこに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いまひとつ指摘せねばならないのは、権威の問題です。聖公会は、聖職の権威を大切にしてきました。そのことが、差別発言をし、それを指摘されているのに素直に認められない土壌を生んでき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この事件では、差別発言をしたPCT訓練助言指導者としてのSVが、在日の参加者から指摘を受けても、自らの差別性を受けとめられず、SVとして、また聖書を解釈するものとしての権威をふりかざしてしまったのです。人々を押さえつけるのではなく、人々に仕えるところに生ずるのが真の権威です。公会の司祭が、大切な司祭養成の訓練中になした差別発言であるならば、もっともっと深刻なものとして、受けとめねばならないのです。同労者である司祭の発言だった、尊敬する司祭様の発言だったということを受けとめるなら、まさに他人事ではないのです。

聖公会は今まで、歴史や社会から切り離された逃げ場としての教会を作り上げることで、個人の悩みを受けとめ、個人の信仰の歩みを支えようとしてきました。その結果、政治や社会構造のゆえに弱くされた人々の苦しみの本質が見えず、結果的にそれらの人の側に立ってこなかったという体質が、この事件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ました。また、単に、教会が隣人となるべき人々から目を背けるだけでなく、社会が行って

가 중요한 사제 양성의 훈련 중에 있었던 차별 발언이라면,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역자 신부의 발언이었다고, 그리고 존경 하는 신부님의 발언이었다고 받아들인다면, 더군다나 남의 일은 아닙니다.

성공회는 지금까지, 역사나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피난처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개인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신앙의 사역을 지지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치나 사회구조 때문에 약해진 사람들의 괴로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로 부터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행하는 학대에 교회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한 나머지, 역사나 사회 안에서 약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민중)의 생활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일해 온 일본 성공회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깊이 되묻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향후의 여러 과제

1997년 오사카 교구 선교 협의회에는, 100명 가까운 참가자에 7명의 재일 한국인의 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미리, 혹은 협의회 기간 중에, 자신이 「재일 한국인」인 것을 분명히 해, 「재일」로써 사는 자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교구의 이와 같이 큰 연수회에서, 「재일」이 「재일」이라고 말하고, 일본인 신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지요. 재일의 강사나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의 재일의 신도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재일 한국인」 쪽에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

다. 아니, 발언하는 상황을 일본인 쪽에서 막아 왔다는 표현이 올바르겠지요. 이 협의회에서는, 「재일」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에 관해서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하기 시작한 「재일」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고, 향후의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성공회와 재일 한국 조선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찰해보았습니다. 일본 성공회는 최근 간신히 한일 성공회 선교 세미나, 1995년 선교 협의회 등에 이어, 지금까지의 선교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것은 진실한 것일수록,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만) 풍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먼 부분인 손가락 끝이 가장 감각이 예민한 것처럼, 주변에 놓여진 것들이야말로 가장 이 세계의 모순이나 아픔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인 심장으로부터 밖으로 배출하는 동맥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맥의 기능을, 그리고 신경계로 말하면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 되돌아오는 「피드백」의 사역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교회에 있어 침묵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조선인들에게 한층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일본인 쪽이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향후, 더욱 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겠지요. 재일 한국 조선인의 외국인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한편, 통계에 의하면, 현재는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일 한국 조선인의 존재 가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본인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귀중한 존재로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질

いる虐待に、教会も加担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きませんでした。教会を守ろうとするあまり、歴史や社会の中で弱くされている人々（民衆）の生活から離れたところで働いてきた日本聖公会の、信仰に対する考え方を、もう一度深く問い直す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 ■今後の諸課題

1997年大阪教区宣教協議会には、100名近い参加者に混じって7名の在日韓国人の参加がありました。そしてそのすべての人が、前もって、もしくは協議会の期間中に、自分が「在日韓国人」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在日」として生きる自分を語っていました。これは驚くべきことでした。教区のこのように大きな研修会で、「在日」が「在日」として語り、日本人信徒がそれに耳を傾けるということが今までにあったのでしょうか。在日の講師や牧師の話に耳を傾けることは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一人一人の在日の信徒が語ることに耳を傾け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在日」の側も発言してきませんでした。いや、発言する状況を日本人の側が阻んできたというのが正しい言いかたでしょう。この協議会では、「在日」に限らず、「女性」に関しても同じような事態が起こっていました。この語りはじめた「在日」に耳を傾けることから出発して、過去の歩みをふりかえり、今後の歩みを進めていきたいと願います。

ここまで、日本聖公会と在日韓国朝鮮人というタイトルで考察を進めてきました。日本聖公会は、最近ようやく、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1995年宣教協議会などを受けて、いままでの宣教の歩みをふりか

えり、（それは真摯なものであるほど、痛みをともなうものですが）豊かな気づきを与えられてきました。人間の身体が、そのもっとも遠い部分である指先において最も感覚が鋭いように、周辺に置かれたものこそがもっともこの世界の矛盾や痛みを鋭く感じる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中心である心臓から外へと送り出す、動脈の働きばかりでなく、心臓へと帰る静脈の働きを、また、神経系で言えば発信することに対して、返ってくる「フィードバック」の働きが大切に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するならば、身近な教会において沈黙している在日の人々にさらに多く語ってもらうために、日本人の側が心開いて、聴く姿勢へと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今後、ますます、日本に在住する外国人が増加するでしょう。在日韓国朝鮮人の外国人総数に占める割合は減る一方で、統計によれば、現在は半数を割っています。このことは、在日韓国朝鮮人の存在価値を下げ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これから多くの外国人を受け入れ、共に生きていく為に、日本人が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変わっていかねばならない方向を指し示してくれる貴重な存在として、ますますその重要性が高まるのです。増加する在日滞日外国人をひとりの尊い地球人として迎える為に、最近「外国人住民基本法（案）」を作り、その制定を働きかけようとエキュメニカル（超教派）運動がなされていますが、そのためにも、日本が長く自分たちの下にしか見てこなかった在日韓国朝鮮人の「関わりの歴史」を見直す必要があります。

教会の中においても社会の中でも「共に

니다. 증가하는 재일한국인조선인,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을 한사람의 존엄한 지구인으로서 맞이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 주민 기본법(안)」을 만들어, 법으로의 제정을 위해 에큐메니칼(초교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도, 일본이 오랜동안 자신들의 아래로 밖에 보지 않았던 재일 한국 조선인과의 「관계의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사회에서도 「함께 산다」는 것이나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 말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처럼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 중에서 불충분하면서도 굳이, 함께 살수 없었던 사실, 역사를 채택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응시하는 것은, 괴로운 것, 스스로의 아픔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던고 서서, 「재일 한국 조선인의 문제는, 결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이해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것으로, 처음으로 「함께」라고 하는 말이 현실성 있게 마음에 울리지 않겠습니까

(2001년 발행 「곤니찌와! 안녕하세요! 일한 재일」로부터 옮김)

生きる」とか「共生社会の実現」という言葉が盛んに使われます。この言葉が実際のものとなるためには、まずは「そのように生きてこなか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るところから始めね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この項の中で、不十分ながらもあえて、共に生き得なかった事実、歴史を取り上げようとしたのはそのためです。そのことを見つめることは、つらいこと、自らの痛みを伴うことです。しかし、そこに踏みとどまり、「在日韓国朝鮮人の問題は、彼ら、彼女らの問題では、決してなく、日本人の側の問題である」という理解に立って歩み出すことの中から、初めて「共に」という言葉が現実性をもって響いてく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んにちは！アンニョンハセヨ！日韓在日」2001年発行 から転載）





## 張準相 (チャン・ジュンサン) 牧師 (聖ガブリエル教会) 逮捕

司祭 宮嶋眞

1941年12月8日早朝、生野区桃谷の聖ガブリエル教会牧師張本榮(チャン・ボニョン、1939年創氏改名によってハリモトサカエとなる)は、特高によって逮捕され、自宅のすぐ裏にある生野警察署に連行された。それが100日にもおよぶ拘留と拷問の日々の始まりであった。妻の河蓮實(ハ・ヨンシル)は、娘とともに警察を訪れ、肌着の取り替えとキナコ餅を差し入れた。

「よしあずかつとく」と引き取られた品物は、張牧師が釈放されるときまで、彼の手にはわたらなかつた。張牧師は、朝鮮李朝にゆかりのある出身で、1919年に王の急死の知らせを聞くと帰国し、いち早く三一独立運動にも加わった愛国の人である。その時、韓国で逮捕され、6ヶ月間拘留された経験もある。そうした抗日運動参加の過去、また、教会に多くの宣教師が出入りしていたこと、韓国人に対する偏見などが重なって、おりから始まった太平洋戦争を、国民統制によって乗り切ろうとする特高にとって張牧師は、格好の標的となつ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彼の逮捕を知つた安倍長老(当時聖パウロ教会勤務。勝山公園近くに居住)は、留置場と塀一つ隔てた道路上で、ひときわは高く太鼓をうち鳴らし、張牧師を勇気づけたという。当時安倍は、中国大陸での戦争によって、日本中が高揚した気分になっていたこともあり、毎朝6時に真っ白なシャツを着、前に大きな太鼓を担ぎ、それを叩いて隣近所を回り、人々に早起きを促すことを日課としていた。張牧師

は毎朝慣れ親しんだ安倍の太鼓の音に同労者の存在と励ましを聞き、どれだけなぐさめを感じたことであろう。4ヶ月後、ようやく甥の権寧珠が海軍の一等無線士として付き添い、面会が許された。張牧師は、連行されたときのままの丹前姿で、下着のひざとひじが擦り切れ、ホホは紫に腫れあがり、頭髪は真中がむしられ、血穴の跡がたくさん残っていたという。後日、彼の語るころでは、手を首の後ろに回して組んだままの姿勢で正座をさせられたまま、たたかれたり、取り調べを受け、「天照大神とキリストの神はどちらが偉いのか」と詰問されたという。取り調べに疲れた警官たちは、碁をうって休憩をしたが、張牧師は同じ正座の姿勢のままでいることを強制され大変な痛みと屈従を強制された。

聖ガブリエル教会から、牧師が取りさられ、宣教の火は風前の灯となつた。妻の河蓮實は、当時の大阪教区名出保太郎主教に礼拝奉仕者の派遣を依頼した。一人の神学生が派遣されてきた。しかし、そのほかに、主を失つた教会、10才を筆頭に4人の子供をかかえた牧師夫人を問安するものはいなかつた。

今年1月、宣教協議会の準備委員会がまとめた資料の中に、戦時に日本聖公会が祈つた天皇のための祈りや、公会問答が資料として掲げられている。これを読んだ張牧師の家族の一人が、「お父さんが、天皇の名によってあんなにいじめられていたときに、日本聖公会はこんな祈りをしていたの

## 장 준상 목사님(성 가브리엘 교회)의 체포

사제 미야지마 마코토

1941년 12월 8일 이른 아침, 이쿠노구 모모다니의 성가브리엘 교회의 장본영(1939년 창씨개명에 의해 하리모토 사카에가 된다) 신부님은, 특별 고등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자택 뒤에 있는 이쿠노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그것이 100일이나 계속된 구류와 고문의 나날의 시작이었다. 부인인 하영실 사모님은,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갈아 입을 내의와 떡(콩고물을 문힌 떡)을 차입하였다. 「좋아 맡아두지」라고 맡아주었던 것은, 장신부님이 석방될 때까지 그의 손에 건네 지지 않았다. 장신부님은 조선 출신으로, 1919년에 왕의 급사의 통지를 듣고 귀국하여, 재빨리 3·1 독립운동에도 참가한 애국인이었다. 그때 한국에서 체포되어 6개월간 구류된 경험도 있다. 그러한 항일 운동 참가의 과거, 또, 교회에 많은 선교사가 출입했던 것, 한국인에 대한 편견 등이 겹치고, 때 마침 시작된 태평양전쟁을 국민 통제로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던 특별 고등경찰에 있어 장신부님은 표적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체포를 알게 된 아베 장로(당시 성바울로 교회 근무. 카츠야마 공원 근처에 거주)는, 유치장과 담 하나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한층 높게 북을 치며, 장신부님의 용기를 북돋웠다고 한다. 당시 아베씨는, 중국 대륙에서의 전쟁에 의해, 전 일본의 분위기가 고양되어 있기도 하여, 매일 아침 6시에 새하얀 셔츠를 입고, 앞에 큰북을 메고 북을 치면서 근처를 돌아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일과였다. 장신부님은 매일 아침 익숙해진 아베씨의 북 소리에 같은 노동자의 존재와 격려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1개월 후, 간신히 조카인 권영주씨가 해군 일등 무선사로 일하면서, 면회가 허락되었다. 장신부님은 연행되었을 때 그대로의 복장으로

속옷은 무릎과 팔꿈치가 닳아 떨어지고, 볼은 보라색으로 부어 올라있고, 머리는 한가운데가 쥐어 뜯겨, 여기저기 피명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후일, 그의 말에 의하면 손을 목뒤로 돌려 묶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정좌를 하게 하여, 얻어맞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아미테라 오오미카미와 하느님 중 누가 위대한가」라고 추궁 받았다고 한다. 조사에 지친 경관들은 바둑을 두며 쉬었지만, 장신부님은 같은 정좌자세로 있어야 하는 엄청난 아픔과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 당했다. 성가브리엘 교회는 목사를 빼앗겨 선교의 불은 풍전등화였다. 아내인 하영실씨는 당시의 오사카 교구 나이테 호타로 주교님에게 예배 봉사자의 파견을 의뢰했다. 한사람의 신학생이 파견되어 왔다. 그러나, 그 외에 주인을 잃은 교회, 10세 아이와 더 어린 4명의 아이를 키우는 목사 부인을 문안하는 사람은 없었다. 금년 1월, 선교 협의회의 준비위원회가 정리한 자료에, 전쟁 때에 일본 성공회가 기도한 천황을 위한 기도나, 교리문답이 자료로서 제시되었다. 이것을 읽은 장신부님인 가족 한사람은 「아버지가 천황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면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일본 성공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었나」라고 신음하듯 말했다. 100일에 이르는 고문 후, 장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집회 금지령에 의한 교회의 폐쇄였다.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에 대해 그렇다면, 「청년 학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교섭하자, 「그것도 안돼」라며, 결국은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지만, 건물을 곧바로 처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신들의 돈을 지불해 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물의 명목이 오사카 교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분을 위

か、こんなことを教えていたのか」とうめくように言った。100日に及ぶ拷問の後に、張牧師を待っていたのは、集会禁止令にもとづく教会の閉鎖であった。「礼拝をしてはいけない」との命令に対し、それでは、「青年学校をしてはどうか」と交渉すると、「それもだめ」ということで、ついに建物を処分することとなったが、建物をすぐに処分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なぜなら、実際には、自分たちがお金を払って買ったにも拘らず、教会の建物の名義人は大阪教区になっていたからである。そこで処分をするために、自分のものにするため教会の建物を、もう一度、大阪教区から買い戻さねばならなかった。この時、教区はなんら有効な手立てをとってはいない。このために張牧師は、大きな借金を背負うことになる。もっとも、大きな借金は張牧師にとっては、別段珍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戦前、戦後を通じて、他人のために働き、他人のために尽くし、教会のために仕える働きをなす同師にとって、借金は、当り前の、む

しろ必然のことであった。戦後、家族総出で醤油を売りながら、家計を支えた一家は、多くの牧師が、教区、教会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た時代にあつて、教区の交わりから見離され、見逃されていたといえる。このことは、張牧師の按手年月日にも表れ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1925年3月に福岡神学校を卒業し、4月に伝道師の認可を受けた後、1938年2月に執事按手(13年後)、1956年12月によりやく司祭に按手された。伝道師認可後実に31年の月日がたっていたのである。戦争のどさくさがあったのか。いやむしろ戦時には、所定の期間を短縮しても、按手されたひとつの話聞くことはある。教会が設立できるまでは牧師に任じられなかったのか。かれは、戦前にすでに立派な教会堂を献堂している。とにかく、彼の司祭叙任は遅れに遅れたのである。張師にとって、司祭として働ける残された時間は1966年11月の召天まで、10年に満たなかったのである。

#### 【張準相師の信仰とあゆみ (聞きとりによる)】

- |             |  |
|-------------|--|
| 1900. 11. 4 | 張準相(チャン・ジュンサン)師、韓国忠清南道公州郡公州面草鳳里に生まれる。幼名張萬石(マンソク)、こと張仁植(インシク) |
| 1912        | 清州普通学校卒業   |
| 1913        | イースターに公州メソジスト教会にて、洗礼志願式(ウィリアム宣教師)                            |
| 1916. 3. 25 | ソウルにて「京城中央高等普通学校」を卒業 その頃、ソウル貞洞聖公会(現大聖堂)に出席                   |
| 1916. 5.    | 同師、渡日。郡山中学校に入学、後立教中学校に編入                                     |
| 1918. 4.    | 同師、立教大学予科に入学   |
| 1919        | 三一独立運動の直前に帰国。運動に参加し逮捕、6ヵ月拘禁さる                                |
| 1921. 4. 15 | 張師、奈良基督教会にて、吉村大次郎師より受洗(教名ヨハネ)                                |

해서는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교회의 건물을 다시 한번, 오사카 교구로부터 되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 교구는 유효한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신부님은 큰 빛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큰 빛은 장신부님에게 있어, 특별히 드문 것은 아니었다. 전쟁전, 전쟁 후 계속 타인을 위해서 일하고, 타인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부님에게는 빛은 당연한 어찌면 필연이었다. 전쟁 후,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해 간장을 팔면서 가계를 유지했던 일가는, 많은 신부님들이 교구, 교회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볼때 교구의 교류에서 버림받고 간과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장신부님의 안수 연월일에

도 알 수 있지 않을까. 1925년 3월에 후쿠오카 신학교를 졸업해, 4월에 전도사의 인가를 받은 후, 1938년 2월에 부제 안수(13년 후), 1956년 12월에 간신히 사제 안수를 받았다. 전도사인가 후 실로 31년의 세월이 경과되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혼잡해서일까? 아니 오히려 전시에는 소정의 기간을 단축해서도 안수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교회를 설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목사로 임명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는 전쟁 전에 벌써 훌륭한 교회당을 헌당 하고 있다. 어쨌든, 그의 사제임명은 지연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다. 장신부님에게 있어 사제로서 일할 수 있는 남겨진 시간은 1966년 11월의 소천까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 장 준상신부님의 신앙과 발자취(조사에 의해)

- 1900.12.10 장 준상씨, 한국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초봉리에서 태어남. 아명 장만석, 다르게는 장인식
- 1912 키요슈 보통 학교 졸업
- 1913 부활절에 공주 감리교회에서 세례 지원식(윌리엄 선교사)
- 1916.3.25 서울에서 「경성 중앙 고등보통학교」를 졸업. 그 무렵 서울정동성공회(현 대성당)에 출석
- 1916.5 독일. 코오리야마 중학교에 입학, 후 릿교 중학교에 편입
- 1918.4 릿교 대학 예과에 입학
- 1919 3·1독립운동 직전에 귀국. 운동에 참가해 체포, 6개월 구금 당함
- 1921.4.15 나라 기독교회에서, 요시무라 다이지로우 사제에게 세례 받음(교명 요한)
- 1922.3.20 릿교 대학 중퇴, 오사카성바우로 교회에서 탁카 주교에게 견진 받음
- 1923.9.1 간동대지진, 조선인대학살 사건 일어남. 나라 기독교회의 요시무라 다이지로우목사가 장신부님을 숨겨준다. 성공회·후쿠오카 신학교(당시)에 입학
- 1925.3.25 성공회·후쿠오카 신학교(당시)를 졸업. 계성 디모데 교회 근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선교 활동을 개시한다.
- 4.15 계성 디모데교회에서 전도사인가
- 11. 성요한 학원(당시, 오사카시 텐노우지구 사이쿠다니) 부지 내에, 재일 한

1922. 3. 20 同師、立教大学中退、大阪聖パウロ教会にて、タッカー監督より受按
1923. 9. 1 関東大震災、朝鮮人大虐殺事件おこる。奈良基督教会、吉村大次郎師、張師をかくまう。張師、聖公会・福岡神学校(当時)に入学
1925. 3. 25 同師聖公会・福岡神学校(当時)を卒業。堺聖テモテ教会に勤務し、在日韓国人に対する宣教活動を開始する
4. 15 張師、堺聖テモテ教会にて、伝道師認可
11. 同師、聖ヨハネ学園(当時、大阪市天王寺区細工谷)敷地内に、在日韓国教会衆の集会(後の聖ガブリエル教会)を開設する。細工谷講義所
1932. 9. 21 朝鮮ミッションのための土地購入登記手続き完了
1933. 1. 22 桃谷講義所(大阪市生野区勝山北)献堂式
1938. 2. 20 名出監督司式、スミス・安倍長老推薦により、張伝道師の執事接手式(桃谷講義所)
1939. 8. 29 私用にて帰省中の張師、創氏改名のため、改姓名願書を道庁に提出し、8月28日付けにて改姓名許可状ありて、8月29日付けにて新姓名は、「張本栄(はりもと・さかえ)」となる
- 牧師館増築完成
1941. 12. 太平洋戦争開戦直後、張氏生野警察により身柄を拘束される。面会謝絶4ヵ月間
1942. 4. 20 戦争の激化にともない、弾圧も厳しく、集会等も禁止され、教会閉鎖
1942. 11. 7 教会土地、礼拝堂、牧師館を大阪教区より買い戻す。礼拝堂を処分
- 1942 有年(うね)(兵庫県赤穂市)に疎開。炭焼きなどをして生計をたてる
- 1944 家族、年少者は花園(現東大阪市)に疎開
1945. 3 大阪大空襲
- 8 日本敗戦・朝鮮解放
- 1946 民族学校の働きを始める
- 1947~48 鶴橋朝鮮小学校の設立、校長として活躍
1950. 1. 16 長男スゲン死亡。醤油販売を始める。そのころ大阪聖パウロ教会にて奉仕
1954. 2. 25 張師・大阪市生野区勝山北の私宅を開放し、聖ガブリエル教会として教会活動を再開する。5ヵ年計画。松本主教出席、教会再開感謝礼拝
1956. 12. 21 柳原主教司式、松岡司祭推薦により、張執事の司祭接手式(川口基督教会)
1965. 4. 14 プール学院入学差別事件報道さる
4. 29. 大阪教区連合こども運動会参加辞退
1966. 11. 4 張司祭、大阪警察病院にて就眠
- 河「教会はどう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
- 張「大阪教区にまかせなさい。大阪教区がちゃんとしてくださる」
1978. 7. 大阪市浪速区元町のナンバプラザビルの一室を借りて、主日礼拝を行う。岡

- 1932.9.21 국인 신도 집회( 후의 가브리엘 교회)를 개설한다. 사이쿠다니강의소  
조선인 전도를 위한 토지 구입 등기 수속 완료
- 1933.1.22 모모다니 강의소  
(오사카시 이쿠노구 카츠야마키타)  
헌당식
- 1938.2.20 나데감독의 식 집전, 스미스·아베 장로 추천에 의해 장전도사의 부제 안수  
식(모모다니 강의소)
- 1939.8.29 개인적인 용무에서 귀성, 창씨개명 때문에 개정이름원서를 도청에 제출해,  
8월 28 날짜로 개명허가장, 8월 19 날짜로 새 이름은 「장본영(하리모토 사  
카에)」  
목사관 증축 완성
- 1941.12. 태평양전쟁 시작 직후, 이쿠노 경찰에 의해 구속당함. 면회 사절 4개월간
- 1942,4.20 전쟁의 격화로 탄압도 엄해지고,  
집회 등도 금지되어 교회 폐쇄.
- 1942.11.7 교회 토지, 예배당, 목사관을  
오사카 교구로부터 재구입.  
예배당 처분
- 1942 우네(효고현 아코우시)에 피난.  
숫구이 등을 함
- 1944 가족, 연소자는 하나엔  
(현히가시오사카시) 로 피난
- 1945.3 오사카대학교 공습
- 1946 민족학교의 기능을 시작하다
1947. 48 쓰루마시 조선 초등학교의 설립,  
교장으로 활약
- 1950.1.16 장남수(스겐)사망.  
간장 판매를 시작.  
당시 오사카 성바우로 교회에서  
봉사
- 1954.2.25 오사카시 이쿠노구 카츠야마키타의 사택을 개방해, 성가브리엘 교회로서  
교회 활동을 재개한다. 5개년 계획. 마츠모토 주교 출석, 교회 재개 감사  
예배.
- 1956.12.21 야나기하라 주교 집전, 마츠오카 사제 추천으로 장부제의 사제 안수식(카  
와구치 기독교회)
- 1965.4.14 풀 학원 입학 차별 사건 보도
- 4.29 오사카 교구 연합 어린이 운동회 참가 사퇴
- 1966.11.4 오사카 경찰 병원에서 별세  
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 「오사카 교구에 맡기시오.  
오사카 교구가 잘 해 줄 거요」
- 1978.7. 오사카시 나니와구 모토마치의 난바 플라자 빌딩의 을 빌려, 주일 예배를

- 司祭、日曜勤務。生野子供会活動さかん
1984. 1. 生野地域で、福音宣教活動を行うため、その宣教拠点としての教会・地域活動センターを建設する決議を受聖餐者総会で行い、募金活動を開始する
1984. 12. 建設計画の一環として、生野区にもっとも近い、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内(天王寺区)に、礼拝所を移し、主日礼拝を合同で守ることなど、5年間を期限として、同教会と協働の教会活動を始める
1989. 生野区小路東の地に土地を購入し、プレハブの礼拝所、集会所を設置。
1991. 9 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こひつじ乳児保育園の三者共同の建物建設に着工。建設期間中、韓国 YMCA にて礼拝を守る
1992. 3. 1 同上の建物完成
3. 29 聖ガブリエル教会竣工感謝、祝別式
1993. 3. 28. ステンドグラス完成奉獻式

(1995年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資料より)



- 행함. 오카 사제, 주일 근무. 이쿠노 어린이회 활동 활발.
- 1984.1. 이쿠노 지역에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선교 거점으로서 교회·지역 활동 센터를 건설하자고 신자총회에서 결의, 모금 활동을 개시한다
- 1984.12.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쿠노구에 가장 가까운 오사카성남쪽 기독교회 안(텐노지구)로 예배소를 옮겨, 주일 예배를 합동으로 지키는 등, 5년간을 기한으로서 성가브리엘 교회와 협동의 교회 활동을 시작하다
1989. 이쿠노구 쇼지히가시에 토지를 구입해, 조립식 주택의 예배소, 집회소를 설치.
- 1991.9 교회, 이쿠노 센터, 어린양 유아 보육원의 삼자공동의 건물 건설에 착공  
건설 기간 중, 한국 YMCA에서 예배를 지킨다
- 1992.3.1 건물 완성.
- 3.29 성가브리엘 교회 준공 감사, 축복식
- 1993.3.28 스텐드글라스 완성 봉헌식

(1995년 일본 성공회 선교 협의회 자료로부터)

聖公会生野センター総主事 呉光現

#### 聖ガブリエル教会の再建と聖公会生野センター開設

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ルーツは聖ガブリエル教会に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聖ガブリエル教会の歴史は在日一世の張本栄(チャン・ボンヨ)師が1925年に大阪で在日朝鮮人に対する宣教活動を開始したことに始まります。戦前は多くの朝鮮人会衆が集う活発な教会でした。しかし、それは又苦難の歴史の連続でもありました。太平洋戦争勃発による日本官憲からの「朝鮮人教会」の強制閉鎖、そして戦後も日本聖公会から十分な支援を受けられずに教会堂は喪失しました。張司祭の就眠後は残された家族が中心となり牧師宅や賃貸ビルで礼拝が守られてきました。1980年代に入り、聖公会有志の取り組みや、日韓の聖公会の交流を通してようやく、聖ガブリエル教会の試練が聖公会に広く知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は又、日本聖公会が自らの戦争責任に気づかされてきたことと深く関係していました。聖ガブリエル教会、大阪教区で教会が生野に帰ることが決議され実行されました。そして1988年に管区総会で聖ガブリエル教会・地域活動センター建設が決議されるに至りました。

上記の動きと平行して、1980年代から司祭と聖公会大阪教区の青年が中心となり研修会などの具体的な活動が始まりました。少しずつ地域の中に入っていった時期でした。特にキリスト教超教派の団体である生野地域活動協議会に加入したことは、その後の地域活動の視点を養うための学び

になっていきました。

以上の変遷を受けて、現在の活動は建物が竣工する1年前の1991年から始まりました。その際の方針として確認されたのが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教会が立てた機関として、運営規則の目的を以下のように採択し、「社会活動」を行うことを確認しました。これは10年以上経た今も変わることなく堅持されています。

(目的) 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日本聖公会により設立され生野地域を中心として、在日韓国・朝鮮人と日本人に代表されるような様々な民族・文化的立場が違う者同士が共に働き、生きとし生ける者がすべて自己を尊重される社会の実現のための社会活動を行う。

#### 建物の中で

1992年4月に始まった活動は、

I) 地域に根ざす、II) 在日韓国朝鮮人と日本人との協働を大切にする、III) 良いものはどんどん取り入れていこうが当初の考えでした。

当初から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i) 建物の中での活動、ii) 地域の中での活動、iii) 地域を越えた活動 をしていこうとなりました。

そこで、聖ガブリエル教会・こひつじ乳児保育園・聖公会生野センターと3つの機

##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발자취 -1992부터 2004-

성공회 이쿠노센터 총주사 오 광현(吳 光現)

### 성가브리엘 교회의 재건과 성공회 이쿠노 센터 개설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뿌리는 성가브리엘 교회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가브리엘 교회의 역사는 재일조선인 일세인 張 本榮(장본영)선생님께서 1925년에 오오사카에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선교 활동을 개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평양전쟁전은 많은 조선인 회중이 모이는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발발후 일본 관헌으로부터의 「조선인 교회」의 강제 폐쇄,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끝난후에도후에도 일본 성공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못한채 성당건물을 상실하게되는등 여러가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장 사제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이 중심이 되어 사택(사제관)과 빌딩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성공회의 뜻있는 분들의 활동과 일한 성공회의 교류를 통해서 성가브리엘 교회의 시련이 일한성공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 성공회가 스스로 전쟁 책임에 대해 인식을 하게되어가는 것과 깊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성가브리엘 교회와오사카 교구는 교회를 원래 있던 이쿠노 지역에 다시 세울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성공회 관구 총회에서 성가브리엘 교회와 지역 활동 센터 건설이 결의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움직임과 병행 해, 1980년대부터 사제와 성공회 오사카 교구의 청년이 중심이 되어 연수회등 등의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교회가 지역안에 들어갔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크리스트교초교파의 단체인 이쿠노 지역 활동 협의회에 가입했던 것은 그 후의 지

역 활동의 시야를 기르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갔습니다.

이상의 변천속에서, 현재의 활동은 건물이 준공하기 1년전인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의 방침을 성공회 이쿠노 센터는 교회가 세운 기관으로서 운영 규칙의 목적을 이하와 같이 채택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10년 경과한 지금도 변함없이 견지 되어 있습니다.

(목적) 성공회 이쿠노 센터는 일본 성공회에 의해 설립되고 이쿠노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대표 되는 여러 민족·문화적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살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존중받는 사회실현을 위해 사회활동을 한다.

### 건물 안에서

1992년 4월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지역에 뿌리내리고 2)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협동을 소중히 하고 3) 좋은 것은 점점 도입해 가는 것이 당초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초부터 성공회 이쿠노 센터는, 1) 건물 안에서의 활동, 2) 지역 속에서의 활동, 3) 지역을 넘어선 활동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 성가브리엘 교회·코히쓰지(어린이)유아 보육원·성공회 이쿠노 센터라는 세가지 기능을 가지는 건물이 104평이라고 하는 작은 토지위에 지어졌습니다. 근처 사람에 있어 교회·보육원은 상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 활동 센터」에 대해 상상하기는 거의 어려운게

能を有する建物が104坪という小さな土地に建てられました。近隣の人にとって教会・保育園はイメージするのに難しくはありませんが、「地域活動センター」のイメージはほとんどできないというのが実情だったでしょう。

センターがはじめて建物でプログラムをもったのは夏の子ども会で、「こみち（センターの住所の小路からとった）むくげの子ども会」と名付けて夏休みに行ないました。思った以上に多くの子どもたちが集まりました。残念ながらこれは継続できず、夏の特別プログラムとして終わりました。物理的に昼間を自由に使える場所がなかったためです。しかし、センターの働きが地域に示せたはじめての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次に始めたのが「こみち寄席」です。日本の大衆文化である上方落語と上方講談を組み合わせる年に6回、奇数月に行なっています。今年で12年を迎えました。50回記念には上方落語の大御所である笑福亭仁鶴さんを招き、盛大に落語会を持つことができました。毎回の入場者は20名程度と決して多くはありませんが、地域の方の楽しみの一つになっています。

次に始めたのが韓国語と絵画の教室です。韓国語は週2回の講座から始め、現在は毎週火曜日に5クラスでもっています。9年の間に300人以上の受講生が登録をし、現在は約30名の受講生です。今は《研究班》と銘打って、ほとんど韓国語だけの授業も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絵画教室は現在コリアボランティア協会専従でもある久保麗子さん（芦屋聖マルコ教会員・当時プール学院中・高美術科講師）の提案で始めました。当初、少人数でした

が、一人の障害を持つ受講生が来てから障害者が多く学ぶ絵画教室になっています。裏を返せばそれだけ障害者が行ける場が少ない現実があります。

10年の活動から生まれたものの一つには新たな拠点を作ることでした。絵画教室で障害者が多く学ぶと共に、毎年行なっている絵画展などを通して受講生の数の増加と制作意欲の向上により、保育室の限られた時空間では不足が生じていました。そして10年前に少し試みた高齢者が昼間を過ごす場の提供です。幸い、管区の大斎克己献金から立ち上げの資金をいただき近くに賃貸物件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2004年6月に絵画教室の移転、7月に在日韓国朝鮮人1世高齢者の過ごす場の活動を開始しました。

移転を機に絵画教室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 クリンもだん美術教室」と改称しました。クリンとは韓国語のクリダ（描く）の意があり、同じく韓国語では平和の象徴の色であるGREENはクリンということから命名されました。今後地域の障害者美術活動の拠点になることを目指しており、それは教育、福祉関係者からも注目されています。

在日高齢者の過ごす場は、高齢社会の中で、まさに生野センターのミッションの大切な部分であります。植民地支配を強制され、異境の地、日本で人生の大半を過ごさざるを得なかった在日1世が、その人生の最後を何の気兼ねなしに朝鮮語でしゃべり、朝鮮料理を食べ、楽しく過ごす時空間、これはまさに日本が置き去りにしてきたものを忘れずに取り組むことであります。そしてそれは「多民族化」する日本の将来の課

실정이었다.

센터가 이 건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여름철 어린이 모임이었습니다. 「샛길(코미찌)(센터의 주소의 소유지(샛길)골목에서 댄) 무궁화 어린이 모임」이라고 이름 붙여 여름 방학기간에 행했습니다. 상상외로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모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름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끝났습니다. 물리적으로 낮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활동을 지역에 알린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작했던 것은 「샛길(코미찌) 기석」입니다. 일본의 대중문화인 가미가타 만담과 우에가타 강담을 조합하여 년 6회, 홀수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50회 기념에는 가미가타 만담의 중진인 쇼우후쿠때 츠루씨를 모셔서 성대하게 만담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매회의 입장자는 20명 정도로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분들의 즐거움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작한 것은 한국어와 그림 교실입니다. 한국어는 주 2회의 강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매주 화요일에 5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년동안 3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을 해, 현재는 약 30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지금은《연구반》이라 이름 붙여 거의 한국어만으로 수업도 가지는 반도 있습니다.

그림 교실은 현재 코리아 자원 봉사 협회 직원인 쿠보 레이코(아시아성마가 교회신도·당시 풀중·고학교 미술과강사)씨의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 소인원이었지만, 한사람의 장해를 가지는 수강생이 온 것이 계기가되어 장애자가 많은 그림 교실이 되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장애자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적다는 현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의 활동을 통해 새로 생긴 것중의 하나는 새로운 활동거점을 만드는 것이었

습니다. 그림교실에 장애자가 생도가 많아지고 매년 행해온 그림전시회 등을 통해 수강생증가와 제작의욕의 향상함에 따라 보육원이 끝난후 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으로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년전에 시도한 고령인 분들이 낮시간을 보내는 장소의 제공입니다. 다행히, 관구의 극기현금으로부터 개시자금을 지원받아 근처에 임대물건을 확보하여 2004년 6월에 그림 교실 이전, 7월에 제일 한국 조선인 1세 고령자의 쉼터를 개시했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그림교실은 「성공회 이쿠노 센터 그린 모단 미술 교실로 개칭했습니다. 그린이란 한국어 그리다에서 따고, 동시에 한국어에서 평화의 상징색인 녹색GREEN에서 이름지었습니다. 향후 지역의 장애자 미술 활동의 거점이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육, 복지 관계자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한국조선인 고령자의 쉼터는 고령화 사회에 있는 이쿠노 센터의 중요한 선교 부분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강요당해 이국땅, 일본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제일한국조선인1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거리낌없이 우리말로 말할 수 있고, 한국 요리를 먹으며 즐겁게 보낼 공간, 이것은 일본사회가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상기함과 동시에 직접 운영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민족화」하는 일본의 장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활동이 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10년간 배양해 온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또 하나는 3월 1일 전후와 9월 1일 전후의 강연회입니다. 3월 1일은 1919년에 일어난 조선에서의 3·1 독립운동을 기억해 「일본과 한국·조선의 역사」의 과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9월 1일은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에

題でもあります。

この2つの事業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活動がより地域に根ざすことであり、又10年間つちかかってきた地域内外のネットワークがなければできないものでもあります。

プログラムのもう一つは3月1日前後と9月1日前後の講演会です。3月1日は1919年に起こった朝鮮での3・1独立運動を覚えて「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の課題を学んでいます。9月1日は1923年に発生した関東大震災の際に朝鮮人が数千人虐殺されたことを覚え、主に「在日の課題」について学びの時を持っています。この講演会は当初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を会場にしましたが、その後は主に大阪教区の教会を巡回しつつ実施しています。日本と韓国・朝鮮、在日の課題を多くの聖公会の人々に知っていただく機会として大切に行なっているものです。

今は休止しましたが、FMサランについて一言述べましょう。在日の声を地域から発信しようという思いから、多くの人と協力して1992年からFMサランというラジオ放送を始めました。当初は月曜から土曜までの夕方2時間生放送を続けました。放送を通して思ったことが一つあります。それは、いかに私たち向日韓国・朝鮮人が「発信」というものに対して「飢え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印刷物でない、待たなしの放送です。「多様な」人が集まった放送局は新しい可能性を秘めていたと思います。残念ながら1998年に休止にいたりしました。しかしこの取り組みは「新しいアイデアは人を引きつける魅力を持つ」ということを実感させてくれました。その点

ではFMサランの経験はその後の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活動に有形無形の影響を与えたと思います。

## 地域の中で

センターの働きの課題は「地域の中」に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生野地域に建てられたセンターとして地域の中の人々が繋がっていくことは大きな財産でもあります。そのきっかけは地域に住む独居老人との関わりでした。ほとんど生活が破綻していたある在日一世の老人の生活を支援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でこそ「地域生活支援」という考え方は高齢者・障害者福祉を考える上での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ますが、1993年当初はまだまだその考えは難しい状況でした。生野区在住の聖公会の信者さんから連絡を受け、その方の生活支援を行なうことになりました。まず、主治医を決めて、行政に連絡をし、地域の民生委員さんの協力を得て、「自宅生活を続けたい」という、その方の生活支援プランを考えました。痴呆が始まっており、体も不自由になりつつありましたが、主治医の強い要請もあり、週に2回ホームヘルパーが訪問し、(当時はまだ介護保険は始まっていなかった)老人配食の協力を得て、近くのパン屋さんにツケで買えるようお願いし、ボランティアの訪問も定期的に組みました。どうしても日曜日が誰も訪問できないので私が教会に行く前に訪問してパンと一緒に買いに行ったものでした。毎週のべ20人を超える人が関わり2年にわたり生活を支援したものです。最後は老人ホームで天に召されましたが、現在は聖ガブリエル教会の納骨堂に遺骨が安置されています。

조선인이 수천명 학살된 것을 상기 해 주로 「재일한국조선인의 과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연회는 당초는 성공회 이쿠노 센터를 장소로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오사카 교구의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조선,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과제를 많은 성공회 사람들이 배우고 접하는 기회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FM사랑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일한국조선인의 목소리를 지역으로부터 발신 하려고 의도로, 많은 분들과 협력해 1992년부터 FM사랑이라는 라디오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저녁 2시간 생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생각하게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 재일 한국·조선인이 「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끓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쇄물이라는 시간차를 둔 매개체가 아닌 바로 접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이 방송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지만 1998년에 쉬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FM사랑라디오 방송의 경험은 그 후의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활동에 유형 무형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 속에서

센터의 활동에 대한 과제는 「지역안」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쿠노 지역에 지어진 센터로서 지역안의 사람이 연결되어 가는 것은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 계기는 지역에 사는 독거 노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거의 생활이 파탄하고 있었던 재일 동포 일세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지역 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가치관

은 고령자·장애자 복지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1993년 당초는 아직도 그 러한 생각이 받아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쿠노 구 거주 성공회의 신도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분의 생활 지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치의를 결정해, 행정기관에 연락해, 지역의 민생 위원의 협력을 얻어, 「자택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분의 생활 지원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고 몸도 부자유스럽게 되어 갔습니다만, 주치의의 강한 요청도 있어, 주 2회 파출부가 방문해, (당시는 아직 개호 보험은 시작되지 않았다) 노인배식의 협력을 얻고, 가까이있는 빵 가게주인에게 의상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해, 자원 봉사자의 방문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에는 아무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가기 전에 방문해 빵을 함께 사러 가곤 했습니다. 매주 총 20여명을 넘는 사람이 2년에 걸쳐 생활을 지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양로원(노인의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재는 성가브리엘 교회의 남골당에 유골이 안치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후에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커다란 활동으로 이어지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구원 활동」과 「정신 장애자 자립 지원 활동」에 살려져 갑니다.

#### 진재 구원 활동으로부터 성공회 나가타 센터에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는 성공회 이쿠노 센터는 코베의 나가타구를 중심으로 구원 활동을 했습니다. 나가타구가 큰 피해를 받았고, 많은 재일 한국·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큰 동기였습니다. 오오사카 교구·코베 교구와 연대하면서, 구원 활동은 「한신 대지진 재해 약자 구원 센터」를 개설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점을 코베 교구의 성미카엘대성당에 둔 이후로

この経験は、後に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大きな働きに繋がる「阪神淡路大震災救援活動」と「精神障害者自立支援活動」に活かされていきます。

#### 震災救援活動から聖公会長田センターへ

1995年1月17日に発生した阪神淡路大震災で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神戸の長田区を中心として救援活動を行ないました。長田区が大きな被害を受けたこと、多くの在日韓国・朝鮮人が居住していることがその大きな動機でした。大阪教区・神戸教区と連携をとりながら、救援活動は「阪神大震災被災弱者救援センター」を立ち上げることから開始されました。拠点を神戸教区の聖ミカエル大聖堂に置いてからは、神戸教区の関係者の支援のもと、ボランティアが中心となり長田地区を中心に活動を行ないました。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主事は大阪から通い、名古屋学生センターからスタッフ派遣の協力を得ながら、3月末までとにかく走りながら活動しました。救援活動の長期化につれて、場所をお借りすることのできた長田区の聖公会信徒宅の離れに拠点を移し、「聖公会長田センター」の設立に向けて動き出しました。

当初は、在日外国人支援、障害者支援、高齢者支援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活動を展開しました。長田に拠点を移し神戸教区が中心となり長田センター設立に向けてからは救援活動の中身を大切にしながらも、教会が主体的に関わることのできる活動の模索が始まりました。これは震災救援活動の発展と共に新しい「宣教のスタイル」の追求でもありました。

「聖公会長田センター」は論議を重ねな

がら多くの人との協働のもと、神戸教区内の神戸市長田区に、翌1996年4月に発足しました。長田の地に足をつけて働いていこうとする多くの人の願いがここに結実しました。聖公会長田センターの働きは全聖公会に注目を受け、多くの支援を受け、そのおかげで、活発な活動を展開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しております。しかし震災復旧が進むにつれ長田宣教について共通の認識を持つことの難しさ、更には財政的な裏付けの弱さなどが問題となりました。その結果、拠点を長田に得つつも専従を置きながらの運営を断念し、長田宣教担当の司祭のもと、地道であろうとも長田での働きを継続させることを聖公会長田センター運営委員会は決定しました。この時点で、専従を置いたかたちでの地域活動センターは幕を下ろしたのです。

震災救援活動から聖公会長田センター設立へ至った経験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にとって大きな学びでもありました。緊急時に素早く対応する、それはまさに日常の活動の姿が反映したものでした。又、教会と教会を基盤にした地域活動を、キリスト教宣教という視点でどのように捉えるのか、現場での働きと運営が如何に連携していくのかなどが「聖公会長田センター」で問われ続けましたが、それ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問題でもあります。聖公会のみならず日本全国、海外からも支援を受け「弱者救援センター」から「聖公会長田センター」へと発展していった力の一翼を聖公会生野センターが担えたことは多くの人と協働することの大切さを教えてくれました。



는, 코베 교구의 관계자의 지원 아래, 자원 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나가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주임은 오오사카로부터 나가타에 통근하고 나고야에 있는 나고야학생 센터로부터 스태프의 파견이라는 협력을 얻으면서, 3월말까지 어쨌든 분주하게 활동했습니다. 구원 활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장소를 제공해주신 나가타구의 성공회 신도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성공회 나가타 센터」의 설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는 재일 외국인 지원, 장애인 지원, 고령자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치는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나가타에 거점을 옮겨 코베 교구가 중심이 되어 나가타 센터 설립을 하기로 한 이후로는 구원 활동의 내용을 소중히 하면서도, 교회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질수 있는 활동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지재해 구원 활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선교의 스타일」의 추구이기도 합니다.

「성공회 나가타 센터」는 논의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과의 협동 아래, 코베 교구의 코베시 나가타구에, 다음 1996년 4월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나가타의 지역에서 일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공회 나가타 센터의 활동은 전 성공회에 주목 속에서 지원을 받은 덕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던 것을 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재해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나가타 선교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가지는 것의 어려움, 더더구난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함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거점은 나가타지역지만 전속담당자를 두는 것을 단념해, 나가타 선교 담당 사제의 관리 하에 작지만 나가타에서의 활동을 계속 할 것을 성공회 나가타 센터 운영 위원회는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직담당자를 둔 지역 활동 센터로서의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지재해 구원 활동으로부터 성공회 나가타 센터 설립에 이른 경험은 성공회 이쿠노 센터에 있어서도 큰 배움이기도 했습니다. 긴급시에 재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일상 활동의 모습이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을, 크리스티교 선교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현장에서의 활동과 운영이 어떻게 연대되어 가는가가 「성공회 나가타 센터」에서 계속 거론되었는데, 이는 곧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공회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 해외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약자 구원 센터」로부터 「성공회 나가타 센터」로 발전해간 과정에 있어 성공회 이쿠노 센터가 관여하며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 정신 장애인 자립 지원 활동... 자원봉사로부터 NPO 법인으로

현재,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큰 기능의 하나로서 지역에 있어서의 정신 장애자의 자립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이 활동의 계기는 장애인 복지·지역생활지원에서있어 신체·지적장애자에 비해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편견도 심하게 남아 있다는 것에있었습니다. 지역의 진료소나 소규모 작업소의 직원, 그리고 정신장애 당사자와 함께 시작한 이 활동은, 지역 속에서 정신장애자가 조금이라도 생기있게 생활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소모임에서부터 사람도 늘어나, 오오사카시로서는 처음으로 「정신장애자 지역생활 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어, 건물도 결정해, 1999년 4월에 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장애자를 지원하는 모임 히트」의 대표를 맡고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5월에 들어가면서 지원센터 주변의 주민으로부터 「시설개설반대운동」

### 精神障害者自立支援活動・・・

#### ボランティアからNPO法人へ

現在、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大きな働きの一つに地域における精神障害者の自立のための関わりがあります。1994年から関わったこの働きの最初の契機は障害者福祉・地域生活支援の中でも身体・知的障害者に比べて精神障害者のそれが社会的な資源も乏しく、且つ偏見も厳しく残っていることでした。地域の診療所や小規模作業所の職員、そして精神障害当事者と共に始めたこの活動は、地域の中で精神障害者が少しでも生き活きと過ごせることを願いレクリエーションを中心に行ないました。少しずつ小さな集まりから人も増えてきて、大阪市ではじめての「精神障害者地域生活支援センター」を開設することになり、物件も決定し、1999年4月にその業務が始まりました。当時私は「精神障害者を支援する会ヒット」の代表を務めていたこともありましたが、5月に入ると支援センター周辺の住民から「施設開設反対運動」が起りました。これは何よりも精神障害者に対する偏見の姿そのものでした。多くの人と反対運動に向き合いながらその年の12月には地域住民、大阪市と3者の協定を締結するに至り、業務は正常化しました。

この経験からNPO法人取得に動き出し、昨年3月に「特定非営利活動法人精神障害者支援の会ヒット」として法人格を取得し、現在に至っています。法人取得以降、大阪市行政とも連携しながら新規事業も始め、現在は地域の中で8つの拠点で12の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現在も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総主事がヒットの事務局長として関わりながら活動しています。

#### 聖公会での働きと課題・・・結語に代えて

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働きは又、日本聖公会に向けた働きでもありました。特に地元の大阪教区、管区レベルの日韓協働委員会、そして大韓聖公会の社会宣教機関（当初はソウル教区の分かち合いの家）との関係のもとに教会の中での働きがすすめられました。大阪教区では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の協力委員に加わり、大阪教区内での在日問題への取り組み、韓国との交流等のリソース機関として関わっています。数度にわたる日韓歴史研修旅行やブックレット「在日宣教シリーズ」の発行に協力しました。又、教区を越えては他の教区への啓発活動、現場研修のコーディネイト、更に管区レベルの日韓聖公会交流等にも関わりを持ち続けています。

教会の中での活動は「教会立」のセンターであるから当然だと思われませんが、ややもすれば「教会が満足するためのセンター」にもなりかねません。教会の中での働きも常に「教会の外での働き」がその基礎にならなければならいでしょう。その「基礎」の上に立ち教会に向けて働いていく、この当たり前のことが常にセンターでは検証しながら進め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これからも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活動がなされていくためには教会との協働は常に求められます。更に逼迫している財政の課題など、決して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前途洋々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いつの時代も決して「多数者」の価値観によらない、あえて言うならば社会の周辺に置かれた人にこだわり、解放を目指す働きが求められています。

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자에 대한 편견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반대운동에 서로 접하면서 그 해 12월에는 지역 주민, 오오사카시와 3자의 협정을 체결 함에 이르러, 업무는 정상화했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NPO법인을 취득하기로 하여, 작년 3월에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정신 장애자 지원의 모임 히트」라는 이름으로 법인자격을 취득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 취득 이후, 오오사카시 행정과도 연대하여 신규 사업도 시작해 현재는 지역 안에서 8개 거점에서 12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총주사가 히트의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성공회에서의 활동과 과제...맺음말을 대신하여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활동은 또한 일본 성공회를 향한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발판인 오오사카 교구, 관구 차원의 일한 협동위원회, 그리고 대한성공회의 사회선교기관(당초는 서울 교구의 나눔의 집)과의 관계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오오사카교구에서는 제일 한국조선인선교협동위원회의 협력위원으로서 오오사카 교구내의 제일한국조선인 문제에 관여하여왔으며 한국과의 교류등에 있어서 재료 제공 기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일한역사연수여행과 소책자 「제일선교시리즈」의 발행에 협력했습니다. 또한 교구를 넘어 다른 교구에있어서의 계몽 활동, 현장연수 코디네이트, 더 나아가 관구 차원의 일한성공회교류등에도 관계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교회가 세운」 센터이기에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칫하면 「교회가 만족하기 위한 센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늘 「교회의 밖에서의 활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서서 교회를 향해 일해 가는, 이 당연한 일이 늘 센터에서 검증하며 실행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활동이 계속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와의 협동이 항상 요구됩니다. 더더구나 궁핍한 재정적인 과제 등, 결코 성공회이쿠노센터의 앞길이 유망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도 결코 「다수자」의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는, 굳이 말한다면 사회의 주변에 놓여진 사람에 입장을 소중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활동이라 할지라고도 「특색있는 활동」을 해온 성공회 이쿠노 센터로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활동은 새로운 미션(선교)의 실험이기도하며」이 「실험」이 성공함으로 인해 「실험」이 본격적인 선교 활동으로 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今後とも、聖公会生野センターが小さな働きであろうとも「こだわった活動」を続けていきたいと願います。それは「聖公会生野センターは新しいミッション（宣教）の実験である」、「実験」が成功することであり、「実験」が本格的な事業にな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1991年3月17日、横浜聖アンデレ教会婦人会例会に招かれて講演された時の今村秀子さんの原稿をもとに、原文を尊重して、言い回しを修正したものです。

皆様の勉強会で自分勝手に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の側に身を置いて、日本で“差別”の中に生きている現状を分かっていたら、この“差別”の壁さえなかったら、全て解決される問題ばかりでございます。実は“聖公会”からお座敷がかかったのは、これ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今まではよそ様の教会ばかりで、いつも第三者の立場で、意見を申し上げて参りました。この度は内々の集まりですし、これが最初で最後かとも思われますので、誠におこがましく気が引けますが、“ありのままの体験”をお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存じます。

さて、先頃、私が在籍している教会で“差別”についての勉強会のお誘いをいたしたところ、婦人会の方が、「うちの教会ではそういうことに興味がありませんので」と、電話はガチャンと切れました。当日は司祭様お一人だけご出席下さって、大変良いアドバイスをいただきましたが。最近はおちくちくこういふ勉強会が始められたようで、“時代の流れ”に明るい希望を感じております。先日、ある“差別問題”の集会に参加なさったお一人のオモニさん（お母さん）がちょっと不思議そうに、「“差別発言”をした特定の人ばかりを責めて、まるで自分たちには“差別”意識が無いような口ぶ

りなのはどうかと思う」とおっしゃいました。私どもクリスチャンは、意識して“差別”する人はいませんが、無意識から、あるいは知らずに相手にどれほど大きなショックを与えておりますことか。今も日本社会に根強く残っております“民族差別”の実態について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共に考えたいと存じます。

「憎しみは人を傷つけるが、“差別”は人を殺す」というほど“差別”された側のショックは大きいものです。（足を）踏んだことはあっても踏まれた経験の無い私たちには、ピンと来ないかとも思われますが、現実に自殺者が後を絶たず、見えない所で様々な悲劇が繰り返されているのでございます。

全く運命的としか言いようのないことが次々に起こり、17歳の時から82歳の今日までの65年間、実に思いがけない体験の連続でございました。そして、韓国の方々のお知り合いも初めのお一人から次々と紹介され、今では100をはるかに超えました。その中でお隣の韓国・朝鮮の方々から“人間の真実のあり方”を大変に教えられ、また温められ支えられて参りました。今、何にも増してありがたく、感謝いたす次第でございます。

まず、老人を大切にすることでは、韓国はどの国にも引けを取らないと思います。また韓国には、“本音”と“建て前”というものはありません。いわば、“本音”だけですから、おおらかで、さっぱりしていて、日本人の“建て前”からの言葉には、よく

1991년 3월 17일, 요코하마 성 안드레 교회 부인회정기모임회에 초대되어 강연 하였을때의 이마무라 히데코씨의 원고를 기초로, 원문을 존중해, 표현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 맘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재일 한국·조선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일본에서 “차별” 받으며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시게 되고, 이 “차별” 이라는 벽이 없어지면, 모두 문제가 해결될것이라 봅니다. 실은 “성공회교회”로부터 불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껏 타교파 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언제나 제삼자의 입장에 서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성공회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기도 하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차별”에 대한 학습회를 갖자는 제안을 했더니, 부인회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당일 사제님 한 분만 출석해 주셔서, 몹시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았습시다만. 최근에는 자주 이런 학습회가 열리게 되어 “시대의 흐름”에 밝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전날, 어떤 “차별 문제”에 관한 집회에 참가하신 한 어머니가 좀 이해하기어려운 듯이 「“차별 발언”을 한 특정 사람만을 질책하고 마치 본인들은 “차별”의식이 없는양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크리스찬은 의식 하면서 “차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에게 얼마나 큰 쇼크를 주곤 하는지요. 지금도 일본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민족 차별”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미움은 사람을 상처 입히지만, “차별”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정도로 “차별”당한사람이 받는 쇼크는 아주 큽니다. (다리를) 밟을 경험은 있어도 밟힌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자살자가 끊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가지 비극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차례차례 일어나, 17세 때부터 82세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65년간, 실로 생각지 못한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과 친숙해져 처음 만남 한사람으로부터 차례차례로 소개받아 지금은 백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만남속에서 이웃나라인 한국 조선 분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본연의 자세”를 많이 배우고 따뜻하게 대우받고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무엇에 비할바없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선, 노인을 소중히 하는 모습에 있어 한국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는, “진심”과 “겉치레”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진심”만 있기 때문에, 너글너글하고, 산뜻하며 일본인의 “겉치레”적인 말에는 자주 잘 이해가 안간다며 목을 가우뚱하곤 합니다. 아침이라든지, 빈말은 거의 없고, 타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머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천성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긴 역사 속에서 너무도 고생해 왔기에, 적어도 이런 것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 해요」라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는 보람을 “다른 사람을 사귀는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不思議そうに首を傾けます。お世辞とか、社交辞令とかは皆無で、他者への思いやりの心からの何とも言えないユーモアがあり、これは生来のものかどうか…。「私たちは、長い歴史の中で余りにも苦勞し詰めでしたから、せめてこういう所に慰めを見出したのでは」と。ですから、韓国の方々の生きがいは“他者との交わり”だけとも言われています。まずは、何を置いても“友情”が優先いたします。仕事や職場は、二の次、三の次で、身内や友達のためには、休みを取ってでも即座に駆けつけます。「だから、うちの国は発展が遅れたのです」と苦笑す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韓国の方のお宅を訪問いたしますと、必ずと言って良いほど、炊きたてのご飯のお膳が出て参りますので、「奥様は大変だな」といつも思います。また、お土産を一杯いただきますので、「どうして、こんなに持ちきれないほどに…」と少々困り果てて、親しい韓国の方に申しましたら、言下に「ただあげたいから、あげるだけです」とケロリと言ってのけられ、この何気ない言葉にハッと打たれ、何か私たちが忘れてしまった、“心の原点”に触れた思いがいたしました。

何年か前のこと。婦人たちだけの小さな集まりの席で、「皆さんは、韓国や朝鮮の方々について、どのようなイメージを持っていますか」とまず、問いかけてみました。とたんに全員黙ってうつ向いてしまい、しばらくして私の方から極自然に、「私は、尊敬しています」とありのままを申しましたら、「ウオー！」という驚きともつかない声が一斉に響きわたり、私の方がよほど驚いてしまいました。私は、ここで、

韓国・朝鮮の歴史を語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戦前には“語れば、留置場行き”“書けば、発禁（発売禁止）”と決まっておりましたから、日本人は何も分かりませんでした。今は知ろうと思えば、簡単に知ることができますが、それでもなお、お偉い方が“とんでもない発言”をなさいますのは、やはり“無関心”“無意識の差別”からかと思われ、誠に“差別”の根深い恐ろしさを感じるのでございます。

ある本に「友情に欠かせない最も大切なものは、『敬』の心である。殊に、日韓関係には、これが無ければ…」と書かれているのを読み、とてもそれどころか“同等も難しいのに”と、がっかりいたしました。

私は、女学校卒業の十七歳まで、(お隣の)朝鮮については、善かれ悪しかれ、全然知りませんでした。大正末期、私は田舎から東京の学校に出て参り、母の実家からの通学の予定でしたが、入学式も済んでから、誰もが嫌がる“学生寮”にふと入ってみたくなり、一人割り込みました。その寮は、一部屋に数人ずつで、お隣の部屋から“たどたどしい日本語”が聞こえて参りました。後で廊下でお会いした時、“チマ・チョゴリ”姿の清楚な方と知りましたが、何か素朴な温かいものが伝わって来て大変好感を持ちました。また、別の寮にこの方のお友達がいらっしゃって、ちょっとユーモラスな“姐御肌”の方で、私たち三人はすっかり仲良しになりました。お二人とも名前は、李(イ)さんでした。ある日、この“姐御”の李さんが人気の無い校庭の片隅で、当時の日本と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淡々と語られたのです。今でこそ心ある人は知っていることですが、その頃は勿論、一般の



도 먼저 “우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일이 나 직장은 둘째, 셋째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휴가를 내서라도 즉각 달려갑니다. 「그래서우리 나라의는 발전이 늦었습니다」라며 쓴웃음짓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분의 집을 방문하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금방 지은 밥에다 상을 내놓기에, 「사모님은 큰 일이다」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또, 선물을 아주 많이 주시기에, 「어쩌서, 이렇게 들고가기 어려울 정도로…」라고 조금 곤란해지고 하여, 친한 한국 분에게 여쭙었더니 일언지하에 「다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예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신 말씀에 무엇인가 우리가 잊어 버린, “마음의 원점”에 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전일입니다. 부인들만의 작은 모임 석상에서, 「여러분은, 한국이나 조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하고 우선, 물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원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후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더니, 「우와!」라고 하며 놀라워하는 소리가 일제히 퍼져, 오히려 제가 놀라 버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조선의 역사를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태평양전쟁전에는 “조선에 대해 말하면, 유치장행” “조선에 대해 글을 쓴 것은, 발매 금지”라고 정해져 있어서, 일본사람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신 분이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역시 “무관심”과 “무의식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정말로 “차별”의 뿌리깊은 무서움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책에 「우정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敬」의 마음이다. 특히, 일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없으면…」

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는데 존경하기는커녕 “동등하게 여기기도 어려운데”라는 생각이들어 실망한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학교를 졸업하는 17살때까지, (이웃나라인) 조선에 대해서 좋은 나쁜 것간에 전혀 몰랐습니다. 타이쇼오 말기, 나는 시골로부터 동경으로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외가집에서 통학의 예정이었지만, 입학식이 끝난후 누구나 싫어하는 “기숙사”에 문득 들어가 보고 싶어져, 들어갔습니다. 그 기숙사는, 한 방에 여러명이 생활하는데, 옆 방에서 “더듬거리는 일본말”이 들려 갔습니다. 후에 복도에서 만나는데, “치마·저고리” 모습의 청초한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언가 소박하면서도 따뜻함이 전해져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숙사에 이분의 친구가 계셨는데 좀 유머러스하기도한 언니적인 분으로, 우리 3명은 어느새 사이가 좋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름은, 이씨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적인 이씨가 사람이 없는 교정 한 구석에서, 당시의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담담히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무렵은 일반 일본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들뿐으로, 정말로 놀라버려 엉겁결에, 「왜, 여러분은 어째서 “독립운동”하지 않는거야」하고 흥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친구는 힘없이, 「우리는 경제력이 없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이 “한일합방”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완전<영구>병합”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한국·조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태고적부터 이미 일본 열도에 도래하고 있고, 우리들은 “물심 양면”에 걸쳐서 대륙 문화 신세를 톡톡히 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선 통신사”

日本人には全く知らされていないことばかりで、本当にびっくりしてしまい思わず、「なぜ、あなた方はどうして“独立運動”しないの」といきまいて申しました。その時、友はしょんぼりと、「私たちは経済力が無いから…」と洩らしました。これはずっと後になって分かったことですが、この“日韓併合”は、世界史に類を見ない“完全く永久く併合”というもので、あらゆる権利を剥奪したものです。ですから、お金の無いのも無理ありません。

さて、お隣の韓国・朝鮮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と、太古の時代から既に日本列島に渡来していて、私たちは色々“物心両面”にわたって大陸文化のお蔭を被っております。近くは“朝鮮通信使”の来日。教えを乞うため遠路を厭わず、日本各地から多くの者が駆けつけたと言います。ところが、明治になると、急に日本は欧米に目を向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欧米列強は多くの植民地を持ち発展していて、日本も遅まきながら…という次第でしたから、“日韓併合条約”は急激なあせりの中で締結されました。その植民地政策・統治は、特にひどくて厳しいものとなったようです。こういう歴史の表向きの理由は、当時の清国、ロシアの圧力からの保護という名目で、韓国・朝鮮の国民を日本の天皇の臣民として「一視同仁」日本人と同等の地位を与えるというものですから、何も知らない多くの日本人は、良いことをしている位に思っていたはずでございませぬ。

李さんと出会ってから数年後、全く思いがけずびっくりしましたが、父の朝鮮転勤をきっかけに、いよいよ実地体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下関から関釜連絡船に乗船する時のことでした。岸壁にぴったりと横付けされた大きな船体の船底に向かって、白衣の行列が延々と続いていました。そこに一人の日本人の男が太い棒を持って、一人一人をその棒で叩き込んでいるのでした。私たち日本人は、悠々と高いデッキを昇りましたが、ふと下を見ると、背中に大きな包みを背負った一人のおばあさんが叩き込まれ、丸くなって転んでいるところでした。思わず「アッ！」と小さな叫び声を上げました。駆け寄って、起こしてあげたくてもどう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時、咄嗟に出たのは「李さん、ごめんなさい」とただそれだけが精一杯の言葉でした。この時から、私のたった一人の“日韓巡礼の旅”が始まるのですが、この関釜連絡船だけは、三十六年間の“日帝時代”の悲劇の全てを乗せて、黙々と玄界灘を走り続けていたのでした。

また、子どもの頃（父の転勤で）日本全国をぐるぐると歩きましたが、今思い出すと、日本のあちらこちらで朝鮮の風俗、習慣が見受けられ、言葉や服装などきりがありませんでした。中でもこれが“民族差別”の原因の一つになったのでは…と思えることですが、昔“よいとまけ”というく土木・建築のための地均しを、大勢輪になって“土”や“杭”を打っていました。この時の工事の作業員たちは、顔つきは日本人と変わりませんでした。言葉や服装が違っていました。ダブダブの太いズボンを裾の所でくくり、言葉は“濁音”が日本人のように発音できないからでしょう…。道行く人々は、「朝鮮人！」とからかっては、面白がっていました。恐らく、顔つきの違う外

의 일본 방문. 가르침을 얻기위해 먼길을 머다하지 않고, 일본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일본은 구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미 열강은 많은 식민지를 얻고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도 뒤늦게나마 그 방식을 따르려 하였기에, “한일합방조약”은 아주 급하게 체결 되었습니다. 그 식민지 정책과 통치는, 특별히 심히 엄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역사의 표면적인 이유는, 청나라와 러시아의 압력으로부터의 보호라기 위해서이며 한국·조선의 국민을 일본 천황인 신민으로서 일본인과 동등의 지위를 준다고 하였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일본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씨와 만나고 나서 수년후, 완전히 뜻하지않게, 아버지의 조선 전근을 계기로, 드디어 현장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로부터 관부연락선에 승선할 때의 일입니다. 부두벽에 바짝 댄 큰 선체의 배 밑바닥으로 향해, 하얀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일본인 남자가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을 그 몽둥이로 때려가며 배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일본인은 높은 데키에 올라갔습니다만, 문득 아래를 보니, 등에 큰 짐을 짊어진 한 할머니가 두들겨맞아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악!」하고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달려 가 일으켜 올리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 나온 말은 「이씨, 미안해요」라며 하는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때부터, 나의 “일한 순례 여행”이 시작되며, 이 관부연락선만은, 36년간의 “일제 시대”의 비극의 모두를 실고서, 묵묵히 현애탄을 오 갔습니다.

또, 어릴 적(아버지의 전근으로) 일본 전국을 이리저리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일본의 여기저기에서 조선의 풍속,

습관을 볼수 있었고 조선복장이나 언어 등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민족 차별”의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요이토마케”라는 노래를 부르며 땅고르기를 여럿 이 원을 이루어 “흙을 고르고”, “말뚝”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의 작업원들은, 얼굴은 일본인과 다르지 않았지만, 말이나 복장이 차이가 났습니다. 헐렁한 바지를 입었고, “탁음” 발음을 일본사람 처럼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길 지나는 이들은 「조센징:朝鮮人!」하며 놀리며 재미있어 들 하였습니다. 아마,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라면 별개이겠지만, 구별이 안가는 그들에 대해 (우리 일본인은) 오히려 우월감을 느꼈나 봅니다. 임금은 일본인의 반정도이기에, 생활은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지금도, 제일 한국·조선인 어머님들이 첫 말씀이

「우리가 일본인으로부터 뭐라고 업신여겨져도 참을 수 있습니다만, 「조센징!」이라고 놀림주는 말만은 없애 주었으면 해요. 우리의 아이의 시대에는, 「절대로 없게 해 주었으면 해요!」와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애원 하십니다. 자신의 민족이 “차별” 받는 것은, (자신의) 전인격을 부정당하는것과 별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민족 차별”은, 학교, 취직, 결혼... 등 여러 가지일에 붙어 다니고, 여러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상심받는의 것은, “조그만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지난번도, 열살정도인 아이 두 명이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아이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한끝에 마지막 「선택」이었을까하고 생각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또, 한밤중에 「살려줘! 살려줘!」하며 비명을 지르는 자녀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아는 한, 「아이는, 결코 밖에서 받은 “차별”에 대해 절대로 부모에게는 이야

国人なら別でしょうが、ほとんど同じというだけで、(私たち日本人は) かえって優越感を感じたのでしょうか。賃金は日本人の半分ということでしたから、生活の苦しさ、貧しさが思いやられました。現在でも、在日韓国・朝鮮人のオモニさんが、一番(最初)におっしゃることは、「私たちは、日本人から何と蔑まれても我慢できますが、『朝鮮人!』という言葉だけは無くして欲しい。私たちの子供の時代には、『絶対に無くして欲しい』と涙を溜めて哀願なさいます。自分の民族を“差別”されるのは、(自己の) 全人格を否定されることと変わりありません。これは、何よりも辛いことです。この“民族差別”は、学校、就職、結婚……否応なしに付いて廻り、様々な悲劇を生んでいます。しかし、何と言っても心痛むのは、“小さな子どもたち”のことで。先頃も、十やそこいらのお子さんが二人も、飛び降り自殺をしています。子どもは子どもなりに、どれほど思いあぐねての最期の「解決策」かと、申す言葉もないことでございます。

また、夜中に「殺される。殺される」と泣きわめくお子さんのことで、担任の先生と話し合ったこともありますが。私の知る限り、「子どもは、決して外で“差別”されていることを親には話しません」。このいじらしい子どもの気持ちを、皆様分かっただけです。

「うちの学校では、皆“同じ”にしています」「“差別”なんかしていません」と誇らしげにおっしゃいます。しかし、その“同じ”が困るので…」と、まあこういことがちよくちよくございます。ある在日韓国人のお子さんが、“差別”のひどい学校から

転校して来た時、新しい学校では、ある先生が生徒全員に向かって、「いよいよこの学校も国際的になりました。今度韓国の友達が、皆さんの仲間になります」と紹介し、韓国の歴史などのお話をされたと言います。こういことで、このお子さんは今までどうって変わって、嬉々として通学しているようです。また、最近の立教中学では、特にこの点、実に行き届いた教育がなされていると聞いております。

“差別”されても健気に立ち向かっているこんなお子さんもいます。在日韓国人の典型的なクリスチャン・ホームの三人姉弟の末っ子の坊やで、三人とも優等生です。ある時、私がお宅を訪ねたところ、その坊やが目には涙を溜めて、一人しょんぼり座っていました。そこで、理由を尋ねますと、「学校で、『朝鮮人、帰れ!』から始まって、散々からかわれたの。もし、僕が泣けば、もっと『朝鮮人は良くない』と思われるから一生懸命我慢して、家に帰ってから泣いていたら、ちょうど教会のおばさんが来た。おばさんは泣きながら、“お祈り”してくれたの」と言うのでした。「お父さんやお母さんがいたら、心配するから泣かなかった」と恥ずかしそうに言いました。これがわずか九歳の坊やなのです。この“いじめ”は、毎日とのことでした。

ところが、それからまたある時のこと。その坊やに「大きくなったら、何になるの」と聞いたら、恥ずかしそうに「牧師になるかも…」と答えるのでした。私は以前のこともあり、すっかり嬉しくなって、韓国の至る所に燦然と輝く十字架を思い浮かべながら、「ボクは韓国に帰って、伝道するのよね」と至極当然のように言ったところ、す

기하지 않습니다」. 이 애처로운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의 학교에서는, 모두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곤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한 재일 한국인 자녀분이, “차별”이 심했던 학교로부터 전학했을 때, 새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 전원을 향해, 「드디어 우리 학교도 국제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한국 역사 등을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자녀분은 이제 낫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해, 기뻐하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의 입교(릿교) 중학에서는, 특히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충실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별” 받아도 훌륭하게 직면해나가는 자녀분도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의 전형적인 크리스찬가정에 두 누이와 동생 삼남매가 있는데 3명 모두 우등생이고 막내 남동생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느날, 내가 맥을 방문했더니, 그 아가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혼자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쫄생징(조선인), 니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어, 몹시 놀림을 받아는데 만약, 내가 울면, 더욱 「조선인은 시원찮다」고 취급받으리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울고 있었더니 때맞추어 교회의 아줌마가 왔는데 아줌마는 울면서, “기도” 해 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있으면 걱정하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라고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과아홉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놀림 따돌림”은 매일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 아이에게 「크면 무엇이 될래」라고 물

었더니, 부끄러워하며 「목사가 될지도…」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이 들고, 한국의 도처에 찬연히 빛나는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너는 한국에 돌아가, 전도 할거지」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아이는, 「나는, 한국에 안 가요. 일본에서 일본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거예요」 대답했습니다. 이 때 만큼 나는 머리를 “팡”하고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던 적은 없었습니다.

관동지방에서 가장 재일 한국·조선인의 분들이 많은 카와사키의 개신교 교회인 재일 대한 기독교 카와사키 교회에, 내가 처음으로 갔던 것은, 실은 이것도 신기한 인연으로 20여년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 “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더 접하고 대처해가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매주 이 인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주1회 신도맥을 방문하여 행해지는 성경공부시간에는 그때마다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인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일본 사회에 대해 화가났으며 또 그런 와중에도 삶을 영위한다는 것의 감동…등을 들으며 눈물이 마를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애가 내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내가 일본인인 것을 알아「아줌마 일본사람이야」라고 하며 무서워한 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나는 몸의 힘이 쪽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데모에도 가끔 참가했습니다. 등과 가슴에 “차별 반대”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어떤 때에는 큰 십자가를 선두로하여 “찬송”을 부르며, 히비야, 가스미가세키, 긴자 주변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카와사키 교회에서 시작된 “차별 반대 운동”은, 「공영 주택의 입주 거부」 「은행 대부금의 차입 거부」 「(크레딧·카

かさずその坊やは、「僕は、韓国に帰らない。日本にいて、日本をもっと良くするんだ」と。この時ほど私は頭を“ガン”と鉄槌で打たれたような思いの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関東地方で最も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の多い、川崎のプロテスタントの教会在日大韓基督教川崎教会に、私が初めて参りましたのは、実はこれも不思議なことからそうなりまして…20年以上も前ですが、それからずっと大きな“差別”問題に対する様々な取り組みの連続と。毎主日の李仁夏（イ・インハ）牧師様のお説教には涙ばかりでございました。また、週一回の信徒宅を廻るバイブルクラスでは、その都度オモニさんたちの打ち明け話をお伺いして、日本人であることの恥ずかしさや日本社会への憤り、またその中で生き抜くことの感動…と、ただただ涙を流しておりました。

こ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小さなお嬢ちゃんが、私の膝に乗っていたのですが、話の内容から私が日本人と分かったらしく、「おばちゃん、日本人」と怯えたように私の顔を見上げて、オモニさんのところに行ってしまうのです。私はからだ中の力が抜ける思いでした。

また、デモにも時々参加しました。背中と胸に“差別反対”と書かれたゼッケンを付けて、ある時は大きい十字架を先頭に“讚美歌”を歌いながら、日比谷、霞が関、銀座あたりを粛々と歩きました。こうして、川崎教会で始まった“差別反対運動”は、「公営住宅の入居はダメ」「銀行ローンの借入れはダメ」「(クレジット・カードの加入、月賦での買い物はダメ)…と、“税金”だけは“日本人並み”に取られて、何もかも“ダ

メ”ばかりでした。しかし、これらの国籍条項撤廃のために一つ一つ全力投球した結果、それぞれ全部獲得できました。

中でも最も大きな“差別”事件は、「日立製作所ソフトウェア不当解雇事件」就職“差別”事件でした。(いわゆる日立訴訟。1974年6月19日、横浜地方裁判所は、在日朝鮮人朴鐘碩（パク・チョンソク）氏の「解雇不当」の訴えを全面的に受け入れ、日立製作所ソフトウェアに対して、「解雇無効」「賃金及び慰謝料の支払い」を命ずる判決を言い渡した。)採用、入社が決まってから、朴氏の国籍が分かると、突然の“解雇”という次第でした。裁判所に持ち込まれ5年以上の闘いの末、何と日本の歴史始まって以来の完全勝利に終わりました。私も裁判の傍聴や様々な集会に参加しましたが、会社側は、何処までも、何処までも“差別”を否定し続けました。

何と言っても、この20年余りの李牧師様のご苦勞は、とても筆舌には尽くせません。地域の子どもたちのために“差別”に負けないようにと、幼児には“保育園”を、学童には“年齢に応じたグループ”を作り、小さな教会は年中ごった返していました。信徒の方々には先ず各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問いかける“勉強会”をと。しかし、自分を取り戻すために、今までの日本名から“本名”を名乗ることの難しさは名乗れば仕事も来なくなりますから、“家庭争議”が起こり、ついにあるオモニさんのように四人のお子さんを置いて“家出”までするという…、何とも出口の無い所で模索し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に、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が、日本で“差別”を乗り越えて生きて行くと

드의 가입, ) 분할소평 거부」등 “세금”은 “일본사람과 똑같이” 내나, 여러모로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적 조항 철폐를 위해 하나하나 전력투구한 결과, 거부 조항철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별” 사건은, 「히타치 제작소 소프트웨어 부당 해고 사건」인 취직 “차별”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히타치 소송. 1974년 6월 19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재일 조선인 박 종석씨의 「해고 부당」의 소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히타치 제작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해고 무효」 「임금 및 위자료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 ) 채용, 입사가 정해지고 나서, 박씨의 국적을 알자, 돌연히 “해고” 하였습니다. 재판소를 시작한 후 5년 이상의 투쟁 끝에, 일본의 역사 시작 이래의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도 재판을 방청하고 여러가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만, 회사측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차별”을 계속 부정했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이 20여년 남짓의 이 목사님의 수고는, 도저히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차별”에 지지 않게하기위해 유아에게는 “보육원”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어린이 방을 “연령별로 그룹”을 만들어, 작은 교회지만 연중 붐비고 있었습니다. 신도분들의 경우는 먼저 각각자신의 <아이덴티티:주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터디 그룹”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의 일본식 이름으로부터 “본명:한국이름”을 내세우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름을 씌우므로 인해 일거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 마침내 한 어머니는 네 자녀를 두고 “가출”까지 해버리기 까지 한다고 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모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재일 한국·조선인 분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는, 저희들 일본인으로서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민족 차별”에 대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노력끝에 부부가 함께 의학박사학위를 받아 지금은 미국에서 활약중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살았을때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남편되신분은 (이유도없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되어, 담당검사에게 면회를 신청하여, 남편이 “혐의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 사모님과 함께 면회를 갔을때 무심코, 남편의 “일본명”을 신고했더니, 형사는 조속히 「주민 대장」을 조사하기 시작해, 「이거 뭐야! 「조생징(조선인)」이잖아!」라고, 내 뱃듯이 이야기한후, 펜과 종이를 사모님에게 던지며, “주소·이름”을 기입하라며 책상옆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핏기가 없어지고 손도 부들부들 떨려, 아무래도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놀라 달려 와, 함께 펜을 쥐었지만, 이 때만큼 슬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잠깐, “성공회”의 일한 친선 교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벌써 20년전의 일입니다만, “한국 성공회”에서 첫 한인주교가 되신 이 천환 주교님께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일한 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성공회” 전원이 반대를 하며, 「왜 일부러 일본과 “친선”을 하나...」라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주교님 스스로 한 사람 한사람을 설득하여, 한일간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1967년이었습니다.

잠시 결길로 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주교님의 형님께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전부터 일본에서 음악공부를 하셨습니다. 전쟁중에 우연히 가지고 있던 악보

めのご苦労は、私ども日本人には想像もつかないほどでございます。

また、“民族差別”ということでは、こ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日本で大変ご苦労されながらご夫妻とも医学博士号をお取りになり、今はアメリカでご活躍です。日本にいらっしゃった頃のこと。近所でたまたま火事があり、すると、このご主人は（有無を言わされずに）逮捕され、留置場に入れられました。私は不審に思い、担当の検事さんに面会してみると、ご主人の“無実”を確信いたしました。その後、奥様とご一緒に差し入れにお伺いし、つい、ご主人の“日本名”を申告したところ、刑事さんは早速「住民台帳」を調べ始めて、「何だ！『朝鮮人』じゃないか」と、はき捨てるように言って、荒々しくペンと紙を奥様に渡し、“住所・氏名”を記入するように机のそばに立たせました。ところが、奥様は血の気が失せ手もブルブル震えて、どうしても字を書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驚いて駆け寄り、一緒にペンを持ちましたが、この時ほど悲しか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さて、ここでちょっと“聖公会”の日韓親善について触れてみたいと存じます。もう20年以前になりますが、“韓国聖公会”で韓国人として、初めて主教様になられた李天換主教様から、（日本語の分かる人々のいる間に）“日韓親善”の手が差し延べられました。ところが、“韓国聖公会”全員大反対、「何もわざわざ日本と“親善”などしなくても…」と。喧々囂々の中、主教様自ら一人一人説得なさって、何とか実現に漕ぎ着ける事ができたそうです。1967年のことでした。

ちょっと話は脇にそれますが、李主教様

のお兄様は、戦前から音楽の勉強のために来日なさっていて、戦時中のこと、たまたま待っていた楽譜が見つかり、「この戦時下に音楽とは、何だ！」と留置場に入れられたり、教会の中でもひどい“差別”を受け、それ以来教会を敬遠していらっしゃっていたのですが…。ある時、私に「（韓国にいる）弟が今度主教になって来日するので、会って欲し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私も突然の申し出で驚き、「そんなお偉い方に、私などの出る幕ではございません」と、後藤主教様にご連絡いたしました。この時から、具体的に「聖公会の“日韓親善交流”」が始まりました。しかし、1965年当時の“偏見”や“差別”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出来事は…びっくりの連続でございました。お兄様はあまりの心痛からまだ五十そこそこのお歳で急逝なさる、という何とも痛ましい現実の中で、李主教様もまた、生涯に二度と無いほどの苦汁をなめられました。けれども、李主教様は常に辞を低くして、ひたすら隠忍目重なさいました。今も日本聖公会で尊敬の的にな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ことに横浜教区は、韓国聖公会や李主教様と良い交わりを行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この交流が始まって間もなく、李主教様からのお招きがあり、日本聖公会では「韓国訪問使節団」を結成し、1967年に私も婦人会代表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訪韓団」は韓国に着くとすぐに（韓国聖公会の）婦人会の方々のご奉仕で、李王家の離宮の庭園でのお茶会がスケジュールに入っていて、一同三々五々、楽しく語り合いながら歩いて参りました。やかんやお菓子の包みを下げたご婦人たちは、道の



가 문제가되어 전시하에 음악한다고 유치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아 이후로 교회를 멀리하고 계셔 줍니다. 그런 어느날, 제게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이번에 주교가 되어 일본을 방문하므로 만나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갑작스런 제의에 놀라,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고토 주교님에게 연락 드렸습니다. 이 때부터, 구체적인 「성공회의 “일한 친선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 당시의 “편견”과 “차별”에 의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지나친 상심으로 인해 오십 안밖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다는 마음 아픈 현실 속에서, 이 주교님 또한, 생애에 두 번 다시 맛볼수 없는 일을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교님은 항상 말씀을 낮추시고, 자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일본 성공회에 있어 존경받고 계십니다. 특히 요코하마 교구는, 한국 성공회와 이 주교님과 좋은 교류를 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시작되어 얼마되지 않아 이 주교님의 초대가 있어, 일본성공회에서 「한국 방문 사절단」을 결성 해, 1967년에 저도 부인회 대표로 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방한단」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한국 성공회의) 부인회 분들의 봉사료, 이 왕가의 별궁 정원에서의 다과회 스케줄이 짜 있어서, 일삼오오,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어 갔습니다. 주전자와 과자 보자기를 지신 어머님들은, 길의 한쪽 구석으로 묵묵히 걷기만 하시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동양 여인네들의 “겸손한”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회”는 어디도 같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른 달려 가 함께 짐을 지려고 했는데 역시 웃는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묵묵히 걷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 혼자만, 텔레비전의 아침 방송 녹화를 위해 불리워 갔습니다. 스튜디오의 눈부신 라이트를 받으며, 한국 분들로부터의 다양한 질문에, 몸들바를 모르는 심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튿날 아침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한국 성공회) 어머니회장이라는 분으로부터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측이 주최 하는 “답례를 위한 리셉션” 회장에서」 만나자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회회장님께서 왜 그랬을까하는 궁금함과 불안속에서 저는 연회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회장님께서 오시더니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용서해 주세요」「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어쩔줄 몰라하며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저입니다」라고 함께 울면서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때부터, 일본사람이 밟고, 미워서, 지금까지 계속 미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결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지금까지 일본사람을 계속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어머니회장님의 손을 단단히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방한단」의 일정에서 저 혼자만 빠져 어머니회의 환영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가진 다과회의 어두웠던 분위기와 비교가 안되는 경쾌한 색색의 아름다운 “치마·저고리” 모습에 단지 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리셉션” 이후, 귀가한 회장님께서 밤늦게까지 어머니회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장만해온 음식으로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片隅に寄って黙々と歩き続け、ちょっとおかしいなと思いました。東洋婦人の“控え目さ”のせいかと考え、「婦人会」はどこも同じ」と思い切ってサッと駆け寄り、一緒に荷物を持とうと手をかけました。でもやはり笑顔一つ見せず黙々のままなのです。

この後、私一人だけ、テレビのモーニングショーの録画にかり出されました。スタジオの眩しいライトの中で、韓国の方々からの色々な質問に、それこそ身の縮む思いで答え…この番組は翌朝放送されました。放送直後に（韓国聖公会の）婦人会長という方から電話があり、「是非会いたい」と。「日本側の主催する“お礼のためのレセプション”の会場で」と申しましたら、「自分は申し込んでいませんから」と。会長さんがどうして…。いよいよその夜、一抹の不安の中で、私は会場の隅に座っていました。間もなく会長さんがお見えになりましたが、いさなり私に抱きついて、「赦して下さい」「赦して下さい」と激しく泣くのです。私はあまりにも思いがけないことなので、いよいよもって“びっくり”としか言いようもなく、「赦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こちらの方です」と私も泣きながら一生懸命申しました。会長さんは、「私の父は、私の目の前で日本人に殺されました。それからは、日本人が憎くて、憎くて、今まで憎み続けて来ました。でも、もうこれからは決して憎みません。どうか今まで日本人を憎み続けたことを赦して下さい」とただ泣くばかりなのです。私はもうどうして良いのか…、本当に消え入りたい思いで、会長さんの手を固く握りしめ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

翌日、急に「訪韓団」のスケジュールか

ら私一人はずされ、婦人会の歓迎会に出席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お茶会のあの暗さに較べて、楓爽とした色とりどりの美しい“チマ・チョゴリ”姿に息を呑む思いでございました。“レセプション”の後、帰宅された会長さんは、遅くまで婦人会の方々に連絡をとられ、銘々持ち寄りのご馳走で、温かく和やかなおもてなしをして下さいました。この席で、日帝時代“歌えば、留置場行き”という美しいメロディーの「鳳仙花」の歌を静かに合唱して聞かせて下さいました。私は嗚咽が止まらず、泣きつ放しという次第でございました。

5泊6日の滞在中の李主教様のこうしたご配慮は、とても言葉に言い尽くせないほど行き届いた最高のおもてなしでしたので、「訪韓団」一同すっかり良い気分で、「今度は日本に、是非どうぞ、どうぞ」と。意気洋洋引き上げて参りました。

その後、韓国聖公会からの訪日をいつかいつかと待っておりました。あちらでも、日本からの招待を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が…、それにしても、あまりにも時間が経つので、私のところに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日本聖公会にお伺いをたてたところすっかり忘れていて、二年後の1969年に韓国聖公会の訪日使節団をお迎えいたしました。この訪日団に私どもがお返しできたのは、恥ずかしいことの数々で、本当に“ひやひや”の連続でございました。勿論、悪意はないのですが、日本の社会に染みついているものと思われ、中には『朝鮮人』なんかにそんなに親切に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よ！』とはっきり言う聖職様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無知”“無理解”ということは、何とも致し方の無いものでござ

서는 일제 시대 “노래하기만 해도 유치장행” 이었다는 아름다운 선율의 「봉선화」의 노래를 조용하게 합창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끼이끼이 울 따름이었습니다.

5박6일간의 체제중 이 주교님의 이러한 배려는, 도저히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방한단」 일동은 모두기 기분이 좋게되어 「이번에는 일본에, 꼭 오시라고 당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한국성공회의 방일은 언젠인가 언젠인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초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시간이 경과하여,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일본 성공회에 언제가도 되냐고 문의가 왔는데 완전히 잊혀져, 2년 후인 1969년에 한국 성공회의 방일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일단에 대해 저희가 답례는 부끄러울 따름이었고 “조마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악의는 없었지만 일본 사회에 젖어있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조생징(조선인)」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제님도 계셨습니다. “무지” “몰이해”는 뭐라고 표현할수 없습니다.

“환영 리셉션” 때는 교회 젊은이들이 매너도 없이 음식을 먹어 버려, 「막상, 손님께서…」라고 할 때에는 거의 요리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 방일단의 분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듯 남은 음식을 드시고 일동 해산했습니다. 다음날, 이 주교님께 사과 말씀드렸더니, 「아니예요, 돌아가던 길에 마침 “우동가게”가 한 채 열려 있어, 모두 배불리 먹었으니 안심하세요」라고하며 유머까지 곁들여 가며 우스시는데, 저는 그저 창피할 따름이었습니다.

얼마전 일입니다 한국 주일대사 사모님을 방문 했을때의 일입니다. 사모님은 여러위하시며 그러나,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 나는 처음으로 일본에 와, 동포가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이마무라씨,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라고. 그러시면서도 따뜻한 인삼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주한대사 사모님은, 「저는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만, 한국만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따뜻함을 느끼기에, 저나 남편도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말씀에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 여러분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분들에 대해 알게 되면 하고 한정된 시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도움이냐 동정은 우리들이 제일 싫어 하는 것 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모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호의를 갖게되분들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동정”하기 쉽고, 어떤 큰 “차별문제”에 대한 집회가 온미하게 끝났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종료후, 참가하신 어머님들로부터 「당신이 성공회 신자라면, 할 말이 많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알게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야단받거나 하면「이제 무서워서 어찌 교제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곤합니다. 그러나 역시, 헌법의 전문에 있듯이 모든 국민에 대한 “신뢰(와 존경)”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면, “다른 사람에대한 존경심”이 절로 솟아 올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사과의 마음이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두 명의 이씨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친선여행”와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40년만에 재회했습니다. “언니격이던”의 이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두 명은 시간을 내서, 시골에 있는

います。“歓迎レセプション”で教会の若者たちがマナーも何のそのドンドン食べてしまい、「いざ、お客様に…」という時にはほとんど料理が残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訪日団の方々がかえって恥ずかしそうに形ばかり食べて、一同解散いたしました。翌日、李主教様にお詫び申したところ、「いや、ちょうど“うどん屋”が一軒開いていて、皆腹一杯食べることができましたから、ご安心下さい」とユーモアたっぷりの呵々大笑に、私は顔から火の出る思いでございました。

少し前のこと、韓国の駐日大使の奥様をお訪ね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奥様は言い難そうに、しかし、目に涙を溜めて、私に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私は初めて日本に来て、同胞がひどい“差別”を受けているのに驚きました。今村さん、私たちがあなたのお国に対して、どんな悪いことをしたというのでしょうか」と。それでも、温かい人参茶を入れてもてなして下さるのでした。

また、元駐韓大使の奥様は、「私は世界中を歩きましたが、韓国だけは他の国と違いました。何か心に温かいものを感じるので、私も主人も韓国が一番好きです」とおっしゃりこれには大いに共鳴いたしました。このように多分皆様方には、想像もつかない世界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そして、韓国の方々のことを知っていただけたらと、限られた時間に大雑把に申し上げましたが、最後に大切なことは、「お助けや同情は自分たちが一番嫌うところです。同じ所に立って、共に語り合いたい」と必ずおっしゃいます。ところが、韓国に好意を持たれる方でも、つい無意識に“同情”になり易く、

ある大きな“差別問題”のための集会が暖味なまま終わ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集会の終了後、参加していたオモニさんたちから、「あなたが聖公会（の信徒）なら、大いに言いたいことがある。“差別”とは、頭で幾ら考え、勉強したからといって分か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と散々諭され、「それでは、もう怖くてお付き合い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もなりかねませんが。やはり、憲法の前文にあるように諸国民への“信頼（と尊敬）”しかございません。自分の正体を深く見つめますと、“他者への尊敬の念”が自然に湧いて来るような気がいたします。ことに、韓国の方々にはお詫びの気持ちで一杯になります。

二人の李さんたちのその後でございますが、先の“親善旅行”でソウル金浦空港に到着した時、四十年ぶりに李さんと再会いたしました。“姐御”の李さんは既に亡く、私たち二人は時間を見て、人里離れた“姐御”のお墓参りをいたしました。抜けるような青空のコスモスの花が咲く墓前に、私は身を投げ出して、「李さん！あなたのお国は独立しましたよ。あなたがあんなに待っていた独立が実現しましたよ。今こうして私が来たというのに、どうしてあなたは待っていて下さらなかったの」と私は大きな土饅頭に頬をすり寄せて、ありったけの涙を流したのでございました。また、教会で“お母さん”と慕われていたもう一人の李さんも、先頃、バスに轢かれて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が。これも深い絆と申しましよう、私宛の手紙を投函した直後の事故だったとのことでした。その時のお手紙は、今までで一番明るく、深い信仰に満ち溢れたものでした。もう、私はメソメソ泣いて

“언니”의 묘소를 방문 했습니다. 높은 푸른 하늘아래 코스모스 꽃이 피는 묘지에서, 저는 몸을 내던져, 「이씨! 당신의 나라는 독립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독립이 실현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왔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기다리려 주시지 않았어요」하며 저는 묘에 뺨을 대고, 한껏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흠모받던 다른 이씨도, 지난번, 버스에 치어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깊은 인연이라고 할까요,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직후의 사고였다고합니다. 그 때의 편지는, 이젯젯 받은 편지중에서 제일 활기가 넘치고 깊은 신앙으로 가득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지며 바다를 건너, 친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만난 제일 한국·조선인의 일세분들은, 탄광, 댐, 고물장사 ...등의 일을 해 오시면서, 그 중에는 일본인에게 매맞아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세, 3세, 4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님들로부터 옛날과 다를바 없이 불안의 목소리를 들곤 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가로챤다든가...라는.

놀라면 울 줄 밖에 몰랐던 저입니다만, 「언젠가...진주조개의 눈물이 한 알의 진주가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일·한의 사이에 선 “순례의 여행”」를 앞으로 계속해야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일본성공회선교협의회 자료부터)

이마무라 히데코...일본 성공회 도쿄 교구 성안테레 교회 신도. 제일 대한 기독교 카와사키 교회 객원.

ばかりではられません。私は、パスポートを握りしめて海を渡り、山深い友の終焉の地に一人佇みました。

私がお会いした在日韓国・朝鮮人の一世の方々は、炭鉱、ダム、屑買い…などと働き詰めで、中には日本人に蹴られて亡くなった方もありましたが、今は二世、三世、四世の時代になりましたが、それでも、若いオモニさんたちから昔と変わらない不安の声が聞こえて参ります。人の弱みにつけ込んでお金をだまし取られたり…と。

びっくりしては泣く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私ですが、『いつの日にか…あこや貝の涙が一粒の真珠になる日』を待ち臨みつつ、『日・韓のはざまの“巡礼の旅”』をなお続けて参らねば…」と存じております。

(1995年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資料より転載)

今村秀子…日本聖公会東京教区聖アンデレ教会信徒。在日大韓基督教川崎教会客員。



## 日韓の交わり・・・各教区報から

### 韓国と日本の距離・涙の連続

諸橋 佳奈

(川越基督教会信徒)

「日韓青少年文化キャンプ」が8月8日から14日の6泊7日で行われました。場所は韓国でした。韓国人との合同キャンプです。私は韓国へ行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楽しみでした。

1日目は修女院に泊まりました。日本側は東京・埼玉・名古屋・福岡・大阪から集まりました。三十人位いました。修女院に来る途中教会が沢山ありました。韓国の教会は十字架が赤や青に光っていました。とてもきれいでした。

2日目からは梨花女子大学校で行いました。ここで初めて全員が集まりました。最初に見てびっくりした事は、日本人とそっくりだという事です。でも話すと韓国語でわかりませんでした。話は英語と手振りで会話しました。夜、日韓合同でゲームやダンスをしました。ここで私は沢山のひととふれ合いました。

3日目、朝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グラウンド3周です。私は陸上部なので走ることは得意でした。そして午前中は水泳でした。日本対韓国でゲームをしました。すごく盛り上がりました。夜は韓国文化を紹介して下さいました。

4日目はボックリ教会で韓国人と共に礼拝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小さな教

会でしたが落ち着いた気持ちでお祈りできました。午後は体育大会です。班ごとに協力して、ゲームをしました。夜は日本文化の発表です。ゆかたを着て踊ったり歌ったりしました。

5日目は登山です。わりと大変な山でした。午後は温泉でした。ずっとシャワーだったので久しぶりのお風呂でした。夜はキャンプファイヤーをしました。ダンスをした後、一人一人のお別れタイムでした。輪になってローソクを持って、私はこの数日の日々でしたが沢山の思い出ができました。その思い出がいきなり頭の中に浮かび涙が出てきました。この時、お別れというのはやっぱりつらく思われる数時間でした。とてもつらかったです。残りを楽しくすごそうと思いました。

6日目、独立記念館へ行きました。韓国人の中で特に一人の人と仲良くなりました。記念館も二人で廻りました。見ている日本人はひどい事をしていたと怖くなってきました。特に拷問の所が一番印象的でした。見ている手も足も動かさず呆然と気が抜けた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思わず目から涙が流れてしまうほどでした。一生かかってあやまってもあやまりきれものではないほどです。見学中何度も周りの人の視線が怖く思いました。私のことをにらんでいるのです。やっぱり日本人だからでしょう。一緒に回っていた人に「大丈夫だよ」と何回もはげまされました。全部見終わって、ここは一人ではこれないと思いました。やっぱり視線が怖すぎたのです。韓国人か



## 일한교류 감상문

### 한국과 일본의 거리·눈물의 연속

모로하시 카나  
(카와고에 기독교회 신도)

「일한 청소년 문화 캠프」가 8월 8일부터 14일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행해졌습니다. 한국인과의 합동 캠프입니다. 나는 한국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의 마음으로, 첫날을 수녀원에서 묵었습니다. 일본측은 도쿄·사이타마·나고야·후쿠오카·오사카로부터 30명이 모였습니다. 수녀원에 오는 도중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십자가가 빨강이나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기에 매우 예뻐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전원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놀란 일은, 일본인과 똑같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면 한국어이라 알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영어와 손짓으로 했습니다. 밤에는, 일한 합동으로 게임이나 댄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많은 사람과 접할수 있었습니다.

셋째날,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운동장 3바퀴였지만 나는 육상부이기에 달리기에는 자신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은 수영을 했습니다. 일본 대 한국으로 나누어 게임을 했는데 아주 재미 있었습니다. 밤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받았습니다.

나흘째는 복계리 교회에서 한국인과 함께 예배에 참가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차분한 기분으로 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는 체육 대회였습니다. 조별로 협력해, 게임을 하였습니다. 밤은 일본 문화 발표였습니다. 유카타를 입고 춤추

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닷새째는 등산이었습니다. 비교적 험한 산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온천에 갔습니다. 쪽 샤워만 했기에 오래간만의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댄스를 한 후 한사람 한사람 작별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을 이루어 초를 켜, 나에게 있어 몇일간이었지만 많은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추억이 단숨에 머릿속에 떠올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때,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괴로운 것이구나라고 생각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우 괴로웠지만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엿새째, 독립기념관에 갔습니다. 한국 캠프 중에서 한 친구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기념관도 들어서 다녔습니다. 보다가 일본인이 심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 무서워 했습니다. 특히 고문전시관이 제일 인상에 남았습니다. 보다가 손이나 다리도 움직이지 않게되고 몸에서부터 기운이 쪽 빠져버린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생 걸려 용서를 빌어도 다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견학중 몇번이나 주위 사람의 시선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일본인이니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괜찮아요。」라며 몇번이나 격려해주었습니다. 전부 본뒤, 이곳에는 혼자서는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시선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일본은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나라」일컬어집니다. 이 마음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본인 전원이 알게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한국인은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ら「日本が一番近いが一番遠い国」といわれています。この気持ちの距離を少しでも短くしたいです。このことを日本人全員に知ってほしいです。何年たっても韓国人は忘れないと思います。日本人は知らないといけない事だと思います。最後に集合しました。そしてそこで本当のお別れをしました。手紙を書く約束をしました。今度また会おうと言って、、、、。

日本人は1日目に泊まった修女院に行きました。日本人だけになり一週間の事を話しました。沢山の思い出がありました。韓国の料理は辛かった＝メッタ（韓国の言い方）がおいしかったという話や、言葉の壁はとても大きかったという事、韓国人はダンスが好きという事、思いやりがあってやさしい人が多いという事です。話しているときりが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だけ私にとって思い出になったキャンプでした。

7日目、日本人ともお別れをして日本に帰って来ました。日本に帰って来ても、韓国語と大阪弁と東京の言葉が混ざっていて、何日かこのなまりが直りませんでした。おもしろいほどなまっていました。

一週間という期間でしたが、勉強になった事や色々な人との出会いを忘れません。また必ず会いたいです。その日までさようなら。

(1996.12.25 北関東教区時報)

## 韓国 信頼と祈りの旅

藤田 幸恵

(岡谷聖バルナバ教会信徒)

昨年の大韓聖公会ソウル教区訪問の旅は、10月9日から13日に行われました。参加者は14歳から82歳までの19名でした。

『韓国・信頼と祈りの旅』というテーマでソウルを中心に歴史的、文化的に大切な場所、西大門（ソデムン）刑務所〔柳寛順記念館〕、南山（ナムサン）公園〔安重根記念館〕、カトリック明洞大聖堂、景福宮、パゴダ公園（3・1運動発祥の地）そして、昨年完成した聖公会ソウル大聖堂、江華島の地方にある教会、韓国聖公会最古の教会、北との軍事境界線等を訪れました。この他に自由行動の中ではテゼ共同体ソウル・ブランチの夕の祈りに参加、ヨイド純福音教会の大礼拝を経験、聖公会のフランシスコ会の集いに参加、南大門市場でショッピング、聖架修女会隣にある徳寿宮でくつろぐ等、希望と体力に合わせて選択できる幅広い盛りだくさんの旅でした。普通の旅行では決して行くことのできない多くの所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西大門刑務所の処刑場や独房、そして北との軍事境界線では、有刺鉄線を張りめぐらせてあり、誰もそこを通ることのできない事実を見ました。普段私はテレビなどで板門店を見る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は、ソウル市内からお金を払って、リムジンバスに乗り、誰でも見ることのできる軍事境界線でした。しかし今回私達が案内していただいた所は、検問を二つ通り、すぐその対岸に北朝鮮の見える稲作地帯でした。武装した兵士の隣に、いつも通りに農業をしているひとがいました。バスの中にも、その軍事境界線の緊張が伝わって来ました。誰もが皆無口になり、長く続くその有刺鉄線の壁をみていました。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하여 작별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 , , .

일본인은 첫날 목은 수녀원에 갔습니다. 일본참석자만 모여 1주일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요리는 매웠지만 맛있었다는 이야기, 언어의 장벽이 매우 컸다는 것, 한국인은 춤추기를 좋아한다는 것, 배려 깊고 상냥한 사람이 많다는 것 등입니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 추억이 된 캠프였습니다.

이제, 일본인친구들과 헤어져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어와 오사카 방언과 도쿄 말이 섞여서, 며칠동안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재미 있을 정도로 말투가 변해 있었습니다.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반드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날까지 안녕.

(1996. 12. 25기타칸토;북관동교구신문)

## 한국 신뢰와 기도의 여행

막달라의 마리아 후지타 사치에  
(오카야 성바르나바 교회 신도)

작년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 방문 여행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행해졌습니다. 참가자는 14세부터 82세까지의 19명

이었습니다.

「한국·신뢰와 기도의 여행」이라고 하는 테마로 서울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 서대문 형무소(류 관순 기념관), 남산 공원(안중근 기념관), 카톨릭명동대성당, 경복궁, 파고다 공원(3.1 운동 발상지) 그리고, 작년에 완성된 성공회 서울대성당, 강화도에 있는 교회, 한국 성공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등을 방문했습니다. 그 외에 자유 시간에는 폐제공동체 서울모임의 저녁 예배에 참석했으며, 여의도순복음 교회의 대예배를 경험, 성공회의 프란시스코회의 모임 참가,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 성가수녀회 옆에 있는 덕수궁으로 느긋하게 보내는 등, 요망과 체력에 맞추어 선택 할 수 있는 폭넓고 다채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일반 여행에서는 결코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많은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처형장이나 독방,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에서는, 철조망이 둘러져 아무도 그곳을 지나다닐수 없는 현실을 접했습니다. 평상시 나는 텔레비전등 통해 판문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내로부터 돈을 지불해, 리무진 버스를 타, 누구라도 볼 수가 있는 군사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들이 안내받은 곳은 검문소를 두군데나 통과해, 벼농사지대가 바로 보이는 북한이었습니다. 무장한 병사의 옆에, 평사시와 다름없이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속에서도, 그 군사 경계선의 긴장이 전해져 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길게 계속되는 철조망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 참가해, 미리 받았던 자료에서 얼핏 알아던 것들을 선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 사실의 무게에, 지금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여행을 통해 친구가 된 석은

私は今回の旅に参加して、事前にいただいた資料等から、ぼやけてとらえていたものが、鮮明に見えて来ました。過去の歴史の中で、日本が朝鮮に対してなにをしてきたのか、その事実の重さに、今まで知らずとしなかった自分を恥ずかしいとおもいました。この旅で友人となった石恩禎(ソク・ウンジョン)さんとの交流を深め、互いに信頼し合える関係の中で、平和への一歩を歩き出したいと思いました。最後に、この旅で大変お世話になった香山洋人執事、柳時京司祭、ソウル教区関係者の皆様に心からお礼を申し上げます。

(1998. 2. 22)

中部教区報ともしび)

### 飛鳥 日韓交流の故郷

森島 和子

(横浜聖アンデレ教会信徒)

5月22日は五月晴れに恵まれ、奈良明日香村は新緑に薫風が渡っていた。会員の参加者9名、車2台をご用意くださった大阪聖ガブリエル教会の宮嶋司祭と張東煥(チャン・ドンファン)氏と共に、11名の旅となった。今回の歴史散歩は古代の日韓交流の地、明日香(飛鳥)である。この地は七世紀に日本の政治・文化の中心として栄えたので、古代の日本国家誕生の地といわれている。だがここは、さらに古くから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が住みついた地でもある。渡来人は大陸からの進んだ文化をこの地に伝えた。飛鳥は日本の文化形成の故郷であるとともに、日韓交流の故郷であ

るといえるだろう。相原司祭作成のレジメを手に、車に分乗して飛鳥歴史公園を巡った。桧隈寺跡、於美阿志神社、高松塚古墳・壁画館、天武・持統天皇陵、石舞台古墳、橘寺、飛鳥板蓋宮跡、酒船石、飛鳥寺、甘樫丘。大きく分けて、渡来人・大王(おおきみ)(大宝律令によって後に『天皇』という称号になる)・蘇我氏関連の史跡である。

なだらかな丘がめぐる里に立つこんもりした森は、ほとんどが古墳。石舞台古墳は蘇我馬子の墓とされるものの、古墳の多くは誰の墓か、いまだに謎である。高松塚古墳の壁画は高度な文化を表す美しいもので、高句麗のものとよく似ている。石舞台古墳の巨大石の建造も渡来人の技術である。どのようにして70トンにあまる石を運び、組み立てたのだろうか。渡来人説もある大豪族蘇我氏は、日本最初の本格的寺院である飛鳥寺を建てた。橘寺の聖徳太子は蘇我氏と大王家双方の血を引いている。ここは大豪族と大王が権力争いにしのぎを削った地でもある。大化の改新で蘇我入鹿が倒された後は古代天皇制が確立してゆく。天武天皇の飛鳥浄御原宮跡を探したが目立たないのか見つけられなかった。この後6月に飛鳥浄御原の大庭園跡が発見され、話題になった。酒船石の用途が不明であったものが、この発見で池に配されていたこともわかった。

古代史は未解明のものが多いためなのか学校ではあまり教えられなかった。しかし今回飛鳥で遺跡を見て、古代朝鮮文化の影響の強さを実感したものである。この時代の万葉集を調べてみた。よく知られている「家があれば筥に盛る飯を草枕旅にしあれ

정씨와의 교류를 깊게 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평화에의 걸음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에 있어 신세를 진 카야마 부제, 유 시경 사제, 서울 교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 2. 22 중부 교구 신문 등불)

### 아스카 일한 교류의 고향

힐다 모리시마 카즈코  
(요코하마 성 안드레 교회 신도)

5월 22일 5월의 맑은 날씨속에서, 나라 아스카무라는 신록속의 상쾌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참가자 9명, 차2대를 준비해 주신 오오사카 성 가브리엘 교회의 미야지마 사제와 장 동환 교우와 함께, 11명이 함께하는 여행이 되었다. 이번 역사산책은 고대의 일한 교류의 땅, 아스카이이다. 이 땅은 7 세기에 일본의 정치·문화의 중심으로 번영하였기에 고대의 일본국가탄생의 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더 먼 옛날부터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 자리잡고 산 땅이기도 하다. 도래인은 대륙으로부터의 뛰어난 문화를 이 땅에 전했다. 아스카는 일본의 문화 형성의 고향인 것과 동시에, 일한 교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하라 사제가 작성한 설명서를 손에 들고, 차에 분승해 아스카 역사 공원을 돌아 보았다. 히노쿠마 절터, 오미아시 신사, 다카마츠 고분·벽화관, 천무·지토 우천황능, 석무대(이시부타이) 고분, 타치바나 절, 아스카 이타부키 궁 터, 사카후네석(酒船石), 아스카 사원, 아마가시

의 언덕. 크게 나누어, 도래인·대왕(오오키미)「다이호 법령 후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되는」과·소가(호적)씨에 관련된 史跡이다.

완만한 언덕이 둘러싼 마을 주위의 울창한 숲은, 거의가 고분이다. 석무대 고분은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으로 불리워지지만, 고분의 상당수는 누구의 무덤인가, 아직껏 수수께끼이다. 다카마츠즈카 고분벽화는 높은 문화를 표현한 아름다운 벽화인데 고구려의 것과 아주 많이 닮았다. 석무대 고분의 거대석의 건조기술은 도래인의 기술이다. 어떻게 70톤에이르는 돌을 옮겨, 조립했다는 것인가. 도래인이라는 설도 있는 대호족 소가씨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 사원인 아스카 사원을 세웠다. 타치바나절의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는 소가씨와 대왕 양가의 피를 잇고 있다. 또한 이곳은 대호족과 왕족과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다. 다이카 개혁으로 소가노 집안이 몰락한 후에 고대 천황제가 확립되어 간다. 텐무 천황의 아스카 기요미하라 궁 터를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다. 6개월후에 아스카정키요미하라 궁의 대정원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사카후네 석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발견으로 연못에 배치되었던 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대사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은 탓인지 학교에서 그다지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아스카에서 유적지를 둘러 보고 고대 조선 문화의 영향이 강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시대의 만엽집을 조사해 보았다. 잘 알려진「家にあれば筥に盛る飯を草枕旅にしあれば椎の葉に盛る」 「집에 있으면 상에 차려서 먹는 밥인데 풀을 베개삼고 하는 여행길이라 모밀잣밤나무 잎을그릇삼아 밥을 먹는다」라는 시는 아리마 황태자가 쿠데타의 혐의로 인해 심문받기 위해 가는 도중에 쓴 시이다. 황위계승을 둘러싸고 형과 동생,

ば椎の葉に盛る」は有馬皇子がクーデターの疑いで尋問されに行く途上のものであった。皇位継承をめぐる兄と弟、叔父（叔母）と甥が殺しあう歴史もここにはあった。天皇の権力が強大になったのである。「大君は神にしませば天雲の雷のうへに廬（いおり）せるかも」（柿本人麿）

最後に甘檜山に登って、今まで辿ってきた飛鳥の里を一望した。香具山、飛鳥川と、万葉集の歌に詠まれた自然が広がっている。その相聞歌、挽歌には、政争のさなかに生きた天皇、皇子皇女たちの思いがみられる。喜び、悲しみに際して、切実な思いを率直に歌い上げた人々の声が、古の明日香の里にこだましていたであろう。人間と権力、人間と国家について思いをめぐらすことの多い旅であった。

（1999. 7. 25 横浜教区報）

### 「闇から光へ ―マツシロ地下壕の歴史を歩く―」に参加して

高本 愛子  
(尼崎聖ステパノ教会)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主催の研修「闇から光へ―マツシロ地下壕の歴史を歩く―」が、7月27日～29日に行われた。長野県松代で1944年11月から敗戦日にかけて、大本営を移すための地下壕を掘る工事が行われた。過酷な労働に従事したのは主に朝鮮人労働者で、強制連行された方たちも含まれていた。日本の歴史的事実に対しての不誠実さから、教科書問題、靖国神社問題が起こっている中、松代

は絶好の学びの場の一つである。

1日目は西原廉太司祭（立教大学・聖公会神学院）のご指導で聖書研究を行った。西原司祭は、神がモーセに言われた言葉「わたしはあるという者だ」（出3：14）と、罪人とされてきた目の見えない人が、イエスによって目が見えるようになり、初めて自己尊厳を表明した言葉「わたしがそうなのです」（ヨハネ9：9）とが、ギリシャ語聖書で同じ言葉になっていることに触れ、自己尊厳を高らかに宣言することが神の名を讃美することと繋がっている、神の名を讃える世界のシャロームは一人でも尊厳を奪われていたら成り立たない、全ての人々の尊厳が回復される社会を求めていきたいと話された。

2日目は「松代大本営の保存をすすめる会」幹事・岡藤清流さんのご案内で松代を訪ねた。内部が公開されている象山地下壕では、ごつごつした岩肌、突き刺さったままの削岩機、足元に散らばる大きな岩屑が、工事の過酷さを物語っていた。尊厳を奪われていた人間が実際ここに大勢いたのである。西原司祭のお話と、目の前の光景が何度も重なった。

舞鶴山地下壕周辺を見学した後、松代で働き、敗戦後も日本に残り、貴重な証言をされた崔小岩（チェ・ソアム）さんのお墓を訪ね、各々祈りを献げた。最後に工事でなくなった方が葬られている場所を訪れた。墓石もなくただ土が盛られ、草が生い茂り、一目ではお墓だとはとてもわからないものだった。私達は言葉もなかった。お墓を包むように野の花が咲き乱れ、花々を通して神様が、奪われた尊厳の存在を、静かに、しかし厳しく語っておられるようだった。

숙부(숙모)와 조카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또한

「大君は神にしませば天雲の雷のうへに廬(いおり)せるかも」 「대군(천황)께서는 신이시기에 하늘 구름속에 있는 번개위의 언덕에 사신는군요」 (카키노모토히토마로 작)라는 시는 천황의 권력이 강대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에 아마카시 산에 올라, 이제껏 돌아본 아스카 마을을 죽 돌아보았다. 카구 산, 아스카 강과 만엽집의 노래에 나오는 자연이 펼쳐져 있다. 이 노래들 속에서 권력투쟁과중에 있었던 천황들과, 황태자 황녀들의 생각을 엿볼수 있다. 기쁨과 슬픔을 접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한 이들의 소리가, 옛 아스카 마을에 메아리치고 있었으리라. 인간과 권력, 인간과 국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1999. 7. 25 요코하마교구신문)

###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마쯔시로 지하호의 역사 걷기-」 에 참가하여

다카모토 아이코  
(아마가사키 성 스테파노 교회)

재일 한국·조선인 선교 협동 위원회 주최의 연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마쯔시로 지하호의 역사 걷기-」가, 7월 27일부터 29일에 걸쳐 행해졌다. 나가노현 마쯔요에서 1944년 11월부터 패전일에 걸쳐, 대본영을 옮기기 위해 지하호를 파는

공사가 행해졌다. 가혹한 노동에 종사 한 이들은 대부분이조선인 노동자로, 강제 연행된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의 역사에 대한 불성실성과 야수꾸니진자 참배문제 등이 일어나는 중에 마쯔요는 역사를 배울수 있는 중요한 장소의 하나이다.

첫날은 니시하라 렌타사제(릿쿄우 대학·성공회 신학원)의 지도로 성서 연구가 행해졌다. 니시하라 사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나는 있다고 하는 자다」(출 3:14)와 죄인으로 취급받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에 의해 눈이 보이게 되었을때, 처음으로 자기 존엄성을 표명한 말 「내가 그렇습니다」(요한 9:9)이, 희랍어 성서로는 같은 단어인데 자기 존엄을 소리 높여 선언하는 것이 신의 이름을 찬미 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세계의 살림은 한 사람이라도 존엄성이 빼앗기고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씀 하셨다.

이튿날에는「마쯔요지방 대본영(전쟁당시 일본 천황직속의 전쟁지휘회의본부)의 시설 보존을 추천하는 회」간사·오카 후지 세이류우씨의 안내로 마쯔요지역을 방문했다. 내부가 공개되어 있는 조우잔 지하호에서는, 울퉁불퉁 한 암반벽, 꽃힌 채있는 착암기, 발밑에 흩어지는 돌덩이 등이 공사의 가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니시하라 사제의 이야기와 눈앞의 광경이 몇번이나 겹쳐졌다.

마이즈루 산 지하호주변을 견학 후, 마쯔요에서 일하고, 패전 후도 일본에 남아, 귀중한 증언을 하신 최 소암씨의 묘를 방문해 각각 명복을 빌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묻힌 장소를 방문했다. 묘석도 없이 다만 흙이 덮혀있고 풀이 무성하여, 한눈에 묘지임을

松代では「慰安婦の家」復元反対運動がおこっている。市が地下壕を観光地扱いする等の課題を抱える中、多くの方が努力される。一方、小泉首相が靖国神社に参拝した。歴史を見つめ尊厳を奪われた人々に目を向けたなら、私達のとるべき態度は自ずと見えてくるはずである。全ての人の尊厳が回復される社会を実現するため私たちのなすべきことは何か、地下壕の岩肌の感触と墓地に咲く野の花の光景を胸に焼付け、考え、実行していきたい。

(2001. 9. 9大阪教区報)

#### ハルモニの話を自分の耳と心で聞きたい

呉屋 淳子

毎年、夏の恒例イベントになっている、日韓聖公会青年キャンプは、今年で8回目を迎えた。私は、大学時代からこのキャンプに参加している。今年で4回目である。社会人になってもキャンプ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ラッキーと思うと同時に、私をキャンプに誘ってくれる方々やバックアップして下さる方々に感謝で一杯である。

今年の青年キャンプは、ソウルとヨンスリの二カ所で行われた。日本人キャンパーは学生、社会人、主婦ととてもユニークなメンバーでの参加となった。

ヨンスリという町は、仁川国際空港から車で約三時間の所にある静かな農村。ここでは、土砂崩れのあった道の補修作業を行った。高層ビルが立ち並ぶソウル市内からは想像もつかない程、自然に囲まれた村、

ヨンスリ。ワークショップの後に食べる食事は忘れられないくらい美味しかった。

ツアー旅行では口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韓国の家庭料理をそこでは毎日たべさせてもらった。かなり贅沢な思いで味わった。2泊3日のワークショップを終えて、次は「ナナムの家」を訪れた。韓国には元日本軍「慰安婦」のハルモニ達が共同生活をしている家がある。それが「ナナムの家」である。「ナナム」とはハングルで「分かち合い」という意味でそこでは、元日本軍「慰安婦」の韓国人ハルモニ達が仏教団体の支援を受けながら、文字通りの共同生活を送っている。(韓国・朝鮮ではお年寄りの女性を、親しみと尊敬をこめてハルモニと呼ぶ)私達がこれまで教科書で学んだ「従軍慰安婦」の問題は、ハルモニの実際の体験談を聞くやいなや、あれは日本軍からのみの見方の話だということが分った。本当にショックである。ハルモニ達が必死で歴史を正そうとしている姿にハッとした。自分達のおじいちゃん達が起こしたこの問題を、知らんぷりする事ができるだろうか？日本人としてではなく、人としてまた、共に生きていく為にはとても大事な問題ではないだろうか？

毎年、青年キャンプに参加する度に課題を持ち帰ってくる。しかし、日本人の悪いクセなんだろうか日々の生活の忙しさに、忘れてしまいがちなのである。私は、今度のキャンプに参加して、人と人とが共に生きる為にはどうあるべきか、何が必要なのかという事を思った。今いち私には、努力も強さもまだ足りない。世界中にはさまざまな問題が多くあるが、まずは、この目で見えてきたものからしっかり考えてみたい。



알 수 없었다. 우리들은 말을 잃었다. 묘를 감싸듯이 들꽃이 피어 있고 이 꽃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존엄성을 빼앗긴 이들의 존재를, 조용하게, 그러나 엄히 말씀하시는 듯했다.

마츠요지역에서는 「위안부의 집」복원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가 지하호의 존재를 관광지로 하려하는 과제를 안는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 한편, 코이즈미 수상이 야수꾸니 신사를 참배했다. 역사를 응시하고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스스로 보여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하호의 암벽의 감축과 묘지에 핀 들꽃의 광경을 가슴에 담고 실행 해 가고 싶다.

(2001. 9. 9 오사카 교구보)

## 할머니의 이야기를 내 귀와 마음으로 듣고 싶다

마가렛 고야 준코

매년, 여름 이벤트가 된, 일한 성공회 청년 캠프는, 올해로 8 회째를 맞이하였다. 나는, 대학시절부터 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금년으로 4 회째이다. 사회인이 되어서도 캠프에 참가할 수가 있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게 캠프 가자고 권해 주신 분들과 후원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금년의 청년 캠프는, 서울과 연수리 두군데에서 행해졌다. 일본인 참가자는 학생, 사회인, 주부등 매우 독특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수리라고 하는 마을은, 인천 국제 공

향으로부터 차로 약3시간정도 떨어진 조용한 농촌이다. 여기에서는, 붕괴된 길의 보수 작업을 행했다.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는 서울시내모습으로부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에 둘러싸인 마을, 연수리. 워크 샵 후에 먹은 식사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다.

투어여행에서는 맛볼수 없는 한국의 가정요리를 그곳에서는 매일 먹을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치스러울 정도였다. 2박 3일의 워크 샵을 끝내고, 다음은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한국에는 전 일본군 「위안부」의 할머니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이 있다. 그것이 「나눔의 집」이다. 「나눔」이란 한글로 「분담한다」는 의미로 그곳에서는, 전 일본군 「위안부」한국인 할머니들이 불교 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문자 그대로의 공동 생활을 보내고 계셨다. (한국·조선에서는 노인의 여성을, 친밀감과 존경을 담아 할머니라고 부른다) 할머니의 실제 체험담을 듣자 마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과서로 배운 「중군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군의 입장에 선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들이 필사적으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일으킨 이 문제를, 모른척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또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매우 소중한 문제이지 않는가?

매년, 청년 캠프에 참가할 때마다 과제를 안고 돌아온다. 그러나, 일본인의 나쁜 버릇일까, 나날의 생활의 바쁨에 의해, 잊어 버리기 십상이다. 나는, 이번 캠프에 참가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나에게도 노력도 강함도 아직 부족하다. 세상에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선, 내 눈으로 본것부터 제대로 생각해 보고 싶다. 다음은 일본에서 개

次は日本で開催予定である。来年また会う韓国人キャンパーと韓国語で語り合えるようになりたい。そして、ハルモニ達の話は今度は通訳なしで、もう一度自分の耳と心で聞きたい。そこからまた違う何かが生まれるにちがいない。

(2002. 9. 20 沖縄教区時報)

최 예정이다. 내년 에 또 만나는 한국인 캠프 참가자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싶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통역 없이, 다시 한번 내 귀와 마음으로 듣고 싶다.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새로 얻을 것이 틀림없으리라.

(2002. 9. 20 오키나와 교구 시보)

## 第1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共同声明

- I) 日韓両聖公会は、1984年10月6日から10月10日まで、大韓民国ソウルにて「相互理解」の主題に依る第一次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開催し、主題及び発題講演、並びに現場研修(安重根記念館、パコダ公園、提岩里教会等)を通じて、相互の歴史的認識と協働が両国聖公会の宣教を実行し、確実にしていくために必要であるとの意見の一致を見た。
- II) 日韓両国聖公会は、公式に開催された最初のこのセミナーで開会聖餐式を共同執行し、その中で日本聖公会は36年間の植民地支配及び今日に至る迄、なすべき事をなさず、なすべからざる事をなしてきた罪を懺悔し、深く陳謝した。
- 又、両国聖公会は唯一にして聖なる公会と主にありて一つの肢体であることを実感し、地上に神の国を実現するため、両国の不幸な過去を再確認すると共に、日本による歴史の歪曲と経済的支配、そして文化的偏見と差別を信仰によって拒否することを決意した。
- III) 大韓聖公会は、相互交流と協働が宣教的使命と直結する召命の道であることを自覚し、正しい両国関係を発展させるために、過去の両聖公会関係の信仰的反省を土台にして、相互人事交流の活性化、日韓青少年協働プログラム開発計画を積極的に推進することにし、在日韓国人の宣教問題と法的地位対策、そして、共産圏にあるキリスト者たちとの交流と宣教に継続的な関心を持つことにした。
- IV) 日本聖公会の最も身近かにある在日韓

民族への差別問題を日本聖公会が取り組むべき、緊急かつ重要な宣教の課題であると認識し、これを推進する事を決意した。

又韓国からの日韓の歴史理解を受けとめる事に依って、日本聖公会がキリストの教会として、正しく生きるための自己認識を得られることに気づかされた。

- V) 日韓両国聖公会は、本セミナーを通じて提起された課題(両国聖公会の情報交換、サイクル・プレヤー、各種宣教協働プログラムの開発、聖ガブリエル教会への支援等)に対して、継続的な協議と両国聖公会の宣教協力のため、常設の協議機構の発足が必要であるという意見に一致した。

1985年中に日本において、第2次日韓宣教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を合意した。

以上のことについて、両国聖公会内に周知するように努める。

1984年10月10日

日本聖公会セミナー準備委員長  
主教 木川田一郎

大韓聖公会セミナー準備委員長  
主教 金成洙

## 제1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공동성명

1. 한일 양국 성공회는, 1984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상호이해」의 주제 아래 제1차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 및 발제강연과 현장연수(안중근의사 기념관, 파고다공원, 수원 제암리교회 등)을 통하여 상호 역사 인식과 협동으로 양국 성공회의 선교를 확고히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한일 양국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서 개최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그 가운데 일본성공회는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고 깊이 사죄하였다.  
또한 양국 성공회는 하나이며 거룩한 공변된 교회이며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실감하고,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국의 불행한 과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에 의한 역사의 왜곡과 경제적 지배, 그리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신앙에 의해서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3. 대한성공회는, 상호교류와 협동이 선교적 사명과 직결되는 소명의 길임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거 양교회 관계에 대한 신앙적 반성을 토대로 상호 인사교류의 활성화, 한일 청소년 협동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재일한국인 선교문제와 관련하여 양교회가 오오사카의 성가브리엘교회를 지원하며, 법적지위 대책,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신자들과의 교류와 선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4. 일본성공회는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재일 한국인 차별문제를 일본성공회가 실천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성공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5. 한일 양국 성공회는, 본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문제(양국 성공회의 정보교환, Cycle Prayer, 각종 선교협동 프로그램 개발, 성가브리엘교회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양국 성공회의 선교적 협동을 위해 상설 협의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1985년중에 일본에서 제2차 한일선교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양국 성공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1984년 10월 10일

대한성공회 세미나준비위원장  
주교 김 성 수

일본성공회 세미나준비위원장  
주교 키카와다 이치로

## 第1回セミナー参加者名簿

(注：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日本側)

#### ★ 北海道教区

雨宮大朔 司祭 紋別聖マリア教会／ 遠藤貴武子 信徒 札幌聖ミカエル教会

#### ★ 東北教区

佐藤忠男 司祭 弘前昇天教会／山路瑞彦 信徒 八戸聖ルカ教会

#### ★ 北関東教区

金子功 司祭 日立聖アンデレ教会／戸塚鉄也 執事 浦和諸聖徒教会

菊池邦香 信徒 川越基督教会／川田登志子 信徒 川越基督教会

#### ★ 東京教区

山口千尋 司祭 浅草聖ヨハネ教会／竹田眞 司祭 聖公会神学院／竹内謙太郎 司祭  
東京聖三一教会／佐藤徹 司祭 東京聖十字教会／五十嵐正司 司祭 東京練馬聖公会／  
河野裕道 司祭 東京池袋聖公会

#### ★ 横浜教区

相原俊次 司祭 川崎聖パウロ教会／高田眞 司祭 長坂聖マリヤ教会／長野睦 司祭  
教区総務主事(主教座聖堂)／春日隆 司祭 清里聖アンデレ教会

#### ★ 中部教区

大西修 司祭 豊橋昇天教会

#### ★ 大阪教区

木川田一郎 主教 日本側準備委員長／松原榮 司祭 堺聖テモテ教会／小川博司 司祭  
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磯晴久 司祭

恵我ノ荘聖マタイ教会／松岡虔一 司祭 西宮聖ペテロ教会／奥田壮一郎 信徒 西宮聖  
ペテロ教会

#### ★ 九州教区

飯田徳昭 主教／堀尾憲孝 司祭 宮崎聖三一教会／

#### ★ 沖縄教区

仲村実明 主教

### (韓国側)

#### ★ ソウル教区

金成洙 主教 韓国側準備委員長／朴鍾基 神父 大聖堂(教務院長)／黄益燦 神父 大  
聖堂／林承龍 神父 薬水洞教会／洪忠男 神父 江南教会／ 車仁煥 神父 水原教会  
／鄭淵優 神父 仁川教会／金在烈 神父 東大門教会／李文範 神父 安仲教会／丁哲  
範 神父 神学校校長／趙今煥 神父 温水里教会／朴耕造 蓮建洞教会(教務院・教務  
局長)／全三光 水躰里教会／李大鏞 神父 神学校／金根祥 神父 永登浦教会／姜鈺  
熙 神父 仁川間石教会／朴賛旭 神父 内里教会／柳堯善 神父 容舎里教会／石光勲  
神父 春川教会／洪永善 神父 江華邑教会／趙柄瑠 信徒 東大門教会／金根培 信徒

## 제1회 한일성공회선교세미나 참가자

(소속, 직책 등은 대회 당시)

### <일본>

#### ◎ 홋카이도교구

아메미야 타이사쿠 사제 몬베츠성마리아교회 / 엔도 키무코 신도 삿포로 성미카엘교회

#### ◎ 토호쿠교구

사토 타다오 사제 히로사키승천교회 / 야마지 미츠히코 신도 하야테성루가교회

#### ◎ 기타칸토교구

카네코 이사오 사제 히타치성안드레교회 / 토츠카 테츠야 부제 우라와제성도교회 / 키쿠치 구니히로 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카와다 토시코 신도 카와고에 그리스도교회

#### ◎ 도쿄교구

야마구치 치토시 사제 아사쿠사성요한교회 / 타케다 마코토 사제 신학원장 / 타케우치 켄타로 사제 성삼일교회 / 사토 토루 사제 성십자교회 / 이가라시 쇼지 사제 네리마가브리엘교회 / 코노 히로미치 사제 이케부쿠로성공회

#### ◎ 요코하마교구

우에하라 순지 사제 카와사키 성바우로교회 / 타카다 마코토 사제 나가사키 성마리아교회 / 나가노 무츠지 사제 교구총무주사(주교좌성당) / 카스가 타카시 사제 키요사토성안드레교회

#### ◎ 추부교구

오오니시 오사무 사제 토요하시승천교회

#### ◎ 오오사카교구

키카와다 이치로 주교(일본준비위원장) / 마츠바라 사카에 사제 사카이성디모데교회 / 오가와 히로시 사제 조난그리스도교회 / 이소 하루히사 사제 성마태교회 / 마츠오카 켄이치 사제 성요한교회 / 오쿠다 쇼이치로 신도 니시노미야성베드로교회

#### ◎ 큐슈교구

이이다 노리아키 주교 교구장 / 호리오 노리타카 사제 미야자키성삼일교회

#### ◎ 오키나와교구

나카무라 사네아키 주교 교구장

### <재일한국인교회>

서천만 신도 오오사카 성가브리엘교회

### <한국>

#### ◎ 서울교구

김성수 주교 한국측 준비위원장 / 박종기 신부 대성당(교무원장) / 황익찬 신부 대성당(외국인교회) / 임승룡 신부 약수동교회 / 홍충남 신부 강남교회 / 차인환 신부 수원교회 / 정연우 신부 인천교회 / 김재열 신부 동대문교회 / 이문범 신부 안중교회 / 정철범 신부 천신신학교장 / 조금환 신부 은수리교회 / 박경조 신부 연건동교회(교무국장) / 이대용 신부 천신신학교 / 김근상 신부 영등포교회 / 강연희 신부 간석교회 / 박찬욱 신부 내리교회 / 류요선 신부 객사리교회 / 석광훈 신부 춘천교회 / 홍영선 신부 강화읍교회 / 곽현자 신도 서울대성당 / 권도원 신도 서울대성당 / 김연수 신도 서울대성당

蓮建洞教会／宋泰源 信徒 大聖堂／郭賢紫 信徒 大聖堂／洪曼姬 信徒 大聖堂／劉斌來 信徒 大聖堂／金哲玉 信徒 大聖堂／李載天 信徒 大聖堂／李晃相 信徒 蓮建洞教会／權度杭 信徒 大聖堂／柳稜烈 信徒 大聖堂／李濟民 信徒 大聖堂／金鎮萬 信徒 水踰里教会／趙柄昨 信徒 大聖堂／李洛京 信徒 水踰里教会／金淵秀 信徒 大聖堂／李在賢 信徒 水踰里教会／文燦祐 信徒 水戸洞教会／車慶俊 信徒 大聖堂／張榮燮 信徒 永登浦教会／崔基俊 信徒 大聖堂（延燮大事務局長）

★ 大田教区

裴斗煥 主教 大田教区長／金思豊 神父 鎮川教会（教務局長）／朴勝視 神父 天安教会／車璟恵 神父 墨坊教会／郭貞鉉 信徒 大聖堂／韓炳玉 信徒 天安教会

★ 釜山教区

崔哲熙 主教 釜山教区長／金丙薰 神父 馬山教会／李京植 神父 西面教会／李明熙 信徒 蔚山教会／李龍吉 信徒 西面教会

★ 在日韓国人教会

徐千萬 信徒 大阪聖ガブリエル教会（註：当時はこちら記載されていた）



/ 김철욱 신도 서울대성당 / 류직열 신도 서울대성당 / 유형래 신도 서울대성당 / 이재천 신도 서울대성당 / 이제민 신도 서울대성당 / 조병오 신도 서울대성당 / 차경준 신도 서울대성당 / 최기준 신도 서울대성당 / 홍만희 신도 서울대성당 / 조병선 신도 동대문교회 / 김근배 신도 연건동교회 / 이면상 신도 연건동교회 / 김진만 신도 수유리교회 / 이낙경 신도 수유리교회 / 이재현 신도 수유리교회 / 문찬호 신도 천호동교회 / 장영섭 신도 영등포교회

◎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 / 김사풍 신부 진천교회(교무국장) / 박승시 신부 천안교회 / 차경혜 신부 묵방교회 /곽정현 신도 대전대성당 / 한병옥 신도 천안교회

◎부산교구

최철희 주교 / 김병훈 신부 마산교회 / 이경식 신부 서면교회 / 이명희 신도 울산교회 / 이용길 신도 서면교회

## 第2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1985年11月15日より19日まで5日間、大阪に於いて韓国側20名、日本側42名が参加して、第2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次のような主題と発題のもとに開催された。

主題「わたしは主に罪を犯しました。一両国聖公会の歴史をかえりみて」

### 発題

- I) 宣教師が残したものを我々はどう受け止めて来たか(宣教師と教会)
- II) 両国聖公会は民衆にとって何であったか(両国聖公会の歴史的汚点)
- III) 在日韓国・朝鮮人の悩みは誰の罪か

両国の正しい歴史理解を通じて、相互理解の増進につとめた第1回セミナーに引き続いて、今回のセミナーでは両国聖公会の歴史的汚点をおのおの省みる過程を通じて、自らの過ちに気づき、宣教の使命を覚醒するよう努力した。

このセミナーで提言、または認識されたことは以下の点であり、詳細な報告書は参加者全員の設問書(アンケート)と両国協働委員会の継続的協議をもって今後作成する。

- ①両国聖公会はそれぞれ民衆を抑圧する権力に対して批判的に関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即ち民衆と共に歩んで来なかった。
- ②大韓聖公会は日本の天皇制復活傾向と靖国神社問題に対し危惧を表し、日本聖公会はこの問題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と指摘した。

③在日韓国人教会である聖ガブリエル教会に対する両国聖公会の関心が一層強まってきた。特に今回大韓聖公会より、篤い祈りと献金がささげられた。

④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問題として、外国人登録法の指紋押捺制度の撤廃に向けて、日本聖公会は引き続き努力する。

⑤両国の歴史を正しく学ぶために、日本聖公会は家庭教育をはじめ、あらゆる機会をとらえて、学習の機会を持つべきである。

⑥サハリン在留韓国人問題の解決のため、両国聖公会はそれぞれの政府に対して影響力を発揮すべきである。

⑦韓国人被爆者問題に対して両国聖公会は共に十分な関わりを持たなかったことを指摘された。

⑧両国聖公会間における相互理解がなお不十分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その克服のための真剣な討論があった。

⑨いかなる形であれ両国聖公会間の交流は継続的に深め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

1985年11月19日

日韓協働委員長 木川田一郎

韓日協同委員長 裒 斗煥

## 제2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1985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본 오오사카에서 한국측 20명, 일본측 42명이 참가하여 제2차 한일성공회 세미나를 다음과 같은 주제와 발제하에 개최하였다.

주제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소」

- 양국 성공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 발제 (1) 선교사가 남긴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선교사와 교회)  
 (2) 양국 성공회는 민중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양국 성공회의 역사의 오점)  
 (3) 제일 한국인의 고뇌는 누구의 죄인가?

양국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한 제1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성공회의 역사적 오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오류를 인식하고 선교의 사명을 각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제안 또는 인식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보고서는 참가자 전원이 제출한 설문응답과 양국 협동위원회의 계속적인 협의로 이후 작성될 것이다.

1. 양국 성공회는 각각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즉,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 하지 못했다.
2. 한국성공회는 일본의 천황제 부활 경향과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일본성공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실천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3. 제일한국인교회인 성가브리엘교회에

대한 양국 성공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져왔다. 특히 한국성공회가 뜨거운 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모금한 성가브리엘교회 건축기금을 헌금하였다.

4. 제일한국조선인의 인권문제인 외국인 등록법의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해 일본성공회는 계속 노력해나간다.
5. 양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 일본성공회는 가정교육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장을 활용하여 역사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6.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성공회는 각각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7.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양국 성공회 모두 충분히 관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8. 양국 성공회간의 상호이해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그 극복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9. 어떤 형태이든 양국 성공회간의 교류는 계속 그 깊이를 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985년 11월 19일

한일협동위원장 배 두 환  
 일한협동위원장 키카와다이치로

## 第2回セミナー参加者名簿

(注：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日本側)

#### ★ 北海道教区

渡辺政直 主教 首座主教／雨宮大朔 司祭 札幌聖ミカエル教会／藤井清 信徒

#### ★ 東北教区

小野俊作 司祭 仙台基督教会／佐藤真実 司祭 盛岡聖公会／

#### ★ 北関東教区

高野晃一 司祭 前橋聖マツテヤ教会／森戸恵津子 信徒 栃木聖公会／川田登志子  
信徒 川越基督教会／菊池邦杏 信徒 川越基督教会

#### ★ 東京教区

佐藤信康 司祭 神田基督教会／前田良彦 司祭 東京諸聖徒教会／長谷川正昭 司祭  
渋谷聖公会聖ミカエル教会／金順伊 信徒 渋谷聖公会聖ミカエル教会

#### ★ 横浜教区

梶原史朗 主教 教区長／相原俊次 司祭 市川聖マリヤ教会／小山俊雄 信徒 横浜聖  
アンデレ教会／

#### ★ 中部教区

森一郎 司祭 松本聖十字教会／松崎庄左エ門 信徒 名古屋聖ヨハネ教会

#### ★ 京都教区

大岡義明 司祭 京都聖ヨハネ教会／宮岸進 司祭 金沢聖ヨハ教会／谷敬子 信徒 京  
都聖マリヤ教会／

#### ★ 大阪教区

名出望 司祭 石橋聖トマス教会／柳原義次 信徒 堺聖テモテ教会／大川千萬 信徒  
聖ガブリエル教会

#### ★ 九州教区

宮原善忠 司祭 鹿児島復活教会／山崎貞司 司祭 直方基督教会／藤井東吾 信徒  
福岡教

#### ★ 沖縄教区

仲村実明 主教 教区長／崎浜秀松 信徒 島袋諸聖徒教会

#### ● 準備委員会

木川田一郎 主教 大阪教区／大西修 司祭 豊橋昇天教会 (中部教区)／五十嵐正司 司  
祭 練馬聖公会 (東京教区)／山本眞 司祭 聖ルシヤ教会 (大阪教区)／井田泉 司祭  
聖公会神学院 (京都教区)／小川博司 司祭 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 (大阪教区)／宮嶋  
眞 司祭 大阪聖三一教会 (大阪教区)／岡本千代子 信徒 奈良基督教会

## 제2회 한일성공회선교세미나 참가자

(소속, 직책 등은 대회 당시)

### <한국>

#### ◎ 서울교구

박종기 신부 서울대성당(교무원장) / 박경조 신부 연건동교회(교무원선교국장) / 전삼광 신부 수유리교회 / 김근상 신부 영등포교회 / 민병무 신도 교무원 / 광현자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연합회장)

#### ◎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 (한일협동위원장) / 박명순 신부 온양교회 / 조남극 신부 / 이인순 신도 대전대성당(어머니연합회장) / 박명식 신도 대전대성당(교회위원) / 주영자 신도 대전대성당(교회위원) / 광정현 신도 교구관리국장

#### ◎ 부산교구

최철희 주교 / 김병훈 신부 교무국장 / 이용길 신도 부산 서면교회(신자회장) / 이만근 신도 대구 동문동교회(교회위원) / 박윤자 신도 온천동교회(어머니회장) / 이봉구 신부 대구평리동교회 / 최계전 신도 울산교회(어머니회장)

### <일본>

#### ◎ 홋카이도교구

와타나베 마사나오 주교(수좌주교) / 아마미야 타이사쿠 사제 삿포로성미카엘교회 / 후지이 키요시 사제 삿포로성미카엘교회

#### ◎ 토호쿠교구

오노 순사쿠 사제 센다이그리스도교회 / 사토 마코토 사제 모리오카성공회

#### ◎ 기타칸토교구

타카노 코이이치 사제 마에바시성맛디아교회 / 모리토 에츠코 신도 토치기성공회 / 키쿠치 구니히로 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카와다 토시코 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 도쿄교구

사토 노부야스 사제 칸다그리스도교회 / 마에다 요시히코 사제 제성도교회 / 하세가와 마사아키 사제 시부야성미카엘교회 / 하세가와 슌이 신도 시부야성미카엘교회 / 이가라시 쇼지 사제 네리마가브리엘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코노 히로미치 사제 관구총주사 / 츠카다 오사무 사제 릿쿄대학교수(주제강연)

#### ◎ 요코하마교구

카지와라 시로 주교 / 우에하라 순지 사제 이치카와성마리아교회 / 코야마 토시오 신도 요코하마성안드레교회 / 사카다 류이치 신도 관구사무소주사

#### ◎ 추부교구

모리 이치로 사제 마츠모토성십자교회 / 마츠자키 쇼자에몬 신도 나고야성요한교회 / 오오니시 오사무 사제 토요하시승천교회(일한협동위원회)

#### ◎ 교토교구

오오카 요시아키 사제 교토성요한교회 / 미야기시 스스무 사제 가나자와 성요한교회 / 타니 케이코 신도 교토성마리아교회 / 이다 이즈미 사제 신학원 / 오카모토 치요코 신도 나라그리스도교회

#### ◎ 오오사카교구

키카와다 이치로 주교 / 노조무 사제 이시바시성토마스교회 / 야나기하라 요시스구 신

河野裕道 司祭 管区事務所総主事（東京教区）／阪田隆一 信徒 管区事務所主事（横浜教区）／

● 講師／発題者

塚田理 司祭 立教大学教授（東京教区）／藤間繁義 信徒 桃山学院大学教授（神戸教区）／金徳煥 信徒 キリスト教在日韓国／朝鮮人問題活動センター事務局長（日本キリスト教団）

● 報道

古谷一俊 信徒 聖公会新聞記者

（韓国側）

★ソウル教区

朴鍾基 司祭 大聖堂・教務院長／朴耕造 司祭 蓮建洞教会・教務院宜教局長／関丙武 信徒 教務院事務局長／全三光 司祭 水諭里教会／金根祥 司祭 永登浦教会／郭賢紫 信徒 大聖堂・教区婦人会長

★大田教区

裴斗煥 主教 大田教区長・韓日協同委員長／朴明淳 司祭 温陽教会／趙南極 司祭／李仁順 信徒 大聖堂・教区婦人会長／朴明植 信徒 大聖堂・教会委員／朱泳子 信徒 大聖堂・教会委員／郭貞鉦 信徒 教区管理局長

★釜山教区

崔哲熙 主教 釜山教区長／金丙薰 司祭 教務局長／李龍吉 信徒 西面教会・信徒会長／李萬根 信徒 東門洞教会・教会委員／朴閨子 信徒 温泉洞教会・婦人会長／李奉求 信徒 坪里洞教会・教会委員／崔季珍 信徒 蔚山教会・婦人会長

도 사카이성디모데교회 / 오가와 센만(서천만) 신도 성가브리엘교회 / 야마모토 마코토 사제 성루시아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오가와 히로시 사제 조난그리스도교회(일한협동위원회) / 미야지마 마코토 사제 성삼일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코베교구

토마 시게요시 신도 모모야마대학교수(발제강연)

◎ 큐슈교구

미야하라 요시타다 사제 카고시마부활교회 / 야마자키 데이지 사제 노가타그리스도교회 / 후지이 토고 신도 후쿠오카교회

◎ 오키나와교구

나카무라 사네아키 주교 교구장 / 사키하마 히데마츠 신도 시마부쿠로제성도교회

<기타>

김덕환 기독교재일한국인문제센터 사무국장(발제강연) / 후루야 카즈토시 성공회신문 (보도)

### 第3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1988年5月19日より22日まで4日間、釜山において韓国側36名、日本側29名が参加して、第3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が次のような主題のもとに開催された。

- 主題 「教会成長と社会正義の関係」  
発題 I) 社会正義と聖公会の体質  
II) 民主化運動と社会正義の実現  
III) 社会正義に対する聖書的要請

両国の歴史の正しい理解を通じて、相互理解の増進を計った第1回セミナーと、両国聖公会の恥ずべき歴史を顧みながら、相共に私達の誤りを告白した第2回セミナーに続いて、今回のセミナーでは、神の正義を実現する器としての聖公会の過去と現在の姿に対する客観的な批判を通じて、この時代の両国聖公会の歴史的責任を痛感した。今回のセミナーで提言、または認識されたことを要約すれば次のとおりであり、これは両聖公会間の普段の協働を通して努力すべき課題となるであろう。

- ①大韓聖公会は、第1回セミナーの共同声明に基づき常設委員会を組織する。  
②両国聖公会は、相互に宣教の方策及び具体的活動の歩みの情報を交換し協働の業

を見い出していく。

- ③教会は、本来、「世に仕える教会」であることを大韓聖公会は民主化と統一問題を通して確認し、日本聖公会は、今回のセミナーを通じてそのことを学ぶと共に、教会の変革を促された。  
④大韓聖公会は民主化運動が、神の望み給う社会正義実現のための具体的課題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⑤日本聖公会は、天皇制が、在日韓国・朝鮮人、アイヌ、部落差別を助長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共通の認識とした。  
⑥両聖公会は、社会正義実現のため聖書が正しく解釈され、それが真の福音であることを確認し、世に広く伝達するための責任と使命を認識した。  
⑦両国聖公会参加者は、本セミナーで得られた成果と意義を、各自が遣わされた教会・教区に広めていく努力をする。  
⑧第4回セミナーは、大韓聖公会の宣教100年の意義深い年、1990年に開催し、共に神の祝福を願い、両聖公会の限りない発展を願うものである。

1988年5月22日 聖霊降臨日

日韓協働委員長 菊池邦杵  
韓日共同委員長 李 在賢



### 제3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1988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한국 부산에서 한국측 34명, 일본측 29명이 참석하여 제3차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다음과 같은 주제하에 개최하였다.

주제 「교회성장과 사회정의의 관계」

- 발제 (1) 사회선교와 성공회의 체질  
(2) 민주화운동과 사회정의의 실현  
(3) 사회정의에 대한 성서적 요청

양국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한 제1차 세미나와, 양국 성공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함께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제2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도구로서의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을 통해 양국 교회의 시대적인 책임을 통감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 또는 인식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양국간의 부단한 협력을 통해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1. 대한성공회는 제1차 세미나의 공동성명에 근거하여 한일협동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승격, 개편한다.
2. 양국 성공회는 선교 정책과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동의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
3. 대한성공회는 교회는 본래 '세상을 섬기는 교회' 라는 점을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본성공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를 배움과 동시에 교회의 혁신을 요청받았다.
4. 대한성공회는 민주화운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5. 일본성공회는 천황제가 재일한국조선인, 아이누, 오키나와 및 부락차별을

조장하는 것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6. 양국 성공회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성서가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로써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을 인식하였다.
7. 양국 성공회 참가자는 이 세미나에서 얻은 성과와 의의를 각자의 교회와 교구에 알려나가도록 노력한다.
8. 제4차 세미나는 의미깊은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의 해에 개최하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양국 성공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도할 것이다.

1988년 5월 22일 성신강림주일

한일협동위원장 이 재 현  
일한협동위원장 키쿠치쿠니히로

### 第3回セミナー参加者名簿

(註：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韓国側)

##### ★ ソウル教区

金成洙 主教 教区長／金在烈 神父 東大門教会／金根祥 神父 教務局／李定九 神父 新川教会／李大鏞 神父 神学校 (主題講演)／朴敬徳 信徒 水踰里教会／李泰薫 信徒 永登浦教会／郭賢紫 信徒 大聖堂／李在賢 信徒 水踰里教会 (韓日協同委員長)／閔丙武 信徒 蓮建洞教会／洪曼姫 信徒 大聖堂

##### ★ 大田教区

尹煥 主教 教区長／安永元 神父 井州教会／金恩豊 神父 清州教会／車環恵 神父 墨坊教会郭貞鉉 信徒大聖堂／李仁順 信徒 大聖堂／朱永子 信徒 大聖堂

##### ★ 釜山教区

金在憲 主教 教区長・金丙薫 神父 大聖堂／鄭萬得 神父 水宮教会／韓成圭 西面教会 神父／金榮哲 神父 尚州教会／李教承 神父 馬山教会／廉栄一 神父 教務局／李龍吉 西面教会／朱泳秀 信徒 水宮教会／崔南順 信徒 大聖堂／閔丙玉 信徒 鎮海教会／林炳益 信徒 水宮教会／李奉九 信徒 西大邱教会／李萬根 信徒 東門洞教会／

#### (日本側)

##### ★ 北関東教区

森戸恵津子 信徒 栃木聖公会／谷川誠 信徒 大宮聖愛教会／菊地邦香 信徒 日韓協働委員長／輿石勇 司祭 浦和諸聖徒教会／森紀旦 司祭 聖公会神学院 (発題者)

##### ★ 東京教区

藤井慶一 執事 三光教会／菊田かおり 信徒 練馬聖公会／竹田真 主教 教区長／五十嵐正司 司祭 練馬聖公会 (日韓協働委員)／保坂久代 信徒 大森聖アグネス教会 (韓日協働委員)／アグネス規美子 信徒 ナザレ修女会 (韓日協働委員)／河野裕道 司祭 池袋聖公会 (発題者・総主事)

##### ★ 横浜教区

大沢克次 司祭 長坂聖マリヤ教会／岡野保信 司祭 横浜聖アンデレ教会

##### ★ 中部教区

菊節謙 司祭 名古屋聖マタイ教会／平岡義和 信徒 名古屋聖マルコ教会

##### ★ 京都

石塚秀司 司祭 福井聖三一教会／井田泉 司祭 聖公会神学院 (日韓協働委員)

##### ★ 大阪教区

木川田一郎 主教 教区長／松原栄 司祭 大阪堺聖テモテ教会／小崎清信 司祭 聖ガ

### 제3회 한일성공회선교세미나 참가자

(소속, 직책 등은 대회 당시)

#### <한국>

##### ◎ 서울교구

김성수 주교 / 김재열 신부 동대문교회 / 김근상 신부 교무국 / 이정구 신부 신촌교회 / 박경덕 신도 수유리교회 / 이태훈 신도 영등포교회

##### ◎ 대전교구

윤환 주교 / 안영원 신부 정주교회 / 김사풍 신부 청주교회 /곽정현 신도 대전대성당 / 이인순 신도 대전대성당(어머니연합회장) / 주영자 신도 대전대성당 교회위원

##### ◎ 부산교구

김재현 주교 / 김병훈 신부 부산대성당 / 정만득 신부 수영교회 / 한성규 신부 서면교회 / 김영철 신부 상주교회 / 이교승 신부 마산교회 / 주영수 신도 수영교회 / 임병익 신도 수영교회 / 최남순 신도 부산대성당 / 민병옥 신도 진해교회 / 이봉구 신도 서대구교회 / 이만근 신도 대구동문동교회

#### <일본>

##### ◎ 기타칸토교구

코시이시 이사무 사제 우라와 제성도교회 / 모리토 에츠코 신도 토치기성공회 / 타니가와 마코토 신도 오오미야세이아이교회 / 키쿠치 쿠니히로 신도 카와고에교회(일한협동위원장) / 모리 토시아키 사제 신학원(발제강연)

##### ◎ 도쿄교구

타케다 마코토 주교 / 후지이 케이치 부제 삼광교회 / 키쿠타 카오리 신도 네리마가브리엘교회 / 코노 히로미치 사제 관구총주사 / 이가라시 마사시 사제 네리마가브리엘교회(일한협동위원회) / 호사카 히사요 신도 오오모리아그네스교회(일한협동위원회)

##### ◎ 요코하마교구

오오사와 카츠지 사제 나가사카성마리아교회 / 오카노 야스노부 사제 성안드레교회

##### ◎ 추부교구

키쿠타 켄 사제 나고야성마태교회 / 히라오카 요시카즈 신도 나고야성마르코교회

##### ◎ 교토교구

이시즈카 슈지 사제 후쿠이성삼일교회 / 이다 이즈미 사제 신학원(일한협동위원회)

##### ◎ 오오사카교구

키카와다 이치로 주교 / 마츠바라 사카에 사제 사카이성디모데교회 / 코자키 키요노부 사제 성가브리엘교회 / 박변산 신도 성가브리엘교회 / 야마모토 마코토 사제 조난그리스도교회(일한협동위원회)

##### ◎ 큐슈교구

나카노 준시 사제 성요한교회 / 이시하라 키누코 신도 쿠마모토성삼일교회 / 호리오 노리타카 사제 쿠마모토성삼일교회(일한협동위원회)

##### ◎ 오키나와교구

나카무라 사네아키 주교 / 마츠모토 마사토시 사제 쇼콘교회 / 세키모토 하지메 사제성 베드로바우로교회(발제강연) / 아그네스 키미코 수녀 나자레수녀회(일한협동위원회)

プリエル教会／朴辺山 信徒 聖ガブリエル教会／山本眞 司祭 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  
(日韓協働委員)

★ 九州教区

中野准之 司祭 巖原聖ヨハネ教会／石原絹子 信徒 熊本聖三一教会／堀尾憲孝 司祭  
熊本聖三一教会 (日韓協働委員)

★ 沖縄教区

松本正俊 司祭 牧港諸魂教会／仲村実明 主教 教区長／関本肇 司祭 三原聖ペテロ  
聖パウロ教会 (発題講演者)



#### 第4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大韓聖公会宣教100周年に際し、1990年9月26日から30日まで 韓国ソウルで日本側31名、韓国側32名の聖職・信徒が参加して「大韓聖公会100周年と宣教第2世紀の課題」という主題のもとに、第4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開催した。

われわれはこのセミナーを通して両国教会が、過去100年の間大部分の歳月を教会共同体としての交わりなく過ごしてきた事実を省み、神の恵みによって結ばれた両国の教会のきずなが、今後はいかなる世俗的、政治的理由によっても、再び断絶さ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告白した。

今回のセミナーにおいて、韓国側からは「宣教課題としての南北統一」、また日本側からは「宣教課題としての在日韓国・朝鮮人との協働」という発題があった。両国の宣教課題はいずれも政治的、社会的な問題でもあるが、両教会において「そのような問題は、教会が取り扱うべき問題ではない」という従来の神学が今も強い影響力をも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た。したがって、両教会がそれぞれの宣教課題を遂行する過程は、教会が革新される過程でもある。このためには、政治的、社会的問題が、教会の課題であることを明確化する新しい教会の神学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る。

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教会革新の課題の実現と両教会の協働の要として、聖ガブリエル教会が持つ意義の大きさを、あらためて認識し、このお恵みのゆえに、神に感謝するものである。両教会は、聖ガブリエル教会及び地域活動センター建設を共同の

課題と認め、この実現に向けて、これまで以上に、祈り、働くことを決意した。

このセミナーでの共同生活と分科会、また全体会での話し合いを通して、われわれは両国の社会的また教会的現状について、互いに知らないことがいまだ多いことに気づかされ、これについての理解をさらに深めようとの思いを新たにした。

そのためにも、これまで以上に両教会間のより多面的、かつ継続的な人事交流(例えば、女性・青年・神学生・神学校教員等)を実現する必要を痛感するものである。

両国の日韓協働委員会を中心に、このような人事交流を推進することを決意するものである。

1990年9月30日

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長 菊池邦杵  
大韓聖公会韓日協同委員長 李 在賢

#### 제4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을 맞아, 1990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일본측 31명, 한국측 32명의 성직자와 신도가 참가하여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과 선교2세기의 과제」라는 주제하에 제4차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 양국 교회가 과거 10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교회공동체로서의 교제 없이 지내온 사실을 반성하고, 하느님의 은혜로 맺어진 양국 교회의 유대가 이후 어떠한 세속적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도 다시금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백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선교과제로서의 남북통일」, 그리고 일본측은 「선교과제로서의 재일한국조선인과의 협동」이라는 발제를 하였다. 양국의 선교과제는 모두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기에, 「그런 문제는 교회가 관여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종래의 신학이 지금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국교회가 각자의 선교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은 교회가 혁신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교회의 과제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신학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혁신의 과제 실현과 양국 교회 협동의 중심으로서 성가브리엘교회가 지니는 큰 의의를 다시금 인식하고, 이 과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양 교회는 성가브리엘교회와 부설 지역활동센터 건설을 공통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 배전의 기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공동생활과 분과 및 종합토의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사회적 또

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 서로 모르고 있는 점이 아직도 많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후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함을 새삼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노력 이상으로 양교회 간에 더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인사교류(예를 들어 여성, 청년, 신학생, 신학교 교원 등)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양국 협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0년 9월 30일

한일협동위원장 이 재 현  
일한협동위원장 키쿠치쿠니히로

## 第4回セミナー参加者名簿

(註：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韓国側)

#### ★ 釜山教区

金丙薫 神父 大聖堂／廉栄一 神父 教務局 (韓日協同委員)／鄭萬得 神父 水宮教会／韓成圭 神父 西面教会／全在植 神父 蔚山教会／李教承 神父 馬山教会／李明熙 信徒 蔚山教会／李竜吉 信徒 西面教会 (韓日協同委員) 朱泳秀 信徒 水宮教会／李明善 神学生 神学校／崔聖愛 信徒 水宮教会 (婦人会)

#### ★ 大田教区

許鍾鉉 神父 教務局 (韓日協同委員)／安永元 神父 井州教会／朴勝視 神父 富岱洞教会／文相尹 神父 天安教会／洪成萬 神父 温陽教会／車璟恵 神父 墨坊里教会 (通訳)／金仁培 神学生 神学校／郭貞鉉 信徒 管理局／李相輝 信徒 清州教会／高寛喆 信徒 星井洞教会／柳賢淑 信徒 大聖堂 (婦人会)／金栄哲 信徒 全州教会

#### ★ ソウル教区

鄭淵優 神父 江南教会／劉載鎬 神父 千戸洞教会／金容国 神父 富川教会／崔勝哲 神父 内里教会／金栄一 神父 温水里教会／郭賢紫 信徒 大聖堂 (婦人会)／洪曼姫 信徒 大聖堂 (婦人会)／文鎔汝 信徒 間石教会 (婦人会)／朴明淑 信徒 大聖堂 (青年)／車順玉 信徒 間石教会 (G・F・S)／崔明基 信徒 新村教会 (青年) 蘇真元 信徒 神学校 (神学生)／金鎮萬 信徒 水諭里教会 (主題講演)／李在賢 信徒 水諭里教会 (韓日協同委員長)／李在禎 神父 神学校 (発題講演)／閔丙武 信徒 教務院 (韓日協同委員会主務)

### (日本側)

#### ★ 東北教区

斉藤政信 司祭 若松諸聖徒教会 (訓練計画委員会)

#### ★ 北関東教区

森園こずえ 信徒 志木聖母教会／長谷範子 信徒 宇都宮聖公教会／金子功 司祭 志木聖母教会 (部落差別問題委員会)／森戸恵津子 信徒 栃木聖公会／菊地邦香 信徒 川越基督教会 (日韓協働委員会)／輿石勇 司祭 浦和諸聖徒教会 (日韓協働委員会)／戸塚恭子 信徒 東松山聖ルカ教会 (正義と平和委員会)

#### ★ 東京教区

香山美土里 信徒 聖パトリック教会／犬飼圭子 信徒 聖アンデレ教会 (教会教育推進委員会)／速見昌子 信徒 阿佐ヶ谷聖ペテロ教会 (天皇制を考える委員会)／山崎ホシ子 信徒 練馬聖ガブリエル教会 (靖国神社問題特別委員会)／井原泰男 司祭 聖路加国際病院礼拝堂／五十嵐正司 司祭 練馬聖ガブリエル教会 (日韓協働委員会)



#### 제4회 한일성공회선교세미나 참가자

(소속, 직책 등은 대회 당시)

##### <한국>

###### ◎ 서울교구

정연우 신부 강남교회 / 유재호 신부 천호동교회 / 김용국 신부 부천교회 / 최승철 신부 내리교회 / 김영일 신부 온수리교회 / 광현자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연합회) / 홍만희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연합회) / 문용녀 신도 인천간석교회(어머니연합회) / 박명숙 신도 서울대성당(청년회) / 최명기 신도 신촌교회(청년회) / 차순옥 신도 인천간석교회(GFS) / 소진원 신도 신학생 / 김진만 신도 수유리교회(주제강연) / 이재현 신도 수유리교회(한일협동위원장) / 이재정 신부 신학교(발제강연) / 민병무 신도 연건동교회, 교무원(한일협동위원)

###### ◎ 대전교구

허종현 신부 교무국장(한일협동위원) / 안영원 신부 정주교회 / 박승시 신부 부대동교회 / 문상윤 신부 천안교회 / 홍성만 신부 온양교회 / 차경혜 신부 목방교회(통역) / 광정현 신도, 교무국 관리국장 / 이상휘 신도 청주교회 / 김인배 신도 신학생 / 고관철 신도 성정동교회 / 유현숙 신도 대성당(어머니연합회) / 김영철 신도 전주교회

###### ◎ 부산교구

김병훈 신부 대성당 / 염영일 신부 교무국장(한일협동위원) / 정만득 신부 수영교회 / 한성규 신부 서면교회 / 전재식 신부 울산교회 / 이교승 신부 마산교회 / 이명희 신도 울산교회 / 이용길 신도 서면교회(한일협동위원) / 주영수 신도 수영교회 / 최성애 신도 수영교회(어머니연합회) / 이명선 신도 신학생

##### <일본>

###### ◎ 토호쿠교구

사이토 마사노부 사제 와카마츠제성도교회

###### ◎ 키타칸토교구

카네코 이사오 사제 시키성모교회 / 하세 노리코 신도 우츠노미야성공회 / 모리토 에츠코 신도 토치기성공회 / 키쿠치 쿠니히로 신도 카와고에교회(일한협동위원장) / 코시이 시 이사무 사제 우라와제성도교회(일한협동위원회) / 토츠카 요우코 신도 히가시마츠야마성루가교회(정의평화위원회)

###### ◎ 도쿄교구

카야마 미도리 신도 성패트릭교회 / 이누카이 게이코 신도 성안드레교회(교회교육추진위원회) / 하야미 마사코 신도 아사가야성베드로교회(천황제문제위원회) / 야마자키 호시코 신도 네리마가브리엘교회(야스쿠니문제특별위원회) / 이하라 야스오사제 성루가병원채플 / 이가라시 쇼지 사제 네리마가브리엘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코노 히로미치 사제 관구사무소 총주사

###### ◎ 요코하마교구

이리에 오사무 사제 성삼일교회

###### ◎ 추부교구

츠카다 미치오 사제 나고야성마르코교회

###### ◎ 교토교구

키타야마 카즈타미 사제 다카다그리스도교회 / 이다 이즈미 사제 신학원(일한협동위원)

★ 横浜教区

入江修 司祭 八日市場聖三一教会

★ 中部教区

塚田道生 司祭 名古屋聖マルコ教会

★ 京都教区

北山和民 司祭 高田基督教会／井田泉 司祭 聖公会神学院（日韓協働委員）

★ 大阪教区

齊藤壹 司祭 東豊中聖ミカエル教会／磯晴久 司祭 恵我ノ荘聖マタイ教会／朴辺山  
信徒 聖ガブリエル教会／張東煥 信徒 聖ガブリエル教会／山本眞 司祭 大阪城南キ  
リスト教会／聖ガブリエル教会（日韓協働委員会）

★ 九州教区

浜生正直 司祭 大分聖公会／石原キヌ 信徒 熊本聖三一教会／小笠原一恵 信徒 熊  
本聖三一教会／堀尾憲孝 司祭 熊本聖三一教会（日韓協働委員会）

★ 沖縄教区

Sasaki Norio 司祭 牧港諸魂教会／Sasaki Florence Nakagawa 信徒 牧港諸  
魂教会／北川規美子 信徒 ナザレ修女会

◎ 오오사카교구

사이토 하지메 사제 히가시토요주성미카엘교회 / 이소 하루히사 사제 성마태교회 / 박  
변산 신도 성가브리엘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정동환 신도 성가브리엘교회 / 야마모토  
마코토 사제 오오사카조난그리스도교회

◎ 큐슈교구

하마오 마사나오 사제 오오이타성공회 / 오가사와라 카즈에 신도 쿠마모토성삼일교회 /  
호리오 노리타카 사제 쿠마모토성삼일교회(일한협동위원회)

◎ 오키나와교구

사사키 노리오 사제 쇼콘교회 / 사사키 나카가와 신도 쇼콘교회 / 아그네스 키미코 수  
녀 나자레수녀회(일한협동위원회)

## 第5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報告書

第5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は、大韓聖公会の管区成立を祝いまた管区長主教就任式が行われた記念すべき年であり福音伝道10年の3年目に当たる、1993年8月13日(金)から17日(火)まで日本聖公会センターを会場に、韓国側27名、日本側51名の参加を得て開催された。「サルリム(生かし合い)のための分かち合いの実践」という主題のもとに、5日間生活を共にし、講演、現場体験、分団討議、聖書研究等を共にすることによって主に在る交わりを深めることができた。特に日韓両国にとって重要な8月15日に共に主日聖餐式を守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感謝であった。とりわけこの主日礼拝の中で「南北統一主日のための共同祈構」と統一を願う人間の帯つなぎを行い、平和と統一を願う韓国キリスト者の熱い祈りに加わることができたのは大きな恵みであった。また主日礼拝後の交流会、関東三教区の教会や信徒宅に参加者全員が分散して夕食を共にしながらそれぞれの地域の人々と交わることを通して、日本の中に韓国に関心を持つ人が着実に増えていることを実感できたことも大きな喜びであった。在日韓国朝鮮人多住地区川崎での現場体験は、日本に今も強く残る差別の現実の中で、日本に住むキリスト者によるサルリムを実現しようとする働きがあることを感じさせてくれた。また靖国神社の見学は、日本聖公会の重要な宣教課題の一つである天皇制の問題の現実を具体的に鋭く参加者に突きつけるものであった。在日韓国朝鮮人の問題も靖国神社の問題も日本の今現

在の問題である。

いずれも過去の歴史に起因する問題なので参加者は否応なく両国の歴史に再び目を向けざるを得なかった。しかし、このような歴史の学びは単に過去を回顧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日本聖公会がかつて加担した過去の植民地支配に代表される、日本の現実が今もなお継続しており、再びその現実に関与する危険が今も存在していることに改めて気づくためである。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日本の差別は靖国神社に象徴される、天皇を中心とする、国家思想と結び付いている。天皇を中心とした民族組織に全てを吸収して利用し、力の弱い者殊に少数者に苦難を強いる構造そのものがサルリムの実現に根本的に対立するのである。この構造は日本だけではなく韓国にもまたこの国にも存在しているし、我々一人一人をも強力に支配しようとする。従って、教会に属する者一人一人が、それぞれの内外に働くこのような悪魔的な力に気づくこと、それとの戦いを進めること、またその戦いを教会の内外で分かち合うことが、宣教のみ業に参加すること、すなわち、サルリムのための分かち合いの実践であることを参加者は確認した。サルリムの実現に対立する力は政治、経済、宗教、文化など人間の生活のあらゆる領域に現れるために、この力との戦いはいろいろな形をとることになる。形はそれぞれ違っていても、神によって造られたどの一つの命をも尊重する働きを、それぞれの場でまたそれぞれの仕方で、実践するよう互いに声をかけ合い助け合うこ

## 제5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보고서

제5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는 대한성공회 관구 승격을 축하하고 초대관구장 취임식이 거행된 기념할만한 해인 1993년 8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일본성공회 관구 센타에서 한국측 27명, 일본측 51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살림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주제하에 5일간 함께 생활하며 강연, 현장체험, 분과토의, 성서연구 등을 같이 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에 중요한 8월 15일에 함께 주일예배를 봉헌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이 주일예배 가운데 「남북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와 함께 통일을 위한 인간띠 잇기를 실시하여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한국 기독교인의 뜨거운 기도에 함께 참여한 것은 큰 은혜였다. 주일미사후의 교류회, 그리고 관동지역 3교구의 교회와 신자 가정을 참가자 전원이 분산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지역의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일본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한 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재일한국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카와사키 지역에서의 현장 체험은, 일본 사회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차별의 현실 속에 일본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살림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야스쿠니신사 견학은 일본성공회의 중요한 선교과제의 하나인 천황제 문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주시시켰다. 재일한국조선인 문제나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모두 일본의 현실적 당면 과제이다.

이상 문제들은 모두 과거의 역사로부터 기인한 문제이기에 참가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시금 양국의 역사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로부터의 배움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성공회가 가담했던 지난 날의 식민지배로 대표되는 일본의 현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다시 그 현실에 일본성공회가 가담할 위험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은 야스쿠니신사로 상징되는 천황 중심의 국가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조직에 모든 것을 흡수하여 이용하고, 힘없는 이들 특히 소수자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구조 그 자체가 살림의 현실에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도 또 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강력히 지배하려 하고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각자가 자신의 안과 밖에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악마적인 힘을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바로 「살림」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을 참가자들은 확인하였다. 살림의 실현에 대립하는 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투쟁 또한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형태는 제각기 다를지라도 하느님께 부여받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명을 각자의 장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실현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 나가는 것이 본 세미나 참가자의 향후 과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10년에 걸친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의 축적이 착실히 열매 맺고 있음을 실감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 먼저 청년과 여성 참가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이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양국의 참가자가 매우 솔직하게 말그대로 흥금을 열어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모두 제1차 세미나 이후로 반복적으로 기대되고 제안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とが本セミナー参加者の今後の課題となる筈である。本セミナーの中で、10年に及ぶ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の積み重ねが着実に実を結んでいることを実感できたのは大きな喜びであった。第一に青年や女性の参加者が飛躍的に増えたことである。第二に、このこととも深く関係するのだが、両国の参加者が非常に率直に、文字通り胸襟を開いて、対話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いずれも、第1回のセミナーから繰り返し期待され提案されて来たことである。これまで継続してきた期待が今確実に実現されつつあるという事実から、参加者一同は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今後も継続させ発展させようという思いを強くした。参加者は両国聖公会の思いや願いに逆らう現実の壁が余りにも強力であることを自覚している。しかし、いやむしろ、だからこそ両国聖公会がサルリムの実現に向けて互いに学び合い励まし合うことの必要を一層強く認識するものである。この協力関係を促進するために、第5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参加者は以下のことを認識する。

- I) 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今後も継続する。
- II) 本セミナーで学んだことをそれぞれの場所で広く分かち合うよう努め、参加者間の交わりと分かち合いを、例えばニューズレターや私信などを通して、継続する。
- III) それぞれの現場でサルリムの実現のために、殊にこれまでの5回にわたる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で提起された、

在日韓国・朝鮮人、南北統一、天皇制の課題を優先課題として取り組む。

- IV) サルリムの実現のためそれぞれ毎日時間を定めて、特に平和のために、祈る。またそれぞれの関係機関に対し、両教会の特別な宣教課題を相互に祈ることができるため方策を立てるよう要請する。
- V) 両聖公会の青年、女性、聖職等、各層間の交流を深めるよう努める。また各機関に対し、今後の両聖公会間の関係について共通の方針を策定するよう要請する。

1993年8月17日

日韓協働委員会 委員長 菊池邦杵  
韓日協同委員会 委員長 任 京淳

지의 기대가 분명히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양국의 참가자 일동은 한일선교세미나를 이후로도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양국 성공회의 뜻과 바램에 어긋나는 현실의 벽이 너무도 강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양국 성공회가 살림의 실현을 향해 서로 배우고 격려할 필요를 한층 강하게 인식하는 바이다. 이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제5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참가자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2. 금번 세미나에서 배운 바를 각자의 장에서 널리 나누도록 노력하고, 소식지 발행,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참가자간의 교류와 나눔을 계속한다.
3. 각자의 현장에서 살림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한일선교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 재일한국조선인, 남북통일, 천황제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실천해 나간다.
4. 살림의 실현을 위해 각자 매일 시간을 정하여, 특히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양국의 관계기관에 양국 교회의 특별한 선교과제를 위한 상호기도 시행 방안 수립을 요청한다.
5. 양국 성공회의 청년, 여성, 성직자, 각 세대간의 교류 심화에 노력한다. 또한 양국의 관계기관에 향후 양국 성공회의 관계에 대한 공통의 방침을 책정하도록 요청한다.

1993년 8월 17일

한일협동위원회 위원장 임 경 순  
일한협동위원회 위원장 키쿠치쿠니히로

## 第5回セミナー参加者名簿

(注：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日本側)

#### ●委員

##### ★北関東教区

今村正道 信徒 宣教部／菊地邦香 信徒 日韓協働委員会／輿石勇 司祭 渉外主事／谷川睦子 信徒 協働委員会

##### ★東京教区

香山洋人 聖職候補生 MRI委員会・日韓小委員会／河野裕道 司祭 日韓協働委員会／斉藤菜月 信徒 日韓協働委員会／前田良彦 司祭 MRI委員会／松平謙次 信徒 日韓協働委員会

##### ★横浜教区

小山俊雄 信徒 社会委員会／阪田隆一 信徒 総務主事／古川潤兒 司祭 宣教主事

##### ★中部教区

西原廉太 聖職候補生 NCC

##### ★京都教区

井田泉 司祭 日韓協働委員会

##### ★大阪教区

呉光現 信徒 聖公会生野センター主事／志賀直子 信徒 日韓協働委員会／宮嶋眞 司祭 日韓協働委員会

#### ●講師

大町信也 司祭 北海道教区 日韓協働委員会／李仁夏 牧師 在日大韓基督教川崎教会／関田寛雄 牧師 川崎戸手伝道所／西川重則 信徒 世と教会に関する委員会／斐重度 信徒 川崎市ふれあい館／黄征箕 司祭 大田教区教務局長／長谷川順伊 信徒 東京教区

#### ●通訳

張聖子 信徒 大阪教区／車環恵 司祭 沖縄教区／任大彬 聖職候補生 大阪教区

#### ●参加者

##### ★東北教区

井出和子 信徒

##### ★北関東教区

秋葉晴彦 司祭／今村さだ子 信徒／木村直木 司祭／松本博一 信徒／諸橋保夫 信徒 宣教部／

##### ★東京教区

植田栄基 信徒／柚取賢一 執事／八木正言 聖職候補生／植田仁太郎 司祭 総主事

##### ★横浜教区

相沢牧人 司祭 社会委員会／大野清夫 聖職候補生

##### ★中部教区

後藤一郎 信徒／渋沢一郎 司祭 教務局／島田麗子 信徒 宣教主事

##### ★京都教区

岡野利治 主教 教区長／小林聡 聖職候補生／藤原健久 聖職候補生／

##### ★大阪教区



## 제5회 한일성공회선교세미나 참가자

(소속, 직책 등은 대회 당시)

### <한국>

#### ◎ 서울교구

김재열 신부 서울대성당(어머니연합회지도) / 유재호 신부 안중교회 / 임경순 신도 수원교회(한일협동위원장) / 이계정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회장) / 김점순 신도 수원교회(어머니회장) / 김소희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회총무) / 조경자 신도 서울대성당(어머니회성가대) / 홍만희 신도 서울대성당(전국어머니연합회) / 안혜영 신도 서울대성당(전국어머니연합회) / 김용순 신도 수원교회(어머니회) / 김금향 신도 수원교회(어머니회) / 윤영희 신도 천호동교회(어머니회) / 이선덕 신도 서울대성당(성가대) / 이경수 신도 서울대성당(주일학교) / 이두우 신도 서울대성당(청년회장) / 정철범 사제 교무국장(교무원장) / 유시경 부제 교무원

#### ◎ 대전교구

황정기 신부 교무국장(한일협동위원) / 고관철 신도 성정동교회(사제회장) / 양용순 신도 목방교회(어머니연합회장) / 김명희 신도 대전대성당(어머니연합회) / 김영자 신도 대성당(어머니연합회) / 송영애 신도 충주교회(GFS) / 김진애 신도 충주교회 / 김소자 신도 충주교회 / 이창우 신도 충주교회

### <일본>

#### ◎ 홋카이도교구

오마치 신야 사제 삿포로성니콜라스교회

#### ◎ 토호쿠교구

이데 카즈코 신도 센다이그리스도교회

#### ◎ 기타칸토교구

키쿠치 쿠니히로 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마츠모토 히로카즈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모로하시 야스오 신도 카와고에그리스도교회 / 코시이시 이사무 사제 우라와제성도교회 / 이마무라 마사노리 신도 우라와제성도교회 / 이마무라 사다코 신도 우라와제성도교회 / 타니카와 무츠코 신도 오오미야세이아이교회 / 아키바 하루히코 사제 미토성스테반교회 / 키무라 나오키 사제 하루나성공회교회

#### ◎ 도쿄교구

카야마 히로토 전도사 성패트릭교회(일한소위원회) / 코노 히로미치 사제 성바우로교회 / 마에다 요시히코 사제 제성도교회 / 사이토 나즈키 신도 성마가렛교회 / 마츠다이라 켄지 신도 네리마가브리엘교회 / 우에다 진타로 사제 관구총주사 / 우에다 에이키 신도 쿄가네이성공회 / 소마토리 켄이치 부제 시부야성미카엘교회 / 후지이 켄이치 부제 관구 / 야기 마사코토 신도 신학생 / 하세가와 순이 신도 성미카엘교회(통역) / 김영미 신도 서울대성당(일본유학, 통역)

#### ◎ 요코하마교구

코야마 토시오 신도 요코하마성안드레교회 / 사카다 류이치 신도 린칸성바르나바교회 / 후루카와 준지 사제 오가사와라성십자교회 / 아이자와 마키토 사제 성크리스토퍼교회 / 오노 키요오 신도 윌리엄스신학원생

#### ◎ 추부교구

고토 이치로 신성스테반교회 / 시부사와 이치로 사제 아이기성바우로교회 / 시마다 레

今中里枝 信徒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木川田一郎 主教 首座主教／仁尾真理子 信徒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松山献 信徒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

★ 神戸教区

角瀬克己 司祭

★ 九州教区

柴本孝夫 執事 正義と平和委員会

★ 沖縄教区

喜屋武幸清 信徒 常置委員／中山眞 司祭 常置委員

(韓国側)

★ ソウル教区

安蕙映 信徒 全国婦人会総務／趙敬子 信徒 大聖堂婦人会聖歌隊長／洪曼姫 信徒 全国婦入会長  
／任京淳 信徒 韓日協同委員長／丁哲範 司祭 教務局長／金在烈 司祭 大聖堂主任司祭・教区婦人  
会指導司祭／金点順 信徒 大聖堂婦人会副会長／金昭姫 信徒 大聖堂婦人会総務／金錦香 信  
徒 婦人会／金容順 信徒 婦人会／金英洙 信徒 婦人会／李發貞 大聖堂婦人会会長／李善徳 信  
徒 成人会・聖歌隊／李京洙 信徒教師会(幼年)／李斗雨 信徒 青年会長／李相完 信徒 婦人会／劉  
載鎬 司祭 管轄司祭／柳時京 執事 教務院事務幹事／尹令姫 信徒 婦人会聖歌隊長

★ 大田教区

金明姫 信徒 教区婦人会副会長／金榮子 信徒 教区婦人会／金鎮愛 信徒 婦人会／金昭子 信徒  
婦入会／高寛徹 司祭 司祭会長／李昌雨 信徒／宋英愛 信徒 G F S／梁龍順 信徒 教区婦人会  
会長

이코 신도 나고야 성스테반교회 / 니시하라 렌타 신도 신학원생(NCC)

◎ 교토교구

오카노 토시하루 주교 / 이다 이즈미 사제 신학원교수 / 코바야시 사토시 신도 신학원 / 후지와라 타케히사 신도 신학원 / 츠카다 토모코 신도

◎ 오오사카교구

키카와다 이치로 주교(수좌주교) / 이나마카 리에 신도 성삼일교회 / 니오 마리코 신도 조난그리스도교회 / 미야지마 마코토 사제 성가브리엘교회 / 마츠야마 켄 신도 타카키 성마리아교회 / 시가 나오코 신도 타카키성마리아교회 / 오광현 신도 이쿠노센타 주사 / 장성자 신도 성가브리엘교회(통역) / 임대빈 신도 신학원(통역)

◎ 코베교구

츠노세 카츠미 사제 코베성미카엘교회

◎ 큐슈교구

시바코토 타카오 부제 후쿠오카교회

◎ 오키나와교구

작 쿠세이 신도 성마르코교회 / 나카야마 마코토 사제 쇼콘교회 / 차경혜 사제 성마태교회(통역)

<강사, 기타 참가자>

이인하 목사 재일대한기독교 카와사키교회 / 세키타 히로오 목사 일본기독교단 미토전도소 / 니시가와 시게노리 목사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 배중도 장로 재일대한기독교회 / 제임스 코데라 목사(미국매사추세츠)

## 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についての日韓合同評価会報告書

日韓協働委員会と韓日協同委員会は、1984年第一回開催以来10年にわたり5回開催した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評価し、今後の両国聖公会の共通の課題を明らかにするため1995年5月2日から4日にかけて、プサンで合同評価会を開催した。本合同評価会には、大韓聖公会管区長金成洙主教、日本聖公会首座主教八代崇主教、またプサン教区長金在憲主教臨席のもと、日本側7人、韓国側11人が参加した。

本合同評価会は、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5回開催する中で、両国聖公会の交わりの輪が着実に広がり、また、相互に対する関心が急速に高まっており、自発的な草の根レベルでの交流が可能な段階に達していることを認識した。したがって、本合同評価会は、日韓協働委員会、韓日協同委員会の役割のひとつが十分果たされたと評価するものである。

5回に及ぶ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において、参加者は常に日韓両国の歴史に向き合うことが求められ、その歴史の現実が過酷であることを深く知れば知るほど、両国聖公会に託された宣教の務め、殊に主イエスの宣教の中核である、神と人、人と人とを和解させる務めの重さについての自覚を深められてきた。本合同評価会は、両国聖公会が今や情緒に捉われることなく、また、抽象的な議論に墮することなく、共に託された和解の職務の遂行について、その実践を分かち合い、殊に両

国の歴史に起因する諸問題、南北統一、戦後保障などに具体的に共に取り組む段階を迎えていることを認識する。

以上のような総括的な評価に立ち、将来に向けて次のような事項を課題として確認するものである。

1. 両国協働委員会は過去5回の共同声明（第1回）、合同報告書（第2回～第5回）を踏まえ、緊密な連絡をとりながらその働きを積極的に継続、存続させていく。
2. 様々な分野での両国聖公会の交流がより活発になり、多様化されるよう実際的なプログラムを開発し、特に具体的な生活と信仰の現場を体験できるよう継続的に支援、推進する。
3. 各教区、教会に向けてのいっそうの広報活動によって聖職信徒個々人に、日韓宣教協働への関心を促進しながら、神の国完成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最優先とする。

1995年5月4日

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長 菊池 邦杏  
大韓聖公会韓日協同委員長 方 承熹

## 합동평가회 보고서(1995)

한일협동위원회와 일한협동위원회는, 1984년 제1회 개최 이래 10년에 걸쳐 5차례 개최한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성공회의 공통의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1995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합동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합동평가회에는,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성수 주교,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야시로 타카시 주교, 그리고 부산교구장 김재현 주교가 임석한 가운데, 한국측 11명, 일본측 7명이 참가하였다. 이 합동평가회는,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를 5차례 개최하는 가운데 양국 성공회의 교제의 울타리가 착실히 넓혀지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합동평가회는 한일협동위원회, 일한협동위원회의 역할이 하나의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바이다. 5회에 걸친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에 있어, 참가자들은 언제나 한일 양국의 역사와 마주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 역사적 실재가 가혹하다는 점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양국 성공회에 맡겨져있는 선교적 사명, 특히 주 예수의 선교의 중심인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자각해 왔다. 이 합동평가회는 양국 성공회가 이제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추상적인 논의에 빠지는 일 없이, 맡겨진 화해의 직무 수행에 대해 함께 그 실천을 나누고, 특별히 양국의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 남북통일, 전후 보상 등에 구체적으로 함께 해결해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은 총괄적 평가에 입각하여, 미래를 향해 다음 사항을 과제로서 확인하는 바이다.

1. 양국협동위원회는 과거 5회의 공동성명(제1회), 합동보고서(제2회 ~ 제5회) 내용에 근거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속, 보존해 나간다.
2. 여러 분야에서 양국 성공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짐으로 다양화되도록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구체적인 생활과 신앙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 추진한다.
3. 각 교구,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성직자와 신도 개개인에게 한일선교협동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면서, 하느님나라 완성을 위해 노력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1995년 5월 4일

대한성공회 한일협동위원장  
방 승 희  
일본성공회 일한협동위원장  
키쿠치 쿠니히로

## 韓日協働委員会 合同協議会 合意書

韓日両国聖公会の委員会は、2000年2月28日から3月1日にかけて、大韓民国ソウル市で合同協議会(評価会)を開催し、過去15年にわたる両国聖公会の和解と友情の交わり、そして共同の働きを振り返り、両国聖公会の関係者にあてたアンケートにより、この15年間の交流を振り返り、以下のことを確認した。

1984年以来10年、5回におよぶ両国聖公会「宣教セミナー」を高く評価する。この信仰の交わりを通して、両国聖公会はその交流の歴史、特に植民地支配時代の歴史について深く学び、信仰的に深く理解し、懺悔をもって主にある和解をなし、新しい平和と友情の関係に入ったことを、喜びをもって高く評価する。

1995年以来実施された5回におよぶ韓日青年キャンプを高く評価する。両国聖公会の青年信徒達は、震災・水害などの苦しみの現場で共に働き助け合いながら、文化・習慣・言語の違いを越えた、信仰者としての一致を体験した。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両国聖公会の未来に対する希望が明らかにされたことを感謝し、高く評価する。

この交流を通して、両国聖公会は在日韓国朝鮮人問題への関心を開かれ、聖ガブリエル教会の再建・聖公会生野センター設立などの成果を生んだことを高く評価する。この在日韓国朝鮮人の問題は、両国聖公会の共同の重要な宣教課題であり、引き続き取り組むことを確認した。

両国協働委員会は、過去の共同声明・合同報告書・1995年の合意事項及び今回の評価をふまえて両国教会の持続的交流を希望する。

1. 両国協働委員会は、管区レベルの協働委員会を存続させ、多様な形の交流を促進していく。
2. 両国協働委員会はこれまでの経験をもとに、今後教区と教区、教会と教会の交流関係を促進し、特に共同の宣教課題を持っているグ

ループが交流できるよう、コーディネーター(調整役)の役割を果す。

3. 両国協働委員会は多様な広報活動を通し、両国教会の指導者たちと信徒の積極的な参与と協力を求める。
4. 両国協働委員会は5年後に合同協議会を開き、今後5年間の事業を評価し、その後の計画を立てる。

2000年3月1日

大韓聖公会韓日協同委員長 李 善徳  
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会 宮嶋 眞

## 합동협의회 보고서(2000)

한일 양국성공회의 협동위원회는,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합동협의회(평가회)를 개최하고, 과거 15년에 걸친 양국 성공회의 화해와 우정의 교제, 공동의 사역을 돌아보고 양국 성공회의 관계자에게 제출받은 설문에 따라 15년간의 교류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1984년 이래 10년간 5차례 개최된 양국 성공회 「선교세미나」를 높이 평가한다.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양국 성공회는 양국간 교류의 역사, 특히 식민지시대 시대의 역사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신앙적으로 깊이 이해하며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고 주 안에서 화해하여, 새로운 평화와 우정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기뻐하며 매우 높이 평가한다.

1995년 이래 5회에 걸쳐 실시된 「한일 청년캠프」를 높이 평가한다. 양국 성공회의 청년 신자들은 지진재해, 수해 등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도와 일하며, 문화·관습·언어의 차이를 넘어 신앙인으로서의 일치를 체험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성공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밝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상의 교류를 통해 양국 성공회는 제일 한국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가브리엘교회의 재건, 성공회 이쿠노센타 설립 등의 성과를 낳았음을 높이 평가한다. 제일한국조선인의 문제는 양국 성공회 공통의 중요한 선교과제로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양국 협동위원회는 과거의 공동성명, 합동보고서, 1995년의 합의사항 및 이번 모임의 평가에 기초하여 양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희망한다.

1. 양국 협동위원회는, 관구 차원의 협동

위원회를 존속시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시켜 나간다.

2. 양국 협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교구와 교구, 교회와 교회의 교류관계를 촉진하여, 특히 공동의 선교과제를 지닌 그룹이 교류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나간다.

3. 양국 협동위원회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양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을 요청한다.

4. 양국 협동위원회는 5년 후 합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5년 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이후의 계획을 수립한다.

2000년 3월 1일

대한성공회 한일협동위원장  
이 선 덕  
일본성공회 일한협동위원장  
미야지마 마코토

日本側は「韓日関係史、交流の歴史的反省と検証」、「平和・人権について」、「両国教会青年運動の活動と現状」、「女性問題」の4つの発題に対し、参加者全員が分担して準備にあたった。準備期間の不足もあったが、韓国へ来て実際に韓国の青年を前にして発題を行い、韓国側の発題を聴き、ディスカッションを行なうことを通して、全体的な勉強不足、また視点の持ち方に対して、反省し考えさせられることが多かった。「韓日関係史」では、事実をより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更なるその事実に対して社会科学的分析をより深く行なう、との必要性を感じさせられた。また過去の出来事を、現在の自分にいかに係わる問題としてとらえていたのか、という点は特に我々に問われた。「過去」のことより“現在”を語ろうというのが共通の認識となっていった。歴史への正確な考察は、あくまで“現在”のためである。また、他の三つのテーマを含めて全体を通して言えることは、韓国側の発表は、常に社会の政治的、経済的大状況を問題として、その改革を目指す中で捉え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しかもそれらは切迫した現実を伴って語られていた。それに対し日本側の視点は、ある与えられた状況の中での出来事に関心を向け、それに対してキリスト者青年としていかに係わる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と思われる。「女性問題」に関して言えば、韓国側の発題では、この問題は“性の階級”の問題であり、日本側では“性と役割”の問題であると捉えられていた。また“差別”の問題を日本側は中心的にとりあげたが、韓国において差

別とは高度の政治的事柄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側ではかなりの部分、個人の意識の問題と考えられていることが特徴的であった。これは両国の置かれた状況の違い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韓国側の発題で言及されているように、韓国は現在でも“東西の火種”の前線であり、国が分断されている。この準戦時下とも呼べる状況が韓国の切迫した現実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側は、国民の85%以上が中流意識を持つといわれる社会の中で、強大な矛盾の構造というものは巧みに日常生活からはかくされ、ぼか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こここそまさに我々の状況である。韓国とは事情の異なった困難さが日本にあることを我々は訴え、韓国側に理解を求めた。それは「市民運動型」と「第三世界型」の差違だとの発言もあった。だが、それにしても日本社会の中に明らかにあらわれているだろう危険—それは日本の経済侵略による新帝国主義、軍国主義の復活として韓国側から指摘のあったものだが—の、いわば「時のしるし」とでも言うべきものを我々はこれまで多く見落とし、関心を持たずに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何が本当に危険なのか、“危険を危険と感じない危険”そのようなものが、日本の我々の日常の中に存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天皇制の持つ重大な意味についても、この点で改めて深い検証の必要性を感じさせられた。

しかし、こうした気付きこそ「交流」の意味が活かされる場所であろう。我々はお互いが、今後も交流を通して、相互に己



일본측은 「한일관계사-교류의 역사적 반성과 검증」, 「평화·인권에 대하여」, 「양국 교회 청년운동의 활동과 현황」, 「여성문제」의 4가지 발제를 참가자 전원이 분담하여 준비하였다. 준비 기간의 부족도 있었으나, 한국에 와서 실제로 한국 청년들 앞에서 발제를 하고, 한국측의 발제를 듣고 함께 토의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공부 부족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등 반성하고 생각하게 된 점이 많았다. 「한일관계사」 발제에 있어서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과, 나아가 그 사실들에 대해 사회과학적 분석을 더 깊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현재의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은, 특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물음이었다.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 되어 갔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고찰은, 어디까지나 “현재”를 위한 것이다. 또 나머지 3개의 주제를 포함하여 전체 발표에 대해, 한국측의 발제는 항상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문제시하고 그 개혁을 지향하고 있었고, 더욱이 그것들은 절박한 현실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의 시점은 어떤 주어진 정황속에서 발생한 일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기독청년으로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 발제는 이 문제는 “성의 계급”의 문제였으며, 일본측에 있어서는 “성과 역할”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측이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한 “차별”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차별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일본측은 대부분 개인의 의식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것은 현재 양국이 놓여진 다른 정황을 반영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측 발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은 현재 “동서의 긴장”의 최전선이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 준전시하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한국의 이런 절박한 정황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국민의 85% 이상이 중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거대한 모순구조가 교묘하게 일상생활 속에 은닉되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황이다. 한국과 사정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곤란함이 있음을 한국측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는 「시민운동형」 또는 「제3세계형」의 차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본사회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위험 - 그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위한 신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한국측이 지적했으나 - 말하자면 「시대의 징조」라고도 할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본체만체 관심 없이 지내온 것은 아닌가? 무엇이 진짜 위험인가,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않는 위험”이 우리 일본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천황제가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에서 새삼 깊이 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틀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것을 통해 참다운 상호 이해에 이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모로 역량 부족이 있었음은 틀림없으나, 우리 일본 청년들은 아무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솔직한 토론을 하며 한국 청년들과 속식을 함께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들을 통해 세미나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서로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이 얼굴과 이야기를 잇을 수 없게끔 되어, 젊은

れの姿を写し出す鏡となり、それによって真の相互理解へとつながることを、心から期待するものである。多くの力の足りない点が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が、我々日本の青年がともかくありのままの姿をさらけ出し、率直に長期間にわたる討論を行い、韓国の青年たちと寝食を共にしたことは事実である。それらを通して、セミナーの終りに際して、相互にメンバー1人1人の顔や言葉が忘れ難いものとなっており、青年共通の共感と友情が芽生えはじめたと感じている。韓国と日本の青年の間に、今後何らかの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ることは然るべきであろう。そして、このセミナーが、更に検討されながら継続され、将来を荷う両国の青年相互の、理解と友情の場となることを、我々は願うものである。

1986年8月21日

#### 最終報告書（日本側）追加

この度の第1回日韓聖公会青年協議会を振り返り、帰国後私たち日本側青年が共通的に感じ又、考えていることを報告します。

韓国聖公会の青年との出会いを通して私たちは自己変革の機会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にいたるときだけでは考えられなかったことが韓国の青年たちの指摘により明確になりました。私たちはこの点に関して韓国の千年たちに感謝し、またこの傷みを通して私たち自身が変革されたと確信します。

この自己変革は両国青年たちがキリストに従う事実から与えられた神の歴史であ

り悔い改めの事件であると信じます。これは私たちがこの世で働かれる神様の歴史に参与し、神様のみ言葉であり行いであ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を再確認し私たちの考えを行いに結びつけ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で私たちは次の問題に参与しなければならぬと感じています。

第1に、日本の教会教育や公教育で間違った歴史観を正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次の世代を担う私たちに与えられた使命であり責任です。

第2に、私たちは教会やそこに集まる人たちが社会の中で生きる共同体であり、同時に個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自覚する必要性を感じています。教会は対内的、自己充足的なことだけで関係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社会的、政治的な問題に対しても小さなものの視点から発言し、参与し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第3に、私たちは東京教区の青年活動を再考せねばなりません。サロン化する傾向が強い現在の青年活動にとどまらずに、社会、そして教会の問題にも目を向けて、運動を具体化させるための組織を作る必要があります。又、田の教区の青年活動や諸団体との連合を通して青年活動の充実化期せねばなりません。

第4に、私たちは様々な面から教会の硬直性を打破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特に女性聖職に対しては多角的な論議ができる場を設置すべきことを求め、一般の信徒を含めた幅広い論議がなされるように努力します。

第5に、私たちは日本の民主化のために働きます。日本の各国に対する経済侵略、再軍国化、天皇制等の問題に対する認識を

이 공통의 공감과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다. 향후 한일 청년간에, 어떤 형태로든 분명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검토하고, 지속하여 장래를 짚어질 양국 청년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의 장이 될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1986년 8월 21일

### 최종 보고서(일본측) 추가

이번 제1차 한일성공회 청년협의회를 돌이켜 보면서, 귀국 후 우리 일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은 자기 변혁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만 있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한국 청년들의 지적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 한국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이 변혁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기변혁은 양국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에서 주어진 하느님의 역사이며 회개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행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행위로 결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학교교육, 공교육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둘째, 우리들은 교회나 그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사는 공동체이고 동시에 개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내적, 자기

충족적인 것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작은 자의 시각에서 발언하고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들은 동경교구의 청년 활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살롱(Salon)화하는 경향이 강한 현재의 청년활동에 머물지 말고 사회, 그리고 교회의 제문제에도 눈을 돌리고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구의 청년활동이나 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청년활동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성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일반 신자들을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들은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일본의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침략, 재군국화, 천황제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며, 우선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절박한 문제로서 외국인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의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 특히 한국측 관계자들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국의 청년들이 1주일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침식을 같이하며 깊이 교류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교구 참가자 일동

深化させ、優先的に可能なこと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又、切迫した問題として外国人登録法の改正を求めます。

最後にこの協議会のためご苦勞なされた多くの方々、特に韓国側の関係者と青年たちに心からの感謝をすると共に、両国の青年たちが1週間寝食を共にし、深い交流をできるようにして下さった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 東京—ソウル青年交流 最終報告書(韓国側)

まず、言葉と慣習の異なる両国の青年たちが、3日の間、互いに親しくなり、対話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神に感謝を捧げます。

今回の韓日聖公会青年の出会いにおいて韓国青年たちが感じた共通の意見を、次のようにお知らせします。

第一に、韓日両国関係の歴史的背景を共同で学習し討論する過程において、過去の歴史のあらゆる罪悪と誤解を深刻に認識し、今度の機会を通して新しく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うれしく思います。

第二に、韓国が直面している状況がたとえどれほど困難であろうと、韓国の青年たちは信仰的決断の中で最後まで前進するでしょう。他方、物質的豊かさの中で、無気力、無関心、無感動の深刻な精神的な危機を持っている日本の状況は、日本聖公会の青年たちに対し、韓国の場合よりいっそう大きな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要求す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

第三に、このような韓日両国の状況を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の青年たちが、韓国と日本を含むアジアの民衆に向かって持続的な関心を持つようとするその意志と、それを実践しようとする努力に対して、熱い声援を送るものです。

第四に、両国聖公会の青年の使命は、日本内の民主化と、韓国の民衆、民族、民主理念の具現にあります。これは具体的な実践的課題です。これは神の国を実現する信仰者の共同の課題であり、両国青年の持続的な努力が継続されるとき、今回の韓日青年協議会は極めて意味深い場として記憶さ

れるものと信じます。また特に在日韓国人差別問題に対して無関心であったわれわれ自身を反省します。韓国青年たちは、日本の青年たちが注いだ在日韓国人差別問題に対する関心に感謝の意を伝え、このような在日韓国人差別問題が解決されるときまで、よりいっそう大きな努力をともに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ます。

第五に、韓国と日本に蔓延している独裁的要素と日本軍国主義化は、強大国の帝国主義的侵略とともに、平和を脅かす深刻な要因として必ず除去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ます。

第六に、女性差別問題の解決は、人間解放の一つの部分として男女共同の課題であります。特に日本と韓国の女性聖職者の問題は、女性差別的行為であると認識します。これは教会の全般的な民主化とともに必ず解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1986年8月21日

## 동경-서울교구 청년교류 최종보고서(1986) 한국측

주제 :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

서울-동경교구 청년교류 최종보고서  
(1986) 한국측

먼저 언어와 관습이 다른 양국 청년들이 사흘의 기간 동안 친해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일성공회 청년의 만남 속에서 한국 청년들이 느낀 공통적인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한일 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의 모든 죄악과 오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이 처한 상황은 비록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한국 청년들은 신앙적 결단 속에서 끝까지 헤쳐나갈 것입니다. 반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무기력, 무관심, 무감동의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일본성공회의 청년들에게 한국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이러한 한일 양국 상황을 이해하게 된 일본 청년들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민중을 향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뜻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에 대해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넷째, 양국 성공회 청년의 사명은 일본 내의 민주화와 한국의 민중, 민족, 민주이념의 구현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신앙인의 공통적 과제이며 양국 청년의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이번 한일청년협의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제일 한국인 차별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왔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한국 청년들은 일본의 청년들이 기울인 제일 한국인 차별문제에 대

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이러한 한국인 차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욱 더 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에 만연되고 있는 독재적 요소와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섯째, 여성차별 문제의 해결은 인간 해방의 한 부분으로서, 남녀 공동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성공회의 여성성직자 문제는 여성 차별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함께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1986년 8월 24일

서울교구 참가자 일동

## 参加者名簿

(註：所属肩書き等は当時のまま)

### (日本側)

前田良彦 司祭 東京聖徒教会／井田泉 司祭 聖公会神学院／近藤幸平 執事 聖マーガレット教会／高瀬祐二 伝道師 聖バルナバ教会／加藤博道 司祭 聖公会神学院／加藤俊彦 聖公会神学院／下条裕章 聖公会神学院／香山洋人 三光教会／菊田かおり 練馬聖公会／波多野あき子 聖路加礼拝堂／宮谷尚実 東京諸聖徒教会／石川高明 聖マーガレット教会

#### ★通訳

矢野百合子

### (韓国側)

#### ソウル教区

柳時京 運営委員 ソウル大聖堂 (天神大、聖公会民主青年「聖民青」連合議長) / 朱成植 運営委員 千戸洞教会 (神学院生、聖民青研究部長) / 李基姫 運営委員 蓮建洞教会 (徳成女大) / 韓承洙 運営委員 水原教会 (ソウル教区青年連合会会長代行) / 俞愛蘭 運営委員 千戸洞教会 (世宗大) / 金峻弘 ソウル大聖堂 (西江大) / 梁権錫 永登浦教会 (韓神大学院、聖民青研究委員) / 申利澈 ソウル大聖堂 (ソウル大、聖民青広報部長) / 金善玉 永登浦教会 (聖心女大、聖民青文化部長) / 金勅汶 ソウル大聖堂 (延世大) / 韓在豪 ソウル大聖堂 / 白恵真 ソウル大聖堂 (若い女性の会会長) / 李守相 永登浦教会 (神学院生) / 鄭鐘雲 江華邑教会 (天神大) / 崔漢伯 仁川教会 / 申雄一 仁川教会 (仁荷大) / 李善美 永登浦教会 (聖心女大) / 朴汶洙 客舎里教会 (天神大) / 金泰雄 水原教会 (韓神大) / 李光淑 千戸洞教会 (天神大) / 李明根 東大門教会 (天神大) / 鄭在桓 東大門教会 / 李相範 東大門教会 (ソウル市立大) / 李成大 大田教区 (天神大) / 金根祥 司祭 (大会顧問、教区宣教部長) / 李定九 執事 新村教会 / <他教区代表> 鄭東植 富袋洞教会 (大田教区青年連合会会長) / 金兼益 大青洞教会 (釜山教区青年連合会会長)



## 1986년 서울-동경교구 청년협의회 참가자

### <동경교구>

카야마 히로토 운영위원(교구사회위원, NCC야스쿠니위원) / 하타노 아키코 운영위원 / 타카세 유지 운영위원 성바르나바교회 전도사 / 카토 히로미치 신학원 / 시모조 히로아키 신학원 / 키쿠타 카오리 릿쿄대학원 / 미야타니 나오미 릿쿄대학 / 이시카와 타카아키 릿쿄대학 / 콘도 코헤이 부제 성마가렛교회 / 이다 이즈미 사제 성공회신학원 / 마에다 요시히코 제성도교회사제(사회위원장, NCC야스쿠니위원) / 야노 유리코(통역)

### <서울교구>

유시경 운영위원 서울대성당(천신대, 성공회민주청년회장) / 주성식 운영위원 천호동교회(신학원, 성민청연구위원장) / 한승수 운영위원 수원교회(청년연합회장대행) / 이기희 운영위원 연건동교회(덕성여대) / 유애란 운영위원 천호동교회(세종대) / 김준홍 서울대성당(서강대) / 김기석 서울대성당(천신대, 성민청연구위원) / 양권석 영등포교회(한신대학원, 성민청연구위원) / 신이철 서울대성당(서울대, 성민청홍보부장) / 김선옥 영등포교회(성심여대, 성민청문화부장) / 김경문 서울대성당(연세대) / 한재호 서울대성당(외국어대) / 백혜진 서울대성당(젊은여성모임대표) / 이수상 영등포교회 신학원 / 정종운 강화읍교회(천신대) / 최한백 인천교회 / 신용일 인천교회(인하대) / 이선미 영등포교회(성심여대) / 박문수 객사리교회(천신대) / 김태웅 수원교회(한신대) / 이광숙 천호동교회(천신대) / 이명근 동대문교회(천신대) / 정재환 동대문교회 / 이상범 동대문교회(시립대) / 이성대 대전대성당(천신대, 학생회장) / 김근상 지도사제(교구선교부장) / 이정구 부제 신촌교회 / <타교구> 정동식 부대동교회(대전교구청년연합회장) / 김병익 대청동교회(부산교구청년연합회장) / 통역 오경원

## 決議文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と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NCCK）在日韓国人問題委員会とは、1985年5月7、8両日東京で第3回合同シンポジウムを行ない、宣教の課題として「人権と指紋押捺制度」について協議した。これは1月末に予定されていたものが、日本政府の意図的なビザ発給遅滞によって開催不可能となり延期されて、この両日に開催されたものである。

1947年5月2日、勅令制度最後の日に天皇の勅令として公布された外国人登録令（1952年4月28日以後「外国人登録法」）は、在日韓国・朝鮮人を、法的に追放できる「外国人」とみなし、徹底的に管理・抑圧・追放して来た。その後加えられた現行の、16才以上5年毎に在日外国人に対して強要される指紋押捺の制度は、在日韓国・朝鮮人を治安の対象とする日本の入管体制の性格を如実にあらわしている。この制度は、在日韓国・朝鮮人らに対して死にいたるまで屈辱を強い、同化政策を強め、直接警察の支配に結びつけておくものである。

在日韓国・朝鮮人を中心とする指紋押捺拒否の闘いが高揚し、日本人を含む支援運動が広がり、拒否者を告発しない自治体が増加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闘いの高揚、拡大、深化に対して、法務省、警察は押捺拒否者らへの攻撃をいっそう強めている。いみじくも、このシンポジウムのさなかに、一人の指紋押捺拒否者が逮捕された。よってわれわれは次のことを決議する。

- I) われわれは、日本政府に外国人登録法に基づく指紋押捺制度を速やかに完全撤廃することを求める。われわれは、それ以外のいかなる妥協案も認めるものでないことを、両国政府に明らかにする。
- II) われわれは、指紋押捺拒否者の闘いを支援し、拒否者に加えられている司法的、行政的不利益を中止することを日本政府に求める。
- III) とりわけ、法務省が指紋押捺拒否者、さらに拒否予定者に対してまで報復的に下している再入国不許可処分を直ちに取り消すことを求める。
- IV) 来る6月にはじまる外国人登録大量切替を控え、両国政府ならびに国会に働きかけることを日韓両教会・キリスト教諸団体に要請する。
- V) 李相鎬(イ・サンホ)氏の不当逮捕について、警察庁・神奈川県警・臨港警察署に強く抗議し、即時釈放を求める。
- VI) われわれは1985年6月ソウルで開催される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総会にこの問題を提議することを、両NCCに要請する。

1985年5月8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  
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  
在日韓国人問題委員会

## 외국인등록법 문제 결의문(일한NCC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인권 위원회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재일한국인문제 위원회는 1985년 5월 7일 과 8일 양일간 동경에서 제3회 합동 심포 지움을 개최하고 선교 과제로서 「인권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는 1월말에 예정되었던 것이나,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행사를 개최 할 수 없게 되어 이번 양일간 개최된 것 이다.

1947년 5월 2일, 칙령제도 최후의 날에 천황의 칙령으로서 공포된 외국인등록령 (1952년 4월 28일 이후 「외국인 등록법」) 은 재일한국·조선인을 법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시 하여, 철저하게 관 리·억압·추방하여 왔다. 그 후 추가된 현 행 16세 이상 재일외국인에 대해 5년 간 격으로 강요된 지문날인 제도는, 재일 한 국·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 하는 일본 의 입국관리 체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재일한국·조선인들 에 게 죽을 때까지 굴욕을 강요하고 동화 정책을 강화하여 직접 경찰의 지배 하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지문날인 거부 투쟁이 고조되어 일본인을 포함한 지원운동이 널리 전개되어, 거부자를 고 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 으나, 이와 같은 투쟁의 고조, 확산, 심 화에 대해 법무성과 경찰은 지문날인 거 부자들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 다.

애석하게도 이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 사람의 지문날인 거부자가 체포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 의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에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지문 날인제도를 조속하고도 완 전하게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 이외의 어떠한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양국 정부에 분명히 한다.

- 2) 우리는, 지문날인 거부자의 투쟁을 지 원하고, 거부자에에 가해지는 사법저그 행정적 불이익을 중지할 것을 일본 정 부에 촉구한다.
- 3) 무엇보다 법무성이 지문날인 거부자, 나아가 거부예정자에 대해서까지 보복 적으로 내리고 있는 재입국불허가 처분 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 4) 오는 6월에 시작하는 외국인 등록 대 량 교체에 대비하여, 양국 정부 및 국 회에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을 한 일 양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 요청한 다.
- 5) 이상호씨의 부당 체포에 대해, 경찰 청, 카나가와현청, 린코우경찰서에 강 력히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 6) 우리는 198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양국 NCC에 요청한다.

1985년 5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한국인문제 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 日本のキリスト教界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問題」への取組み

李清一

(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館館長)

### I. はじめに

#### 1. 日本のキリスト教界と在日韓国・朝鮮人問題

一般的に在日韓国・朝鮮人の最初の出発点は、1910年とよく言われていますが、もう少しきちんと見てみますと、1895年と見て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の一つの根拠は、1885年にいったん本国から日本に来る留学生の波は途絶え、10年たった1895年に新しく留学生が日本にやって来て、そして植民地以前の日本における在日同胞社会を形成していくからです。今からちょうど100年前に遡るわけですが、留学生として182名の若者が日本にやってきました。彼らの大半162名は福沢諭吉の慶応義塾に入り、他は陸軍士官学校等に入る。この官費留学生は引き続き年毎に増えていきますが、1903年以降は私費留学生も日本に入ってきます。彼らが、現在の在日韓国・朝鮮人社会の最初の起点であったと思います。

1906年には留学生の数がすでに400名を超えています。1909年には在日朝鮮人全体790名の大半が留学生です。日本における韓国教会の出発点は1908年、その留学生を中心とした学生教会でした。

1910年、日本が朝鮮を植民地とした後、同胞が労働者として日本に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1920年におよそ3万人、1930年に30万人、強制連行が始まる前年の1938年に80万人。そして戦争

が終わる1945年、約200万人という数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この内、強制連行という形で日本に連行された人はおよそ71万から72万という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

特に1914年から18年、第一次世界大戦の時期、ロシアやヨーロッパからの軍需品の注文によって日本経済は活況を呈するわけです。日本資本主義は、世界的に低賃金と言われた日本人労働者よりもさらに低い賃金と、劣悪な労働条件を強制できる植民地労働力として朝鮮人の日本本土への移住を促進したわけです。それ以来、朝鮮人労働者が日本労働市場の底辺層に流入し、定着をし始める。これに合わせて教会も、東京にあった留学生から各地にやって来た労働者へ対象が移って、今日の在日大韓基督教会の基礎となったわけです。このような教会形成は、世界のキリスト教会のなかでもそんなに多くないと思います。

1895年から考えてみますと、ちょうど在日百年という年月を経たことになりま。なかでも東洋のマンチェスターと呼ばれ、工業都市として栄えていた大阪にはたくさんの同胞がやって来ました。1941年には41万人という数がありますが、その他東京、横浜、福岡、神戸、京都といった都市に集中して、そこで職業を持ち、そこで生活をして定住していくという経過をたどります。このようななかで在日韓国・朝鮮人社会というものが形成され、「在日韓

## 일본의 기독교의 있어서의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 실천

이 청일(재일한국기독교회관 관장)

### 1. 시작하는 말

#### 1. 일본의 기독교계와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

일반적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의 최초의 출발점은 1910년이라고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명히 보자면 1895년이라고 봐야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근거는, 1885년에 일단 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의 물결이 끊어지고, 10년이 지나 1895년에 새롭게 유학생이 일본으로 오게 되면서 식민지 이전의 일본의 재일동포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만, 유학생으로서 182명의 젊은이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 중 태반인 162명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케이오의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육군사관학교 등에 들어갑니다. 이 관비 유학생은 계속해서 매년 증가해 갑니다만, 1903년 이후는 사비 유학생도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현재의 재일 한국·조선인 사회의 최초의 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06년에는 유학생의 수가 벌써 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909년에는 재일 조선인 전체 790명의 대부분이 유학생입니다. 일본에서의 한국 교회의 출발점은 1908년,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교회였습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동포들이 노동자로서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 대략 3만명, 1930년에 30만명, 강제연행이 시작되기 전년인 1938년에 80만명,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1945년에 약 2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 중 강제연행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연행된 사람은 대략 71만에서 72만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914년부터 18년간,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나 유럽으로부터의 군수품 주문으로 일본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저임금이라고 했던 일본인 노동자보다도 한층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식민지 노동력으로서 조선인의 일본 본토에의 이주를 촉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노동 시장의 저변층에 유입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회도, 토쿄에 있던 유학생으로부터 각지에서 온 노동자에게로 대상을 바꾸어 그것이 오늘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의 교회 형성은 세계의 기독교 교회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95년부터 생각해 보면, 정확히 재일 동포 형성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경과한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의 맨체스터로 불리며 공업도시로서 번성하던 오오사카에는 많은 동포가 들어 왔습니다. 1941년에는 41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지만, 그 외 토쿄, 요코하마, 후쿠오카, 코베, 교토 등의 도시에 집중해서, 그 곳에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생활하며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일 한국·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어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 사회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 사회의 만남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의 중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 사회의 만남은 백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만남은 대부분의 경우, 오늘 우리가 하나의 이념, 비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공생」 「함께 살고 살리는 관계」라

国・朝鮮人と日本社会の出会い」が始まったわけです。在日韓国・朝鮮人と日本社会の、この出会いを振り返ってみるということが今日の主題の一つのポイントだろうと思います。

在日韓国・朝鮮人と日本社会の出会いは、百年になろ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出会いは多くの場合、今日私たちが一つの理念、ビジョンとして考えている「共生」「共に生き、生かされる関係」というようなものではなかった。戦前においてはまさに弱肉強食の時代でありましたし、韓日条約の締結前後の日本の官僚が言った「国際法上、韓国・朝鮮人は煮て食おうと、焼いて食おうと自由だ」という考え方は、1960年代にまで引き継がれていました。その中でも特に朝鮮人を本当に苦しめたものは三つあります。一つは、朝鮮語の使用禁止。二つ目は、神社参拝の強要。三つ目は、今日もこの問題を引きずっているわけですが、創氏改名。この創氏改名は1940年2月11日に実施されるわけですが、朝鮮人だけに適用されたものではなくて、既に朝鮮より15年早く植民地になっていた台湾の人にも同様に実施されました。この創氏改名はまた、朝鮮人、台湾人にだけ向けられたものではなくて、1871年、アイヌ人に対しても創氏改名というようなものがなされています。「明治」以来、日本の近代化を支えてきたナショナリズムの中心的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天皇制、単一民族国家観による同化政策が、このような形で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戦後においても日本社会において在日韓国・朝鮮人は基本的には「不幸な出会い」を繰り返してきたといえます。

「キリスト教界と在日韓国・朝鮮人の出会い」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と、さき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かなり早い時期から伝道、宣教活動がなされていったわけです。一番早い組織としては、1906年、YMCAが東京に来ていた留学生を対象に活動を展開し、2年後に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前身である教会ができます。しかしこの教会は、また日本の教会を含めまして、伝道の対象として在日韓国・朝鮮人を捉えたわけですが、彼らが置かれている差別状況、人権状況を基本的な課題として、その確立のために取り組む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取り組みが出てくるのは、1960年代の後半ぐらいになってからだ、私自身は見ています。

もちろん戦前においては日本の国家権力の圧力というものがあったわけで、そういう部分を私たちは捉えざるを得ないのですが。

## 2. 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確立と外登法抜本改正運動

外キ協（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は、外登法抜本改正運動というところでまとめ、今日まで運動を十数年にわたってやってきたわけですが、この運動は、在日韓国・朝鮮人のおかれた差別状況に対する、人権確立に向けての、一つのプロセスだと見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 3. 在日韓国・朝鮮人と在日外国人

1989年の数字ですが、日本に在留して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数は94万1千人、そのうち韓国・朝鮮籍が67万7千人で、

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확실히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한일 조약 체결 전후에 일본의 관료가 말한 「국제법상 한국·조선인은 익혀 먹든 구워 먹든 자유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1960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을 정말로 괴롭힌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어의 사용 금지. 두 번째는 신사참배의 강요. 세번째는 오늘날도 이 문제로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만, 창씨개명입니다. 이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11일에 실시되지만,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보다 15년 먼저 식민지가 되어있던 대만인들에게도 똑같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이 창씨개명은 조선인, 대만인에게만이 아니라, 1871년 아이누인에 대해서도 창씨개명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메이지」이래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해 온 내셔널리즘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천황제, 단일민족 국가관에 의한 동화 정책이 이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도 일본 사회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은 기본적으로는 「불행한 만남」을 반복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와 재일 한국·조선인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꽤 이른 시기부터 전도,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이른 조직은 1906년 YMCA가 도쿄에 와 있던 유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2년 후에는 재일 대한 기독교회의 전신인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일본 교회의 입장을 포함해서, 전도의 대상으로서 재일 한국·조선인을 파악한 것입니다만, 그들이 놓인 차별 상황, 인권 상황을 기본적인 과제로 해서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천한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와 같은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것은 1960년대의 후반 정도가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 전에는 일본의 국가 권력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2.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 확립과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 개정 운동

외기협은, 외국인등록법 근본개정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여 현재까지 수십년에 걸쳐서 운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 운동은, 재일 한국·조선인이 놓여진 차별 상황에 대한 인권 확립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재일 한국·조선인과 재일 외국인

1989년의 숫자입니다만, 일본에 재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의 수는 94만천명, 그 중 한국·조선적이 67만 7천명으로 전체의 72%입니다. 1993년 전체 등록자 수가 132만이 되는 한편, 한국·조선적의 수는 1989년과 비교해 7천명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숫자에 대한 비율은 5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1995)은 전체 136만 2371명으로 그 중 재일의 수는 66만 6376명, 전체 대비 비율이 50%를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조선적 이외의 외국인이 일본에 많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중국인과 브라질인입니다.

이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부터 장차에 걸쳐 재일 외국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동향을 제대로 염두에 두어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공생의 비전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II. 전쟁 후의 재일 한국·조선인 운동의 조류

### 1. 민족단체 중심의 운동(1945~69)

해방 직후인 1945~50년, 민족 단체가 조직화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결

全体に占めるパーセンテージが72%となっています。1993年全体の数が132万になる一方、韓国・朝鮮籍の数は1989年と比較して7千人ぐらいアップしているんですが、全体に占める率は51%と下がっています。昨年は136万2371人で、在日の数は66万6376人、全体に占めるパーセンテージは50%を切りました。これは在日韓国・朝鮮人の数が極端に減った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それ以外の外国人が日本の中にたくさんやって来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なかでも圧倒的に増えたのが中国人とブラジル人です。

このことを通して私が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と、今日から将来にまたがって在日外国人の問題を考えると、この動向をきちんと私たちが頭の中に入れて考えないと、私たちが今まで考えてきた共生のビジョンを具体的にプログラム化することは難しくなるだろうと思うからです。

## II. 戦後の在日韓国・朝鮮人運動の潮流

### 1. 民族団体中心の運動 (1945~69)

解放直後の1945~50年、民族団体の組織化が、この時期の特徴です。結果的には本国政治に取り込まれて、韓国を支持する民族団体と北朝鮮を支持する民族団体の二つに二極化されていきます。

次は1950~53年、朝鮮戦争下の時期です。朝鮮戦争の中で、在日は朝鮮戦争に参加している。特に民団という右の方の流れの中で、在日韓国人志願兵として700人近くが朝鮮戦争に参加しています。そして民戦という左の方のラインのところにある北朝鮮を支持する団体は、反米軍基地

闘争、軍需物資輸送阻止運動をします。

そして1953年以降はこのような運動を通して、朝鮮戦争休戦後も、南の韓国を支援する民団と北を支持する総連が並立していく、分断固定の時代を迎えるわけです。ある意味で、つい最近までこの分断固定という状況が在日の中にありました。ようやく90年代に入って本国での南北統一の動きにあわせて、そして東西冷戦構造の崩壊等によって、少し両者の歩み寄りというようなものがなされてきました。この民族団体は、本国との関係で規定されている部分が非常に強いものですから、在日の生活に直結する問題より、政治的な課題を持って動いてきたといえます。

### 2. 草の根運動 (1970~)

こういう民族団体と違う動きが出てくるのが、1970年前後からです。

私は適当な言葉がなくて、草の根運動(グラスルーツムーブメント)というような言い方をしていますが、在日同胞の中でも民族団体に左右されない、そこに距離をもった動きが、70年代から出てきたわけです。

70年代には、出入国管理法案反対運動、日立就職差別撤廃運動、京都韓国学園建設促進運動、公営住宅入居差別撤廃運動、金敬得さんの司法修習生採用運動の他、申京煥君の強制送還反対運動、韓敏央さんという自主入国者の特別在留獲得運動等々、非常にたくさん問題があちこちから出てきました。具体的な問題が出てくると、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組織ができる。それは草の根的に日本人と協力するという形態を多くの場合とったわけです。今まで民族団体が手をつけていない事柄に対して市



과적으로는 본국의 정치에 말려들어 한국을 지지하는 민족단체와 북한을 지지하는 민족단체의 두개로 양극화되어 갑니다.

다음은 1950~53년, 한국전쟁 중의 시기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재일在日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단이라고 하는 우익 측의 흐름에 재일 한국인 지원병으로 약700명 정도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전이라고 하는 좌익 라인의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는, 반미군기지 투쟁, 군수물자 수송저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이후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한국전쟁 휴전 후도, 남쪽의 한국을 지원하는 민단과 북쪽을 지지하는 총연합이 병립해 나가는, 분단고착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로 최근까지 이 분단고착이라고 하는 상황이 재일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간신히 90년대에 들어와 본국에서의 남북 통일의 움직임에 맞추어, 그리고 동서 냉전 구조의 붕괴등에 의해 약간은 양자의 양보와 접근이라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 단체는, 본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일在日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보다 정치적인 과제에 의해 움직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2. 풀뿌리 운동(1970~)

이런 민족 단체와 다른 움직임이 1970년을 전후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로서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풀뿌리 운동(grass roots movem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재일 동포 안에서도 민족단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과 거리를 가진 움직임이 70년대부터 나온 것입니다.

70년대에는 출입국 관리법안 반대 운동, 히타치 취직차별 철폐운동, 교토 한국학원건설 촉진운동, 공영주택 입주차별 철폐운동, 김경득씨의 사법연수생 채용 운동 외, 신경환군 강제송환 반대운동,

한민양씨라고 하는 자주 입국자의 특별재류 자격 획득운동 등, 매우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로부터 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생깁니다. 그것은 풀뿌리 운동으로 무명의 존재로 일본인들과 협력하는 형태를 대부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족단체가 손대고 있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시민운동적, 주민운동적인 그라스루트 운동을 재일의 차별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일해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7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왜 70년대일까 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답을 생각해보면, 하나는 전쟁 후 일본의 영터리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가 성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일在日의 세대가 크게 교체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본국에서 온 1세대부터 2세대에, 그리고 3세대가 탄생하는 때가 바로 이 1970년대의 시기입니다. 1세대 사람들의 가치관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쟁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터리로라도 일본의 학교에서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인권과 평등을 배웠던 것인만큼, 함께 공부한 친구는 취직이라든지 진학을 순조롭게 하는데, 자신은 안됩니다. 청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벽을 깨기 위해 조금씩 자각하고 부딪혀가는 경험을 해 나갑니다. 그러한 움직임과 함께 또 한가지 상황은, 1965년의 한일조약이라는 큰 정치적 과제가 있어, 일본 사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 기독교회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꽤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서로 얽히면서 70년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타치 취직차

民運動的、住民運動的なグラスルーツムーブメントが在日の差別状況を解決するための手だてとして働いていくという動きが出てくるのが、70年代に入ってからです。

なぜ70年代かという問題は、そう簡単に答えが出てくるものでないように思います。いくつかあげてみますと、一つは、戦後日本のまがりなりにも民主教育を受けた世代が成長してくる。そしてもう一つは、在日の世代交代が大きく動いてくる時期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本国から来た1世の世代から2世の世代へ、そして3世が誕生してくるというのが、この1970年代の時期です。1世の人たちの価値観は、外国に住んでいるんだから仕方がない、戦前の状況から比べればまだましなほうだという考え方が強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一方、まがりなりにも日本の学校で戦後民主主義教育を受けた青年たちは、人権と平等を教えられたわけですが、いっしょに勉強した友達は、就職とか進学がスムーズにいくのに、自分はいかない。青年たちは、仕方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その壁を打ち破るために少しずつ自覚をしてぶち当たっていくという経験をしていく。そういう動きに合わせてもう一つの状況は、1965年の日韓条約という大きな政治的な課題というものがあつたけれども、日本のキリスト教会も含めてこの問題に参加できなかったという反省がかなり強く働いてい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こういうものが、いろいろ複雑に多様に絡まりあいながら70年代の状況というものを作り出している。たとえば日立就職差別撤廃運動では、今まで黙って耐えていた集団が小さな課題から始まっ

て声をあげ、それに取り組み、その問題が少しずつ解決してくるという経験をしたわけです。

私の経験の中でもそうですが、「こんなことを言っても解決しないだろうな」と思っていたら、「〇〇を撤廃する運動」とかができて取り組み出していく中で、解決していく。自信を得ていく。そして同時に、そういう運動が成功したというのを見ながら、その運動が日本全国に広がっていったわけです。

そして80年代、70年代にあちこちに見え出した在日に対する不条理、差別状況というもののシンボリックな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運動になっていくのが、外登法抜本改正運動です。まさに80年代は、外登法抜本改正運動というところで、非常に大きなエネルギーが働いていく。それと同時に出てくるのが文化運動です。民族教育、民族文化を取り戻していこうという運動が、この80年代に出てきた。

その延長線上で90年代、戦後補償の問題をはじめ民族学校の処遇問題、地方自治体の参政権獲得運動、地方公務員の国籍条項撤廃運動などが残された課題としてあると思います。

これが在日韓国・朝鮮人運動の大きな流れです。

### Ⅲ. 日本のキリスト教界の在日「問題」への関わり

基本的な部分が一番最初に述べましたが、戦後の部分を少し整理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1948年に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が再編成されましたが、1956年3月、在日

별 철폐운동에서는, 지금까지 입다물고 참고 있던 집단이 작은 과제로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를 높혀 그 문제와 싸워,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간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 경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 말해도 해결하지 않을 걸」이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을 철폐하는 운동」등이 생겨 싸우는 가운데 해결되어 갑니다. 자신감을 얻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운동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그 운동이 일본 전국에 확대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 70년대에 여러 곳에서 나타난 재일在日에 대한 부조리, 차별 상황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어 운동으로 되어간 것이 외국인등록법 근본개정 운동입니다. 확실히 80년대는, 외국인등록법 근본개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큰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 문화운동입니다. 민족교육, 민족문화를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 8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90년대, 전후 보상의 문제를 비롯한 민족학교 처우문제,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획득 운동,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 철폐운동 등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재일 한국·조선인 운동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 III. 일본 기독교계의 재일「문제」참여

기본적인 부분은 가장 앞 부분에서 말쑤드렸지만, 전쟁 후의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재편성됩니다만, 재일 대한 기독교회는 1956년 3월 일본기독교협의회(NCC)에 가맹합니다. 공식적인 형태로 재일 대한기독교회와 일본의 교회가 전쟁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C가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에 전쟁 후 처음으로 접한 것은 1965년에 교토에

서 열린 재일 대한기독교회 부인회의 간부연수회인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 스즈키 카즈코씨라고 하는 NCC간사가 참가해 충격을 받았다고, 스즈키씨 본인이 「NCC 뉴스」 4월 15일자에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 재일 한국의 자매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점, 아니 그 이상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것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던 점도 역시 기독교자로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세계 교회운동은 먼 친구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결코 멀리 바다 넘어 친구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들 주위에, 재일 한국인이라는 주님의 작은 무리가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한가」

재일 한국·조선인이 놓여진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바르게 쓴 것은, 이 65년이었다고 바로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7년 6월 NCC상임위원회에서 「소수민족문제 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소수민족문제 연구위원회」라고 한 것 같은데 바로 「소수민족문제 위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수민족」이라는 개념 규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아, NCC는 1971년 말에 「재일의 국인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문제 위원회」가 생겼을 때, 재일 대한기독교회로부터 두 명의 위원, 총회장 오윤대 목사와 총무 이인하 목사가 이 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재일 대한 기독교회가 이 위원회에 가졌던 생각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4월 16일, 재일 대한기독교회는 「출입국 관리법안」과 「야수스쿠니진자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같은 해 6월, 관서에서 「출입국 관리법안 반대 기독교 국제연대회의」가 결성되었고, 이는 갈

大韓基督教会が、その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に加盟をします。公な形で在日大韓基督教会と日本の教会が戦後に出会った最初だといえます。

NCCが在日韓国・朝鮮人問題に戦後初めて触れるのが、1965年に京都で開かれた、在日大韓基督教会の婦人会の幹部研修会であったようです。その会議に鈴木和子さんというNCCの幹事が参加し、ショックを受けたということが、鈴木さん自身が『NCCニュース』4月15日号に書いています。

「わたし自身、在日韓国の姉妹たちについてよく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いやそれ以上に重荷を自分のものとして痛切に感じていなかったこともやはりキリスト者として役立つとされているならば、義務を怠っているといわれても過言ではなかろうと思う。世界教会運動は遠くの友に呼びかけているかのごとき、さっかくをわたしたちにもたすが、それは決して遠く海を越えた友のみのことではなく、わたくしたちの周囲に、在日韓国人の主の小さな群があることを忘れていたのではあるまいか」

在日韓国・朝鮮人のおかれている状況をまともに見てまともにしたのは、この65年だったというようにこの資料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1967年6月、NCCの常議員会で「少数民族問題委員会」を発足させるに至ります。最初は「少数民族問題研究委員会」といったようですが、すぐ「少数民族問題委員会」となります。そしてこの「少数民族」という概念規定の中でいろいろ問題提起を受けて、NCCは1971年末に「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と名称を変え、今日ま

できています。

この「少数民族問題委員会」ができたときに、在日大韓基督教会から二人の委員、総会長の呉允台牧師と総務の李仁夏牧師が、この委員会に出ているんです。在日大韓基督教会としてこの委員会にかけるとは非常に大き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1969年4月16日に、在日大韓基督教会は「出入国管理法案」と「靖国神社法案」に対する反対声明を 発表します。

これを受ける形で、同年6月、関西におきまして「出入国管理法案反対基督者国際連帯会議」が結成され、これは同年10月に結成される「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です。今日ここにきておられる合田牧師、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は、この時のメンバーです。関西においては、この「国際連帯会議」が70年代以降の在日の問題に対する運動の基本的な核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代表は、KCCの館長を歴任した兪錫春長老と日本基督教団の妹尾活夫牧師の二人です。

1970年10月、在日大韓基督教会が「社会的責任に関する態度表明」をしていることも、一つの大きなポイントです。

そして「出入国管理法案」反対の運動は、同年の12月に「連絡会議」を組織をいたします。関東と関西のネットワークがこの時期につながっていくことになるわけです。

このような経験を通して、少しずつ在日韓国・朝鮮人の実態、差別状況が日本のキリスト者に知られ理解されていくというのが、70年代当初の状況でした。

そして1972年6月、NCCの主催で「日本人問題としての在日朝鮮人差別セミナー」が開かれます。

은 해 10월에 결성되는 「재일 외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고다 목사, 매킨토시 목사는 이 때의 멤버입니다. 판서에서는 이 「국제연대회의」가 70년대 이후의 재일 문제에 대한 운동의 기본적인 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표는 재일대한기독교회관(KCC)의 관장을 역임한 유석춘 장로와 일본 기독교단의 세누오 카츠오 목사 두 분입니다.

1970년 10월,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태도 표명」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안」 반대 운동은 같은 해 12월에 「연락회의」를 조직합니다. 관동과 관서의 네트워크가 이 시기에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금씩 재일 한국·조선인의 실태, 차별 상황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되어져 간 것이 70년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6월, NCC주최로 「일본인 문제로서의 재일 조선인 차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1974년 5월에 재일 대한기독교회와 JNAC(일북미선교협력위원회)의 공동개최로 「소수자 문제와 선교전략」 국제회의가 교토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마이너리티의 문제가 세계 기독교계의 과제가 되어 갑니다.

1977년 11월, NCC와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공동개최로 「재일 외국인의 제권리에 관한 심초지움」이 도우잔소에서 열립니다. 이 때 한국으로부터도 대표단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국 대표단은 대부분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일본의 기독교자와 재일 한국·조선인이 만나 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가지 경험이 쌓아져 갑니다. 이것이 70년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 Ⅳ. 외국인등록법 근본 개정 운동(기독교계를 중심으로)

1. 「외국인등록법」 개정운동의 출발,  
「재일」 차별의 심볼로서의 지문 문제  
80년 9월 10일, 도쿄의 한종석씨가 지문날인을 거부한 날입니다. 신주쿠구청에서 거부하고 당일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최창화 목사가 북큐슈에서 거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이슈가 되어 가는가,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81년도에 우리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쿠노구의 일본인과 재일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층은 동지사 대학의 학생을 중심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두개입니다. 하나는, 일본인이 지문 날인을 강제당했을 때 어떻게 느낄까. 결과는 80% 이상이 자신이 강제당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회답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외국인인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이 매우 많았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강제당하는 것은 싫다, 그러나 외국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의식의 차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잘 활용했던 분이 최창화 목사였습니다. 설문결과를 가져 가서 큐슈의 여러 신문에 이를 소개하면서, 이 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큰 운동으로 연결되어 갑니다만, 81년에 최창화 목사의 딸이 14세로 날인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2년에 지문날인 의무 연령이 14세에서 16세로 개정되지만, 고교생들이 날인 거부를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시기부터 재일 한국·조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81년 11월, 미

1974年5月に、在日大韓基督教会とJNAC（日北米宣教協力委員会）の共催で、「少数者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が、京都のアカデミーハウスで開かれます。ここで、マイノリティーの問題が世界のキリスト教界の課題になっていきます。

1977年11月、NCCと在日大韓基督教会の共催で、「在日外国人の諸権利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が、東山荘で開かれます。この時は韓国からも代表団が来ることになっていたんですが、韓国の代表団はほとんどビザ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ういう形で日本のキリスト者と在日韓国・朝鮮人が出会っていく。そして、その出会いの中でいろんな経験が重なっていく。これが70年代の動きだったわけです。

#### IV. 外登法抜本改正運動

##### （キリスト教界を中心に）

##### 1. 「外登法」改正運動の出発、

##### 「在日」差別のシンボルとしての指紋問題

80年の9月10日、東京の韓宗碩さんが指紋押捺を拒否した日です。新宿の区役所で拒否をし、即日告発をされます。そして11月13日、崔昌華牧師が北九州で拒否をします。

これが本当に大きな 이슈 になっていくのか、当時想像はできませんでした。ただ、81年に私たちはアンケート調査をしました。在日同胞が日本の中で一番集中的に多住している生野区の日本人と在日に対して、そして若い層は同志社大学の学生を中心にアンケート調査をしたわけです。ポイントは二つです。一つは、日本人が指紋を押すのを強制されたときに、どう感じるか。結果は80%以上の人が、自分たちが

強制されるのはイヤだという回答がきました。二つ目は、在日韓国・朝鮮人を中心に外国人に指紋が強制され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はどう思うか。この問いに対して、外国人だから仕方がない、という答えが非常に多かった。80%以上の人たちが、自分たちに強制されるのはイヤだ、しかし外国人には仕方がないという、この意識の差。ここのところで、これは日本社会にとっても非常に重要な問題提起になっていくという判断を私たちはしました。この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一番利用したのが崔昌華牧師でした。九州に持って行ってあちこちの新聞にこのことを紹介しながら、この運動の重要性を主張しました。

これが大きな運動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ですが、81年に崔昌華牧師の娘さんが14歳で拒否をします。これは非常に大きなインパクトがありました。そして82年に指紋押捺義務年齢が14歳から16歳に改正をされていくわけですが、高校生が拒否をしていきます。また同時にこのあたりから在日韓国・朝鮮人だけでなく、他の外国人が拒否をしていく。81年11月、アメリカの宣教師であるロン・藤好さん。84年10月、グドネール神父。85年5月に中国籍で2世の徐翠珍さん。85年8月、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9月にルイ神父、10月に四国学院のアルトマン教授、札幌のロー神父。このような人たちが拒否していく中で、徐々にこの問題が国際的な、エキュメニカルな超教派的なものになっていきます。

そして支援態勢が整っていくのが、83年から84年にかけてです。しかし、この時に大きなネックであった一つは、「悪法も

국 선교사 론 후지코씨. 84년 10월, 그도넬 신부. 85년 5월에 중국 국적으로 2세인 셰이슈친씨. 85년 8월 매킨토시 목사, 9월에 르이 신부, 10월에 시코쿠 학원의 알트만 교수, 삿포로의 로우 신부. 이러한 사람들이 거부해 나가면서, 서서히 이 문제가 국제적이고 에큐메니칼한 문제로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원 태세가 갖추어져 가는 것이 83년부터 84년에 걸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큰 벽의 하나는 「악법도 법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라는 주장이 크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85년에 관서 대표자 회의가 주최한 집회의 메세지로 카톨릭의 야스다 주교가 다음과 같은 말로 응수하여 답했습니다.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니 법을 지켜라』라고 하기 전에, 그 법이 하느님에 의해 주어진 인간의 존엄을 침범하고 있지 않은가를, 형제간의 문제로서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기독교자는, 이 일본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교라는 것은, 다만 단지 선교의 지역을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의 거룩한 계획에 맞지 않는 인간의 사상, 가치관, 인간관, 관심의 목표, 삶의 방법 등을, 복음의 힘으로 속으로부터 변화 시켜, 새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무렵의 재일在日이 안고 있던 생각을 이 문장이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했고, 이 말을 여러 곳에서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일의 입장에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민족적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 취급을 받고 정신적 굴욕을 받아, 마음에 불로 새긴 노예의 각인을 찍었다는 점에 대한 시민적, 양심적인 저항이 지문거부운동으로 일어서게 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在日이 긴

잡으로부터 눈을 뜬 운동이고, 형법에서 말하는 죄를 지을 것을 각오로 싸운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양심, 신념,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죄인가 하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바라는 생각이, 날마다 강해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은 것은, 단지 지문 제도가 없어지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차별이 있어도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는 운동이, 이 지문 날인 철폐운동이었습니다.

## 2. 근본적 개정 운동의 논점

- (1) 지문 날인 제도의 완전 철폐
- (2) 상시 휴대 제도의 폐지
- (3) 과중한 벌칙 제도를 고쳐라
- (4) 재입국 불허가 처분의 철회
- (5) 재류 갱신 불허가의 철폐
- (6) 선교사 입국 불허가 처분의 철회
- (7) 지문 거부자·갱신 등록 거부자의 갱신 기간을 단축하지 마라

이것은 외기협을 포함해 외국인등록법으로 싸운 우리가 일본 정부, 법무성에 들이댄 논점입니다. 최초의 3가지는 현재에 있어도 기본적인 우리의 논점입니다. 4번째부터는 운동의 상황, 다이너미즘 중에서 생겨난 요구입니다. 82년 10월 1일 지문 거부자 에게는 재입국 허가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법무성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초로 결렸던 것이 최창화 목사로, 한국 NCC의 회의에 참가하면, 재입국은 안 된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르이 신부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가려고 했습니다만,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재류 갱신의 불허가는, 선교사들이 거부할 함으로 받은 보복 조치입니다. 일본의 법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갱신을 허가

法だ。それを守らないというのは、キリスト教精神に反する」という声が大きく出てきたことです。これに対して、85年に関西の代表者会議が主催した集会のメッセージでカトリックの安田司教がこういう言葉で、カウンターパンチを出してくれています。

「法治国に住むのだから、法を守れ」という前に、その法が神によって与えられた人間の尊厳を侵してはいないかを、兄弟同士の問題として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私たちキリスト者は、この日本の社会に福音を述べる使命を受けております。ところで福音宣教とは、ただ単に宣教の地域を広げ、より多くの人々に布教するだけではなく、神の御言葉と救いの御計画にそぐわない人間の思想、価値観、人間観、関心の的、生き方などを、福音の力によって内面から変化させ、新たにすることをも含むものであります。」

まさにその頃の在日が抱えていた思いを、この文章は代弁をしてくれているという思いを私たちは持ちましたし、この言葉を私たちはあちこちで引用させていただいた経験を持っています。

私たちが在日の立場として一言付け加えるならば、民族的出身が異なるというその理由のみで、非人間的扱いをされ、精神的辱めを受け、心に焼き付ける奴隷の刻印を押されることに対する市民的、良心的な抵抗が、指紋拒否運動に立ち上がらせた大きな部分だと思います。在日が長い眠りから目覚めた運動であり、刑法でいう罪を犯すことを覚悟で闘った運動でしたが、しかし良心、信念、信仰をして考えてみると、私たちが犯した罪があるとすればどんな罪

なのかと大きな声で言えるような質をもった運動でした。譲り渡すことのできない人間の尊厳性の回復を願う思いが、日々強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がここで問うたのは、単に指紋制度がなくな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外国人にはこのような差別があってもいい、このような制度があってもいいという考え方、価値観に対してNO!と言う運動が、この指紋押捺撤廃運動でした。

## 2. 抜本改正運動の論点

- (1) 指紋押捺制度の完全撤廃
- (2) 常時携帯制度の廃止
- (3) 過重な罰則制度を改めよ
- (4) 再入国不許可処分の撤回
- (5) 在留更新の不許可の撤廃
- (6) 宣教師の入国不許可処分の撤回
- (7) 指紋拒否者・更新登録拒否者の更新期間短縮をするな

間短縮をするな

これは外キ協を含め、外登法を闘った私たちが日本政府、法務省に突きつけた論点です。最初の3つは、現在においても基本的な私たちの論点です。4点目からは運動の状況、ダイナミズムの中で生まれてきた要求です。82年10月1日、指紋拒否者には再入国許可を出さないということを、法務省が決定しました。最初に引がかかったのが崔昌華牧師で、韓国のNCCの会議に参加しようとしたら、再入国はダメだ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ルイ神父は、お母さんが亡くなって行こうとしましたが、再入国が許可されませんでした。

在留更新の不許可は、宣教師の人たちが拒否をして受けた報復措置です。日本の法を犯す人には更新を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킨토시 목사, 그도넬 씨가 그랬습니다.

선교사 입국불허가 처분이라는 것은,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본국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입국허가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일 대한기독교회라는, 지문 거부 운동의 최첨단에서 있는, 법을 위반하는 종교단체에 선교사 입국허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당 처분이었습니다.

게다가 90년, 「구식민지 출신과 그 자손에게 퇴거 강제가 없는 영주권을」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91년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장해라」고 하는 논점이 나왔습니다.

3. 근본적 개정 운동(교회의 대처를 중심으로)

1983년 10월 20일, 재일 대한기독교회 제 37회 총회에서 「외국인등록법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84년 11월부터 각지에서 외기련 결성이 잇따랐습니다. 관서가 84년 11월, 교토 사가가 동년 12월. 85년 5월에 관서 대표자 회의. 관동 외기련은 86년 5월. 87년 7월에 중부, 8월에 카나가와, 9월에 큐슈·야마구치. 홋카이도가 89년 7월, 히로시마가 90년 7월. 이런 형태로 각지에 외기련이 조직화되어 갑니다. 투쟁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디만, 이 시기부터 외기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 1987년 1월 15일에 외기협(외국인등록법 문제 해결 전국기독교자 연락협의회)이 결성되어 전국 집회와 전국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10회, 내년 1월에 10년째를 맞이합니다.

당사자의 운동으로서는 지문 거부, 유보, 외국인등록증 불휴대, 갱신등록 거부, 외국인등록증의 지문 부분 절단, 재판 투쟁, 단식 투쟁, 노역(맥심 신부가 벌금 지불을 거부해 12일간 형무소에서

노역했다), 외국인등록증을 국회 의원에게 송부, 서명 및 가족 사항 등록의 거부 등입니다.

지원운동으로서는 서명운동, 전단배포, 앙케이트 조사, 집회, 데모, 법무성과 입국관리국에 항의, 순회 캠페인(85년과 93년, 그리고 각지에서), 국제회의, 출판, 매스컴(신문, TV, 영화 등)의 활용, 국제조사단, 국회 청원, 연속 강좌, 학습회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동이 행해졌습니다.

#### 4. 운동의 성과

운동의 실태로서는 지문 거부·유보자가 18, 000~20, 000명. 재판 투쟁이 50건. 서명이 합계 800만명 이상.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를 결의한 지방 자치체가 1987년의 단계에서 1083 의회. 전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자치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2년 10월에 외국인등록법의 「일부 개정」이 되어 등록 전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지문 날인 연령이 14세에서 16세로 되는 한편, 벌금이 3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오릅니다.

1988년 6월, 외국인등록법 「일부 개정」. 등록증을 노트형으로부터 카드형태로 바꾸고, 또 지문 날인을 1회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해라 라고 하는 모양 갖추기 식의 개정입니다.

1991년 11월, 「입관특례법」 실시. 「특별 영주」 자격이 신설되어 재입국의 출국기간을 지금까지 1년이었던 것을 최대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좋아졌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1993년 1월 8일, 「개정」외국인등록법이 실시됩니다.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지문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 사항과 서명제를 도입합니다.

#### V. 향후의 전망과 과제

1. 「공생 사회」: 함께 살고 살리는 사회

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グドネールさんがそうでした。

宣教師の入国不許可処分とは、在日大韓基督教会が本国から宣教師として呼ぶ人たちに、入国許可を出さなかったことです。在日大韓基督教会は指紋拒否運動の最先端に立っている、法を犯す宗教団体に宣教師の入国許可はできないという不当処分でした。

さらに1990年、「旧植民地出身とその子孫へ退去強制のない永住権を」というものも出てきました。91年には、「外国人労働者とその家族の人権を保障せよ」という論点が出てきました。

### 3. 抜本改正運動

(教会の取り組みを中心に)

1983年10月20日、在日大韓基督教会第37回総会で「外登法改正を要求する決議」を採択しています。そして84年11月から各地の外キ連の結成が相次ぎました。関西が84年11月、京滋が同年12月。85年5月に関西代表者会議。関東外キ連は86年5月。87年7月に中部、8月に神奈川、9月に九州・山口。北海道が89年7月、広島が90年7月。こういう形で各地に外キ連が組織化されていきます。取組みは、それ以前からあったんですが、外キ連という名前でも組織化さ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そしてこういう動きを受けて、1987年1月15日に、外キ協（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が結成され、全国集会と全国協議会が開催されました。今日まで10回、来年の1月で10年目を迎えます。

当事者の運動としては、指紋拒否、留保、外登証不携帯、更新登録拒否、外登証の指紋部分カット、裁判闘争、ハンガーストライキ、労役（マキシム神父が罰金の支払いを拒否して12日間刑務所で労役しました）、外登証を国会議員に送付、署名・家族事項登録の拒否などです。

支援運動としては、署名運動、ビラ配布、アンケート調査、集会、デモ、法務省・入管への抗議、キャラバン（85年と93年、それから各地で）、国際会議、出版、マス・メディア（新聞、TV、映画等）の活用、国際調査団、国会請願、連続講座、学習会等々、いろんな形で運動が取り組まれました。

### 4. 運動の成果

運動の実態としては、指紋拒否・留保者が18,000～20,000名。裁判闘争が50件。署名が合計800万名以上。外登法改正要求を決議した地方自治体が1987年の段階で1083議会。全人口の75%以上を占める地方自治体がここに含まれています。

1982年10月に外登法の「一部改正」がされ、登録切替期間が3年から5年、指紋押捺年齢が14歳から16歳となる一方、罰金が3万円から20万円に上がります。

1988年6月、外登法の「一部改正」。登録証をノート型からカード型にし、また指紋を1回だけにするから、このあたりで手を打ってくれというカッコ付きの改正です。

1991年11月、「入管特例法」実施。「特別永住」資格が新設され、再入国の出国期間を、今まで1年だったものを最大限

## 회의 실현

몇년전부터 우리는 운동의 경험을 통해, 이런 말을 큰 비전으로서 내걸어 왔습니다만, 이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 진정으로 「공생 사회」를 일본 사회 안에 실현해 갈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 안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동화와 배타의 의식입니다. 메이지 이래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해 온 천황제 단일민족국가 주의, 거기로부터 나오는 동화와 배타. 이 의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오늘 일본의 교회에 주어져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공동체」라고 하는 가치관. 일본 민족의 인권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가치관에 대해, 우리 기독교계가 어떠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가 큰 과제입니다.

2. 「외국인 인권 기본법」 제정 운동  
홋카이도의 우타리 협회는, 84년부터 「아이누 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86년 나카소네의 실언, 「일본에 소수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아이누인들의 존재가 부상하게 됩니다. 88년에 홋카이도지사의 자문위원회가 생겨 그 자문위원회가 답신하는 형태로 「아이누신법」을 정부에 청원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해방 동맹을 중심으로 「인권 기본법」의 제정을 향해 싸움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민투련으로부터는 「구식민지 출신자에 관한 보상·인권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면서 외국인 인권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법률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 제정 운동을 향해 싸우는 시기에 와 있지 않은지요. 재일 한국·조선인만이 아니고, 외국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외기협 운동의 확대·발전을 향한 제안

극히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운동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독교 재일외국인 인권협의회」(가칭)을 설립해, 외기협이 그 축적 기능을 할 수는 없는가. 재일 외국인의 인권에 대처하는 기독교 단체의 보다 넓은 네트워크가 가능해지는 것 등을 목표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일본과 한국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일한 NCC 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73년, 74년, 76년, 78년, 85년, 87년, 그리고 90년.

이 일한NCC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가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1982년 1월 19~ 23일, 「재일 한국인의 인권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려 한국대표 14명이 참가해서 큐슈, 히로시마, 오오사카를 거쳐 교토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회에 의해 「재일동포 인권분과회 위원회」가 한국 NCC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재일동포 인권선교 협의회」가 1992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을 포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 심포지움이 5차례 개최되어 1992년부터는 매년 고난의 현장 방문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1994년, 일본·한국·재일 교회 공동의 노력으로 소책자 「역사를 열 때」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교회의 협력에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계속해 이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심포지움의 지속, 그리고 「고난의 현장 방문」,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서 상호 교류의 형태로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또 소책자 「역사를 열 때」 제2집, 제3집을

5年に延長します。このあたりは少しはよくなったと見ていいでしょう。

1993年1月8日、「改正」外国人登録法が実施されます。永住者及び特別永住者の指紋を廃止し、その代わり、家族事項と署名制を導入します。

## V. 今後の展望と課題

### 1. 「共生社会」：共に生き、生かされる社会の実現

数年前から私たちは運動の経験を通して、こういう言葉を大きなビジョンとして掲げてきましたが、この裾野をどう拡大して、本当に「共生社会」を日本社会の中でどう実現していくのかが大きな課題です。これをしていくうえで、私たちがどうしてもぶち当たる問題があります。日本社会の中で根強く残っている、同化と排外の意識です。明治以来、日本の近代化を支えてきた天皇制単一民族国家主義、そこから出てくる同化と排外。この意識をどのように克服していくのかが、今日、日本の教会に与えられている大きな課題だと思います。そこから出てくる「国民共同体」という考え方。日本民族の人権しか認めなくていいんだという考え方に対して、どのような効果的な働きを、私たちキリスト教界ができるのかが大きな課題です。

### 2. 「外国人入国基本法」制定運動

北海道のウタリ協会は、84年から「アイヌ新法」というものを独自に出していました。86年の中曽根の失言、「日本に少数民族はいない」ということから始まり、アイヌの人たちの存在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ます。88年に、北海道知事の諮問委員会

ができ、その諮問委員会が答申するという形で「アイヌ新法」が政府に請願され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を経ています。

それから部落解放同盟を中心に「人権基本法」の制定に向けて取り組みが行なわれています。また民闘連から「旧植民地出身者に関する補償・人権法」が出ています。

こういったものを参考にしながら、外国人の人権を基本的に守る法律を、今までの経験をベースにしながら具体的に作り、その制定運動に向けて闘っていく時期にき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在日韓国・朝鮮人のみならず、外国人の人権というところで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 3. 外キ協運動の拡大・発展に向けての提案

きわめて個人的な提案ですが、今までの私たちの運動をベースにしながら、「キリスト教在日外国人入国基本法協議会」（仮称）を設立し、外キ協がその軸的働きができないか。在日外国人の人権に取り組むキリスト教団体の、より広いネットワークが可能になるようなものをめざして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 4. 日本と韓国教会の協力について

1970年代から日韓NCC協議会が開かれています。73年、74年、76年、78年、85年、87年、それから90年と。

この日韓NCC協議会が開かれるごとに、在日韓国・朝鮮人問題が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ます。

1982年1月19～23日、「在日韓国人の人権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韓国の代表14名が参加し、九州、広島、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층 더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한국에서 오신 대표단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일 한국·조선인의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곳에, 젊은 인재, 제일 在日을 살아 가는 담당자를 장래를 향해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3세, 4세, 5세의 시점에서 본국을 경험하고 재일을 사는 리더쉽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으로 많은 유학생이 가고 있습니다. 그 수는 수백명에 이르겠지요. 백년 전에 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온 유학생이 6백명, 7백명이 되어, 본국에 돌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간 유학생에 대해서, 그러한 리더쉽의 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라든지, 본국의 학생과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본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5. 기타

이상, 기독교의 경험이나 운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지만, 외국인등록법 문제를 포함해 오늘에 이르는 제일 한국·조선인의 인권 확립의 움직임은, 결코 기독교의 움직임만으로 모두 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독교, 기독교 교회로서 향후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실행해가는 네트워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에는 부대결의가 붙어 있습니다만, 제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법무성이 1998년 1월 8일 이후를 향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듣는 내용에는 법무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카나카

라고 하는 수완가입니다. 1977년에 사카나카 논문을 내 다음 것들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제일 한국·조선인이 가야 할 방향은 세가지 있다. 하나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 두번째는 일본화하여 일본인이 되는 길, 세번째는 외국적인 채 머무는 것이다라고. 일본 정부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두번째 일본화해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불가능한가 하면,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발을 해서 일본 국적을 취하거나 일본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따라서 차별을 떼어내면 이것이 자연스런 흐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카나카히데토키라고 하는 법무성관료입니다.

지금 재검토의 중심적인 부분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을 전폐하고 상시 휴대도 없애시다. 간이 귀화 정도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당신들, 장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없앴어요, 제한없이 일본인의 인권에 근접해요 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으로는, 「일본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제한없이 일본인화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교회를 포함해 제일 한국·조선인 사회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일 한국·조선인 교회에 있어 중요한 도전이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마이너리티의 입장. 두번째는 한 민족·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적,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독교자라고 하는 부분. 제일 한국·조선인

大阪をまわって京都で協議会をもちました。この協議会によって、「在日同胞人権分科会委員会」が韓国NCCの中に生まれます。そして、ここから「在日同胞人権宣教協議会」が1992年に生まれたわけです。

そして今回を入れて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が5回開催され、1992年から毎年のように苦難の現場訪問が実施されてきました。

1994年、日本と韓国と在日教会の共同の取組みでブックレット『歴史をひらくとき』が出されました。

私は、日本と韓国教会の協力について、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は、継続して積み重ねてほしいという提案をしたいと思います。特にこのシンポジウムの継続、それから「苦難の現場訪問」、韓国から日本に来るだけでなく、日本から韓国にも行き、相互交流という形で、続けてやっていただきたい。また、ブックレット『歴史をひらくとき』第2弾、第3弾を考えて行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さらに新しいプロジェクトとして、韓国から来られた代表団の方に考えていただきたいのは、在日韓国・朝鮮人のこれからの在り様というところで、若い人材、在日を生きて行く担い手を将来に向けて育成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特に3世、4世、5世の視点で本国を経験し、在日を生きるリーダーシップを養成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現在、日本から韓国にたくさんの留学生が行っています。その数は数百名に及ぶでしょう。百年前に本国から日本に来た留学生が6百人、7百人になり、そして本国に帰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経験をも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

本国に行っている留学生に対して、そういうリーダーシップの養成に対応できるようなプロジェクトをぜひとも作って欲しい。具体的には寄宿舎とか、本国の学生との交流とか、いろいろ新しい経験ができるようなものを本国で作っていただきたいと、提案を一つしたいと思います。

## 5. その他

以上、キリスト教の経験や運動を中心に語ってきたわけですが、外登法問題を含めて今日にいたる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の確立の動きは、決してキリスト教の動きの中だけでできあがってき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肝に銘じながら、市民運動との連帯を、私たちはキリスト者、キリスト教会として今後も重要なものとして取り組んでいけるネットワークを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

1993年の外登法改正には附帯決議がついているわけですが、在日の立場で考えたときに、法務省が、1998年1月8日以降に向けた具体的な検討に入っているといわれています。そして伝え聞くところでは、法務省が考えていることは皆がびっくりするようなことだそうです。その中心に座っている人が誰かといえば、坂中という切れ者です。1977年に坂中論文を出して、こういうことを提案した人です。在日韓国・朝鮮人の行くべき方向は三つある。一つは本国に帰ること、二つ目は日本化して日本人になる道、三つ目は外国籍のまま留まる、と。日本政府にとって一番ベストなのは、二番目の日本化して日本人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なぜこれができないのかといえば、差別があるからだというんです。

기독자는, 이 세계의 축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온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마이너리티라고 할 때는 세계의 마이너리티와 연대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조선 민족이라고 할 때는 한국·북한 등 본국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기독자라고 하는 데에는 초교파적인, 게다가 국제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한국·조선인 기독자라는 존재입니다. 이 축을 제대로 세워서, 오늘의 일본에 있어 창조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곳에, 제일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5회 외국인등록 법문제 국제심포지움  
기조 강연 1996년 10월 28일)

差別があるから彼らは反発をして日本国籍を取ったり日本化することを嫌うんだと。だから差別をはずせばこれが自然の流れになるんだ、ということ考えたのが坂中英徳という法務官僚です。

いま見直しの中心的な部分のなかに彼がいるわけです。あつというの、そういう部分で出てくるだろうと思います。たとえば、指紋を全廃し、常時携帯もはずしましょう。簡易帰化のあたりまで含んでくる可能性だってあるかと思いますが。要は、あなたたち、ネックになっているのをみんなはずしますよ、限りなく日本人の人権に近づけますよという可能性だって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流れとしては、「日本人への道」というものです。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その通り、結構です、しかし、そのことと限りなく日本人化していくこととはイコールで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ていけるような在りようを教会を含めて在日韓国・朝鮮人社会は具体的に出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これは、在日韓国・朝鮮人教会にとって重要なチャレンジになってくる問題だと受け止めています。

ここのところで考えられる三つのポイントがあります。一つ目は、在日という民族的マイノリティーの立場性。二つ目は、韓民族・朝鮮民族である民族的、文化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部分です。そして三つ目

は、キリスト者であるという部分。在日韓国・朝鮮人キリスト者は、この三つの軸を具体的に経験してきた立場に置かれていると思います。

民族的マイノリティーというところでは、世界のマイノリティーと連帯できる立場を持っています。韓民族・朝鮮民族というところでは、韓国・北朝鮮の本国とのつながりを持っている立場性。また、キリスト者というところで超教派的な、しかも国際的な連帯を可能にする立場。それらを持っているのが、在日韓国・朝鮮人キリスト者という存在です。この軸というものをきちんとして、今日の日本において創造的なマイノリティーとしての生き方を出していくところに、在日韓国教会の重要な役割が同時に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

(第5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基調講演 1996年10月28日)





## 第10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共同宣言

私たち韓国・日本・在日のキリスト者は、2003年10月20日から22日にわたり、韓国雪岳山において、「日本の歴史責任と東アジアの和解・平和・共生」の主題の下、第10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た。

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NCCK）人権委員会、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宣教協議会、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外キ協）、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が主催するこのシンポジウムが今回、韓国・日本・在日教会の祈りと支えによって第10回を迎えたことを、神に深く感謝する。

私たちは、この東アジアにおいて和解を阻み、私たち民衆の生を脅かす、過酷な現実を直視する。私たちは、祈りをもって真剣な協議を重ねることにより、さまざまな困難に屈せず、忍耐強く「神の国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共に歩み続けることを確認する。

### <平和を創り出す責任>

21世紀の世界と東アジアは、平和を阻害する多くの問題に満ちている。

2001年9・11以降、「テロ撲滅」を名目とする米国を中心とした多国籍軍によるアフガニスタン、イラクへの軍事攻撃は、多くの生命を奪い、民衆の生活基盤を根こそぎ破壊した。

2002年9月17日の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の首脳会談で明らかになった日本人拉致事件をめぐって、日朝国交交渉が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さ

らに北朝鮮の核兵器開発をめぐる米国と北朝鮮との対立は、2002年10月以降再び先鋭化し、一触即発の状況にある。米国の一極軍事体制化の下、韓国はイラクに派兵し、日本では今夏、「有事法制関連法」「テロ特措法」「イラク特措法」など、自衛隊の海外派兵・軍事大国化につながる法案が矢継ぎ早に国会で成立した。

このことは、東アジアに住む私たちに対して、「予見される危機を眺める知的・現実的無力感」から脱して、主イエスの名に基づく真の平和を創り出す責務を課している。私たちは日本の軍事化、韓国の海外派兵に反対し、東アジア平和共同体、東アジア人権共同体を創り出すために、共同して活動していくことを確認する。

### <排外主義の嵐>

いま日本では、自民族中心主義・排外主義による国家主義が公然と台頭している。

昨年9・17以降、在日韓国・朝鮮人に対してさまざまな暴力が加えられている。民族学校に通う在日四世・五世の子どもたちに、「朝鮮へ帰れ」「おまえらを拉致するぞ」という暴言が吐きかけられ、通学服のチマチョゴリが切られるという暴力事件が続いている。

5月31日、麻生太郎・自民党政調会長は、講演の中で「創氏改名は、朝鮮人が名字をくれと望んだのが始まりだ」と述べた。また、江藤隆美・元総務長官は7月12日、「韓国併合は、両国が調印して国連が無条件で承認した」「朝鮮半島に事が起こったら、船で何千、何万人と押し寄せる。国内には

## 제10회 외국인 등록법 외등법문제 국제 공동선언(2003)

우리 한국·일본·재일 기독교들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설악산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동아시아의 화해·평화·공생」을 주제로 제10차 외국인 등록법 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KK)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일본 외등법문제와 싸우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이 한국·일본·재일 교회의 기도와 협력으로 제1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를 저해하고, 우리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가혹한 현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기도와 신중한 협의를 거듭하며, 어떠한 곤란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인내로 「하느님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함께 걸어나갈 것을 확인한다.

### <평화를 만들어 낼 책임>

21세기의 세계와 동아시아는, 평화를 저해하는 많은 문제로 편만해 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박멸」을 명목으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의해 행해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은 많은 생명을 빼앗았고, 민중의 생활기반을 뿌리채 파괴시켰다.

2002년 9월 17일 일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의 수뇌회담에서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을 둘러싸고, 일조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2002년 10월 이후 다시 첨예화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 미국 일극 군사화체제 하에서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하였고, 일본에서는 금년 여름 「유사법제 관련법」, 「테러특별법」, 「이라크 특별법」

등 자위대의 해외 파병·군사대국화로 연결되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에게 「예견된 위기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지적, 현실적 무력감」에서 탈피하여, 주 예수의 이름에 바탕한 참 평화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화, 한국의 해외 파병에 반대하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동아시아 인권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 <배타주의의 바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배타주의에 의한 국가주의가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다.

작년 9.17 이후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해 다양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 4세, 5세 어린이들에게 “조선으로 돌아가”, “너희들을 납치할 거다” 등의 폭언을 퍼붓고, 교복으로 입고 다니는 치마 저고리가 잘리는 등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 아소 타로(麻生太郎) 자민당 정조회장(현 총무대신)은 강연 중에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이름을 달라고 희망하여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에토타카미(江藤隆美) 전 총무장관은 7월 12일, “한국합병은 양국이 조인하여 국제연합이 무조건 승인했다”, “조선반도에 전쟁이라도 나면 배로 몇 천, 몇 만이 몰려온다. 국내에는 불법체류자 등 절도, 살인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백만명 정도 있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폭언하였다. 더욱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동경도지사는 9월 10일 가두연설에서 외무성 고관집 테러미수 사건에 대해 “폭탄이 설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테러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더욱이 그들은

不法滞在者など、泥棒や人殺しをしているやつらが百万人もいて、内部で争乱を起こす」などと放言した。さらに石原慎太郎・東京都知事は9月10日、街頭演説で、外務省高官宅へのテロ未発事件について「爆弾が仕掛けられて当たり前の話だ」と、テロを扇動する発言をした。しかも彼らは、これらの暴言を撤回し謝罪しようともしていない。

そして、民族差別を助長し、テロを容認するこうした発言に対し、日本の国会も世論も、彼らを弾劾し免職することもできず、放置している。問題を的確に報じようとしないマスコミの責任は重大である。

#### <日本の歴史責任>

今年9月1日、関東大震災から80年を迎えた。1923年、この大災害直後に起こった虐殺事件で犠牲となった朝鮮人は、6000人以上に上った。日本弁護士連合会は8月25日、「国は、軍隊による虐殺の被害者、遺族に対し、また虚偽事実の伝達など国の行為に誘発された自警団による虐殺の被害者、遺族に対し、その責任を認めて謝罪すべきである」「国は、朝鮮人・中国人虐殺の全貌と真相を調査し、その原因を明らかにすべきである」と勧告した。

また現在、中国では旧日本軍が遺棄した化学兵器による毒ガス被害も発生しており、戦後処理がまだ終わっ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今年3月、日本の最高裁において関釜裁判、宋神道裁判など6件の戦後補償裁判が上告棄却という形で原告の主張が斥けられた。日本軍性暴力被害者を原告とする一連の裁判に不当な判断をくだした日本の司法

に対して、私たちは怒りを持って抗議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が朝鮮半島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への歴史責任を明確にし、「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恒久平和調査局設置法案」の早期制定を求める。

私たちは、これまで一貫して日本のアジア諸国に対する国家としての謝罪と補償なしに平和な未来を構築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訴えてきた。しかし、9・17日朝首脳会談以降、日本では歴史責任を棚上げにして、「拉致問題」だけが取り上げられ、北朝鮮バッシングが続いている。

#### <人権保障制度の確立>

私たちは、韓国において「国家人権委員会」が発足したことをアジアにおける画期的な人権推進の出来事として評価し、日本においても同様の人権機関が設置されることを求める。

韓国では今年7月、製造業・サービス業など外国人に合法的な在留資格と労働三権を認める「外国人労働者雇用法」が成立したが、産業研修生制度の廃止と未登録移住労働者の全面合法化は未解決の課題としてある。日本では外国人が210万人（外国人登録者185万、未登録者25万）以上にのぼり、「住民」としての地位と権利を保障する法制度が確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今年7月に国際人権条約として発効した「移住労働者とその家族の権利保護条約」は、移住労働者の権利を総括的に保障するものであり、市場経済至上主義の支配する時代の中であって、とりわけ移住労働者受け入れ国である日韓両国は批准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이러한 폭언을 철회하거나 사죄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족차별을 조장하고 테러를 용인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 일본 국회도 여론도 그들을 탄핵하거나 면직시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문제를 정확히 보도하려 하지 않는 매스컴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 <일본의 역사적 책임>

금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 80주년을 맞이했다. 1923년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은 6000명 이상에 달했다.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8월 25일, “국가는 군대에 의한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해, 또 허위사실 전달 등 국가의 행위로 유도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한다”, “국가는 조선인·중국인 학대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라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구일본군이 파기환 화학병기에 의한 독가스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전후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3월 일본 최고법원에서 시모노세키 재판, 송신도(宋神道) 재판 등 6건의 전후보상재판이 상고기각이라는 형태로 원고의 주장을 무산시켰다.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일련의 재판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일본 사법부에 대해, 우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조선반도를 위시한 아시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시 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안」, 「항구적 평화조사국 설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국가적 사죄와 보상 없이는 평화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월 17일 북일수뇌회담 이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거론되지 않

고 「납치문제」만이 부상되어, 북한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방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 <인권보장제도의 확립>

우리는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된 것을 아시아에 있어서 인권 추진의 획기적 사건이라 평가하고, 일본에도 이와 같은 인권기관이 설치될 것을 요청한다. 한국은 금년 7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국민의 합법적인 재류자격과 노동3권을 인정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이 성립되었으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210만명(외국인등록자 185만명, 미등록자 25만명) 이상으로 늘어, 이들에게 「주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년 7월 국제인권조약으로 발효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총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일 양국은 서둘러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의 결의>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투쟁을 위해 한·일·재일 교회의 협력과 연대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다음 공동과제를 확인한다.

1. 우리는 전후 일본이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수혜국이었던 점을 포함하여,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지금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곧바로 무조건적으로 북일교섭을 재개할 것과,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 인권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2.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가 다민족·다문

<私たちの決意>

私たちは、人権を守る闘いにおいて、日・韓・在日教会の協力と連帯が重要度を増していることを自覚し、以下のことを共同課題として確認する。

1. 私たちは、戦後日本が朝鮮半島の南北分断の受益国としてあったことも含めて、植民地支配の歴史責任を、いまだ果たしていないと考える。したがって、私たちは日本政府に対して、ただちに無条件で日朝交渉を再開すること、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政策・人権弾圧を中止することを求める。
2. 私たちは、日韓両政府に対し、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すべての移住労働者とその家族の権利保護条約」を批准し、未登録移住労働者の合法化と、難民申請者の在留資格付与、外国人研修制度の廃止を求める。
3. 私たちは日本政府に対して、国際人権条約に基づく「人種差別（民族差別）禁止法」の制定および政府行政機関から独立した「人権委員会」の創設と、「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また韓国政府に対して、「差別禁止法」の制定を求める。
4. 私たちは、日本政府に対して、在日韓国・朝鮮人など旧植民地出身者とその子孫に対して、日本の歴史責任を明記し、民族的マイノリティとしての地位と権利を保障する「在日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
5. 私たちは、日本の歴史教科書の歪曲を許さず、日・韓・在日教会がその出会いと学びをさらに深めるよう歴史学習

への取り組みを強化する。その一環として『歴史をひらくとき』（韓国語版『人さし指の自由』）改定版を出版するとともに、「日・韓・在日キリスト者青年共同研修プログラム」を積極的に支援する。

6. 私たちは、韓国教会の「在日同胞苦難の現場訪問プログラム」を継続すると共に、日本・在日教会の「歴史現場訪問プログラム」を開始する。また、「第11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を2005年、日本で開催する。

2003年10月22日

第10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参加者一同  
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人権委員会  
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宣教協議会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

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해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권리보호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난민신청자의 재류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요청한다.

3.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 창설,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일한국·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하고,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재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일본·재일 교회가 보다 깊이있게 만나고 배우기 위해 역사학습 실천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역사를 열 때」(한국어판 「검지손가락의 자유」) 개정판을 출판함과 동시에, 「한·일·재일 기독교청년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일본·재일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또한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2005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3년 10월 22일

제10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일동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일본 외등법문제 전국 기독교자 연합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日韓聖公会宣教20周年大会歴史年表

1592年		豊臣秀吉、朝鮮侵略
1615年		江戸幕府開幕。朝鮮通信使来日等、日本と朝鮮友好関係を築く。
1867年		明治維新
1876年		江華島条約（日朝修好条規）調印。不平等条約
1894年		甲午農民戦争起こる（侵略に反対）。日清戦争始まる
1897年		国号を大韓帝国と改める
1900年	12月	張準相(チャン・ジュンサン)師、韓国忠清南道公州郡公州面草鳳里に生まれる。幼名張萬石(マンソク)、こと張仁植(インシク)
1904年		日露戦争起こる
1905年		第2次日韓協約締結（朝鮮を保護国化）
1910年		韓国併合条約締結（朝鮮を植民地に）
1919年		朝鮮で三・一独立運動起こる
1923年		関東大震災起こる。数千人の朝鮮人大虐殺される
1925年	3月	張師聖公会・福岡神学校（当時）を卒業。堺聖テモテ教会に勤務し、在日韓国人に対する宣教活動を開始する。
1930年		満州事変勃発。アジア太平洋の15年戦争始まる
1939年		朝鮮人強制連行始まる
1940年		朝鮮人に創氏改名強制
1941年		日本米英に宣戦布告。日米戦争始まる 太平洋戦争開戦直後、張氏生野警察により身柄を拘束される。面会謝絶4ヵ月間
1945年	8月	日本敗戦 朝鮮解放
1947年		日本、新憲法公布
1948年	8月	大韓民国樹立
	9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樹立
1950年	6月	朝鮮戦争勃発
1952年		神戸教区教区報4月号に米子基督教会の項目に「3月12日、ハワイより山本司祭の渡英後の居任司祭として趙司祭が到着された。」の記事掲載
	4月	日本独立
1953年		朝鮮戦争休戦調停調印。韓国は調印せず
1956年	12月	張執事の司祭按手式(大阪教区・川口基督教会)
1960年	4月	韓国・4月学生革命起こる
	5月	日本・日米安保改訂反対運動起こる
1961年	5月	朴正熙による軍事クーデター起こる
1962年		今村秀子姉が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ソウル教区主教と個人的な親交を持ち、援助を続ける



## 일한성공회선교협동20주년 역사연표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침략
1615년		에도 막부 시작. 조선통신사 일본 방문 등 조선과의 우호관계 구축
1867년		메이지 유신
1876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 조인. 불평등 조약
1894년		갑오 농민전쟁 일어남(침략 반대). 청일전쟁 시작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침
1900년	12월	장준상 선생, 한국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초풍리에서 출생. 유아명 장만석, 후에 장인식
1904년		러일전쟁 발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조선을 보호국화)
1910년		한국병합조약 체결(조선을 식민지로)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 일어남
1923년		관동대지진 발생. 수천명의 조선인이 대대적으로 학살당함
1925년	3월	장준상 선생, 성공회 후쿠오카신학교(당시) 졸업. 오오사카의 사카이 성디모데교회에 시무하며 재일한국인을 위한 선교활동 개시
1930년		만주사변 발발. 아시아태평양 15년전쟁 시작
1939년		조선인 강제연행 시작
1940년		조선인에 창씨개명 강제
1941년		일본,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 미일간 전쟁 시작
1941년		장준상 선생, 태평양전쟁 개전 직후 이쿠노지역 경찰에 신병 구속됨. 이후 4개월간 면회 사절 조치.
1945년	8월	일본 패전 조선 해방
1947년		일본, 신헌법 공포
1948년	8월	대한민국 수립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50년	6월	조선전쟁 발발
1952년		코베교구 교구보 4월호 米子기독교회 항목에 「3월12일, 하와이로부터 야마모토사제가 영국으로 간 후 거주사제로 조사제가 도착했다」는 기사 게재
	4월	일본 독립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 한국은 조인 거부
1956년	12월	장준상 부제 사제 서품(오오사카교구 카와구치기독교회)
1960년	4월	한국 · 4월 학생혁명 일어남
	5월	일본 · 일미안보개정반대운동 일어남
1961년	5월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일어남
1962년		이마무라 히데코씨가 이천환 서울교구 주교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며 원조를 계속하다
1965년	11월	동경교구는 11.23 개최된 제46회 정기 교구의회에서 「상호책임·상호의 존위원회」설치 결의, MRI위원회로 호칭. 위원장 이마이 마사미치 사제

- 1965年 11月 東京教区は11月23日開催の第46（定期）教区会で「相互責任・相互依存委員会」の設置を決議。これをMRI委員会と呼称。委員長今井正道司祭  
\*MutualResponsibility&InterdependenceintheBodyofChrist  
日韓条約締結。日韓国交樹立  
プール学院在日韓国人入学差別事件報道さる
- 1967年 9月 後藤真東京教区主教他12名が大韓聖公会の招待により渡韓、各教会を訪問
- 1968年 ソウル教区からの李天煥主教の「学生伝道」に関する要請に基づき、日本聖公会にこれを訴え東京教区としては大斎始日（教区礼拝）の信施をこれに捧げる  
山田襄教務院長、和気清一、今村秀子その他の方々がソウルを訪問
- 10月 韓国聖公会キム・ソンス（金成洙）司祭、東京に約一ヶ月滞在
- 1970年 ソウルの永松かず姉の孤児救済のためのチャリティショーをMRIと社会両委員会とが共同で援助（東京教区）
- 8月 ソウル教区金鎮萬（キム・ジンマン）教授来日  
ソウル教区の要請により今井丞治司祭、坂口順治氏を派遣  
ソウル教区崔哲熙（チェ・チョルヒ）神父来日、2年間の予定で東京に滞在
- 1971年 6年間続いたワシントン教区との姉妹関係終了により、この協働による他への奉仕活動の対象としてソウル教区との関係を深める動きが出てくる
- 9月 ソウル教区親善使節団として李主教以下9名来日。都内巡回、教区歓迎晩餐会、協議会、主日礼拝参加、ホームステイなどを行う
- 1972年 ワシントン教区との三教区合同宣教活動の一環として、ソウル～東京～ワシントンの協働作業を推進（ワシントン教区からのMDF資金〈MissionaryDevelopmentFund〉を用いて）  
金容杰（キム・ヨングル）司祭が後藤真主教、竹内謙太郎司祭を訪問、協議。その結果、ソウル教区ベダ教会の活動のため20万円、聖職信徒協議会のため20万円を援助。これらはワシントン教区からの援助資金が用いられる  
ワシントンー東京ー沖縄ー韓国の三教区関係プロジェクト強化の推進。ワシントン教区クレイトン主教の代理の資格でロミグ司祭来日、沖縄、韓国を訪問。7月10日～13日の韓国訪問時には、後藤真東京教区主教の代理の資格で竹内謙太郎委員長がロミグ司祭に同行してソウル教区を訪問、協議を行う  
日本人司祭をソウル宣教師として派遣の要請ある
- 7月 ソウル教区金容杰（キム・ヨングル）司祭来日  
7・4南北共同声明発表
- 9月 ソウル教区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来日
- 10月 朴大統領クーデター。維新体制樹立
- 1973年 九州教区、宮原善忠司祭と天野浩一郎司祭を大韓聖公会大田教区に派遣  
姉妹教区関係のため協議と視察。大田教区R.ラット主教夫妻が来訪
- 8月 立教大BSA第16支部ソウル教区の要請で楊平（ヤンピョン）でワークキャンプ実施

\*Mutual Responsibility & Interdependence in the Body of Christ  
 일한조약 체결

- 1967년 9월 고토 동경교구 주교의 12명이 대한성공회 초청으로 방한, 각교회 방문
- 1968년 서울교구 이천환 주교의 「학생전도」에 관한 요청에 따라 일본성공회가 이를 각 교구에 요청, 동경교구는 대재수일 교구예배 헌금을 봉헌  
 야마다조 교무원장, 와끼세이이치, 이마무라히데코씨등 수명 서울 방문
- 1970년 10월 한국성공회 김성수 신부 동경에 약1개월 체재  
 서울의 나가마츠 카즈씨의 고아구제를 위한 자선쇼를 MRI위원회와 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원조하다.(동경교구)
- 8월 서울교구 김진만 교수 방일  
 서울교구 요청으로 이마이 조지 사제, 사카구치 준지씨를 파견  
 서울교구 최철희 신부가 방일, 2년 예정으로 동경 체재
- 1971년 6년간 계속된 워싱턴교구와의 자매결연관계가 종료, 그 협력에 따른 다른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서울교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움직임
- 9월 서울교구 친선사절단으로 이천환 주교의 9명이 방일. 동경내 순회, 교구환영만찬회, 협의회, 주일예배 참가, 홈스테이 등 실시
- 1972년 워싱턴교구와 3교구 합동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동경-워싱턴 협동 작업을 추진(워싱턴교구의 MDF<Missionary Development Fund> 이용)
- 7월 서울교구 김용걸 신부 방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9월 서울교구 이천환 주교 방일, 김용걸 신부와 함께 고토 주교, 타케우치 신부를 방문, 협의. 그 결과 서울교구 베다교회(현대학로교회)의 활동을 위해 20만엔, 성직신도협의회를 위해 20만엔을 지원. 이상 워싱턴 교구 지원기금 사용.  
 워싱턴과 동경-오끼나와·한국의 3교구관계 프로젝트 강화를 추진. 워싱턴교구 크레이튼 주교 대리 로믹 신부가 방일, 오끼나와와 한국을 방문. 7.10-13간 한국 방문시에는 고토 주교 대리 다케우치 위원장이 로믹 신부와 동행하여 서울교구를 방문, 협의하였다.  
 일본인 사제를 서울교구 선교사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 1973년 10월 박대통령 쿠데타. 유신체제 수립  
 큐슈교구, 미야하라 요시타다 사제와 아마노코우이치로 사제를 대전교구에 파견, 자매결연관계를 위한 협의와 시찰. 대전교구 리차드 러트 주교 내외 방일
- 8월 렛쿄대학 BSA(Brothers of St. Andrew) 제16지부가 서울교구의 요청으로 양평에서 워크캠프 실시  
 동경에서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 11월 대전교구 배두환 부제, 김병훈 부제가 일본을 내방, 자매결연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
- 1974년 1월 일본성공회 큐슈교구는 대한성공회 대전교구와 1월 1일부터 3년간 자매교구 관계 체결. 대전교구에서 분할 신설하는 부산교구와도 우호관계를 지속(제65회 정기교구의회 결의 제5호)

東京で金大中氏拉致事件おこる

- 11月 大田教区、裴斗煥（ペ・ドゥファン）執事と金丙薫（キム・ビョンフン）執事が来訪し姉妹教区関係の具体的協議を行う
- 1974年 1月 日本聖公会九州教区は大韓聖公会大田教区と1月1日をもって姉妹教区関係を締結。期間は3年。大田教区分割後の新教区、釜山教区(仮称)との友好関係をも継続。(第65定期教区会決議第5号)
- 5月 第一次韓国親善訪問団24名派遣。目的:裴斗煥師の主教接手式と大田教区主教就任式に列席
- 6月 釜山教区が大田教区から独立して成立
- 7月 内田稔、大木弘行両司祭韓国訪問。(第1回日韓教会協議会出席)
- 10月 大田教区裴斗煥（ペ・ドゥファン）主教来訪。姉妹関係プログラム協議  
訪問団の交換・聖職の相互交流・大田教区のリトリートに九州教区から指導講師(太田俊夫司祭)を招聘  
韓国聖架修女会の招請により、ナザレ修女会2名、神愛修女会1名の修女が同修女会を訪問  
ソウル教区との関係について、東京教区の基本方針確認のため宣教委員会から常置委員会にあてて、「ソウル教区との関係についての意見書」提出
- 1975年 2月 釜山教区崔哲熙（チェ・チョルフィ）主教が来日
- 6月 ソウル教区から鄭淵優（チョン・ヨンウ）神父が1年の予定で来日。当初、聖アンデレ教会、後に聖パウロ教会を宿舎として東京教区内各教会を訪問、研修を行う
- 7月 竹内謙太郎MRI委員長訪韓、崔哲熙（チェ・チョルヒ）主教と会いBT計画に就いて具体的な協議を行う
- 9月 BTプロジェクト発足。MDFを用いて人的に釜山教区の援助を決定。(3ヶ月ずつ4人の東京教区の司祭が蔚山の教会で牧会に当たることとなった。)  
河野裕道司祭出向(当時、浅草聖ヨハネ教会)
- 12月 長谷川正昭司祭韓国出向(当時、神愛教会)
- 1976年 4月 佐藤徹司祭(当時、聖十字教会)韓国出向
- 6月 大木弘行司祭(当時、千住教会)韓国出向  
BTプロジェクトは8月末で終了したが、第2期BTプロジェクトを明年から実施
- 8月 大韓聖公会大田教区全州聖公会アタナシオ蘇永弼（ソ・ヨンピル）司祭'76年8月～'77年8月まで協働司祭として来日。九州教区全教会を訪問。内、延岡・久留米・大牟田に長期滞在。殊に、延岡聖ステパノ教会では4ヶ月滞在し協働牧会をし、「韓国伝統文化講座」「韓国語講座」を開設し多大な影響を残す
- 11月 東京教区定期教区会で次の2議案がMRI委員会から提出され議決される(1)釜山教区蔚山教会援助募金の件募金目標350万円(500万ウオン)(2)大韓聖公会釜山教区代表招請の件主教以下数名の聖職信徒を招待する。予算60万円。
- 1977年 2月 第2期BTプロジェクト開始  
1977年2月から78年4月までの予定で長谷川正昭司祭(神愛教会、当時)を蔚山聖公会

- 5월 제1차 한국 친선 방문단 24명을 파견,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 안수식  
과 취임식 참가
- 6월 부산교구가 대전교구로부터 독립, 성립
- 7월 우치다, 오오키 사제가 한국을 방문(제1회 NCC 일한교회협의회 출석)
- 10월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 일본 방문. 자매관계 프로그램 협의  
방문단 교환, 성직자 상호교류, 대전교구 피정회에 큐슈교구 오오타  
토시오 사제를 지도강사로 초청  
한국 성가수녀회의 초청으로 나자레수녀회 2명, 신아이수녀회 1명 등  
수녀들이 동 수녀회를 방문  
서울교구와 동경교구의 관계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선교위  
원회가 상치위원회에 「서울교구와의 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 1975년 2월 부산교구 최철희 주교 방일
- 6월 서울교구 정연우 신부가 1년 예정으로 방일. 성안드레교회, 이후 성바  
우로교회를 숙소로 하여 동경교구 각 교회 방문, 연수를 실시
- 7월 타케우치 MRI위원장이 방한, 최철희 주교와 만나 BT계획에 관하여 구  
체적인 협의
- 9월 BT 프로젝트 발족. MDF를 사용하여 부산교구에 인력 지원을 결정. (3  
개월씩 4명의 동경교구 사제가 울산교회에서 목회를 담당)
- 동 코우노 히로미치 사제(당시 아사쿠사 성요한교회) 한국행
- 12월 하세가와 마사아끼 사제(당시 신아이교회) 한국행
- 1976년 4월 사토 토오루 사제(당시 성십자교회) 한국행
- 6월 오오끼 히로유키 사제(당시 센주교회) 한국행  
BT프로젝트는 8월말로 종료했으나, 제2기 프로젝트를 익년부터 실시키  
로 하다
- 8월 대전교구 전주성공회 소영필 아타나시오 신부가 1976.8~1977.8간 협  
동사제로 방일. 큐슈교구 전 교회를 방문. 기간 중 노베오카, 쿠루메,  
오오무타 등지에 장기 체류. 특히 노베오카 성스테반교회에 4개월간  
체재, 목회하며 「한국전통문화강좌」 「한국어강좌」를 개설, 많은 영  
향을 남겼다
- 11월 동경교구 정기 교구의회에서 MRI위원회가 제출한 다음 2개 의안을 결  
의하다 (1) 부산교구 울산교회 원조모금 목표 350만엔(500만원) (2) 대  
한성공회 부산교구 대표 초청(주교, 성직자와 신자 수명을 초청) 예산  
60만엔
- 1977년 2월 제2기 BT프로젝트 개시. 1977.2~1978.4간 예정으로 하세가와 마사아끼  
신부(당시 신아이교회)를 울산교회에 파견.
- 4월 코베교구보에 「한씨(코베 쇼인신학교 출신)의 나라·한글로의 여행」이  
라는 하마다기독교회 세야마 이와오 사제의 대전교구 방문기 게재  
성공회 코베교구 시찰단(무라야마 이와오 사제, 무라세 케이스케 사  
제, 오카사키 타다시 사제)의 보고로 무라세(마즈에기독교회) 사제의  
기사 게재. 같은 해 5월 무라세 사제의 「한국을 방문하고(2)」 게재
- 6월 타케우치 MRI위원장 방한, 부산교구 주교에 울산성공회 토지취득대금  
300만엔 전달. 이어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를 예방한 뒤 서울교구 이천

- に派遣
- 4月 神戸教区報「韓さん(神戸松蔭神学校出身)の国・ハンゲルへの旅」瀬山岩雄司祭(浜田キリスト教会牧師)の大田教区訪問記掲載  
聖公会神戸教区視察団(瀬山岩雄司祭、村瀬敬輔司祭、岡崎正司祭)報告として「韓国を訪問して」村瀬敬輔司祭(松江キリスト教会牧師)の記事を掲載。
- 6月 竹内謙太郎MRI委員長訪韓、釜山教区主教に蔚山聖公会土地取得代金300万円を手渡す。次いで大田教区斐斗煥(ベエ・ドウファン)主教を表敬訪問後、ソウル教区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を訪問、来日を要請。同主教はこれを承諾。
- 8月 蘇永弼(ソ・ヨンピル)司祭の帰国後、九州教区では全州聖公会の開拓伝道を支えるため、延岡聖ステパノ教会を中心に献金を募り毎月5万円を1年間送り続ける
- 10月 東京教区有志訪韓(団長保坂功氏)実施。一方、釜山からの訪日団は韓国政府により不許可
- 11月 後藤真主教、竹内謙太郎MRI委員長、大韓聖公会訪問。(釜山教区問安、蔚山教会、長谷川正昭司祭問安激励、大田教区表敬、ソウル教区表敬、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に対し答礼表敬)
- 1978年 3月 昨年2月に蔚山へ出向していた長谷川正昭司祭帰国。  
4月 佐藤徹司祭が7月15日まで出向。  
6月 田光信幸司祭1年間の予定で赴任。  
\*田光司祭の出向中、在韓原爆被災者救済計画の話が出て、5か年にわたって年50人ずつ治療の援助をした。また、東京教区としてこのための献金を始め現在に至る
- 10月 釜山教区の要請により大韓聖公会訪問団を東京教区主催で計画、10月13日~17日、後藤主教以下15名が訪韓し各地で親交の実をあげる
- 11月 九州教区は堀尾憲孝司祭一家(延岡聖ステパノ教会牧師)を大田教区全州聖公会開拓伝道の協働司祭として派遣。同師は留守教会に毎日、通信を送り続ける。(~79年11月)
- 1979年 1月 高島靖MRI委員長、竹内謙太郎司祭と訪韓、3主教(ソウル教区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大田教区斐斗煥(ベエ・ドウファン)主教、釜山教区崔哲熙(チェ・ Cholヒ)主教と懇談  
3月 大田教区斐斗煥(ベエ・ドウファン)主教来訪  
ソウル教区、車(チャ)神父来訪  
4月 釜山教区崔哲熙(チェ・Cholヒ)主教東京教区訪問  
蔚山聖バルナバ教会信徒長李明熙(イ・ミョンヒ)氏、東京教区の招待で来日  
神戸教区報「韓国大田教区聖職団の来訪と受け入れ態勢」MRI委員長秋山義孝司祭による記事掲載。6月11日来訪。朴勝視司祭(団長、大執事)、石均優司祭、徐丙五司祭、韓浩副祭の一行4名。韓国側の渡航手続きの困難さから、大阪到着は約一週間前に電話で連絡され、日程を作成し、歓迎したことの報告と今後も祈ることを要請  
神戸教区報「神戸教区の皆さん在神中はお世話になりました」のタイトルで大田教区聖職団のお礼状を掲載
- 10月 後藤真主教を初め20名の訪問団が釜山教区蔚山聖バルナバ教会献堂式(10日)出

- 환 주교를 방문, 방일을 요청한 바 이주교가 이를 수락하다.
- 8월 소영필 신부 귀국 후 큐슈교구는 전주교회 개척전도를 지원하기 위해 노베오카 성스테반교회를 중심으로 모금하여 매달 5만엔씩 1년간 송금
- 10월 동경교구 관계자 방한(단장 호사카 이사오 씨). 한편 부산교구 일본방문단은 한국 정부가 불허
- 1977년 11월 고토 주교와 타케우치 MRI위원장이 대한성공회를 방문. 부산교구 예방, 울산교회 하세가와 신부 격려방문, 대전교구와 서울교구를 예방하고 이천환 주교에 답례 표명
- 1978년 3월 전년도 2월 울산교회에 파견한 하세가와 사제 귀국
- 4월 사토 토루 사제 7.15까지 파견
- 6월 다비카리 노부유키 사제가 1년 예정으로 울산교회 부임  
· 다비카리 사제의 파견 중 한국내 원폭피해자 구제계획이 제안되어 5개년 계획으로 매년 50명씩 치료를 지원하다. 또한 동경교구는 이를 위한 헌금을 시작,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 10월 부산교구의 요청으로 대한성공회 방문단을 교구 주최로 계획, 10.13-17간 고토 주교 외 15명이 방한하여 각지에서 친교의 열매를 거두다.
- 11월 큐슈교구는 호리오 노리타카 사제(노베오카 성스테반교회) 일가를 대전교구 전주성공회 개척전도 협동 사제로 파견. 동 사제는 본인의 빈교회에 통신을 계속 보냄(1979년 11월까지)
- 1979년 1월 다카바타케 MRI위원장과 타케우치 사제가 방한, 3교구 주교(서울 이천환, 대전 배두환, 부산 최철희)와 간담.
- 3월 대전교구 배두환 주교 방일  
서울교구 차인환 신부 내방
- 4월 부산교구 최철희 주교 동경교구 방문  
울산 성바르나바교회 신도회장 이명희씨 동경교구 초대로 방일  
코베교구 교구보 「한국대전교구 성직단 방문을 맞이하는 태세」라는 MRI위원장 아키야마 요시노리 사제의 기사 게재. 박승시 신부(단장, 총사제), 석균우 신부, 서병오 신부, 한호 부제 등 4명이 6월 11일 방일. 한국측의 입국 수속에 어려움이 있어 오오사카 도착은 약1주일 전어야 전화로 연락이 왔고, 일정을 작성 환영했다라는 보고와 이후 기도 협력을 요청  
코베교구 교구보 「코베교구 여러분, 방문중에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라는 대전교구 성직단의 답례서신 게재
- 10월 고토 주교 등 20명의 방문단이 부산교구 울산성바르나바교회 헌당식(10일) 출석을 위해 방한  
부산교구 부인회 김재현 지도사제와 부인회장 등을 동경교구에 초대  
**박대통령, 중앙정부장에게 암살당함**
- 11월 서울교구 이천환 주교 방일  
대전교구 원성호 신부 방일  
부산교구 장희원 신부 내방
- 1980년 오오사카교구 가브리엘 프로젝트 발족
- 3월 부산교구 최철희 주교 동경 방문(BT관련)

- 席のため訪韓  
 朴大統領、中央情報部部長により暗殺される  
 釜山教区婦人会チャプレン金在憲（キム・ジェホン）神父、婦人会長他を東京教区に招待
- 11月 ソウル教区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来訪  
 大田教区元（ウオン）神父来訪  
 釜山教区張（チャン）神父来訪
- 1980年 ガブリエルプロジェクト発足（大阪教区）
- 3月 釜山教区崔哲熙（チェ・チョルヒ）主教東京教区訪問（BT関連）  
 7月 文相尹（ムン・サンユン）神父東京訪問（BT評価）  
 4月 ソウル教区金鎮萬（キム・ジンマン）教授来日（BT評価）  
 5月 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主教来日  
*光州で市民学生と戒厳軍衝突。多数の死傷者でる（光州事件）*  
 6月 洪忠男（ホン・チュンナム）、朴潤圭（パク・ユンギョ）両神父来日  
 9月 金成洙（キム・ソンス）神父来日  
 大韓聖公会宣教90周年記念式典（ソウル教区）  
 11月 釜山教区金榮哲（キム・ヨンチョル）、鄭満得（ジョン・マンドク）両神父、東京教区訪問、15日間の研修
- 1981年 ソウルの聖ペテロ学校基金募金に協力（東京教区）
- 9月 東京教区フェスティバルに説教者として韓国聖ペテロ学校長金成洙（キム・ソンス）神父を招聘  
 ソウル教区大聖堂主任司祭金在烈（キム・ジェヨル）神父ほか1名東京訪問、諸教会、学校等を視察
- 10月 東京教区訪韓団、釜山、ソウル各地を訪問
- 1982年 在日韓国・朝鮮人宣教プロジェクト発足（ガブリエルプロジェクト改称）（大阪教区）  
 議案第4号（仮第5号）大阪教区「在日韓国・朝鮮人協働委員会」設置
- 4月 東京教区、大韓聖公会を訪問。各教区主教、聖ペテロ学校、蔚山教会を訪問。この際、ソウルにおいて山田襄教区主教から聖ペテロ学校理事長の李天煥主教に募金の100万円を手渡す
- 5月 *日韓で教科書問題おこる*  
 6月 釜山教区金榮哲（キム・ヨンチョル）神父他4名の信徒の研修を受け入れ  
 大韓聖公会聖職と日本聖公会の聖職との合同セミナーを開く方向を検討  
 山田襄教区主教、竹内謙太郎、佐藤徹両司祭がソウルで行われた日韓合同セミナー第1回準備会に出席
- 10月 第4次訪韓団（団長竹内謙太郎司祭、参加10名）が釜山教区、蔚山バルナバ教会を訪問交流、ソウルで聖ペテロ学校等を訪問
- 1983年 日韓セミナー準備委員会、在日韓国人問題研修会（大阪）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隣人を見つめ、関わるための研修会」実施。（大阪



- 1980년 7월 PIM위원장 문상윤 신부 동경 방문(BT평가)  
 4월 서울교구 김진만 교수 방일(BT평가)  
 5월 이천환 주교 방일  
 광주에서 시민 학생과 계엄군충돌, 사상자 다수 발생(광주사건)  
 6월 홍충남, 박윤규 신부 방일  
 9월 김성수 신부 방일  
 동 대한성공회 선교90주년 기념식전(서울)  
 11월 부산교구 김영철 신부, 정만득 신부 동경교구 방문, 15일간 연수.  
 서울 성베드로학교 기금 모금에 협력
- 1981년 9월 동경교구 페스티발 설교자로 한국 성베드로학교 교장 김성수 신부 초청  
 서울교구 대성당 주임사제 김재열 신부 외 1명이 동경 방문, 각 교회, 학교 등을 시찰  
 10월 동경교구 한국방문단이 부산과 서울 각지를 방문
- 1982년 오오사카교구 재일한국·조선인 선교프로젝트 발족(가브리엘프로젝트를 개칭). 교구회 제4호 의안 「재일한국·조선인협동위원회」 설치  
 4월 동경교구는 대한성공회를 방문하고 각교구 주교, 성베드로학교, 울산 교회를 방문. 이 중 서울 방문시에 야마다 교구 주교가 성베드로학교 이사장 이천환 주교에 모금 100만엔 전달  
 5월 한일간에 역사교과서 문제 발생  
 6월 부산교구 김영철 신부 외 4명의 신자 연수  
 대한성공회 성직자와 일본성공회 성직자의 합동세미나 개최를 검토  
 야마다 동경교구 주교, 타케우치, 사토 사제가 서울에서 개최된 일한 합동세미나 제1회 준비회에 출석  
 10월 제4차 방한단(단장 타케우치 사제, 참가 10명)이 부산교구, 울산바르나바 교회를 방문, 교류, 서울 성베드로학교 등을 방문
- 1983년 일한세미나 준비위원회, 재일한국인문제 연수회(오오사카)  
 오오사카교구 재일한국·조선인 선교협동위원회 「이웃을 바라보며 참여하기 위한 연수회」 실시
- 1984년 6월 요코하마교구 교구보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라는 세키타 히로오 목사의 글 게재  
 10월 제1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서울)  
 오오사카교구 재일한국·조선인 선교협동위원회가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철폐,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및 영화 「이름...나마에」 필름 구입, 상영 운동  
 큐슈교구 제75회 정기교구회 「재일한민족 차별을 함께 생각하는 날」 제정 결의.(1994년 제86회 정기교구회에서 「재일 한·조선인민족을 함께 생각하는 날」로 명칭 변경 결의) 「3월 1일에 가까운 주일을 <재일한민족 차별을 함께 생각하는 날>로 제정키로 결의. 이 날은 모든 교회에서 대도를 바치고, 그 날의 헌금을 오오사카교구 성가브리엘교회 성당 건축을 위해 봉헌한다.」  
 오키나와교구 시보(253호)에 나카무라 사네아키 주교의 「제1회 일한선

- 教区)
- 1984年 6月 横浜教区報「隣人のために、隣人と共に」として関田寛夫牧師記事掲載
- 10月 **第一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ソウル）**  
 在日韓国・朝鮮人宣教協働委員会外国人登録法による指紋押捺、登録証常時携帯の義務撤廃を求める署名運動。映画「イルム・・・なまえ」のフィルム購入とその上映運動(大阪教区)  
 九州教区第75定期教区会で「在日韓民族差別を共に考える日」を決議。(1994年第86定期教区会で「在日韓・朝鮮人民族を共に考える日」に名称変更決議)「3月1日(三一節)に近い主日を「在日韓民族差別を共に考える日」と定めることを決議する。当日は諸教会において代祷をささげ、その日の信施金を大阪教区聖ガブリエル教会礼拝堂建築のためにささげる。」  
 沖縄教区時報(No. 253)「第一回日韓宣教セミナーに参加して」仲村実明主教掲載
- 1985年 在日の女性から話を聞き学習(横浜教区)  
 第一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共同声明に基づき、その内容実行のために協働委員会の下部機構として「日韓協働委員会」を設置。委員長木川田一郎主教
- 9月 北関東教区宣教部「日韓の歴史を学ぶ会」を開催。「恨」「強制連行」についてのお話、「堤岩里教会」スライド報告などの研修の後、在日韓国人の証言を聞き、吉見百穴の現場見学を実施  
 第1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大韓聖公会に学ぶ」(関東3教区)
- 11月 **第二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大阪）**  
 聖ガブリエル地域活動センター(後の聖公会生野センター)建設を管区が支援することを総会議案として提案することを決定
- 1986年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関東キリスト者連絡会結成
- 5月 第39定期総会、聖ガブリエル教会、同地域活動センター建設募金を行うことを決定。5年間で4,000万円の目標を決定。「シロアム」の発行。委員長菊池邦查  
 決議第6号外国人登録法の指紋押捺制度と外国人登録証常時携帯義務に反対し、その撤廃を要望する件(議案第4号可決)(大阪教区)  
 沖縄教区時報(No. 267)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朴相増(パク・サンジュン)総幹事が日本聖公会組織成立100年記念教会宣教協議会推進委員会主催講演会の講師として沖縄教区来訪の記事掲載
- 8月 ソウル・東京青年交流を韓国で開催  
 第2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関東大震災と朝鮮人」(関東3教区)
- 1987年 2月 横浜教区報「聖ガブリエル教会について」の記事掲載  
 シロアム第二号の発行  
 韓国民主化運動、大韓聖公会聖職団、ソウル大聖堂の参加。  
 「今、生野では・・・～生野を知るつどい」の開催(大阪教区)  
 「聖ガブリエル教会・ガブリエル地域活動センター(仮称)」建設に関する件可決(大阪教区)

- 교세미나에 참가하고」 게재
- 1985년      요코하마교구 「재일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학습회」 개최  
 제1회 일한세미나 공동성명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양국  
 협동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일한협동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키  
 가와다 이치로우 주교
- 9월      북관동교구 선교부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을 개최. 「한」, 「강  
 제 연행」에 대한 이야기, 「제암리교회」 슬라이드 보고 등 연수 후 재  
 일한국인의 증언을 청취, 요시미 야쿠아나(군비행기 제작공장 강제연  
 행 유적)현장견학을 실시
- 11월      제1회 일한 역사 학습회 「대한성공회에서 배운다」(관동3교구)  
**제2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오사카)**  
 성가브리엘 지역활동센타(후일 이쿠노센타) 건설을 관구가 지원하는  
 방안을 총회 의안으로 제안기로 결정
- 1986년      외국인등록법문제 관동지역 기독교자연락회 결성
- 5월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성가브리엘교회와 가브리엘 지역활동센타 건설모  
 금 실시 결정. 5년간 4천만엔 목표 결정. 회지 「실로암」 발행. 위원  
 장 키쿠치 구니히로
- 오오사카교구의회 결의 제6호 「외국인등록법 지문날인제도와 외국인등  
 록증 상시휴대의무 반대, 철폐 요구안」(의안 제4호 가결)  
 오키나와교구 시보(267호) 아시아교회협의회 총간사 박상중 목사가 일  
 본성공회 조직성립100주년 기념 교회선교협의회 추진위원회 주최의 강  
 연회 강사로 오키나와교구를 방문한 기사 게재
- 8월      서울-동경교구 청년교류를 한국에서 개최(8.18-24, 강화, 서울)  
 제2회 일한 역사 학습회 「관동대지진과 조선인」(관동3교구)
- 1987년      2월      요코하마교구 교구보 「성가브리엘교회 관련 기사」 게재 「실로암」 제  
 2호 발행
- 한국민주화운동에 성공회 성직단과 서울대성당 중심으로 교우들 참가  
 오오사카교구, 「지금 이쿠노에서는 `이쿠노를 아는 모임」 개최  
 오오사카교구, 「성가브리엘교회와 동 지역활동센타(가칭)」 건설에 관  
 한 건 가결
- 제2회 일한 역사 학습회 「관동대지진, 신세타령」(관동3교구)  
 일본성공회 조직성립100주년 기념 신도연수회(이쿠노지구 현장학습과  
 영화, 강연)  
 전국 주일학교교사연수회 등에서 일한 문제를 학습  
 북관동교구, 관구 일한협동위원회 공동주최로 일본성공회 조직성립100  
 주년 기념대회에 맞추어 「현지에서 배우는 가브리엘교회, 이쿠노지구  
 를 찾아」라는 신도연수회 실시
- 6월      서울-동경 성직교류로 유재호 신부, 김용국 신부가 동경교구 방문 연  
 수
- 한국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접선거 실시 결정)
- 8월      요코하마교구, 「함께 살아가는 의미의 발견 - 재일한국조선인과의 친  
 교 가운데」 개최

- 日本聖公会組織成立 100 年記念信徒研修会(生野地区フィールドトリップと映画講演)  
 全国日曜学校教師研修会などでの日韓の問題の学び  
 日本聖公会組織成立 100 年記念大会に合わせ「現地に学ぶーガブリエル教会、生野地区を訪ねて」という信徒研修会を北関東教区は管区の日韓協働委員会と共催
- 1988 年 6 月 ソウル教区から劉裁鎬(ユ・ジェホ)、金容国(キム・ヨングク)の2神父が東京教区を訪問、研修  
 韓国・民主化宣言(大統領直接選挙制へ)
- 8 月 「共に生きることの発見ー在日韓国朝鮮人の交わりの中から」開催(横浜教区)
- 9 月 第3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身世打鈴」(関東3教区)
- 5 月 第40定期総会で、日韓協働委員会の設置を決議(目的、①日韓両聖公会の宣教協働、②在日韓国朝鮮人問題と取り組む。)  
 第三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プサン)。  
 聖公会神学院第30回臨床牧会訓練(PCT)中にスーパーヴァイザーによる差別発言が起こる  
 大阪教区会、木川田一郎主教開会演説「聖ガブリエル教会は関係の委員会と連動して教務局報告のように募金は順調に進んでおります。日本聖公会総会の決議による全国募金は本年より三ヶ年実施されます。これらのプロジェクトのために教区の資源の活用を願うと同時に、皆さまのより一層のご支援をお願い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大阪教区)」  
 沖縄教区時報(No. 290)、ソウル教区「主教座聖堂へ機動隊乱入」一面トップ、主教コーナーで「第三回日韓宣教セミナー」記事掲載  
 竹田真主教(東京教区)按手式でソウル教区李天煥(イ・チョンファン)前主教が説教
- 8 月 東京教区では第2回青年セミナーをソウルで開催すべく準備したが、ソウルオリンピック開催に伴う種々の状況から今年度開催は不可能となった。このため、聖公会神学院を会場に8月22日から4日間、日韓青年交流研修会を行った。ソウル教区から朱成植(チュ・ソンシユク)伝道師、金善玉(キム・ソンオク)姉が参加した
- 9 月 ソウル教区聖職研修としてソウルから洪永善(ホン・ヨンソン)、李定九(イ・ジョング)2神父を東京教区で受入れ、3週間の研修を行った。  
 第4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川崎地区現場研修」(関東3教区)
- 10 月 ソウルオリンピック開催
- 1989 年 聖ガブリエル教会土地取得。同地域活動センター運営準備委員会に参画。
- 8 月 北関東教区ガブリエル委員会主催で大阪・聖ガブリエル教会訪問と生野地域フィールドトリップ実施
- 9 月 大阪教区聖ガブリエル教会での研修会「出会い in 生野」実施  
 第5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聖公会在日信徒の証言」(関東3教区)
- 10 月 大阪教区在日韓国朝鮮人協働委員会、教区礼拝で一人芝居「身世打鈴」を開催  
 大韓聖公会宣教百年にメッセージを送り祝意をあらわす。(九州教区第80定期教区会

- 1988년 9월 제3회 일한 역사 학습회 「신세타령」(관동3교구)
- 1988년 5월 제40회 정기총회 일한협동위원회 설치 결의(목적 ①일한 양국성공회의 선교협동 ② 재일한국조선인문제 해결 노력)
- 제3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부산)**  
성공회신학원 제30회 임상목회훈련(PCT) 중에 관리자의 차별 발언발생 오오사카교구회, 키카와다 주교 개회연설 「성가브리엘교회는 관련 위원회와 연계하여 교무원 보고와 같이 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성공회 총회 결의에 따른 전국 모금은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실시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교구 자원의 활용해 주기를 바라며 동시에 여러분이 더욱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키나와교구시보(290호) 서울교구 「주교좌성당에 기동대 난입」 1면 톱으로, 주교 코너에서 「제3회 일한선교세미나」 기사 게재
- 8월 동경교구는 제2회 청년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서울 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러 상황으로 금년도 개최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성공회신학원을 장소로 8.22부터 4일간 일한청년교류회를 실시하였다. 서울교구로부터 주성식 전도사, 김선옥 씨가 참가.
- 9월 서울-동경 성직자교류로 홍영선 신부, 이정구 신부가 동경교구 방문, 3주간 연수 실시
- 제4회 일한 역사 학습회 「가와사키지구 현장연수」(관동3교구)
- 1989년 10월 **서울 올림픽 개최**  
성가브리엘교회 토지 취득. 동 지역 활동센터 운영준비위원회 기획
- 8월 북관동교구 가브리엘위원회, 오오사카 성가브리엘교회방문 및 이쿠노 지구 현장학습 개최
- 9월 오오사카교구, 성가브리엘교회 연수회 「이쿠노에서의 만남」 실시  
제5회 일한 역사 학습회 「성공회 재일교포 마음의 증언」(관동3교구)
- 10월 오오사카교구 재일한국조선인협동위원회, 교구예배에서 일인극 「신세타령」 개최
- 큐슈교구 제80회 정기교구회,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의, 채택
- 오오사카 성가브리엘교회 병설 성공회이쿠노센터 건설을 위한 모금과 더불어 북관동교구 가브리엘위원회가 교구내 14교회를 순회하며 작성 자료와 비디오 감상 등을 통한 일한 역사 학습회 실시
- 1990년 1월 요코하마교구 교구보, 성가브리엘교회에 대한 기사 게재
- 4월 북관동교구 일치 합동예배(4.29 쿠사츠·쿠리이야쿠센엔)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서」를 테마로 일본기독교단 세키다 히로오 목사를 초청, 재일한국·조선인 역사 이야기 청취. 또한 오오사카교구 성직 신도와 성가브리엘교회 신도를 초청, 전야부터 숙박 교류를 통해 가브리엘교회와 이쿠노센터에 대한 이해를 공유
- 7월 동경~서울교구 청년교류는 7월에 서울에서 실시
- 8월 서울교구에서 4명의 청년을 초청, 동경, 오오사카(이쿠노)에서 연수 실시. 9월에는 동경교구 청년 4명이 서울 방문
- 동경-서울교구 청년교류 제2회 이쿠노 연수가 실시되어 동경에서 7명,

- 決議)
- 大阪・聖ガブリエル教会併設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建設募金を兼ねた日韓の歴史を学ぶ会を、資料作成、ビデオ鑑賞などを通して北関東教区内 14 教会をガブリエル委員会のメンバーが巡って開催
- 1990 年 1 月 聖ガブリエル教会についての記事掲載 (横浜教区)
- 4 月 北関東教区一致の日合同礼拝(4 月 29 日、草津・栗生楽泉園)において「共に生きる道を求めて」というテーマの下、日本基督教団関田寛雄牧師を招き、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の話を伺う。また大阪教区の聖職信徒と聖ガブリエル教会信徒も招き、前夜からの宿泊交流を通してガブリエル教会と生野センターの理解を共有
- 7 月 東京～ソウル青年交流は 7 月にソウルで実施
- 8 月 ソウル教区から青年 4 名を招待し、東京、大阪(生野)で研修会を行う。9 月には東京から 4 名の青年がソウル教区を訪問  
東京～ソウル青年交流第 2 回目の生野研修が実施され、東京から 7 名、大阪教区から 2 名、ソウルから 2 名他が参加して行われる
- 9 月 **第四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ソウル) 大韓聖公会宣教 100 年**  
PCT 問題と取り組む会への協力。現状報告会(目白)開催  
聖公会ガブリエル教会建設のための地域アンケート調査センター実施。民族差別的な回答もでる  
聖ガブリエル教会は生野に於いて移転感謝礼拝開催  
九州教区「在日韓国・朝鮮人民族差別を共に考える日」集会主題:「人間の尊厳」講師:崔昌華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小倉教会)  
中部教区法用渉主教が大韓聖公会宣教百年記念式に列席  
沖縄教区時報(No. 310)に生野センター支援バザーで金賢玉さんを講師にキムチの講習会開催  
沖縄教区時報(No. 311)に聖ガブリエル教会募金委員会報告  
ソウルで大韓聖公会宣教百年記念式典開催  
第 6 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1991 年問題」(関東 3 教区)
- 10 月 ソウル教区聖職、金栄一(キム・ヨンイル)、崔勝哲(チェ・スンチョル)両神父が来日、2 週間にわたって研修を受ける  
大田教区から沖縄教区へ車璟恵神父出向勤務 1994 年まで
- 11 月 「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を励ます会」(横浜教区)
- 1991 年 2 月 聖公会生野センター呉光現主事が九州教区訪問。北九州、筑豊、福岡、熊本、久留米の各教会で交流。2 月 29 日:福岡、3 月 1 日:久留米で「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働きを通して在日韓国・朝鮮民族の問題を問う」と題して特別集会開催
- 4 月 北関東教区信徒一致の日合同礼拝後に志木聖母教会新礼拝堂聖別式の柿落としに在日韓国舞踊団を招き公演開催
- 6 月 中部教区韓国研修旅行を実施。参加者は教役者 12 名、信徒 9 名の計 21 名。  
沖縄教区時報(No. 326)、沖縄教区婦人会の静想日が開催されチャブレンの車神父の講

- 오오사카교구에서 2명, 서울에서 2명이 참가
- 9월 제4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서울)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  
 PCT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과 협력하여 현황보고회 개최(메지로교회)  
 성공회 가브리엘교회 건설을 위한 지역양케이트조사를 실시. 민족차별  
 적인 회답도 있었다. 성가브리엘교회 이쿠노에서 이전감사예배 개최  
 큐슈교구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차별을 함께 생각하는 날」 주최. 주  
 제 : 「인간의 존엄」 강사 : 최창화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오쿠라교  
 회)  
 중부교구 호요 와타루 주교가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오키나와교구 시보(310호) 이쿠노센타 지원 바자회에서 김현옥씨를 강  
 사로 김치 강습회 개최  
 오키나와교구시보(311호) 성가브리엘교회 모금위원회 보고  
 서울에서 대한성공회 선교100주년 기념식 개최  
 제6회 일한 역사 학습회 「1991년 문제」(관동3교구)
- 10월 서울-동경 성직자교류로 서울교구 김영일 신부, 최승철 신부가 동경교  
 구를 방문, 2주간에 걸쳐 연수  
 대전교구 차경혜 신부가 오키나와교구에 파견 근무(1994년까지)
- 11월 요코하마교구, 「성가브리엘교회·성공회이쿠노센타 지원 모임」 개최
- 1991년 2월 성공회 이쿠노센타 주사 오광현 큐슈교구 방문. 기타큐슈, 치쿠호, 후  
 쿠오카, 구마모토, 쿠루메 각교회와 교류. 2.29 후쿠오카, 3.1 쿠루메  
 에서 「성가브리엘교회, 성공회이쿠노센타 활동을 통해 재일한국·조선  
 민족 문제를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특별집회 개최
- 4월 북관동교구 일치 합동예배 후에 시키성모교회 신축성당성별식 축하식  
 으로 재일한국무용단을 초청, 공개공연
- 6월 중부교구 한국연수여행 실시. 교역자 12명, 신도 9명 등 21명 참가  
 중부교구 시보(326호) 오키나와교구 부인회 피정에서 지도사제 차경혜  
 신부의 강연과 대한성공회 부인회 전국회장 홍만희씨 이하 7명이 참가  
 한 기사 게재  
 요코하마교구 선교협의회, 주제강연 이인하 목사
- 8월 제1회 노동성서세미나 개최(성공회 이쿠노센타)  
 오오사카교구 제2회 「이쿠노에서의 만남」 연수회 「재미있게 비빔밥  
 을」
- 9월 서울-동경교구 성직자교류로 서울교구 김준배 신부, 최은식 신부가 동  
 경교구를 방문, 2주간 연수(교토, 오오사카 포함)  
 동경교구 사제의 한국 연수 실현. 제1회 마에다 MRI위원장, 나카무라  
 선교위원장이 서울 방문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연합 동시가입  
 제7회 일한 역사 학습회 「치마저고리를 입은 일본인」(관동3교구)
- 1992년 3월 큐슈교구, 「중군위안부 문제 큐슈기독교사회」 결성에 참가  
 「성가브리엘교회 및 성공회이쿠노센타 준공 성별식」은 3.29 서울교구  
 의 김성수 주교를 초청, 키카와다 주교와 공동집전으로 성대히 실시.

- 話と大韓聖公会婦人会全国会長洪曼姫(ホン・マンヒ)以下7名の参加があったことを記載
- 横浜教区宣教協議会：主題講演：李仁夏牧師
- 8月 第1回労働聖書セミナー開催(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2回”出会い in IKUNO”研修会「ピピムパプを楽しもう」(大阪教区)
- 9月 教役者人事交流として、金俊培(キム・チュンペ)、崔銀植(チェ・ウンシク)両神父が2週間、東京教区で研修(含む京都、大阪)  
東京教区からの司祭の韓国訪問が実現する。第1回として、前田良彦MRI、中村邦介宣教両委員長がソウル訪問を行う  
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連同時加盟  
第7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チマ・チョゴリの日本人」(関東3教区)  
「従軍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九州キリスト者の会」結成(九州教区)
- 1992年 3月 聖ガブリエル教会および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竣工式・聖別式は、3月29日大韓聖公会ソウル教区の金成洙主教をお招きし、木川田主教と共同司式で盛大に行われる  
ソウル教区使節団5名(鄭神父、丁神父、洪司祭、及び車神父他)来訪。中部-ソウル教区交流懇談会を行う。名古屋市内教会・施設、笹島等を見学  
関東三教区生野委員会設立  
外登法国際シンポジウム、日韓の歴史を学ぶ会、GFS指導者研修会、韓国・在日・日本女性フォーラム、外登法の抜本的改正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者1・15集会、部落解放セミナーなどに参加協力。北関東教区、大阪教区、日韓研修旅行実施  
語るシスの会在日韓国・朝鮮人への差別構造と心理学的側面についての学習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 5月 北関東教区第1回韓国研修旅行(5月2日-5日、ソウル)参加者15名。堤岩里教会、水原教会、独立記念館、韓国民俗村、パゴダ公園、景福宮などを訪問
- 6月 大韓聖公会仁川聖ニコラス幼稚園園長・洪神父を団長とする10名の理事、教師団が中部教区を来訪し研修を行う  
沖縄・ソウル合同慰霊祭開催(沖縄教区)
- 8月 こみちむくげの子ども会実施(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2回労働聖書セミナー(8/30~9/5 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1回日韓歴史研修旅行を開催。(大阪教区)  
第8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身世打鈴」(関東3教区)  
「在日韓国朝鮮人の戦後補償を求める全国キャンペーン・横浜集会」(横浜教区)
- 9月 9.1講演会「今、歴史から共に生きる社会へ」鄭早苗(チョン・チョミョ) (聖公会生野センター)
- 10月 聖職交流として、ソウルから李哲雨(イ・チョルウ)、金榮会(キム・ヨンフエ)両神父が来日、2週間の研修(関西訪問を含む)  
東京教区からのソウル訪問は、笹森田鶴聖職候補生と高橋宏幸司祭が参加、3週間にわたって研修



- 서울교구 사절단 5명(정연우, 정철범, 홍충남, 차인환 신부) 방일. 중부-서울교구 교류간담회 실시. 나고야 시내교회와 시설, 사사지마센타 등 견학
- 관동3교구 이쿠노위원회 설립
- 외등법 심포지움, 일한 역사 학습회, GFS지도자 연수회, 한국·재일·일본여성 포럼, 외등법 근본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 1.15집회, 부락해방세미나 등에 참가 협력. 북관동교구와 오오사카교구가 일한 연수여행을 실시
- 수녀들의 대화 모임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구조와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연수회」(성공회이쿠노센타)
- 5월 북관동교구 제1회 한국연수여행(5.2-5, 15명 참가). 제암리교회, 수원교회, 독립기념관, 한국민속촌, 파고다공원, 경복궁 등 시찰
- 6월 대한성공회 인천 성니콜라유치원장 홍영선 신부를 단장으로 10명의 이사, 교사 등 중부교구 방문 연수 실시
- 7월 오키나와교구-서울교구 합동 위령제 개최. 서울교구 대성당주임사제 김재열 신부, 대한성공회 전국어머니연합회장 홍만희씨,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성가대 62명 참가
- 8월 코미치 무궁화 어린이회 실시(성공회이쿠노센타)
- 제2회 노동성서 세미나(8.30-9.5, 성공회이쿠노센타)
- 오오사카교구, 제1회 일한역사 연수여행 개최
- 제8회 일한 역사 학습회 「신세타령」(관동3교구)
- 요코하마교구 「재일한국·조선인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전국캠페인 요코하마 집회」 참가
- 9월 9.1 강연회 「역사로부터 공생 사회로」 정 조묘(성공회이쿠노센타)
- 10월 서울-동경 성직자교류로 서울교구 이철우 신부, 김영희 신부가 동경교구를 방문, 2주간 연수(관서 방문 포함). 동경교구에서는 사사모리 성직후보생과 타카하시 히로유키 사제가 서울교구를 방문, 3주간 연수
- 12월 FM사랑 개국(12.8 성공회이쿠노센타)
-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일한주교회의에서 대한성공회로부터 성가브리엘교회 현금 1,394,000엔을 감사히 수령
- 오키나와교구 시보(331호) 오키나와·서울교구 합동위령제 -신앙과 문화의 교류- (7.2-6) 합동위령제실행위원회 명의 기사, 오키나와교구 시보(332호, 7-8월 합병호) 오키나와·서울교구 합동위령제 기사 게재
- 1993년 2월 FM사랑 개국기념 콘서트(2.2 토우세이구민홀 250명, 성공회이쿠노센타)
- 김영삼 대통령 취임(문민정권)
- 3월 3.1집회 「일본의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모임 - 제한피폭자 문제」 마츠이 요시코(성공회이쿠노센타)
- 4월 대한성공회 관구독립(초대관구장 김성수주교)
- 호리에 아키오 1년간 서울교구 봉천동 나눔의집에서 한국지역활동연수(성공회이쿠노센타)

- 12月 FM サラン開局 (12/8 聖公会生野センター)  
 韓国ソウルでの第3回日韓合同主教会の際、大韓聖公会から聖ガブリエル教会に対し  
 1,394,000円の献金があり感謝を持って受領  
 沖縄教区時報(No. 331)に沖縄・ソウル合同慰霊祭—信仰と文化の交流—(7/2—6)合同  
 慰霊祭実行委員会掲載  
 沖縄教区時報(No. 332)7、8月合併号に沖縄・ソウル教区合同慰霊祭の掲載。大韓聖公  
 会婦人会全国会長洪曼姫(ホン・マンヒ)さん、ソウル教区大聖堂主任金在烈(キム・ジェ  
 ヨル)神父、ソウル教区婦人連合会聖歌隊(オモニ合唱団)62名も参加
- 1993年 2月 FM サラン開局記念コンサート(2/2 東成区民ホール 250名)(聖公会生野センター)  
 金泳三大統領就任(文民政権)
- 3月 3.1集会「日本の戦後責任を考える集い在韓被爆者」松井義子(聖公会生野センター)
- 4月 大韓聖公会管区独立(初代管区長主教金成洙)  
 堀江彰夫韓国地域活動研修(1年間)ソウル教区奉天洞分かち合いの家(聖公会生野セ  
 ンター)  
 北関東教区第2回韓国研修旅行(4月15日—18日、ソウル)参加者8名。パゴダ公園  
 南山公園、安重根記念館、江華島、大聖堂を訪問
- 5月 大韓聖公会・管区独立記念式典・金成洙主教初代首座主教就任  
 聖公会生野センター横浜教区友の会結成
- 8月 韓国・鄭泰春・朴恩玉大阪公演(エル大阪 600名)(8/6 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五回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東京、川崎)  
 第9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聖餐式に合流」(関東3教区)  
 日韓の歴史と今を学ぶ聖公会青年の旅
- 10月 聖職交流として、ソウル教区から姜光夏(カン・グアンファ)、全碩達(ジョン・ソク  
 ダル)両神父が2週間にわたる研修。東京教区からは、宮崎光執事、香山洋人聖職候  
 補生がソウルにおいて研修
- 11月 在日一世老人自立生活支援(聖公会生野センター)  
 聖三一教会が蔚山の聖バルナバ教会、練馬聖ガブリエル教会が仁川のカンソク教会と  
 それぞれ姉妹関係を結び青年を含む交流が行われる
- 1994年 2月 第10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三一独立運動を聴く」(関東3教区)
- 3月 東京教区機構改革が行われ、MR I委員会が解散、日韓小委員会は(前田良彦司祭)  
 「日韓プロジェクト」と改称
- 5月 第46定期総会にて、1995年に宣教協議会を開催することを決議。委員長宮嶋眞司祭
- 7月 金日成主席死亡
- 8月 第11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張準相牧師の苦難と信仰」(関東3教区)
- 9月 9.1講演会「今チマチョゴリが襲われている民族排外意識とその克服の為に」飛田雄  
 一(聖公会生野センター)  
 精神障害者の地域生活支援(聖公会生野センター)  
 九州教区は大韓聖公会大田教区退職司祭車環恵司祭を大口聖公会牧師に任命(在

- 북관동교구 제2회 한국연수여행(4.15-18, 서울, 8명 참가). 파고다공원, 남산 안중근 기념관, 강화도, 대성당 방문
- 5월 대한성공회 관구독립 기념식, 김성수 초대 관구장주교 취임  
 일한 역사와 오늘을 생각하는 성공회 청년들의 여행  
 성공회이쿠노센타 요코하마교구 친교회 결성
- 8월 한국가수 정태춘·박은옥 오오사카 공연(8.6 에르오오사카, 600명, 성공회이쿠노센타 주최)  
**제5회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동경, 가와사키)**  
 제9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일한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 성찬식에 합류」(관동3교구)  
 일한 역사와 오늘을 생각하는 성공회 청년들의 여행
- 10월 서울-동경 성직자 교류로 서울교구 강관석, 전석달 신부가 동경 방문, 2주간 연수. 동경교구 미야자키 히카리 부제, 카야마 히로토 성직후보생 서울 방문 연수
- 11월 제일교포 1세 노인자립생활 지원(성공회이쿠노센타)  
 동경교구 성삼일교회-울산성바르나바교회, 네리마 성가브리엘교회-인천간석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청년을 포함, 다양한 교류 실시
- 1994년 2월 제10회 일한 역사 학습회 「3.1독립운동에 대해」(관동3교구)
- 3월 동경교구 기구개혁으로 MRI위원회 해체, 일한소위원회(마에다 요시히코 사제)는 「일한프로젝트」로 개칭
- 5월 제46회 정기총회 「1995년 선교협의회」개최 결정. 위원장 미야지마 사제
-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 8월 제11회 일한 역사 학습회 「장준하 목사의 신앙과 삶」(관동3교구)
- 9월 9.1 강연회 「치마저고리가 습격당하고 있는 민족배타의식과 그 극복을 위해」 히다 유이치(성공회이쿠노센타)  
 정신장애자의 지역생활지원(성공회이쿠노센타)  
 큐슈교구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퇴직사제 차경혜신부를 오오구치교회 목사로 임명(임기:1994-1998년)  
 제12회 일한 역사 학습회 「한신대지진과 관동대지진」(관동3교구)
- 11월 큐슈교구 사회문제연구회 「코스모스」 발행. 특집 「재일한국·조선인 문제, 부락문제」  
 서울-동경 성직자교류로 서울교구 이경호, 정길섭 신부 방일, 교구내 교회방문, 일본성공회 상황, 여성사제 관련 정보교환 등 연수. 동경교구 시모조 히로유키 사제, 소마토리 켄이치 부제 서울방문 2주간 연수
- 1995년 2월 중부교구와의 자매결연 체결협의를 위해 이재정 신부(성공회대학장, 서울교구 국제교류위원장), 방승희씨(한일협동위원장), 이정호 신부(서울교구 총무부장)가 방일
- 3월 동경교구 선교위원회가 「일한프로젝트」를 「일한·재일문제」와 「일한교류」등 2개의 프로젝트로 분리 설치하자는 의안을 제출 승인받다. 이후 대한성공회와의 교류는 「일한프로젝트」가 담당  
 제13회 일한 역사 학습회 「제암리교회 학살사건」(관동3교구)

- 任:1994年～1998年)。
- 第13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阪神大震災と関東大震災」(関東3教区)
- 11月 九州教区社会問題研究委員会より「こすもす」発行。在日韓国・朝鮮人問題、部落問題を特集
- 東京教区から下条裕章司祭、柚取賢一執事をソウル教区に派遣、約2週間研修
- ソウル教区から李京浩(イ・ギョンホ)、鄭吉燮(ジョン・キルソプ)両神父が来日、東京教区内の教会訪問、日本聖公会の状況、女性司祭についての情報交換その他の研修
- 1995年 2月 中部教区との姉妹教区関係締結について協議のため、李在禎神父(聖公会大学、学長・ソウル教区国際交流委員長)、方承熹氏(韓日協働委員長)、李貞浩神父(ソウル教区総務部長)が来訪
- 3月 東京教区・宣教委員会から「日韓プロジェクト」を「日韓・在日問題」と「日韓交流」の2つのプロジェクトに分けて設置する議案を提出し承認された。以後、大韓聖公会との交流に関しては「日韓交流プロジェクト」が担当することとなる
- 第12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堤岩里教会虐殺事件」(関東3教区)
- 5月 日韓聖公会宣教セミナー合同評価会(プサン)韓日協働委員会開催。10年間の合同評価会を実施。報告書に調印8月に予定した日韓青年キャンプは韓国から日本へ阪神大震災復興支援団(第1回日韓青年ワークキャンプ)を送ることを決定
- ソウルに於いて「日本聖公会中部教区・大韓聖公会ソウル教区姉妹関係協約書」に両教区主教が署名
- 8月 第1回日韓青年ワークキャンプ(阪神淡路大震災、復興支援のため)
- 9月 9.1講演会「阪神大震災と在日韓国・朝鮮人震災下在日と日本人は如何に協働したのか」角瀬克巳司祭、金信鋪(9/9 聖公会生野センター)
- 阪神大震災被災弱者支援センター神戸に拠点長田区を中心に活動を展開(聖公会生野センター)
- 九州教区第87定期教区会開会礼拝で車環恵司祭が説教。同教区会決議第36号「本教区会は、第二次世界大戦後50年の年に際し、今夏開催された管区宣教協議会に呼応し、当教区が50年手をつけることなく過ごした「戦争に関する検証」に着手することを決意し、次期定期教区会で「戦争責任告白」を表明することを目指して、各個教会が十分に学習・作業を積み重ねることを決議する。」
- ソウル教区「分かち合いの家」より8名来名。[兼山ダム、丸山ダム、久々利洞窟 etc. 戦時中強制連行された韓国・朝鮮人強制労働の跡をたどる]を主催(中部教区)
- 11月 韓日聖公会合同会議(済州島)。8月に行われた日韓青年ワークキャンプを評価し、今後も青年キャンプの継続に合意。「歴史に生きる教会」というテーマで宣教協議会実施に向けて協力
- ソウル教区の丁哲範(ジョン・チョルボム)師の主教按手式
- ソウル教区において東京～ソウル両教区協議会を実施、東京教区から前田良彦、長谷川正昭両司祭、香山洋人執事ほか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など6名が参加、ソウル教区

- 5월 **한일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평가회(부산)** 양국 한일협동위원회 공동 개최로 10년간의 합동평가회 실시, 보고서 조인. 8월로 예정한 일한청년캠프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한신대지진 부흥지원단을 보내기로 결정 (제1회 일한청년 워크캠프)  
서울에서 「일본성공회 중부교구·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자매결연 협약서」에 양교구 주교가 서명
- 8월 **제1회 한일청년 워크캠프**(한신아와지대지진 부흥지원을 위해)
- 9월 9.1강연회 「한신대지진과 재일한국·조선인 재해중 일본인은 어떻게 협력했는가」 츠노세 카츠미 사제, 김신보(9.9 성공회이쿠노센타)  
한신대지진 피해자지원센타 코베를 거점으로 나가타쿠 중심으로 활동 전개(성공회이쿠노센타)  
큐슈교구 제87회 정기교구의회 개최예배 차경혜 신부 설교. 동의회 결의 36호 「본 의회는 제2차세계대전후 50주년을 맞아 금년 여름 개최되는 선교협의회에 호응, 본 교구가 50년간 방치했던 <전쟁문제 검증> 착수를 결의하고 차기 정기교구의회 때 <전쟁책임고백> 표명을 목표로 개별교회가 충분한 학습과 작업을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서울교구 나눔의집 8명 방일. 「렌잔담, 마루야마담, 히사토네동굴 등 전시중 강제연행된 한국·조선인 강제노동 사적지를 찾아」 실시
- 11월 **한일성공회 합동회의(제주도)** 8월 실시된 일한청년 워크캠프를 평가하고 이후 청년캠프 계속 실시 합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테마로 선교협의회 실시를 향해 협력기로 합의  
서울교구 정철범 주교 서품식  
서울에서 동경-서울교구 협력관계 협의회 개최. 동경교구에서 마에다, 하세가와, 카야마 등 프로젝트 위원 6명 참가, 서울교구와 이후의 교류와 협력관계에 대해 협의 및 확인  
타카하시 켄 사제, 야기 마사코토 사제가 서울교구 방문 연수
- 12월 서울-동경교구 성직자 교류로 안철혁, 조영준 신부가 방일, 동경 중심으로 연수
- 1996년 2월 서울교구의회에 중부교구 호요 와타루 주교, 노무라 키요시 사제 교구 대표로 출석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생 일본 연수
- 3월 3.1 집회 「한국·아시아의 물음과 일본인 우리 자신의 응답」 야와타 아키히코(성공회이쿠노센타)  
제14회 일한 역사 학습회 「신세타령」(관동3교구)
- 4월 성공회 나가타센타 개설(한신대지진 피해자지원센타)
- 5월 한국 진도 모세의 기적 여행(성공회이쿠노센타)  
성공회이쿠노센타 기관지 「울림」 창간  
중부교구 야노 사제, 키쿠치 신지, 고토우 이치로 부제 2주간 서울교구 방문 연수, 서울교구 대성당 증축예배에 시부사와 이치로 사제를 단장으로 부인회원 등 5명이 참가
- 6월 95년 선교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 북관동교구 교역자 9명 한국 연수 여행. 제암리교회, 온양민속박물관, 수원교회, 독립기념관,

- 側と今後の交流と協働の在り方について協議し確認  
高橋顕司祭と八木正言執事がソウル教区を訪問研修。プロジェクトでは、そのためのソウル教区との調整
- 12月 ソウル教区から安哲赫（アン・ Cholヒョク）神父と曹永俊（ジョ・ヨンジュン）神父の2名が来日、東京教区を中心に研修を行う
- 1996年 2月 ソウル教区会に法用渉主教、野村潔司祭が教区代表として出席（中部教区）  
聖公会大学社会福祉学科教員・学生研修  
日韓の歴史を学ぶ会「江華島事件から安重根まで」（横浜教区）
- 3月 3.1集会「韓国アジアからの問いかけと日本の私たちの応答」八幡明彦（3/9 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14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身世打鈴」（関東3教区）
- 4月 聖公会長田センター開設
- 5月 韓国旅行珍島海割れツアー（5月聖公会生野センター）  
聖公会生野センター機関誌「ウルリム」創刊  
箭野直路司祭、菊地伸二兄、後藤一郎執事、2週間ソウル教区を訪問し研修（中部教区）
- 6月 ソウル教区大聖堂増築礼拝に濹澤一郎司祭を団長に、婦人会役員など5名が参列  
宣教協議会の実質化に向けて考える。北関東教区教役者韓国研修旅行。参加者9名。堤岩里教会、温陽民俗博物館、水原教会、独立記念館、韓国民俗村、昌徳宮、秘苑、聖公会大学、大聖堂などを訪問  
ソウル教区李完洪（イ・ワンホン）神父、崔相錫（チェ・サンソク）神父が中部教区を訪問。各伝道区の教会・施設を回り、教役者、信徒と交流  
日韓の歴史を学ぶ会「海峡をはさんで私たちは出発した」（横浜教区）
- 7月 「古代朝鮮と日本」講演会講師：鄭早苗（チョン・ジョミョ）  
ソウル教区・東京教区交流のための協議
- 8月 第2回日韓青年文化キャンプ（ソウル、水安堡）「隣人とは誰か」独立記念館などの見学。日韓の青年による文化交流  
草津楽泉園在日韓国朝鮮人入園者の身の上話聞き取り調査開始
- 9月 9.1講演会「女・在日・日本社会」辛淑玉（シン・スゴ）（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神戸教区報・神のおとずれに長田プロジェクト主催「韓国ツアー」の記事掲載。7/8～7/12実施。参加者10名。（内神戸教区信徒5名）
- 9月 森一郎司祭を団長とする22名の参加で、愛岐伝道区韓国研修旅行（「友だちづくりの旅」）開催  
中部教区婦人会総会に出席するため、ソウル教区オモニ連合会の代表4名名古屋を訪問  
日韓の歴史を学ぶ会「朝鮮観の源流を求めて」（横浜教区）  
第15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生野からの響き」（関東3教区）

- 민속촌, 창덕궁, 비원, 성공회대학, 서울대성당 등 방문  
 서울교구 이완홍 신부, 최상석 신부 중부교구 방문. 각전도구 교회와 시설을 견학하며 성직신도와 교류  
 요코하마교구,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 「해협을 사이로 우리는 출발했다」
- 7월 「고대 조선과 일본」 강사 : 정조묘  
 서울교구-동경교구 교류를 위한 협의
- 8월 제2회 한일청년문화캠프(서울, 수안보) 「누가 이웃인가?」. 독립기념관 등 견학과 일한 청년들간의 문화교류  
 쿠사츠 야쿠센엔 재일한국·조선인 입원자 청취조사 개시
- 9월 9.1 강연회 「여성·재일·일본사회」 신숙옥, 오오사카조난기독교교회(성공회이쿠노센타)  
 코베교구 교구보, 나가타프로젝트 주최 「한국 여행」(7.8-12. 10명 참가, 이 중 코베교구신도 5명) 기사 게재  
 모리 이치로 사제를 단장으로 22명이 참가하여 아이기 전도구 한국연수여행 「친구 만들기 여행」 개최  
 중부교구 부인회총회에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대표 4명 방문(나고야)  
 요코하마교구,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 「조선관의 원류를 찾아서」  
 제15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이쿠노로부터의 울림」(관동3교구)
- 10월 제11회 재일 협력을 위한 간담회 「아스카를 찾아서」  
 오오사카교구 재일선교협동시리즈 소책자 「일한 교류의 고향. 아스카를 찾아서, 역사가도 낭만 여행」 1,000부 발행  
 BT프로젝트 20주년 기념예배(부산), 코노 히로미치 사제 참석  
 서울-동경교구 성직자연수로 서울교구 이현우, 강관석 신부 동경 방문
- 11월 큐슈교구 제88회 정기교구회 결의 제28호  
 「본 교구의회는 일본성공회 제49회 정기총회 제34호 결의에 호응하여 일본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다음 선언을 결의한다.」(선언문 생략)  
 큐슈교구는 본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 실천해 나간다.  
 (1) 사회문제연구위원회가 제정한 특도를 계속 사용한다  
 (2) 각 교회에서 학습을 계속해나간다  
 (3) 일본이 침략한 각국 교회(교구)와의 교류를 통한 경험적 학습 실현에 노력한다.  
 중부교구의회에 서울교구 교무국장 석광훈신부, 박경조신부, 유시경신부, 한일협동위원장 방승희씨가 출석  
 동경교구 사사키 요우 사제, 요시무라 쇼지 사제가 서울교구 방문 연수
- 1997년 2월 서울교구의회에 시부사와 이치로 사제, 노무라 키요시 사제, 중부교구 부인회장 사토우 사치코씨, 회원 나가이 시호코씨 참석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생 일본연수  
 서울대성당 어머니회성가대 방일, 동경 성안드레교회에서 공연
- 3월 3.1 집회 「일한 기독교회사와 기도」 이다 이즈미(성공회이쿠노센타)  
 제16회 일한 역사 학습회 「3.1운동과 일본기독교의 대응」(관동3교구)

- 10月 第11回在日協働のための懇談会「明日香を訪ねて」  
 ブックレット在日宣教協働シリーズ「日韓交流のふるさと。明日香を訪ねて、歴史街道ロマンの旅」発行。1000部 (大阪教区)  
 BTプロジェクト20周年記念礼拝  
 ソウル教区李賢宇(イ・ヒョヌ)、姜寛錫(カン・ワンソク) 司祭東京教区訪問
- 11月 九州教区第88定期教区会・決議第28号  
 「本教区会は、日本聖公会第49(定期)総会決議第34号に呼応し、日本聖公会の戦争責任に関する下記の宣言を決議する。」(宣言文省略)九州教区は、本宣言を踏まえて次のことに継続して取り組みます  
 (1)社会問題研究委員会が制定した特祷を継続して使用すること  
 (2)各教会で学習を継続すること  
 (3)日本が侵略した諸国の教会(教区)との交流による体験的学習の実現に向けて努力  
 中部教区会にソウル教区教務局長石光勲(ソク・クアンフン) 神父他4名の聖職・信徒が出席  
 佐々木庸、吉村庄司司祭ソウル教区訪問
- 1997年 2月 ソウル教区教区会に洪澤一郎、野村潔司祭、中部教区婦人会会長佐藤幸子、同役員永井志保子参席  
 聖公会大学社会福祉学科教員・学生訪問研修  
 ソウル大聖堂オモニ会連合聖歌隊来日。聖アンデレ教会で公演(東京教区)
- 3月 3.1集会「日韓キリスト教史と祈り」井田泉司祭(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16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三一独立運動と日本人キリスト者の対応」(関東3教区)
- 6月 聖公会生野センター開設5周年記念イベント「夢あれ・河あり・人の間に光りあれ」  
 出演マルセ太郎・永六輔・金成亀・趙博(大阪女学院1000名)  
 小倉・福岡・佐世保教会で呉光現主事講演(九州教区)  
 ソウル・東京21世紀宣教大会実施(韓国・楊平)  
 日韓の歴史を学ぶ会「閔妃暗殺から安重根まで」(横浜教区)  
 ソウルー東京宣教大会。主題「教会、未来、挑戦」(韓国・陽平)。共同報告書採択
- 7月 「日韓交流史雨森芳州の想い」講師：鄭早苗
- 8月 **第3回日韓青年交流キャンプ(広島、呉、関西)**「平和と一致」被爆都市ヒロシマに学ぶとともに、軍港呉を含む軍都ヒロシマの歴史に触れる。六甲山にて、聖書研究と交流  
 対馬研修旅行(大阪教区)  
 ソウル教区金在烈(キム・ジェヨル)、張今煥(チャン・グムファン)、朴耕造(パク・キョンジョ) 司祭中部教区訪問
- 9月 9.1講演会「地域社会で共生社会を考える」(8/24大阪聖アンデレ教会,8/31芦屋聖マルコ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17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女として、在日として日本社会に生きる」(関東3教区)  
 ブックレット「在日宣教協働シリーズ」vol.4「日韓キリスト教史と祈り」発行



- 6월 성공회이쿠노센타 개설5주년 기념행사「꿈·강·사람에게 빛이」 출연 : 마르세타로, 나가로쿠보, 김성구, 조박(오오사카 풀여학원, 1,000명) 큐슈교구 오쿠라, 후쿠오카, 사세보교회에서 오광현 주사 강연  
서울-동경 21세기 선교대회(6.16-19, 주제 「교회, 미래, 도전」, 한국 양평), 공동보고서 채택  
요코하마교구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 「민비 암살에서 안중근까지」
- 7월 일한교류사 「아마모리 호우슈의 기억」 강사 : 정조묘
- 8월 제3회 일한청년교류캠프(히로시마, 쿠레, 칸사이) 「평화와 일치」 피폭도시 히로시마에서 배움과 동시에 균형 쿠레를 포함한 군대도시 히로시마의 역사를 배움. 롯코산에서 성서연구와 교류  
오오사카교구 쓰시마 연수여행  
서울교구 김재열 신부, 조금환 신부, 박경조 신부가 중부교구 방문  
9.1 강연회 「지역사회에서 공생사회를 생각함」 8.24 오오사카 안드레 교회, 8.31 아시아 성마르코교회(성공회이쿠노센타)
- 9월 제17회 일한 역사 학습회 「여성으로, 재일한국·조선인으로 일본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관동3교구)  
오오사카교구 재일선교협동시리즈 소책자 4호. 「일한 기독교회사와 기도」 발행
- 10월 재일선교협동시리즈 소책자 5호. 「이쿠노센타 5주년 좌담회」 발행  
중부교구 「한국-신뢰의 기도 여행」 실시  
중부교구 야노 마리씨, 타카자와 노보루 사제 서울교구 방문 연수  
동경교구, 21세기선교대회의 후속으로 서울교구 주성식 신부와 고영돈 신부를 초청, 교회성장에 관한 연수회 개최(10.15-23)  
1998년 성공회신학원 「신학의 소리」 제30회 임상목회훈련에 관한 자료집 발행  
외등법문제실천 전국기독자 연락협의회가 입안한 「외국인주민기본법」(안) 제정운동에 협력
- 1월 요코하마교구,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 「일한합병 ~ 3.1 독립운동」
-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 3월 3.1 집회 「『영화 나눔의집』 상영과 강연?」 강혜정, 3.7 오오사카 성바우로교회, 3.8 성가브리엘교회(성공회 이쿠노센타)  
제18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일한 문화의 차이」(관동3교구)
- 7월 서울-동경 성직자연수로 서울교구 석광훈 신부, 이정호 신부 동경 방문
- 8월 제4회 한한청년캠프(서울, 남양주교회)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다 - 나, 이웃, 하느님-」 청년교류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워크캠프  
오오사카교구 제3회 일한역사연수여행 「2개의 『나눔의집』을 찾아서」  
큐슈교구 성공회보육연맹 교사연수로 한국방문, 일한역사 학습
- 9월 9.1 강연회 「조선의 식탁과 일본의 식탁」 정대성, 8.30 오오사카조난기독교회(성공회이쿠노센타)  
동경교구, 21세기선교대회의 후속으로 서울교구 이정호 신부, 이윤제씨를 초청, 연수 및 카파티란과 교류

- 10月 ブックレット「在日宣教協働シリーズ」vol.5「生野センター5周年座談会」発行  
中部教区「韓国—信頼と祈りの旅」実施  
中部教区箭野真理、高澤登司祭ソウル教区訪問、研修  
東京教区、21世紀宣教大会の続きとしてソウル教区の朱成植（チュ・ソンシク）神父と高英敦（コ・ヨンドン）神父を招請。教会成長に関する研修会開催
- 1998年 聖公会神学院「神学の声」聖公会神学院第30回臨床牧会訓練に関する資料集発行。  
「外国人住民基本法」（案）を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で立案し、制定に向けての働きに協力
- 1月 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韓併合から三一独立運動まで」（横浜教区）
- 2月 金大中大統領就任
- 3月 3.1集会『映画ナヌムの家』上映と講演 姜恵楨（カン・ヘジョン）（3/7大阪聖パウロ教会・3/8聖ガブリエル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18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韓文化の違い」（関東3教区）
- 7月 ソウル教区石光勲（ソク・クアンフン）・李貞浩（イ・ジョンホ）司祭東京教区訪問
- 8月 第4回日韓青年キャンプ（ソウル、南楊州教会）「神さまには遠いところがない—わたし、となり、神さま—」。交流とともに、集中豪雨による被害地域復興のワークキャンプ  
第3回日韓歴史研修旅行「二つの『ナヌムの家』を訪ねて」（大阪教区）  
九州教区聖公会保育連盟教師研修で韓国訪問、日韓の歴史を学ぶ
- 9月 講演会「朝鮮の食卓と日本の食卓」鄭大聲（チョン・デソン）（8/30大阪城南キリスト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李貞浩（イ・ジョンホ）司祭、李允載（イ・ユンジェ）氏東京教区訪問。カパティランスタッフと交流  
中部教区新潟聖パウロ教会教役者、信徒、ソウル訪問・研修  
日韓の歴史を学ぶ会「張聖子（チャン・ソンジャ）さんに聴く」（横浜教区）  
第19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私が日本人に求めるもの」（関東3教区）  
東京教区、21世紀宣教大会の続きとしてソウル教区李貞浩（イ・ジョンホ）神父と李允載（イ・ユンジェ）氏を招請。研修及びカパティランと交流
- 10月 中部教区野村潔司祭と東京教区中川英樹聖職候補生がソウル教区で短期研修  
ソウル教区張基容（チャン・ギヨン）、朴晟淳（パク・ソンスン）司祭訪日・研修  
鄭淵優（チョン・ヨヌ）司祭等20名来日・研修
- 11月 ソウル教区会に中部教区森紀旦主教・野村潔司祭参席  
中部教区教区会にソウル教区教務局長石光勲（ソク・クアンフン）司祭、方承熹（パン・スンフィ）氏参席  
ソウル・中部両教区合同交流委員会開催
- 1999年 1月 東京教区初の女性司祭按手式にソウル教区から参席  
2月 名古屋聖ステパノ教会、笹島キリスト教連絡会ソウル訪問。野宿者支援活動見学  
第20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在日と文学」（関東3教区）

- 중부교구 니이가타 성바우로교회 교역자와 신도 서울교구 방문 연수  
요코하마교구 일한 역사를 배우는 모임 「장성자씨에게 듣는다」  
제19회 일한 역사 학습회(관동3교구)
- 10월 중부교구 노무라 키요시 사제와 동경교구 나카가와 히데키 성직후보생  
이 서울 교구에서 단기연수  
서울-동경 성직자 교류로 장기용 신부, 박성순 신부 동경 방문 연수  
서울교구 정연우 신부 등 20명 방일 연수
- 11월 서울교구 의회에 중부교구 모리 주교, 노무라 사제 출석  
중부교구 의회에 서울교구 교무국장 석광훈 신부, 방승희씨 출석  
서울-중부 합동교류위원회 개최
- 1999년 1월 동경교구 여성사제 안수식에 서울교구 방문단 참석(1.6)  
2월 나고야 성스테반교회, 사사지마 기독교연락회 서울 방문, 노숙자지원  
활동 견학  
제20회 일한 역사 학습회 「재일한국·조선인과 문학」(관동3교구)  
3월 일한 역사를 찾는 여행(관동3교구)  
5월 요코하마교구 「아스카의 마을을 찾아서」 실시  
6월 「무엇이 문제인가 『3국인』 발언의 배경에서 보이는 것」 강사 : 타치  
자와 히데키 오오사카상업대학 교수, 오오사카 성바우로교회  
중부교구 성직신도 20명 서울교구 방문  
8월 **제5회 한일청년캠프(오키나와, 나하, 아이라쿠엔)** 오키나와 전쟁의 전  
적지를 찾아 일본 한국인 전쟁희생자 위령, 한센병환자의 고난과 역사  
를 배움. 오키나와 에이사에서 교류회, 아메라지안에 대해 배우다.  
「쿠사츠의 달빛」 쿠사츠 야쿠센엔 거주 재일한국·조선인, 옛 한센병  
환자의 증언을 일한협동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취록, 편  
집하여 성공회출판에서 간행  
9월 9.1 강연회 「『피와 뼈』와 나 - 신체성 상실과 문학」 양석일(성공회  
이쿠노센타)  
한국 나눔의 집 청소년분야 연수를 관서와 나고야에서 실시(성공회이  
쿠노센타)  
제21회 일한 역사 학습회 「한국성공회 나눔의집」(관동3교구)
- 10월 오오사카교구 「단파망간기념관을 찾아서」 연수 실시, 강사 : 기념관  
장 이용식씨  
서울-동경 성직자 교류로 서울교구 윤기수, 조휘빈 신부 동경 방문
- 11월 한일성공회 신학회 제1차 협의회가 11.2-6 한국에서 개최되어 한국측  
15명, 일본측 13명이 참가하여 「교회와 선교», 「신앙과 예배», 「선  
교와 사회」 등 3분야 논의
- 2000년 **한일합동협의회**, 합동평가회 및 문서 교환. (향후 5년간 프로그램 계  
속, 청년들의 주체적 교류를 지원, 관심 분야별 교류 추진 등 합의)
- 3월 3.1 집회 「지역과 함께 걷는 신앙공동체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10년의  
경험에서 배우다」 카야마 히로토, 3.5 오오사카 성애교회(성공회이쿠  
노센타)  
제22회 일한 역사 학습회 「하느님의 기류자와 교회」(관동3교구)

- 3月 ソウル教区大聖堂16名東京教区訪問  
日韓の歴史をたどる旅(関東3教区)
- 5月 明日香の里を訪ねる(横浜教区)
- 6月 「何が問題～『三国人』発言の背景から見えてくるもの」講師瀧澤秀樹先生(大阪商業大学教授)於大阪聖パウロ教会  
中部教区約20名ソウル教区訪問
- 8月 **第5回日韓青年キャンプ(沖縄、那覇、愛楽園)** 沖縄戦の戦跡を訪ね、日本・韓国人戦争犠牲者の慰霊、ハンセン病者の苦難の歴史に学ぶ。沖縄エイサーによる交流。アメリカ人の学び。  
「草津のタルピッ(月あかり)」草津楽泉園在住、在日韓国朝鮮人、元ハンセン病患者の証言集を、日韓協働委員会メンバー、有志による聞き取りをもとに編纂し、聖公会出版より出版
- 9月 9.1講演会『『血と骨』と私一身体性の喪失と文学一』梁石日(ヤン・ソギル)(聖公会生野センター)  
分かち合いの家研修青少年分野(関西・名古屋)(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21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韓国聖公会の分かち合いの家」(関東3教区)
- 10月 研修「丹波マンガン記念館を訪ねる」講師：李龍植(リ・リョンシク)氏(丹波マンガン記念館館長)(大阪教区)  
聖職短期研修でソウル教区ユ・キシユ、チョウ・ヒビン司祭東京教区訪問
- 11月 大韓民国保健福祉部野宿者担当者現場視察(11月大阪釜ヶ崎、名古屋・笹島)(聖公会生野センター)  
韓日聖公会神学会第1回協議会が韓国で開催され、韓国側15名、日本側13名が参加。「教会と宣教」「進行と礼拝」「宣教と社会」等、3分野で論議する
- 2000年 **日韓合同協議会、合同評価会。覚書の交換(5年間のプログラムの継続、青年の自主的交流の支援、関心のある課題ごとの交流プログラムの推進などを合意)**
- 3月 3.1集会「地域と共に歩む信仰共同体大韓聖公会分かち合いの家10年から学ぶこと」  
香山洋人(3/5大阪聖愛教会)(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22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神の寄留者とその教会」(関東3教区)  
韓国・済州島ヨンドンハルマンジェ旅行開催(聖公会生野センター)  
ソウル大聖堂主任司祭の金根祥(キム・グンサン)神父と信徒16名が東京教区のアンデレ教会訪問、交流
- 4月 大韓聖公会分かち合いの家協議会インターン研修(聖公会生野センター)
- 6月 金大中大統領平壤訪問。初の南北首脳会談開かれる  
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による教科書採択を巡り日韓で教科書問題おこる
- 8月 **第6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ソウル、南楊州教会、江華島)**「共に歩もうこの道を」  
バングラデシュからの出稼ぎ労働者との交流。ハンセン病定着村での学びと交流
- 9月 9.1講演会「憎しみ偏見を溶かす人たち・固める人たち石原都知事『三国人』発言を問う」朴慶南(パク・キョンナム)(9/9聖公会生野センター、9/10奈良キリスト教会)(聖

- 한국 제주도 용동할망제 여행 개최(성공회이쿠노센타)  
 서울대성당 주임사제 김근상 신부와 신도16명 동경교구 안드레교회 방문 교류(3.28-4.1)
- 4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인턴쉽 여행(성공회이쿠노센타)
- 6월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첫 남북수뇌회담 열림
- 8월 **제6회 한일청년교류(서울, 남양주교회, 강화도)**  
 주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방글라데쉬 이주노동자와의 교류, 한센병환자 정착촌에서 학습과 교류
- 9월 9.1 강연회 「미움과 편견을 녹이는 이들, 돌구는 이들 -이시하라도지사 『삼국인』 발언을 묻는다」 박경남, 9.9 성공회이쿠노센타, 9.10 나리기독교교회(성공회이쿠노센타)  
 제23회 일한 역사 학습회 「386세대가 말하는 일한의 오늘과 미래」(관동3교구)  
 부산교구 이향남 신부가 3년간의 오키나와교구 목회를 마치고 귀국
- 11월 한일성공회 신학회 총회 및 제2차 협의회가 일본 동경에서 한국측 16명, 일본측 23명 등 39명이 모인 가운데 「탈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회 직제의 전망」을 주제로 개최
- 12월 서울교구 유시경 신부 동경교구 파송, 릿쿄대학 교목 부임
- 2001년 1월 서울대성당 이건용 씨(현 예술종합학교 총장)가 동경성바우로교회에 거 주하며 6개월간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 일본 체류중 일본성공회를 위한 성가합창곡 「평화의 기도」, 「주의 기도」 작곡 봉헌
- 2월 서울교구 정윤식 신부 중부교구 파송, 나고야 성마태교회 부임
- 3월 제24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일한, 재일과의 만남」(관동3교구)
- 4월 김석범씨과 함께하는 제주도 4.3사건 유적지 여행(성공회이쿠노센타)  
 부산교구 성성종 신부, 박미현 부제 오키나와교구 파송 미하라교회부임
- 5월 요코하마교구 「카나가와현 재일한국조선인 유적을 찾는 여행」  
 교토교구 「이문화를 배운다-한국과 일본, 재일문화를 경험하는 모임」
- 7월 오오사카교구 일한역사연수여행 「어둠에서 빛으로 -마츠시로 지하호의 역사를 찾아」  
 요코하마교구 「재일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네트워크」 결성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생 일본연수(동경, 관서)
- 8월 **제7회 한한청년교류(요코하마, 카와사키, 동경)**  
 주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II」 코토부키 일용노동자 지역 견학, 카와사키에서 재일의 역사를 배우고 재일한국·조선인 청년들과 교류  
 릿쿄대학 제1회 한국캠프(8.7-16, 한국 강화, 서울) 「만남·배움·신앙」  
 을 주제로 한국 성공회대와 공동 주최  
 관구 일한협동위원회, 일본성공회 선교역사시리즈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일한 재일」 발행
- 9월 9.1 강연회 「중학교 역사교과서 문제로 일본사회가 요구받는 것」(성공회이쿠노센타)

- 公会生野センター)
- 第23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386世代が語る日韓の今日と明日」(関東3教区)
- 釜山教区李香南(イ・ヒャンナム)神父が3年間の沖縄教区での牧会を終えて帰国
- 11月 韓日聖公会神学会総会及び第2回協議会が東京で韓国側16名、日本側23名等、計39名が集まった中で「脱権威主義の社会の中での聖公会の職制と展望」を主題に開催
- 12月 ソウル教区、柳時京(ユ・シギョン)司祭を東京教区に派遣。立教大学のチャプレンとして赴任
- 2001年 1月 ソウル大聖堂李建鏞(イ・ゴニョン)氏(現芸術総合学校総長)東京聖パウロ教会に居住し6ヶ月の安息年を終えて帰国。滞在中、日本聖公会のための聖歌合唱曲「平和の祈り」「主の祈り」を作曲し、奉獻
- 2月 ソウル教区丁胤植(チョン・ユンシク)神父を中部教区に派遣。名古屋性マタイ教会に赴任
- 3月 第24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韓・在日の人々との出会い」(関東3教区)
- 4月 金石範(キム・ソクポム)さんと巡る済洲島4.3事件の跡地と今を巡る旅(聖公会生野センター)
- 釜山教区成成鐘(ソンソンジョン)神父、朴美賢(パクミヒョン)執事を沖縄教区に派遣。三原教会に赴任
- 5月 神奈川の在日者の足跡をたどるツアー(横浜教区)
- 「異文化を学ぶー韓国と日本、在日の文化に触れる集い」(京都教区)
- 7月 日韓歴史研修旅行「闇から光へ・・・マツシロ地下壕の歴史を歩く」(大阪教区)
- 聖公会生野センター横浜教区友の会解散
- 在日外国人と共に生きるネットワーク結成(横浜教区)
- 韓国聖公会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学生日本研修(東京・関西)
- 8月 **第7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横浜、川崎、東京)**「共に歩もうこの道をⅡー在日と寿町ー」。日雇いの町寿町での交流と学び。川崎での在日の歴史の学びと、在日青年との交流。
- 日韓協働委員会が日本聖公会宣教歴史シリーズ「こんにちは!アンニョンハセヨ!日韓在日」発行
- 立教大学第1回韓国キャンプ(江華島、ソウル)「出会い・学び・信仰」を主題に韓国聖公会大学との共同主催
- 9月 9.1 講演会「中学歴史教科書問題で日本社会が問われているもの」(聖公会生野センター)
- 第25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なぜ?教会なのに～日韓の歴史、在日の人権、教科書問題」(関東3教区)
- ソウルー東京の聖職者交流として金点来(キムジョンレ)神父、趙万植(チョマンシク)神父が東京訪問氏、研修。東京教区フェスティバルの礼拝で大韓聖公会のための祈りと旧約聖書を韓国語で奉読(金点来神父)、韓国語の礼拝式文を別途配布

- 제25회 일한 역사 학습회 「왜? 교회에서? - 일한 역사, 제일 인권, 교과서 문제」(관동3교구)  
 서울-동경 성직자 교류로 김점래 신부, 조만식 신부가 동경 방문 연수  
 동경교구페스티발 예배 중 대한성공회를 위해 기도하고 구약성서를 한국어로 낭독(방문중인 김점래 신부), 한국어예식문 별도 작성 배부
- 2002년 12월 12월  
 2월 2월  
 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 릿교소학교 성탄헌금 1,000,000원 서울 봉천동 나눔의 집에 봉헌  
 요코하마교구 이쿠노지역 현장연수  
 이쿠노센타 오광현 주사 한국 나눔의 집 사회선교사업 현황 시찰  
 제26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일본의 상식, 한국의 비상식」(관동3교구)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성공회 국제회의(서울)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실무자 관서 연수(성공회 이쿠노센타)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릿교대-성공회대 교류로 성공회대 직원 제1회 일본연수(동경, 오오사카)  
 서울교구 사회복지시설협회 실무자연수, 단장 김대원 신부 등 13명이 7.8-12간 동경교구 방문. 후카가와 노인시설 및 보육원, 타키노가와가쿠엔, 성디모데교회 포도의집, 성루가병원 등 견학
- 8월 8월  
 9월 9월
- 제8회 한일청년교류(서울) 종군위안부 나눔의 집, 성공회대학과 교류  
 릿교대학 제2회 한국캠프(8.19-28, 강화·서울) 「만남·배움·신앙」을 주제로 한국 성공회대와 공동 주최  
 코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평양 방문, 첫 북일 수뇌회담 개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표면화  
 제27회 일한 역사 학습회 「제일, 교육, 인권, 문화와 노래, 이야기」(관동3교구)
- 10월 10월
- 자유의 집(노숙자지원시설) 실무자 연수(성공회이쿠노센타)  
 일본성공회 사회복지연맹 제45회 대회 서울에서 개최
- 2003년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4월 4월  
 7월 7월
- 릿교소학교 성탄헌금 1,000,000원 서울 삼양동 나눔의집에 봉헌  
 서울교구 성가수녀회 온수리 안나의집 헬레나수녀 동경 방문, 성공회 관련 노인복지시설 등 견학  
 노무현대통령 취임  
 제28회 일한 역사 학습회 「일·한·북한의 관계와 향후」(관동3교구)  
 서울교구 이민수 부제 동경교구 파송, 성바우로교회 부임  
 서울교구 은퇴사제 정연우 신부가 오오사카교구에서의 3년간 목회를 마치고 귀국  
 릿교대-성공회대 교류로 성공회대 직원 제2회 일본연수(7.14-19, 동경)  
 대전교구 예산교회 부설 신명유치원 이찬희李贊熙 신부와 교사2명, 자매결연을 맺은 동경교구 제성도유치원 방문 교류(7.28-31, 동경)  
 제일 한국인 교역자 모임(동경, 7.29-31) 일본성공회에서 목회중인 유시경, 임대빈, 정윤식, 이민수(이상 서울교구), 성성중, 박미현(이상 부산교구) 등 6명의 한국인교역자들을 초청, 관구에서 모임을 갖고 우노 수좌주교 등 관계자와의 간담과 정보교환, 가족 교류 등 실시. 한

- 2002年
- 12月 立教小学校クリスマス献金10万円をソウル教区奉天洞分かち合いの家に奉獻
  - 2月 生野地域現場研修(横浜教区)
  - 3月 吳光現主事分かち合いの家活動社会宣教事業視察(聖公会生野センター)  
第26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本の常識・韓国の非常識」(関東3教区)
  - 4月 東北アジアの平和と朝鮮半島平和統一のための聖公会国際会議(ソウル)
  - 5月 大韓聖公会分かち合いの家スタッフ関西研修(聖公会生野センター)
  - 6月 日韓共催の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開催
  - 7月 立教大―聖公会大の交流として聖公会大学職員第1回日本研修(東京・大阪)。ソウル教区社会福祉施設協会実務者研修。団長金大原(キム・デウオン)神父等13名が東京教区訪問深川老人施設及び保育園、滝乃川学園、聖テモテ教会ぶどうの家、聖ルカ病院等見学
  - 8月 **第8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ソウル)** 元従軍慰安婦の生活するナヌムの家訪問、聖公会大学での交流  
立教大学第2回韓国キャンプ(江華、ソウル)「出会い、学び、信仰」を主題に韓国聖公会大学と共同主催
  - 9月 小泉純一郎首相、平壤訪問。初の日朝首脳会談開催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発覚  
第27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在日・教育・人権・文化を歌い、語る」(関東3教区)
  - 10月 自由の家(野宿者支援機関)スタッフ研修(聖公会生野センター)  
聖公会社会福祉連盟第45回ソウル大会開催
  - 12月 立教小学校クリスマス献金10万円をソウルのサミヤンドン分かち合いの家に奉獻
- 2003年
- 1月 ソウル教区聖架修女会温水里(オンスリ)アンナの家ヘレナ修女東京訪問。聖公会関連老人福祉施設等見学
  - 2月 盧武鉉大統領就任  
第28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日韓朝のいままでとこれから」(関東3教区)
  - 4月 ソウル教区李民樹(リ・ミンス)執事東京教区派遣。聖パウロ教会赴任。  
ソウル教区引退司祭鄭淵優(チョン・ヨヌ)司祭が大阪教区での3年間の牧会を終えて帰国。
  - 7月 立教大―聖公会大の交流として聖公会大職員の第2回日本研修。  
大田教区礼山(イエサン)教会付設の信明幼稚園李賛熙(イ・チャニ)司祭と教師2名が姉妹血縁を結んだ東京教区諸聖徒幼稚園を訪問、交流。  
在日韓国人教役者の集い。日本聖公会で牧会中の柳時京(ユ・シギョン)、任大彬(イム・デビン)、丁胤植(チョン・ユンシク)、李民洙(リ・ミンス)、〔以上ソウル教区〕成成鐘(ソン・ソンジョン)、朴美賢(パク・ミヒョン)〔以上釜山教区〕等6名の韓国人教役者を招請、管区にて集まりを持ち宇野首座主教等関係者との懇談と情報交換、家族交流等を実施。韓国から韓日協同委員長金根祥(キム・クンサン)司祭、李貞浩(イ・ジョンホ)司祭が激励のため訪日。  
韓国聖公会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学生日本研修(大阪)



- 국에서 한일협동위원장 김근상 신부, 이정호 신부가 격려차 방일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생 일본연수(오오사카)
- 8월 제9회 한일청년교류(북해도) 주제 「인간·대지·나눔 - 북해도 개척과  
강제연행」 아이누의 역사와 강제연행 현장 방문, 북해도 동측 방문  
오오사카교구 「한국을 맛보자1. 음식문화를 통해」, 「한국을 맛보자  
2. 냉면」 연수회 개최  
한국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지휘:서울대성당 홍준철)이 성루가  
병원 성찬식에 참가 예배후미니콘서트 개최 및 교류(8.3)  
릿교대학 제3회 한국캠프(병천, 군산, 전주, 서울, 8.18-27) 「만남·  
배움·신앙」을 주제로 한국 성공회대와 공동 주최
- 9월 제29회 일한 역사 학습회 「무사시에 남은 한국조선의 역사를 찾아」(관  
동3교구)
- 11월 동경교구 제성도유치원 교사 2명 대전교구 신명유치원 방문(11.12-14)
- 2004년 2월 서울교구 온수리교회 석광훈 신부 와 신도 등 6명 동경 방문(2.12-16)
- 3월 동경교구 메지로교회 선교부, 서울교구 산본교회 이정호 신부를 초청  
하여 「전도의 기쁨」을 주제로 사순대제 연수 실시(3.27-29)
- 4월 한일협동위원회 합동회의, 후쿠오카 선교협동20주년대회 준비에 관한  
협의를(4.25-28, 동경)  
일본 관구, 북한 용천 열차폭발사고 부흥지원을 위해 한국 교무원에  
30만엔 송금
- 5월 릿교학원 창립130주년 기념예배에 자매결연교인 성공회대 총장 김성수  
주교 부처 초청(5.7-10, 동경)
- 7월 릿교대-성공회대 교류로 성공회대 직원 제3회 일본연수(7.26-30, 동  
경)
- 8월 제10회 한일청년교류(전주)  
릿교대학 제4회 한국캠프(강화, 서울, 8.10-19) 「만남·배움·신앙」  
을 주제로 한국 성공회대와 공동 주최
- 10월 한일성공회 선교협동20주년대회(10.18-21, 후쿠오카)

- 8月 第9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北海道）「人・大地・分ち合いー北海道開拓と強制連行ー」アイヌの歴史の学び、強制連行の地朱鞠内湖、道東を訪問  
研修会「韓国を味わうⅠ食文化を通じて」（大阪教区）  
研修会「韓国を味わうⅡ冷麺」（大阪教区）  
韓国合唱団「音楽がある村」（指揮：ソウル大聖堂洪俊喆（ホン・ジュンチョル）が聖ルカ病院聖餐式に参加。礼拝後ミニコンサート開催及び交流  
立教大学第3回韓国キャンプ（並川・群山・全州・ソウル）「出会い・学び・信仰」を主題に韓国聖公会大との共同主催
- 9月 第29回日韓の歴史を学ぶ会「武蔵野に残る韓国朝鮮の歴史をたどる」（関東3教区）
- 11月 東京教区諸聖徒幼稚園教師2名大田教区信明幼稚園訪問。
- 2004年 2月 ソウル教区温水里（オンスリ）教会石光勲（ソク・クァンフン）司祭と信徒等6名東京訪問。
- 3月 東京教区目白教会宣教部、ソウル教区山本（サンボン）教会李京浩（イ・キョンホ）司祭を招請し「伝道の喜び」を主題に大斎節の研修実施
- 4月 日韓協働委員会合同会議。福岡にて宣教協働20周年大会の準備に関する協議（東京）  
日本管区、北朝鮮の龍川列車爆発事故復興支援の為に韓国の教務院に30万円送金
- 5月 立教学院創立130周年記念礼拝で姉妹関係にある聖公会大学総長の金成洙（キム・ソンス）主教招請
- 7月 立教大学と聖公会大学の交流で聖公会大学職員の第3回日本研修実施
- 8月 第10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韓国・全州）  
立教大学第4回韓国キャンプ（江華・ソウル）「出会い・学び・信仰」を主題にして韓国の聖公会大学と共同主催
- 10月 日韓聖公会宣教協働20周年大会(10/18～21、福岡にて)



日韓聖公會宣敎協働 20周年大會歷史資料集  
(非売品)

發行人：植田仁太郎  
編集人：日韓聖公會宣敎協働 20周年大會文書作成委員會  
司祭佐々木庸、司祭野村潔、司祭前田良彦、司祭柳時京、吳光現、田中弘み  
(協力) 司祭任大彬、司祭香山洋人、司祭丁胤植、鈴木惠一、村上惠依子  
發行日：2004年10月18日

日本聖公會管区  
〒162-0805 東京都新宿区矢来町6-5  
電話 03-5228-3171 FAX 03-5228-3175

일한성공회선교협동20주년대회역사자료집  
(비매품)

발행인：우에다 진타로  
편집인：일한성공회선교협동20주년대회 문서작성위원회  
노무라기요시 신부, 마에다요시히코 신부, 사사키요 신부, 유시경 신부  
다나가에미, 오관형  
(협력) 가야마히로토 신부, 임대빈 신부, 정윤식 신부,  
무락카미케이고 스즈키케이이치,  
발행일：2004년 10월 18일 발행  
일본성공회 관구

162-0805 도쿄도신쥬쿠쿠야라이초65  
전화 03-5228-3171 팩스 03-5228-3175